

제50회 중앙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주제: 시대 정신과 한국어문학(2)

— 전쟁, 갈등, 문화충돌

일시: 2024년 2월 16일(금) 13:00~18:00

장소: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인문대학 2호관

108호, 2호관 210호, 2호관 105호, 1호관 105호

주최: 중앙어문학회,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단계 BK21사업팀

기획 발표

일시		발표 및 내용	사회자
회원등록 및 접수 (인문대학 2호관 108호)	12:30- 12:50	참가자 명부 서명	
개회식 (인문대학 2호관 108호)	13:00- 13:10	▶개회사 최강민 (우석대, 회장) ▶축사 남의현 (강원대 인문대학장)	고혜원 (중앙대)
기획주제 발표 (인문대학 2호관 108호)	13:20- 14:00	혐오표현의 국어학적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차별어, 차별 표현' 논의를 중심으로 ▶발표 최유숙 (중앙대) ▷토론 이래호 (강원대)	류찬열 (중앙대)
	14:00- 14:40	용 신화에 나타나는 갈등과 혼종 - <군웅본풀이>와 <삼두구미본풀이>에 나타나는 용신 ▶발표 강명주 (중앙대) ▷토론 김금숙 (상지대)	
	14:40- 15:20	박인환 전쟁시의 정념기호학적 연구 - 분노와 체념을 중심으로 ▶발표 김태경 (인하대) ▷토론 황선희 (중앙대)	정성미 (강원대)
	15:20- 16:00	튀르키예 거주 시리아 난민 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 사례 연구 - 서울여대 서비스 러닝을 중심으로 ▶발표 손다정 (서울여대) ▷토론 안예림 (중앙대)	
휴식	16:00- 16:20	휴식 및 분과별 이동	

자유 발표

일시		발표 및 내용	사회자
자유주제 발표 국어학 (인문대학 2호관 108호)	16:20- 17:00	의문형 간접인용 표현 '-나고'에 대한 일고찰 -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 발표 유영관 (강원대) ▷ 토론 윤경선 (한성대)	황희선 (중앙대)
	17:00- 17:40	한중 동형 한자어의 의미에 대한 n-gram 분석 ▶ 발표 임현열 (경성대) ▷ 토론 최 윤 (강원대)	
자유주제 발표 고전문학 (인문대학 1호관 105호)	16:20- 17:00	江湖時調의 '江湖'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드라마 <나쁜엄마>에 형상화된 '故郷'의 의미 연구 ▶ 발표 김지은 (남서울대) ▷ 토론 김성문 (중앙대)	신성환 (강원대)
	17:00- 17:40	TV 드라마 <악귀>에 나타난 '원귀 이야기'의 현대적 변용 양상과 의미 ▶ 발표 이채영 (동국대) ▷ 토론 진수현 (중앙대)	
자유주제 발표 현대문학 (인문대학 2호관 210호)	16:20- 17:00	기지촌 여성과 혼종 가족 서사 - 노라 옥자 켈러의 『여우소녀』와 하인즈 인수 펄들의 『고스트 브라더』를 중심으로 ▶ 발표 이정현 (한국외대) ▷ 토론 김예리 (강원대)	김성연 (세명대)
	17:00- 17:40	오정희의 「파로호」에 나타난 이주와 귀환의 경계 넘기 ▶ 발표 정진숙 (강원대) ▷ 토론 윤정엽 (강릉원주대)	

자유주제 발표 한국어교육학 (인문대학 2호관 105호)	16:20- 17:00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노력 연구 - 개인 교습 형태의 수업을 중심으로 ▶ 발표 이 경 (서울과기대) ▷ 토론 한하림 (극림한발대)	장문정 (성균관대)
	17:00- 17:40	인도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발전 방향 연구 - KF 글로벌 e-스쿨 프로그램의 한국어 글쓰기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 조운정 (동서울대) ▷ 토론 김보현 (가천대)	
연구윤리교육	17:40- 17:50	연구윤리교육(엄홍준 연구윤리위원장)	유형동 (한신대)
폐회	18:00-	폐회 후 만찬 장소 이동	

기획 발표

사회자 : 류찬열(중앙대)

- 발표 : 최유숙(중앙대) 9
혐오표현의 국어학적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차별어, 차별 표현’ 논의를 중심으로
- 토론 : 이래호(강원대)

- 발표 : 강명주(중앙대) 23
용 신화에 나타나는 갈등과 혼종
- <균웅본풀이>와 <삼두구미본풀이>에 나타나는 용신
- 토론 : 김금숙(상지대)

사회자 : 정성미(강원대)

- 발표 : 김태경(인하대) 33
박인환 전쟁시의 정념기호학적 연구
- 분노와 체념을 중심으로
- 토론 : 황선희(중앙대)

- 발표 : 손다정(서울여대) 51
튀르키예 거주 시리아 난민 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 사례 연구
- 서울여대 서비스 러닝을 중심으로
- 토론 : 안예림(중앙대)

혐오표현의 국어학적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차별어, 차별 표현’ 논의를 중심으로 -

최유숙(중앙대)

목차

1. 서론
2. 혐오표현 국어학적 논의의 대강: ‘차별어’, ‘차별표현’, ‘차별언어’
3. 국어학적 논의의 검토: 용어와 대상, 원인과 해결 방안
4. 결론

1. 서론

본고에서는 대체로 혐오표현으로 분류되는 표현들의 국어학적 논의¹⁾ 양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²⁾ 혐오표현은 ‘Hate Speech’의 번역어로서 ‘적의적 표현, 증오 표현, 혐오 및 차별적 표현 등으로 번역되어 왔고 이 번역어들에는 혐오표현 논의가 다루는 대상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이 분야의 연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어 온 맥락을 고려하면 혐오표현은 ‘소수자 집단에 대하여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하거나 멸시, 모욕, 위협하거나 차별·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로서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언어적 행위’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³⁾ 이 정의에서 보듯 혐오표현은 단계의 구별이 가능하며 실제로 법학 분야에서는 혐오표현 법적 규제 논의로 하여 이 단계적 구별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한국 내 혐오표현 논의 대중화에 기여한 바가 큰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는 이른바 혐오의 피라미드를 다음 <그림 1> 같이 소개하고 있다.⁴⁾ 혐오 피라미드 중 두 번째가 ‘혐오표현’의 단계로,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태도, 편견을 말과 글로 드러내면 혐오표현이 되는 것이다.

1) 여기에서 ‘국어학적 논의’라 함은 KCI 분류 기준으로 ‘한국어와 문학’, ‘언어학’, ‘사전학’, ‘기타인문학’의 하위범주에서, 주로 국어학 기반의 연구자가 진행한 연구를 검토하였음을 밝혀 둔다.
 2) 이것은 그간 본 연구자가 진행해 온 일련의 혐오표현 논의에서 국어학의 논의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주로 교양교육의 범주 내에서 문제로 다루다 보니 사회과학적 논의에 치중해 온 면이 있다. 이른바 ‘혐오의 시대’라 일컬어졌던 저간의 사정에 연유하였기도 하거니와 연구자가 교양교육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더 큰 이유였음을 밝혀 둔다. 또한 용어 사용상의 차이가 일부 있기는 하나 기존의 ‘혐오 표현’ 논의와 국어학에서 다루는 ‘차별 표현’ 논의가 본질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최유숙(2021), 미디어상의 혐오표현과 해결방안으로서의 대응표현 연구, 교양학연구 15, 288쪽
 4) 홍성수(2019), 혐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혐오에 관한 법과 정책, 법학연구, 30(2), 196쪽



<그림 1> 혐오의 단계

이러한 혐오표현은 다시 다음과 같이 세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다.⁵⁾

유형	내용
1.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	외국인은 범죄위험이 높다거나 여성은 관리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스테레오타입이나 편견을 조장하여 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더 악화시키는 표현
2. 멸시, 모욕, 위협하는 표현	욕설이나 비하적 표현 등을 통해 소수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차별을 조장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3.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다수인에게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여 행동을 촉발시키는 표현

<표 1> 혐오표현의 세 유형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혐오표현이 국어학적 논의에서는 주로 차별어나 차별 표현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별표현 논의는 혐오표현 논의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것이 이를 혐오표현으로 부를 수 없음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⁶⁾ 그러나 지칭하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사회과학 일반에서와는 다른 용어가 사용되다 보니 개념상의 혼동과 사용상의 혼용이 보이기도 한다.

일부 국어학적 논의에서는 차별 표현을 “현대판 신경향의 욕설”이라며, “잠재적 모욕 유발성 표현(‘처녀, 총각’ 등)을 ‘불공정언어, 정치적 금기어, 정치적 순화 대상어’라 하고 이들 금기어의 대체 순화어를 ‘공정언어(PC언어)’라고 부르도록 한다.”라고 함으로써 차별 표현과 그 대체 표현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불공정언어’ 혹은 ‘차별어’,

5) 홍성수, 앞의 논문, 202쪽

6) 혐오표현이 한국 사회에 출현한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는 않으나 본격적 발흥은 대체로 2010년 일베의 등장 이후로 여겨지고 있다. 그로부터 열몇 해가 경과한 만큼 혐오표현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혐오표현의 개념과 특징, 여러 층위의 혐오표현의 양상을 다룬 연구가 언론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여성, 이주민, 다문화 대상의 논의가 다수를 차지한다. 법학 분야에서는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 여부와 가능성 등이 주로 다루어지므로 혐오표현의 개념과 강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차별 표현’으로 논의되는 것들은 <표 1>에서 1, 2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⁷⁾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차별표현은 혐오의 정도가 다른 혐오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 그야말로 ‘현대판 신경향 욕설’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에 국어학적 논의에서의 차별표현이 혐오표현이나 욕설과 다른 점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다음에서는 ‘혐오표현’, ‘차별어’, ‘차별 표현’, ‘차별 언어’ 등으로 검색된 연구들을 검토할 것이다.

2. 혐오표현 국어학적 논의의 대강: 혐오표현, 차별어, 차별 표현, 차별 언어

이들 논의의 검토를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혐오표현’ ‘차별어’, ‘차별 표현’, ‘차별 언어’ 등으로 검색한 결과 <표 2>와 같이 정리되었다. 이 목록은 혐오, 차별 표현 관련 국어학적 연구의 대강을 보이기 위함이다.⁸⁾

①	<p>한국어 차별 언어 연구의 몇 가지 문제 혐오 표현의 특징 및 변주 양상 차별 표현의 특징과 생성 요인 누리꾼들의 비의도적 차별 언어 사용 연구 언어 사전의 정보적 기능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소고 차별 언어 관련 유튜브 동영상의 비판적 검토 자율규제를 위한 혐오표현 등급화 방안 연구 국어사전의 차별 표현 기술에 대한 비판적 분석</p>
②	<p>《우리말샘》에서 드러나는 성차별적 양상에 대한 논의: 성별 관련 신어를 중심으로 북한 국어사전에 나타난 여성 차별어 분석- 남한 국어사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차별과 혐오 표현의 식별과 사전 활용의 쟁점 -메시저 대화 말뭉치를 중심으로- 한국어 사전에 나타난 성차별 언어 연구 차별·비하 표현의 국어사전 뜻풀이 메타언어에 대한 연구 한국어 교재에 표현된 사회적 차별 요소: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韓國語 教材의 國家 差別的 要素에 대한 點檢 -個體名 認識 基盤 國家名 分析과 同時 出現 單語 點檢을 中心으로- 한국어 교재의 성차별적 요소 연구 여성 대상화 표현 연구 한국 전래동화에 표현된 성차별 언어 남성혐오표현과 여성혐오표현의 상호작용 연구 - 반사형(反射型) 혐오표현을 중심으로 - 남성혐오표현의 유형과 사용 양상 공문서 평가를 위한 차별적·권위적 표현 목록 및 용례 구축 광고 속에 나타나는 인종차별주의 성향에 관한 분석 법률 조문의 차별적 언어 표현 연구 사회적 소통망(SNS)의 지역 차별 표현 언론 기사에 쓰인 장애인 차별 속담에 대한 비판적 접근 의미론 개론서에 나타난 여성 차별 언어 연구 직업 차별적 언어 사용과 인식에 대한 말뭉치 용례 연구 한국 속담에 나타난 장애인 차별 표현</p>
③	<p>AI 혐오표현 오분류 양상 분석 혐오와 대항: 혐오표현 탐지 모델 평가를 위한 대항표현 데이터셋 구축 성차별 언어와 대안어의 성격 -<서울시 성평등 언어 사전>(2018~2020)의 ‘성평등 단어’를 대상으로 -</p>

7) 민현식(2019), 금기어로서의 욕설과 공정언어(PC), 사회언어학 27(1), 47쪽

8) 지면의 제약을 고려하여 상세 서지사항은 생략하기로 한다(추가목록 포함한 참고문헌 목록을 참조).

신문기사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 지칭어 분석-지칭어와 관련어의 공기어를 중심으로-
차별적 언어 표현 연구-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새롭게 인식된 차별 표현을 중심으로
관용적 태도 함양을 위한 차별 표현 교육
성차별적 표현에 대한 언어인식 교육 방향 탐색
장애 차별 표현의 국어 교과서 제시 방안
차별 표현에 대한 국어교육 내용 연구

<표 2> 혐오표현, 차별어, 차별언어, 차별표현 연구의 대강(KCI 검색 결과)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표 2>의 ①은 관련 용어를 포함하여 혐오, 차별 표현 관련 연구를 조망할 수 있는 연구이다. 문제의 실태와 원인, 해결방안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연구로서 이들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②는 차별 표현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들이다. 북한사전을 포함하여 국어사전에서부터 개방형 사전, 한국어 교재, 속담, 동화책, 의미론 개론서, 광고, 기사문, 법률조문, 공공언어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상에서의 차별 표현이 보이며, 가장 많은 연구 목록에 등장하는 성별 관련 혐오 표현도 빠지지 않는다.⁹⁾ ③의 목록은 혐오, 차별 표현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분류 가능한 목록이다. 이들 연구에는 차별 표현의 해결을 위한 대안 표현이나 교육 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제 해결방안을 돕는 연구도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이 식별 가능한 혐오, 차별 표현과 그렇지 못한 표현에 대해서도 이어지는 논의가 있을 것이다.

3. 국어학적 논의 검토: 차별 표현 주요 연구의 검토

3.1. 용어와 대상의 문제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 표현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2006년 발간된 국립국어원의 연구보고서가 시작으로 보인다.¹⁰⁾ 이 보고서는 성, 신체, 인종·국적·지역, 직업·사회적 지위, 정보의 객관성 등의 기준으로 유형 분류하여 차별 표현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기준에 포함된 ‘정보의 객관성’이라는 기준이 의문시되기도 하나 차별 표현 관련한 연구에 있어 하나의 전형이 된 것은 틀림없다.

이어 2007년 이정복에서는 북한 국어사전의 여성 차별어를 분석이 진행되었다. 이후로 한국어 차별 언어 연구에 있어서의 독보적인 업적을 보이는데, 그간의 연구를 망라한 것으로 보이는 2014년의 저작 『한국 사회의 차별 언어』에서는 차별 언어의 유형을 ‘성차별, 인종 차별, 장애 차별, 지역 차별, 직업 차별, 종교 차별, 기타 차별’의 7가지로 나누고 기타 차별에는 ‘계층 차별, 나이 차별, 외모 차별, 성소수자 차별’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표현 형식의 수와 쓰임 정도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이후에도 사전, 속담, 유튜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2023년 발표된 논문에 차별 언어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여기에서 우선 주목할 것은 차별 언어의 대상이 소수자에 한정되는가의 문제로, “차별 표현’과 비슷하거나 관련이 있는 ‘혐오

9) 여기에는 ‘남성혐오표현’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혐오표현’이라고 할 때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 표현인 만큼 추후 논의가 뒤따를 것이다.

10) 조태린 외(2006), 차별적, 비개관적 언어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표현', '증오 표현', '비하 표현', '적대 표현' 가운데 '차별 표현'이 가장 포괄적 용어¹¹⁾라고 하였으나 이는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차별 표현에는 다른 사람을 낮잡아 보는 약한 의미 표현부터 함께 있기를 꺼리고 몹시 싫어하며 적으로 간주하여 죽이려는 적대적 태도를 드러내는 강한 의미 표현까지 모두 들어 있다.”¹²⁾라고 한바 이는 오히려 ‘혐오 표현’의 외연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혐오표현은 편견의 발로로서 모욕적 표현부터 적대적 표현까지를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혐오의 혐오 피라미드상 ‘차별’ 이전의 단계가 ‘혐오’라는 점은 ‘혐오’라는 감정이 ‘차별’이라는 행위에 이르도록 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혐오표현이라는 용어가 사회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는 마당에 같은 의미 범주를 상정하면서도 국어 연구에서만 별도로 ‘차별 표현’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다. 물론 국어학에서는 이전부터 ‘차별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불가피한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가능하다면 혐오표현을 사용하되 ‘혐오’라는 단어가 갖는 맥락을 충분히 설명해주는 편이 보편적 용어 사용이라는 면에서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혐오’가 감정이고 ‘차별’은 행위라는 점에서도 ‘표현’과의 연결을 고려하면 ‘혐오 표현’이 나은 선택이다.

또 한 가지는 차별이나 혐오 표현은 소수자든 다수자든, 강자든 약자든 누구에게나 쓸 수 있고 쓰이는 것이라고 강조한 점이다. “강자나 다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의 사용은 간접적, 방어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문제가 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태린을 인용하며 “최근의 차별적이고 적대적인 표현행위는 이제 더 이상 소수자 집단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지 않아 보인다”¹³⁾라고 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속하는 집단의 복수성과 다수자-소수자 관계의 복잡성은 그 표적 집단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 지점에서 ‘혐오 표현’이 아니라 ‘차별 표현’의 문제가 다시 드러나게 된다. 사회적 소수자는 지배 집단과 구별되어 차별적 대우를 받는 집단일진대 이들이 다수자를 차별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차별 표현의 표적 집단이 된다고 보는 것은 ‘차별 표현’을 단순히 ‘나쁜 말’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어쨌든 ‘나쁜 말’은 다 ‘차별 표현(혹은 혐오 표현)’이라는 것으로는 혐오로 인한 차별의 해결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소수자인)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라고 외칠 때 (다수자인) ‘백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혹은 ‘모든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흑인 혐오’의 유구한 역사는 지워지게 된다.

국어학적 연구들이 사회과학의 연구와 달리 ‘차별 표현’의 문제를 대체로 이렇게 보는 것은 권명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 문제를 ‘표현’의 문제로 보기 때문일 수도 있다.¹⁴⁾ 언어 표현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보자면 ‘나쁜 말’은 어쨌든 다 나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언어학’의 논의라면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의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차별 표현으로 인해 “관련 집단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는 부작용”이 있다면 ‘그러한 표현이 왜 문제인지를 밝힘으로써’ 문제의 근원을 찾게 하는 것이 사회언어학의 실천적 역할일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호남혐오가 문제라고 할 때 ‘호남혐오만이 아니라 영남혐오도 문제’이고 ‘어쨌든 지역혐오는 모두 문제’라고 한다면 뿌리 깊은 호남혐오의 해결과는 더욱 멀어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라면 ‘차별, 혐오 표현’의 범주는

11) 이정복(2023), 한국어 차별 언어 연구의 몇 가지 문제, 한말연구 64, 8쪽

12) 위의 글, 9쪽

13) 조태린(2018),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와 혐오표현의 문제, 《한중일 언어를 통해 본 삼국의 사회와 문화》, 한국문화사, 98쪽.

14) 권명아(2018), 한국과 일본에서의 반헤이트 스피치 운동과 이론에 대한 비교 고찰-차별의 역사적 구조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5, 540쪽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쁜 말’이라면 이미 욕설이나 비하 표현 등으로도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할 때 ‘백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거나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외치는 쪽은 대체로 소수자는 아니라는 점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 문제에서 ‘백인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차별 표현에 해당하는 불공정어를 민현식에서 ‘현대판 신경향 욕설’이라고 표현한 것은 보통의 ‘욕설’과는 다른 점이 있긴 하나 이 또한 욕설이라는 얘기이다. 백인이 실제적인 위협에 노출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혐오로 인해 흑인이 받는 차별이나 배제에 비할 바가 아님은 분명하고 흑인이 지배적 권력을 가짐으로써 백인 차별이 구조화된 사회라면 그때는 백인 혐오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차별 언어 또는 혐오 표현의 사용에서 성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실제 폭력에서도 마찬가지로라는 증언도 있다.”¹⁵⁾라는 문장은 눈을 의심케 한다.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가정폭력이나 여성 살해 기사만 보아도 남성에게 의한 폭력과 여성에게 의한 폭력을 같은 층위의 폭력으로 다룰 수 없음은 자명한데 “실제 폭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은 실상을 호도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 “남성들의 차별 언어 사용에 대항하기 위해 쓰는 여성들의 남성들에게 대한 차별 언어 사용도 폭력 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이는 소수자인 흑인이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외칠 때 ‘모든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표현이다. 모든 사람들은 “차별 언어 사용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누구나 소수자성을 갖는 부분이 있다는 자각에서라면 의미 있는 진술이겠으나 비소수자의 관점에서 소수자의 대항 표현을 막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차별 언어 연구가 단순히 언어 실태 기술을 넘어 사회적 실천으로서 의미 있기 위해서는 “자기 점검과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소수자의 대항 표현을 비소수자의 혐오표현과 대등한 층위로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강희숙에서는 국어학적 연구로는 흔치 않게 ‘혐오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혐오 표현’은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지녔다거나 자신을 포함하는 일정한 사회적 집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타자(other)라는 이유로 폄하하거나 반감을 갖고 혐오하며, 선동적이고 모욕적이며 위협적인 발언으로 적대적 공격을 일삼는 폭력적인 의사소통 방식”¹⁶⁾으로 정의되고 있다. 감정적 혐오에서 증오 선동까지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점에서는 사회과학에서의 혐오표현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혐오 표현의 대상 또는 범주만큼은 ‘사회적 소수자’와 ‘타자’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며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혐오 표현의 변주 양상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것과 ‘타자’에 대한 것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혐오 현상이 단순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사회적 범주에 속하는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타자화 현상으로 변주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¹⁷⁾이라는 것이 이유인데 이러한 구분 역시 ‘혐오’ 문제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소거하는 것이 되므로 문제라고 생각된다. 백인이 다수자인 사회에서 유색인 혐오는 차별적 대우뿐 아니라 실제적 위협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이지만 백인에 대한 ‘나쁜 말’로 백인이 같은 처지에 놓이지는 않을 것이다. 소수자와 비소수자 사이의 권력의 비대칭을 간과하고 순전히 ‘표현’으로서만 바라보게

15) 이정복, 앞의 글, 11~12쪽

16) 강희숙(2018), 혐오표현의 특징 및 변주 양상, 호남학 64, 41~42쪽

17) 위의 글, 61쪽

되면 이처럼 문제를 호도할 우려가 있다. ‘혐오’를 단순히 ‘미워하고 싫어함’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가진 개념으로 수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혐오 표현’을 다루는 것이 사회언어학의 본령에 더 부합하는 일이 아닐까 한다.

3.2. 차별 표현의 원인과 해결방안 논의

허재영에서는 차별어 연구의 역사와 더불어 표현의 생성 요인까지를 아우르고 있다. 여기서는 ‘차별어’라는 말이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상태의 말이라는 것이 주목을 끈다. 일본 사회언어학계에서 사용하던 이 말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일본에서처럼 학술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⁸⁾ 이 외에도 연구가 발표된 시기까지의 차별 표현 관련 연구와 논점들이 잘 정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차별 표현의 메커니즘을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차별 표현 연구에서 유의해야 할 점으로 “차별 표현의 개념과 속성, 특정 표현이 차별 표현으로 인식되는 요인 등을 분석하는 일”을 들고 있는데 이 중 ‘차별 표현으로 인식되는 요인’으로 언어적 차원에서 우열 관계를 전제로 하는 평가적 의미 자질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 점에서 차별 표현은 비속어 생성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결손, 낙후, 무능력, 비문화, 비전문, 종속’ 등의 자질이 포함될 경우 차별 표현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차별 표현으로 변화할 경우 차별받는 대상이 존재하고, 화자의 발화 의도가 뒤따르면서 형성되는데, 차별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할 경우 생성되는 언어 표현이라는 것이다.¹⁹⁾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속어나 차별 표현이 표현 자체에서 비속성이 차별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예컨대 ‘노인’의 경우, 자체의 의미자질보다 평가적 개념이 부가되면서 차별 표현으로 인식되고 현재 ‘어르신’으로 바꾸어 쓰고 있다).

다만 ‘발화 의도’가 없더라도 차별 표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발화자에게 차별하려는 ‘발화 의도’가 없거나 차별받는 사람에게 차별받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라면 차별 표현이 아닌 것이 되는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정복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비의도적 차별 언어 사용의 유형²⁰⁾을 1) 차별 의도 없이 오락적 기능이나 심리적 해방 기능으로 쓰는 것, 2) 본래의 지시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비유적으로 쓰는 것, 3) 해당 표현이 차별 언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쓰는 것 등으로 구분하여 보이고 있는데 “어떤 표현이 차별 언어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긍정적 맥락에서 썼더라도 청자나 제3자는 해당 표현의 부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표현이 가진 차별 의미를 널리 환기하는 점에서 차별 언어 사용의 근본적 문제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²¹⁾라고 보았다. 김지혜에서는 이를 ‘차별의 미인지’나 ‘사회적 의미 변화의 언어 표현 미반영’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역시 ‘비의도적 차별’로 볼 수 있다.²²⁾

비장애인이 장애와 관련 있는 단어를 일상에서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 경우도 역시 그러한 예이다. 특히 ‘자폐적’이라는 단어를 비유적으로 쓰는 일이 잦아 이를 다룬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²³⁾ 여기에서는 2019년부터 3년간 미디어의 ‘자폐적’ 용례를 분석하

18) 허재영(2016), 차별 표현의 특징과 생성 요인, 사회언어학 24(3), 380쪽

19) 허재영, 앞의 글, 394쪽

20) 이정복(2016), 누리꾼들의 비의도적 차별 언어 사용 연구, 사회언어학 24(3), 352쪽

21) 위의 글, 354

22) 김지혜(2022), 차별적 언어 표현 연구-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새롭게 인식된 차별 표현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12, 5-37쪽

여, 한국 사회에서 최근 ‘자폐적’이 자폐인을 조롱하기보다 개인이나 집단을 깎아내리는 데 활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자폐인의 대안어로 ‘신경다양인’을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차별 표현은 생성은 차별의 ‘발화 의도’가 없거나 차별받는 사람에게 차별받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에라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비의도적 차별 표현’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것도 바로 이런 유의 차별 표현이기 때문이다.²⁴⁾

차별 표현의 해결 방안으로는 주로 단어 수준에서의 대안어가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는데 2022년 서울시의 ‘성평등 단어’를 다룬 김소영에서는 대안어를 제시하는 데서 나아가 대안어가 차별적인 성격을 어떤 방식으로 제거하는지, 대안어를 선정할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까지도 살펴보고 있어 의미가 있다.²⁵⁾ ‘미혼’의 대안어 ‘비혼’의 의미변화 문제와 ‘저출산’의 대안어 ‘저출생’이 ‘저출산’을 완전히 대체 가능한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비혼’에서처럼 대안어에서도 의미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과 ‘저출생’과 ‘저출산’의 경우처럼 학술적 의미가 다르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대안어를 위해 논의되어야 할 유의미한 문제들로 보인다.

이처럼 일상에서 사용되는 차별 표현의 대안어를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해결 이라면 사전 표제어나 풀이말 등의 개선은 즉각적인 효과 면에서는 덜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²⁶⁾ 이정복에서는 ‘현재의 쓰임이 없는 성차별적 표현, 다른 민족이나 나라의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 종교인들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표현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올림말에서 대폭 제외할 것’, ‘짜이 있는 표현들의 올림말 처리에서 성별 균형을 유지 할 것’, ‘차별 표현이 들어간 파생 표현 대신 대응 표현 또는 순화어를 올림말로 처리하고, 문제 표현을 참조 어휘로 제시할 것’ 등을 제안했다.²⁷⁾ 조태린에서는 이 논의에서의 몇 사례에 반론을 펴면서 표제어나 의미 기술 및 용례 제시 등에서 정보적 기능의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 하고 있다. 언어 현실의 반영이 사전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즉 일반 사전에서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언어 현실의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 쓰임이 있는 경우라면 삭제나 교체보다는 제시는 하되 윤리적 문제를 활용 정보나 참고 정보 등으로 추가하는 것이 낫다고 본 것이다.²⁸⁾

또한 말뭉치 구축, 인공지능 관련 연구 등의 ‘나쁜 말’ 문제 해결 과정에서 차별, 혐오 표현이 함께 다루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혐오, 차별 표현 외에도 욕설, 성적 표현, 공격적 표현 등의 모든 나쁜 말을 ‘비윤리적 표현’으로 처리하고 있기도 하다.²⁹⁾ 비윤리성의 민감도는 단어 수준 또는 사전 정보만으로는 식별될 수 없으므로 사용역과 맥락을 고려한 유형 분류와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신행에서도 악플 탐지용 인공지능 ‘클린봇’이 판별한 혐오표현의 유형을 분석하고 있는데 악플 탐지용 인공지능이 “악의적이고 차별적, 비하적 표현을 포함한 댓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이를 걸러냄으로써 온라인 혐오의 생산과 확산을 방지하

23) 윤은호(2023), ‘자폐적’ 용어에 대한 연구, 문화교류와다문화교육 23(3), 373-395쪽

24) 한지혜 기자, 함세웅 신부 “방울 달린 文·이낙연, 여성 하나보다 못 하다”, 중앙일보 23.11.30.

이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전 여성 장관에 대한 추켜세움이겠으나 남성은 마땅히 여성보다 나아가 한다는 편견을 드러냄으로써 여성혐오라는 비판을 받았다.

25) 김소영(2022), 성차별 언어와 대안어의 성격-〈서울시 성평등 언어 사전〉(2018~2020)의 ‘성평등 단어’를 대상으로-, 한국학연구 64, 287~311쪽

26) 예를 들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랑’의 뜻풀이가 2012년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한국 사회의 성 소수자 혐오가 지금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한다.

27) 이정복(2017), 이정복(2017), 국어사전의 차별 표현 기술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배달말 61

28) 조태린(2019), 언어사전의 정보적 기능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소고, 한국사전학 34, 105-126쪽

29) 남길임 고예림 송현주(2022), 사용역에 따른 비윤리적 표현의 분포와 사용 양상 연구, 사회언어학 30(3), 91-119쪽

기 위한 수단으로 기대받고 있다.”³⁰⁾라고 하였으나 기대만큼 혐오표현을 잘 탐지하고 있지는 못한 듯하다.

이신행에서의 결과를 좀더 살펴보면 악플 탐지용 인공지능은 혐오표현으로 분류된 댓글 대다수를 악플로 판별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인다. 즉 단순욕설이나 라벨링 등은 악플로 판별하지만 스테레오타이핑, 조롱하기 등에서는 판별을 잘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클린봇’이 악플로 판별했지만 인간 코더는 혐오댓글로 분류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인간이라면 그러지 않겠지만 클린봇은 ‘대항표현’을 악플로 분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소수자들의 언어로 구축한 데이터셋은 대항표현 생성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사용 가능한데 이를 사용하면 혐오표현을 삭제하는 방향만이 아니라, 혐오표현에 반박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향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³¹⁾ 표현의 검열과 삭제가 아니라 더 많은 표현으로 표현의 자유를 증진할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별 표현의 해결 방안으로 대안 표현이나 사전 올림말, 뜻풀이 등의 수정이 제안되기도 하였고, 인공지능을 돕는 말뭉치 구축으로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됨을 보았다. 다만 이 모두가 실질적 효력이 있는가는 다른 문제일 것이다.

4. 결론

이상으로 국어학적 연구에서의 차별 표현 관련한 주요 논의를 용어와 대상, 원인과 해결방안 순으로 검토해 보았다.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어학적 논의에서는 차별어, 차별표현 등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차별 표현의 대상은 성별, 장애, 인종, 연령, 외에 학력, 지역, 외모 등으로 다양하였다. 다만 국어학적 논의에서는 온라인 혐오표현에서라면 흔한 성소수자 관련 차별 표현은 논의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차별의 대상은 가시화된 대상이라야 하나 성소수자의 경우 일상에서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 관련 논의 역시 상대적으로 적다.

국어학적 논의에서는 혐오표현 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차별어, 차별 표현으로 논의되어 온 배경이 있으므로 이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차별 표현과 혐오 표현을 구분하여 혐오표현은 대체로 차별 표현에 비해 강도가 높은 증오표현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소수자뿐 아니라 다수자를 향한 ‘나쁜 말’도 차별 표현에 포함하고 있는 논의가 대부분으로 이는 ‘표현’이 주된 관심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혐오표현이 사회 일반에서는 더 널리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갖는 ‘혐오’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차별적 혐오 표현’ 정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차별 표현 발생의 주요한 상황은 발화자가 미인지 상태이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차별 표현은 성립하며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별 표현은 대체로 이렇게 발생하는 만큼 교육과 더불어 성찰과 각성도 필요하다. 그동안 차별 표현 문제의 해결에는 대안어가 가장 직접적인 해결 방안이 되어 왔고 실제 많은 성과도 있다. 사전 표제어나 사전 뜻풀이를 비차별적인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는 방안 등도 제안되었다. 인공지능 시대에

30) 이신행(2021), 편향적 인공지능-네이버의 악플 탐지용 인공지능 ‘클린봇’이 판별한 혐오표현의 유형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8(4)

31) 박하울 박현아 송상현(2022), 혐오와 대항-혐오표현 탐지 모델 평가를 위한 대항표현 데이터셋 구축, 담화와인지 29(2)

결맞게 인공지능이 차별, 혐오 표현을 판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 연구도 진행되었다. 다만 이 경우는 악성 댓글이 될 만한 모든 ‘나쁜 말’이 대상이 되었다. 소수자의 대항표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혐오표현으로 분류하는 인공지능에게는 소수자들의 대항표현 데이터셋 구축이 방안이 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항표현이 적극 권장될 필요가 있을 터이나 안타깝게도 국어학적 논의에서 이 부분을 찾지는 못하였다. 차별 표현에서는 대항표현도 같은 차별 표현의 범주로 다뤄지고 있어 해결방안으로 고려되기가 어려울 듯하다.

이전의 혐오표현 연구와 달리 ‘차별 표현’이라는 키워드로 국어학적 연구를 살펴본바 전자가 ‘혐오’에 방점이 있다면 후자는 ‘표현’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별 표현 논의가 사회언어학적 논의라고 한다면 국어학의 논의가 ‘사회’보다는 ‘언어’에 방점이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다. 다만 혐오는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비롯된다는 점, 이러한 혐오가 차별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점은 아쉽다. 편견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이의 해결은 결국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교육은 그것을 해야 한다.

<참고 문헌>

강희숙(2018), 혐오표현의 특징 및 변주 양상, 호남학 64

권명아(2018), 한국과 일본에서의 반헤이트 스피치 운동과 이론에 대한 비교 고찰-차별의 역사적 구조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5

김도희(2023), 정치인의 혐오표현 사용과 언론의 보도 태도 연구, 고려대석사논문

김소영(2022), 성차별 언어와 대안어의 성격-<서울시 성평등 언어 사전>(2018~2020)의 '성평등 단어'를 대상으로-, 한국학연구 64

김지혜(2017), 모욕적 표현과 사회적 차별의 구조, 법과사회 55

김지혜(2019),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김혜숙(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13(1)

남길임·고예림·송현주(2022), 사용역에 따른 비윤리적 표현의 분포와 사용 양상 연구, 사회언어학 30(3)

민현식(2019), 금기어로서의 욕설과 공정언어(PC), 사회언어학 27(1)

박대아(2018), 남성혐오표현의 유형과 사용 양상, 우리어문연구 62

박동근(2010), 공공언어의 차별적 표현에 차별 의식 연구, 입법정책 4(1)

박은하(2008), 텔레비전 광고에 나타난 성차이어와 성차별어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은하(2009), 한국 전래동화에 표현된 성차별 언어, 아시아여성연구 48(1)

박재현 외(2009),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지역 민족 인종에 대한 차별적 언어표현 개선 연구, 국립국어원

박하울·박현아·송상현(2022), 혐오와 대항-혐오표현 탐지 모델 평가를 위한 대항표현 데이터셋 구축, 담화와인지 29(2),

박혜경(2009),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비판적 국어인식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송현주(2021), 차별 표현에 대한 국어교육 내용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53

양혜승(2018), 포털과 지역혐오-네이버 범죄뉴스의 지역혐오댓글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언론학보 62(6)

윤은호(2023), '자폐적' 용어에 대한 연구, 문화교류와다문화교육 23(3)

이신행(2021), 편향적 인공지능-네이버의 악플 탐지용 인공지능 '클린봇'이 판별한 혐오표현의 유형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8(4)

이정복(2014), 한국 사회의 차별 언어, 소통

이정복(2016), 누리꾼들의 비의도적 차별 언어 사용 연구, 사회언어학 24(3)

이정복(2017), 국어사전의 차별 표현 기술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배달말 61

이정복(2023), 차별 언어 관련 유튜브 동영상의 비판적 검토, 한말연구 64(13)

이정복(2023), 한국어 차별 언어 연구의 몇 가지 문제, 한말연구 64

이준일(2014),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고려법학 72

조태린 외(2006), 차별적, 비관적 언어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조태린(2018),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와 혐오표현의 문제, 《한중일 언어를 통해 본 삼국의 사회와 문화》, 한국문화사

조태린(2019), 언어사전의 정보적 기능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소고, 한국사전학 34

최광민·추승민·정유남(2023), AI 혐오표현 오분류 양상 분석, 인공지능인문학 13

최유숙(2018), 대학생 커뮤니티의 혐오표현 양상, 교양학연구 7

- 최유숙(2021), 미디어상의 혐오표현과 해결방안으로서의 대응표현 연구, 교양학연구 15
- 최인철 외(2022), 헤이트-왜 혐오의 역사는 반복될까, 마로니에북스
- 프라기야 아가왈(2021), 편견의 이유, 반니
- 한지혜 기자(2023), 함세웅 신부 “방울 달린 文·이낙연, 여성 하나보다 못 하다”, 중앙일보
23.11.30.
- 허재영(2016), 차별 표현의 특징과 생성 요인, 사회언어학 24(3)
- 홍성수(2018),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 홍성수(2019), 혐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혐오에 관한 법과 정책, 법학연구, 30(2)

<혐오표현의 국어학적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대한 토론문

이래호(강원대)

토론문은 별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용 신화에 나타나는 갈등과 혼종

- <군웅본풀이>와 <삼두구미본풀이>에 나타나는 용신 -

강명주(중앙대)

목차

1. 서론
2. <군웅본풀이>와 <삼두구미본풀이>에 나타나는 용신(龍神)
3. 용신(龍神) 서사에 내재된 갈등과 혼종의 의미
4. 결론

1. 서론

십이지(十二支) 가운데 유일하게 상상의 동물인 용(龍)은 실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 구체적인 형상이 그려지는 익숙한 존재다. 용소(龍沼), 계룡산(鷄龍山), 구룡포(九龍浦) 등의 지명을 비롯하여 각지의 사찰에는 용과 관련한 상징들이 존재하며 관련 설화를 비롯한 그림, 조각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묘사된 형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본초강목(本草綱目)』¹⁾에서 서술하는 ‘구사(九似)’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양한 동물들을 조합한 도상으로 그려지는데 사슴, 낙타, 이무기, 매, 호랑이, 소, 잉어, 뱀 등의 동물들의 장점을 모두 수용하였으며 그만큼 뛰어난 능력과 위용을 상징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강한 존재인 만큼 왕이 가지는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오며 신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용신(龍神)에 관한 초기 기록 역시 건국신화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서술된 <주몽신화>, <박혁거세신화>, <석탈해신화>에서 용은 제왕의 권위를 신성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특히 불교를 배경으로 나라를 수호하는 호국, 호법룡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재래의 수신신앙에 불교·도교의 용신이 습합되어 혼종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 일반적이다. 용 설화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민간신앙과 불교 사이의 갈등으로 보는 관점으로 전개되어 왔다.²⁾ 기존의 논의들은 문화적 충돌과 상호 습합과정을 용 설화와 연관하여 분석해 왔으며 꾸준히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대 인도의 토착신앙인 나가 신앙(那伽, Nāga)이 불교에 수용되고 중국을 통해(혹은 남방루트를 통한 직접 교역으로) 유교, 도교와 혼합되고,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전통적으로 존재

1) 『本草綱目』 鱗部, 龍 : 王符言 其形有九似 頭似駝 角似鹿 眼似兔 耳似牛 項似蛇 腹似蜃 鱗似鯉 瓜似鷹 掌似虎是也 其背有八十一鱗具九九陽數 其聲如戛銅盤 口旁有鬚鬣 頷下有明珠 喉下有逆鱗 頭上有博山 又名尺木 龍無尺木 不能昇天 呵氣成雲.

2) 이동철(2000), 「건국신화에 수용된 용의 의미」, 『한민족문화연구』7 ; 송봉호(2003), 「전통신앙과 불교의 대립에 관한 연구」, 『한국무속학』7 ; 전기웅(2010), 「<삼국유사> 설화 속의 용」, 『지역과 역사』27 ; 강진옥(2016), 「<삼국유사> 보양이목조 용궁삽화와 용자파견 화소의 서사적 실현과정 연구」, 『한국고전연구』34 ; 박다원(2016), 「<삼국유사>설화에 나타난 용의 양상과 그 의미」, 『국학연구논총』18 ; 표정옥(2023), 「<삼국유사> 속 용 서사에 나타난 문화충돌과 문화적 공존에 대한 고찰」, 『공존의 인간학』10

해왔던 수신 신앙과 혼합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중국이나 인도에서 용이 전래되기 이전부터 전통적인 '용'신격이 있었음은 용을 뜻하는 우리의 고유어('미르', '미르', '미리')가 존재했다는 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언각비(雅言覺非)』에 나타난 '話龍爲豫 미리 龍'이란 기록과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의 '미르'라는 기록이 있는데 어원을 미루어보면 '밀(물)'과 용을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 또한, 민가에서 이름에 '용(龍)'자가 들어간 지형지물에서 기우제를 지내거나 어민들은 바다신앙의 중요 대상으로 용을 숭배하여 항해와 풍어를 기원하는 제를 지낸다는 점을 미루어 용이 물의 원리를 표상⁴⁾하고 치수(治水)능력을 가진 수신(水神)을 상징해 왔음 알 수 있다. 다만 기록되어 전하는 서사들이 호국과 호법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간 용 서사에 관한 연구 역시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온 건국 신화나 사찰 관련 설화와 연관하여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신령으로의 '용신(龍神)'에 주목하여 민간에서 전승되어 온 본풀이를 텍스트로 분석하고자했다. 서사에 내재된 갈등과 혼종을 통해 신격의 다층위성을 살펴보고 용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것에 그 의미를 둔다.

2. <군웅본풀이>와 <삼두구미본풀이>에 나타나는 용신(龍神)

2.1 <군웅본풀이>

용신은 수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바다의 대표적 신격으로 숭배되는 존재다. 풍랑을 막고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해안권역에서 용왕굿이나 용신제를 지내는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대한 정보나 해신(海神)에 대한 신화를 찾기 쉽지 않다. 특히 건국신화에서는 하백이 등장하는 고구려 계통 신화 외에는 수신의 존재가 드러나 있지 않으며 대신 무속신화 속에서 용왕과 용궁이 종종 출현하지만 제의에서 용신과 관련된 독립 제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⁵⁾ 요왕(용왕)맞이에서 구송되는 <요왕체서본풀이(용왕차사본풀이)>도 일반적으로 구연되는 <차사본풀이>와 그 내용이 다르지 않으며 <요왕세경본풀이>역시 <세경본풀이>와 장소와 기능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이다. 또한, 채록된 용왕본 자료⁶⁾의 대부분 일반신 본풀이에 비해 길이가 짧고 구체적 형상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나마 용왕, 용왕부인, 동해용왕 따님아기 등이 등장하고 동해용왕과 서해용왕이 싸우는 설정도 있는 대표적인 신화는 <군웅본풀이>다.⁷⁾ 군웅은 '軍雄'으로 주로 표기되지만 수호신의 직능을 가져 '群雄'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그 내력이 용신에서 기원한다.

<군웅본풀이>는 교술무가로 구송되는데 1937년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와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가 채록하고 발간한 『조선무속의 연구(上)』 중 박봉춘 구연의 <군웅본풀이(軍雄本解)>

3) 송봉호(2003), 앞의 논문, 70쪽. (서정범(1974), 「미르(龍)語를 通어해서 본 龍宮思想」, 『논문집』8, 어강석(2017), 「용과 용왕의 거리와 수신 '약(若)'의 존재」, 『국제어문』74 등의 논문에서 용의 고유어와 '물'의 연관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4) 용이 기상현상에서 기원했다고 보는 설 중 하나는 수권(water spouts)이라는 자연현상을 사례로 드는데 회오리바람이 강이나 하천, 바다의 물을 높이 감아올려 기둥처럼 뿜치는 현상을 보고 상상이 더해져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다. 주로 저기압의 적운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주위 해수가 흔들리면서 구름 사이로 긴 물체가 승천하는 것처럼 보여 '용솟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또한 용이 수신을 상징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5) 오세정(2012), 「한국신화에 나타난 바다의 의미」, 『韓國古典研究』26, 317~320쪽.

6) 진성기(2016),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민속원 참조

7) 허남춘(2016), 「제주 신화 속의 해양교류와 해양문화」, 『탐라문화』52, 16쪽.

만이 서사 구성을 갖춘 채 전해지는 유일본이다.⁸⁾ 박봉춘본을 바탕으로 내용에 대한 서사단락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서해용왕과의 싸움에서 당한 동해용왕의 아들이 나무꾼 왕장군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2. 왕장군이 바닷물이 무서워 갈 수 없다고하자 용자가 등에 업고 용궁으로 들어간다.
3. 동해용왕이 기뻐하여 왕장군이 다음날 서해용왕에게 활을 쏘아 도울 것을 정한다.
4. 동해용왕과 서해용왕이 싸움을 하고 왕장군이 약속에 따라 화살을 쏜다.
5. 서해용왕이 죽어 동해용왕이 상을 주려하자 용왕의 아들이 연갑을 가져가라고 알려준다.
6. 공으로 연갑을 받은 왕장군은 그 안에 들어있던 용녀와 부부가 된다.
7. 결혼 후 부자가 되어 삼형제를 낳고 용녀가 용궁으로 돌아간다.
8. 왕장군과 세 아들은 군웅을 차지하고 살게 된다.

용에게 의뢰를 받고 활을 쏘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용을 구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핵심 구조다. 이는 『삼국유사(三國遺事)』 진성여대왕 거타지조에 전해지는 설화와 『고려사(高麗史)』에 수록된 작제건 설화와 화소를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기에 처한 용을 구해 복을 받는다’는 화소가 거타지, 작제건, 나아가 군웅신 이야기를 통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⁹⁾ 거타지와 작제건 이야기의 선후는 확정할 수 없지만, <군농본푸리>는 그보다 후대의 것으로 두 설화를 모본으로 영향을 받아 재창작 된 것이다.¹⁰⁾ 두 설화는 인간이 용을 도와 여우를 퇴치하는데 늑은 여우는 사미, 즉 불교의 승려를 가장하여 다라니를 외우고 용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불교가 민간의 수신이었던 용신 신앙을 흡수해가면서 용은 교회되거나 퇴치되거나 습합되었다. 이 때 불교와 용이 대결하는 경우, 용은 불교적 선악 개념에 의하여 악룡(惡龍)이나 독룡(毒龍)으로 여겨지고 승려가 교화하거나 퇴치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되었다. 하지만 두 설화에서는 오히려 승려가 늑은 여우로 변하여 죽고 인간의 도움을 받은 용이 승리한다. 이는 사회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신라 말 시기에 지방에 이르면 불교의 위력이 철저히 약해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거타지와 작제건의 설화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사회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시기를 반영하고 있다. 다만 두 설화의 차이는 용과의 관계 맺기에서 나타난다.

용왕을 구한 이후 거타지의 경우 보물을 탐내지 않고, 다만 용의 수호를 받아 공무를 수행한다. 반면 작제건의 경우 동방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조언을 얻어 여러 가지 보물을 용왕에게 직접 요구하여 받아낸다. 전자의 경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거타지라는 지방민을 중심으로 두고 화합을 통해 내부의 문제 해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용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호혜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 때 용은 거타지를 통해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거타지를 호위함으로써 그의 임무 수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즉 용의 능력이 대등하게 나타나며 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제건 설화에서 용은 그에 비해 부차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작제건 설화에서 중요한 것은 작제건의 임무 수행이 아닌 신분적 결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제건 설화에서 용은 작제건의 후손이

8) 류진옥(2023), 「제주도 조상신 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36쪽.

9) 조현설(2022), 「군웅신의 배치와 제주 무가의 지정학적 정체성: 박봉춘 본 <군농본푸리> 재론」, 『한국문학연구』68, 48쪽.

10) 그에 관해 서대석과 김현선 등의 선행연구들이 있다.(서대석(1968), 「敍事巫歌 研究—說話 . 小說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김현선(2006),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신화적 성격과 역사적 의의」, 『한국무속학』11 참조)

반드시 용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지만 작제건의 문제 혹은 임무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작제건에게 보은하는, 혹은 요구를 들어주는 다소 부차적인 존재로 나타나 연대의 측면은 사라지고 작제건의 영웅성, 신성성만이 부각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군농본풀리>는 후자와 더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주목할만한 차이는 불교 승려를 가장한 여우의 존재가 사라지고 오히려 협력관계였던 서해용왕이 적대자가 되는 변형이 발생한 점이다.

동해용왕하고 서해용왕이 싸움을 하는대
우리나라의 매양 싸움에 말이니/ 장군을 청하래 왔습니다
왕장군의 나는 새상에 무서운 것이 업되
바다물이 무서우다, 엇지 하면 가리요/ 저하고 갖치가면 되오리다 하고
왕장군을 업어서 물속으로 드러가니/ 바다물에 길이 나서, 용왕의 드러가다
동해용왕이 겁버하야 말하기를/ 내일은 서해용왕하고 싸움을 하리니
그 때에 나는 집것지는 모양을 하고/ 물 속으로 드러가면/ 서해용왕이 물 우에서 승새를 하리니
그 때란 살노 쏘와 죽이라 약속하고
뒷날은 접전의 이러나서/ 동해용왕의 말일 때에 물 속으로 드러가부니
서해용왕의 물우에서 승새할 때, 살노 죽여노니

동해용왕은 왕장군에게 서해용왕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상세히 알려준다. 왕장군이 활에 능하다고는 하나, 용왕이 인간을 직접 찾아가 부탁하고 인간의 화살에 용왕이 쉽게 죽는다는 점은 용신의 권한이 축소 및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거타지 설화에 등장했던 서해용왕의 경우 ‘서해약(西海若)’으로 본인을 직접 소개한다. 이때 ‘약(若)’은 ‘불약(不若)’이라는 명칭으로 거북을 지칭하는 말인데¹¹⁾ 거북형상을 한 용신의 존재는 보다 민간신앙에 가까운 존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용’으로 대체되는 수신이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신앙되었으며, 외래의 용문화가 들어와 세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그 고유한 형상이 잊혀지고 전래된 용의 형상으로 대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¹²⁾는 논의와 관점을 같이한다. 서해용왕은 늙은 여우에게 당하다가 <군농본풀리>에 이르러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다. 거북 형상을 바탕으로 형성된 고유 수신 신앙이 사실상 완전히 힘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2.2 <삼두구미본풀이>

<삼두구미본풀이>는 특수본풀이 중 하나로 현용준이 해제한 『풍속무음』에 문정봉본이,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에 이춘자본이 채록되어 있다. 『풍속무음』에 수록된 것은 내용은 같지만 <버드남본>으로 전해지며 구전자료의 채록이 아니라고 보는 논의들이 존재하여 이춘자본으로 살펴볼 것이다. <삼두구미본풀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삼두구미’의 신격을 논하며 땅귀로 바라보거나¹³⁾ 시신을 먹는 괴물로 바라보거나¹⁴⁾ 무덤의 신으로 바라보거나¹⁵⁾

11) ‘若’의 의미는 어강석(2015), 「한문학적 관점으로 본 <구지가(龜旨歌)>의 재해석」, 『정신문화연구』 38; 어강석(2017), 「용(龍)과 용왕(龍王)의 거리와 수신(水神) ‘약(若)’의 존재」, 『국제어문』 74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12) 어강석(2017), 위의 논문, 29쪽.

13) 현승환(2009), 「제주도의 본풀이와 민담의 교섭양상: 삼두구미본을 중심으로」, 『耽羅文化』 35

‘악룡’으로 바라보는 관점¹⁶⁾이 존재하는데 본 논의에서는 ‘용’을 상징하던 것이 격화된 존재로 바라본다. 먼저 삼두구미본의 서사단락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터주나라 터주고을에 삼두구미라는 백발노인이 자신의 산에서 허락 없이 나무를 하는 나무꾼을 만난다.
2. 삼두구미가 나무꾼에게 증매를 하겠다며 나무꾼의 첫째딸을 데려온다.
3. 삼두구미가 자기 양쪽 다리를 먹으라고 하자 첫째딸이 이를 거부하여 죽임을 당한다.
4. 나무꾼의 둘째딸을 데려와 다리를 먹으라고 하니 둘째딸도 이를 거부하여 죽임을 당한다.
5. 나무꾼의 셋째딸을 데려와 다리를 먹으라고 한다.
6. 셋째딸은 삼두구미에게 말을 듣겠다고하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묻는다.
7. 삼두구미가 좋아하는 것은 자신의 다리를 먹는 사람이고 싫어하는 것은 날달걀과 동쪽으로 뺀 버드나무가지와 무쇠덩어리라고 답한다.
8. 삼두구미가 집을 비우자 셋째딸이 다리를 불에 구워 배에 감아둔다.
9. 삼두구미가 집으로 돌아와 다리를 불러 셋째딸의 배에서 소리나는 것을 확인한다.
10. 셋째딸이 삼두구미에게 달걀, 버드나무, 무쇠덩어리가 싫은 이유를 묻자 삼두구미는 달걀은 땅일을 물을 때 눈·코·입·귀가 없어서 모르겠다고 하고 버드나무는 맞으면 운신을 못하고 무쇠덩어리는 불에 타거나 변형되지 않아 조화를 부릴 수 없다고 답한다.
11. 셋째딸이 숨겨두었던 달걀, 버드나무, 무쇠를 꺼내자 삼두구미가 머리 셋에 꼬리 아홉인 모습으로 변신한다
12. 셋째 딸이 삼두구미를 공격하고 뼈만 남아있는 언니들을 집으로 가져와 시신을 매장한다.
13. 셋째 딸과 아버지는 버드나무가지를 준비하여 삼두구미를 때려죽이고 가루로 찢어 바람에 불어 날린다.

이 때 삼두구미가 싫어하는 것은 달걀, 버드나무, 무쇠덩어리인데 제주도에서는 이장할 때, 시신을 파낸 후 그 자리에 달걀을 묻고 버드나무 가지를 꽂고 땅값으로 동전을 묻으며 토신제에 날 것의 제물이 준비된다는 점, 직접 땅귀로 소개한다는 점에서 삼두구미를 토신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신호림과 유형동은 이에 대해 ‘삼두구미’를 본래 존재하던 토신의 신격이 아니라 지귀의 형상에 ‘삼두구미’의 기표가 덧씌워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삼두구미’의 정체를 용으로 파악한다.¹⁷⁾ 이는 <삼두구미본풀이>의 각 편에는 삼두구미가 등장하지 않으며¹⁸⁾ ‘삼두구미’는 <삼두구미본풀이>와 <용놀이>에서만 명명된다는 점에서 이는 신빙성 있는 전제로 보인다. 또한 삼두구미를 퇴치하는 도구인 ‘버드나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동쪽으로 뺀 버드나무는 신목으로 여신과 관련하여 등장하고 벽사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논의되어온 바 있다.¹⁹⁾ 버드나무는 생태특성상 물과 친연성이 있어 기우제와 관련된 기록에서도 그 화소가 사

14) 강권용(2002),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원천강본풀이>, <세민항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5) 김혜정(2017), 「<삼두구미본>에 나타난 신의 성격과 서사 형성 배경 고찰: 선악의 재정립 과정을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22, ; 이원영(2012), 「<삼두구미본>의 신화적 성격」

16) 신호림(2017), 「三頭九尾의 정체와 본풀이로의 수용과정 고찰」, 『한국무속학』34 ; 유형동(2023), 「<삼두구미본>형성에 관한 한 가설-<요술왕 이야기>를 단서로 삼아-」, 『무형문화연구』9

17) 고은영(2019), 「제주도 특수신본풀이의 성격과 의미-‘이곳과 저곳의 경계 넘어서기’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49~50쪽.

18) 문정봉본은 <버들남본>으로 지귀라고만 지칭하며 내용이 유사한 <와라진 귀신>과 <버드나무잎이 제일 무섭다>에서도 각각 와라진 귀신, 도깨비 같은 인물로만 서술되어 있다.

19) 이종주(1997), 「동북아시아의 성모 유희」, 『구비문학연구』4 ; 이수자(1995), 「설화에 나타난 버들잎

용된다. 병에 물을 채우고 버드나무 가지를 꽂았다거나, 항아리 속에 도마뱀을 넣고 버들가지로 항아리를 치면서 비를 기구하였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수신적 성격을 지나다보니 용과 관련된 설화에서도 버드나무의 화소를 찾을 수 있다. 작제건 설화에서 작제건이 용녀의 조언에 따라 용왕에게 ‘버드나무 지팡이’를 요구하고, 『삼국유사』 ‘혜통강룡(惠通降龍)’에서도 공주에게 병마를 주던 용이 혜통에게 쫓겨 돌아온 후 버드나무에 의탁한다. <삼두구미본풀이>에서는 버드나무로 삼두구미를 제거하는데 삼두구미는 사실 평소에 인간의 형상인 백발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얼른 / 곱졌단 버드낭가지영 / 독새기영 무싯덩어릴 / 내여놓명, / “영가님, 이거 미싱거 우짱?” / 흥여가난, / 삼두구민 겁이 나고 / 대가린 싯에 / 꼴랭인 아웁으로 뻥싯흥명 / 뚝 찰찰 흘치명 / “이이구! 이거 치와볼라 / 이거 재게 치와볼라.”

버드나무를 보고 땀을 흘릴 정도로 두려워하며 본모습인 삼두구미의 모습(악룡)으로 변하며 축출의 대상이 된다. 삼두구미가 변하는 순간은 결합에 실패할 때인데 위의 장면 역시 셋째 딸과의 결합에 성공한 줄로 알았다가 속았음을 알게 되어 변한 것이다. 이는 삼두구미가 인간과의 관계에 따라 악룡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삼두구미는 나무꾼에게 지참금을 겸한 재물을 안겨주고 처녀를 ‘산중 고대광실의 잘 사는 집 같은 높은 집’으로 데려간다. 첫째 딸에게도 처음에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다리를 먹도록 강요한다. 기괴한 요구이지만 스스로의 몸을 아내에게 내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자신의 육체를 나누어 먹음으로써 인간인 아내를 본인과 같은 신이한 능력을 지닌 비인간화 상태로 만들고자 함이다. 즉, 신앙과 숭배의 대상으로서의 자신의 신상(神像)을 남녀(또는 자웅)성별 차원에서 완전하게 구성하고자 하는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²⁰⁾ 약자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써 포용받고 싶었지만, 이에 실패하여 악룡으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용궁이나 바다에 터를 잡아야 하는 용신이 믿음을 얻지 못하고 산과 땅의 괴물로 변모하면서 퇴치의 대상이 된 것은 민간신앙이 탄압되는 과정에서 신격과 그 권한이 추락하게 된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를 지괴가 아닌 용신으로 보게 되면 기존의 용 서사에 대한 시각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3. 용신 서사에 내재된 갈등과 혼종의 의미

용은 초기네 고유 민간신앙으로 숭배를 받았지만, 불교의 도입으로 문화적 충돌을 겪으면서 혼종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신라시대 사해제(四海祭)와 고려시대의 사독제(四瀆祭), 조선시대의 각종 용신제(龍神祭)와 기우제(祈雨祭) 등 의식의 잔형에 의해 어느 정도 용신 신앙이 유지²¹⁾되었으나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소들과 결부되어 시대나 지역에 따른 상징과 의미에는 차이를 보인다. 즉 ‘용신’은 그 자체로 복합적이고 다층적 의미를 지닌 상징체인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정착과 확산 과정에서 한국에서의 용신은 대부분 불교적 관념으로

화소와 서사적 기능」, 『구비문학연구』2; 이윤희(2004), 「한국설화의 버드나무 상징성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 이원영(2012), 앞의 논문, 16쪽.

21) 국립민속박물관(2023), 『한국민속상징사전·辰』, 20쪽.

재해석 및 재배치되어 부처 아래 불법을 수호하는 ‘호국룡(護國龍)’ 또는 ‘호법룡(護法龍)’으로 그려졌다.²²⁾ 이는 인도의 힌두교 신화에서 나타나는 나가(Nāga)와 브리트라(Vrtra)의 서사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나가(Nāga)는 인도의 토착신으로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불교전래와 함께 용으로 한역된 존재다.²³⁾ 한국에서도 ‘나가’를 인도의 사신숭배(蛇神崇拜) 신앙에서 발생하여 불교와의 대립투쟁을 거쳐 불교의 호교자가 된 용신²⁴⁾으로 보고 있으며 뱀이 용이 될 수 있다는 관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브리트라(Vrtra)는 인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물인 『리그베다(Rigveda)』에 인드라신의 적으로 등장하는 초자연적 존재인데 뱀을 의미하는 ahi라는 명칭과 교차적으로 사용되며 ‘물을 둘러싸는 자’ 또는 ‘강을 둘러싸는 자’로 묘사된다²⁵⁾. 이는 아리아인들이 인도의 선주민을 무력으로 정복하는 과정에서 신격이 재편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토착신(뱀신)인 브리트라가 제압 및 살해당하고 나가는 숭배의 대상에서 조복의 대상이 되면서 신화적 위계가 재배치된 것이다.²⁶⁾ 박미라는 ‘문화적 전유’의 관점에서 외래의 선진 문화를 차용하다가 본래 토착 문화의 정체성이 혼동되거나 변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토착신인 ‘미르’가 잊혀진 채 여의주를 물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중국의 용이 된 것으로 논의²⁷⁾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용신(龍神)이 완전히 대체된 것은 아니지만 외래종교가 전래되면서 토착신인 수신(水神)의 권한이 축소 및 격하된 채 혼종적인 양상을 띠게 되면서 ‘신령(神靈)’으로의 모습보다 모호한 동물성(특히 뱀, 이무기류와 관련하여)이 부각된 것으로 본다. 역사적으로도 우리 문화권에서 용은 신성한 동물로 여겨져 왔고 주로 임금이나 영웅 담론과 결합되어 왔었다.²⁸⁾ 특히 초기용이 건국주의 혈통적 신성성을 강화하는데 사용된 만큼, 실패한 건국주의 경우 설화에 관계된 이물은 지렁이, 뱀, 이무기 등으로 그려진다. 견훤의 경우에도 정치적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백제 무왕의 이야기에 내재되어 있는 신화적 세계관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역사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지렁이 아닌 지렁이와 관계하여 견훤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술했듯이 용의 신격이 격하되면서 부차적 존재로 나타나거나 퇴출해야하는 악룡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토착신앙과 외래신앙이 습합하면서 용신은 혼종적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서사 안에 내재된 여러 갈등의 양상을 살필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용신(龍神)을 습합된 토착신으로 보고 신령이 되지 못한 채 격하되어 나타나는 두 편의 본풀이를 살펴보았다. <군웅본풀이>와 <삼두구미본풀이>에 나타나는 용은 설화를 삽입 서사로 하여 후대에 채록된 무가에 속한다. 두 본풀이 모두 용신이 퇴치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퇴치 대상의 용은 설화에서 주로 불교신앙과의 갈등에 교화되지 못하거나 인간에게

22) 송봉호(2003), 「신라시대 전통신앙과 불교의 갈등 양상: 독룡퇴치형 창사설화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5, 81쪽.

23) 강희정(2019), 「나가와 용: 원어, 번역어, 그리고 시각적 재현」, 『東洋美術史學』8, 38-39쪽.

24) 국립민속박물관(2023), 위의 책, 12쪽.

25) 류현정(2023), 「인도 서사시 전승 속 나가(nāga)의 역할에 대한 일고찰 - 『마하바라타 (Mahābhārata)』의 두 설화를 중심으로-」, 『불교연구』59, 15쪽.

26) 류현정(2023), 위의 논문, 18쪽.

27) 박미라(2023), 「한국 水神 신앙의 변천 -女神의 神格을 중심으로-」, 『월불교사상과 종교문화』95, 368쪽.

28) 표정옥(2023), 앞의 논문, 318쪽.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으로 나타난다. <군웅본풀이>에서 퇴치 대상이 된 용은 그에 해당하지 않고 용신간의 싸움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군웅본풀이>에서 서해용신은 동해용신에 의해 처치되는데 이는 용신의 다층위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용신이 군웅신의 족보를 신성화하기 위해 등장하면서도 설화에서의 모습보다 부차적 존재로 격하된 모습으로 나타나 인간을 중심으로 위계화가 다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두구미본풀이>에서 삼두구미의 정체에 대한 논의는 분분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격하된 용신으로 보았다. 삼두구미는 ‘괴(怪)’나 ‘귀(鬼)’의 모습에 가깝게 묘사되는데 그가 괴물의 모습으로 변할 때는 인간과의 결합에 실패했을 때이며 인간과 결합하기 위해 본인의 신체를 내어주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끝내 포용받지 못하고 상성인 버드나무가지에 의해 퇴치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용신 서사는 이처럼 다층성을 갖고 있으나 잊혀지고 타자화된 수신으로의 측면이 존재한다. 가령 수신이자 여신이었던 유화가 주몽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부여받는 부차적 존재가 된 것과 유사한 양상이다. 용 역시 계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용신의 상위신에는 용왕이 아닌 부처가 존재하게 되면서 위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후대 본풀이에까지 반영된 것이다. 이는 현대의 스토리텔링에도 이어져 재창작되는 용의 서사는 주로 물에 살던 이무기나 뱀 등의 존재가 통과의를 거쳐 승천하는 모습으로 주로 나타나거나 서양의 드래곤(dragon) 이미지와 혼재되거나 동물성이 강화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다. 신성화에 실패한 용신 서사의 이면을 살펴봄으로써 본래 용이 가진 의미를 재고해보고자하며 용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

<참고 문헌>

- 강권용(2002),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진옥(2016), 「<삼국유사> 보양이목조 용궁삽화와 용자파견 화소의 서사적 실현과정 연구」, 『한국고전연구』34
- 강희정(2019), 「나가와 용: 원어, 번역어, 그리고 시각적 재현」, 『東洋美術史學』8
- 고은영(2019), 「제주도 특수신본풀이의 성격과 의미-‘이곳과 저곳의 경계 넘어서기’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헌선(2006),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신화적 성격과 역사적 의의」, 『한국무속학』11
- 김혜정(2017), 「<삼두구미본>에 나타난 신의 성격과 서사 형성 배경 고찰: 선악의 재정립 과정을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22
- 류진옥(2023), 「제주도 조상신 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류현정(2023), 「인도 서사시 전승 속 나가(nāga)의 역할에 대한 일고찰 - 『마하바라타(Mahābhārata)』의 두 설화를 중심으로-」, 『불교연구』59
- 박다원(2016), 「<삼국유사>설화에 나타난 용의 양상과 그 의미」, 『국학연구논총』18
- 박미라(2023), 「한국 水神 신앙의 변천 -女神의 神格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95
- 서정범(1974), 「미르(龍)語를 通어해서 본 龍宮思想」, 『논문집』8
- 송봉호(2003), 「전통신앙과 불교의 대립에 관한 연구」, 『한국무속학』7
- (2003), 「신라시대 전통신앙과 불교의 갈등 양상: 독룡퇴치형 창사설화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5
- 신호림(2017), 「三頭九尾의 정체와 본풀이로의 수용과정 고찰」, 『한국무속학』34
- 어강석(2017), 「용과 용왕의 거리와 수신 ‘약(若)’의 존재」, 『국제어문』74
- 오세정(2012), 「한국신화에 나타난 바다의 의미」, 『韓國古典研究』26
- 유형동(2023), 「<삼두구미본>형성에 관한 한 가설-<요술왕 아아>를 단서로 삼아-」, 『무형문화연구』9
- 이동철(2000), 「건국신화에 수용된 용의 의미」, 『한민족문화연구』7
- 이원영(2012), 「<삼두구미본>의 신화적 성격」
- 이윤희(2004), 「한국설화의 버드나무 상징성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주(1997), 「동북아시아의 성모 유화」, 『구비문학연구』4 ; 이수자(1995), 「설화에 나타난 버들잎 화소와 서사적 기능」, 『구비문학연구』2
- 전기웅(2010), 「<삼국유사> 설화 속의 龍」, 『지역과 역사』27
- 조현설(2022), 「군웅신의 배치와 제주 무가의 지정학적 정체성: 박봉춘 본 <군농본푸리> 재론」, 『한국문학연구』68
- 진성기(2016),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민속원
- 표정옥(2023), 「<삼국유사> 속 용 서사에 나타난 문화충돌과 문화적 공존에 대한 고찰」, 『공존의 인간학』10
- 허남춘(2016), 「제주 신화 속의 해양교류와 해양문화」, 『탐라문화』52
- 현승환(2009), 「제주도의 본풀이와 민담의 교섭양상: 삼두구미본을 중심으로」, 『耽羅文化』35

<용 신화에 나타나는 갈등과 혼종 - <군웅본풀이>와 <삼두구미본풀이>에 나타나는 용신>에 대한 토론문

김금숙(상지대)

이 연구는 ‘용신(龍神)’과 관련하여 민간에서 전승되어 온 본풀이 텍스트를 분석하여 서사에 내재된 갈등과 혼종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 연구입니다. 용은 동아시아의 신화나 전설, 역사 기록 등에 자주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각 나라나 민족마다 나름의 용의 모습을 상상하고, 신앙화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중국 문헌의 기록을 보면 용은 여러 동물들의 장점을 모아 놓은 동물로서, 조화 능력도 무궁무진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용은 이러한 중국의 용에 불교적 요소가 가미되고 우리만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완성되었습니다. 물을 지배하는 수신으로 민간에서 신앙되어 왔고,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구비문학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물인 용과 관련된 민간전승을 분석하여 갈등과 혼종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 본 발표문을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학술대회 토론자의 소임 중 하나는 유의미한 토론의 장을 이끌어 발표문이 논문으로 완성되는 데 기여하는 것이겠지요. 이에 읽으면서 궁금했던 부분, 제안하고 싶은 것 등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문에서 용이 초기에는 고유의 민간신앙으로 숭배를 받았지만, 불교의 도입으로 문화적 충돌을 겪으면서 혼종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불교가 도입되기 이전 시기에 민간신앙에서 숭배되던 용신의 성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 고유의 용 신앙에서도 용은 다소 혼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물을 지배하는 수신으로서의 성격도 있고, 미래를 예시해 주는 성격도 있고, 육지에 사는 용도 있고 바다에 사는 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역사적으로도 우리 문화권에서 용을 신성한 동물로 여겨 왔다는 근거로 용이 임금이나 영웅 담론과 결합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훤, 백제 무왕 설화 등을 들어 실패한 건국 설화에 관계된 이물은 지렁이, 뱀 등으로 그려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화들은 발표자의 언급대로 불교가 들어오고 용 신앙이 혼종화되고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일들이어서, 우리 문화권에서 원래부터 용이 임금이나 영웅 담론과 관련이 깊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로서는 설득력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셋째, 발표문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표자께서 이후에도 논지를 더 상세화하고 다듬는 작업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3장 ‘용신 서사에 내재된 갈등과 혼종의 의미’ 부분은 체계화해서 잘 기술하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용 이야기들은 오랜 옛날 민간신앙 속 그 용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사회 환경에 따라 여러 요소들에 영향을 받으면서 혼종적 성격을 갖게 되고, 서사 역시 다층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발표문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불교의 전래와 함께 인도의 용의

관념, 특히 인도 원주민들의 사신숭배(蛇神崇拜) 신앙과 결합하여 불교의 호교자(護敎者)가 된 용의 모습이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2장에서 기술한 본풀이 텍스트 속 용신(龍神)의 모습과 관련을 지으면서 잘 나눠서 기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신 서사에 어떤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지, 혼종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등을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환 전쟁시의 정념기호학적 연구

- 분노와 체념을 중심으로 -

김태경(인하대)

목차

1. 서론
2. 전쟁 인지로 인한 '분노' 정념
3. '체념'을 일으키는 양태들
4. 결론

1. 서론

박인환(1926-1956)은 1946년 6월 20일 조선청년문학가협회 시부가 주최한 '예술의 밤'에 참여하여 시집 『순수시선』(팔월시회 청년문학가협회시부 발행)에 시 「단층(斷層)」을 발표하고 이를 낭독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¹⁾ 그는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성년이 되던 해 해방을 맞이하면서 극심한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겪었으며, 곧이어 동족상잔의 참담한 현장을 체험하였다. 그가 스스로 인식했듯이²⁾ 박인환은 격동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생애를 보낸 것이다.

전쟁 체험 세대인 박인환은 1951년 5월 육군 소속 종군 작가단으로 활동하였다. 초기 종군 작가단은 한국 전쟁 발발 직후 조영암, 구상, 박연희 등이 영등포 한강 대안 전투에 참전하면서 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대전으로 후퇴할 당시 문총구국단이 결성되어 대적(對敵), 대민(對民), 대군(對軍)의 정훈 사업을 펼쳤다. 그러다 1951년 5월 26일에 대구시의 '아담' 다방에서

1) 업동섭.염철에 의하면, 「단층」은 새롭게 발굴된 박인환의 최초 발표본이며, 『선시집』에 수록될 때, 「불행한 산송」으로 개제, 개작되었다.(업동섭.염철, 『박인환 문학전집 1-시』, 소명출판, 2015, 54쪽) 또, 「단층」이 발굴되기 전까지만 해도 박인환의 최초 발표작은 「거리」(『국제신보』, 1946.12)로 알려져 있었으나, 업동섭.염철은 「거리」의 발표 지면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지정보 왜곡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업동섭.염철.김낙현 엮음, 『박인환 문학전집 2-산문.번역』, 소명출판, 2020, 950-951쪽) 맹문재 역시, “『국제신문』의 전신인 『국제신보』는 1947년 9월 1일 『산업신문』이라는 제호로 창간되었다. 국제신보는 한국 전쟁 동안인 1950년 8월 19일 바꾼 제호이다. (중략)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박인환의 등단 연도, 등단 매체, 등단 작품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거리」를 등단작으로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1946년에 존재하지 않는 『국제신보』를 등단 매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등단 매체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었다.(맹문재 편, 『박인환 전집』, 실천문화사, 2007, 652-653쪽) 이에 박성준은, 「거리」 ‘국제신보 발표설’과 ‘자유신문 발표설’(강계순, 『아! 박인환』, 문학예술사, 1983, 34쪽)을 검토하고, 모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취재 과정에 따른 오기.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라 일축하였다. 또한 박인환이 “당대 동료 문인과 예술가, 편집.연론인들에게 자기 스스로 등단 사항을 정설로까지 여기게끔 ‘국제신보 발표설’을 그 스스로 언술했”으며 “여기서 이 모든 오해들이 비롯되고 재생산될 것이라고 추론”하였다.(박성준, 「박인환 최초 발표작에 관한 재론」, 『국어문학』 73, 국어문학회, 2020, 182쪽)

2) 박인환은 자신의 세대에 대해 “이 세대는 세계사가 그러한 것과 같이 참으로 기묘한 불안정한 년대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해 온 그 어떠한 시대보다 혼란하였으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이었다.”라고 기술한 바 있다.(박인환, 『한국전후문제시집』, 신구문화사, 1961, 332쪽)

정식으로 육군 중군 작가단을 결성한 것이다. 박인환은 여기에 일원으로 참여하여 1951년 여름에서 1952년 봄까지 서부 전선과 강원도 일대의 전쟁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쟁을 체험하게 된다.³⁾ 이에 영향을 받아, 전쟁의 참혹함과 이로 인해 촉발된 분노, 불안, 우울 등의 정서가 그의 작품에 가감없이 드러난다. 1950년대 전쟁 문학의 시대 한가운데에 박인환 시인이 위치하는 것이다.

박인환의 전쟁시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불안과 우울 의식⁴⁾, 현실 인식⁵⁾, 전쟁 체험⁶⁾, 죽음 의식⁷⁾, 실존 의식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댄디즘’이나 ‘진정성의 결여’라 칭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박인환의 문학세계는 1990년대 후반부터 재조명되면서 모더니즘에만 머물던 논의가 ‘비판적 리얼리즘’이나 ‘6.25 체험’, ‘현실인식’ 등 다각도로 진행되었

3) 김영철, 『박인환』,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52쪽 참고.

4) 최서윤, 「전후 반공주의와 시적 자유의 간극 - 박인환의 경우」, 『한국문학과예술』 46, 사단법인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3.

정애진, 「박인환 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장서란, 「박인환 시의 저항성 연구 - 능동적 허무주의와 새로운 도덕으로서의 멜랑콜리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95, 국제어문학회, 2022.

정애진, 「박인환 시 연구 : ‘희망’과 ‘불안’의 두 세계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3(11),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전병준, 「박인환 시의 멜랑콜리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0(1), 한국근대문학학회, 2019.

박지은, 「박인환 시의 불안, 죽음 의식과 이를 통한 시쓰기의 문제」, 『한국시학연구』 55, 한국시학회, 2018.

라기주, 「박인환 시에 나타난 불안의식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4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5.

성은주, 「한국 전후시의 불안의식 연구 : 박인환·김수영·전봉건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여태천, 「박인환 시에 나타난 언어적 불안과 부끄러움 -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2(2), 국제비교한국학회, 2014.

강계숙, 「‘불안’의 정동, 진리, 시대성: 박인환 시의 새로운 이해」, 『현대문학의 연구』 51, 한국문학연구회, 2013.

박슬기, 「박인환 시에서의 우울과 시간 의식」, 『한국시학연구』 33, 한국시학회, 2012.

김용희, 「전후 센터멘탈리즘의 전위와 미적 모더니티」, 『우리어문연구』 35, 우리어문학회, 2009.

5) 이재훈, 「박인환 시의 현실인식과 사상성 연구」, 『한국문예창작』 6(1), 한국문예창작학회, 2007.

박현수, 「전후 비극적 전망의 시적 성취-박인환론」, 『국제어문』 37, 국제어문학회, 2006.

홍성식, 「박인환 시의 현실의식과 탈색의 과정」, 『새국어교육』 73, 한국국어교육학회, 2006.

김은철, 「박인환 시의 현실과 시적 대응」, 『한민족어문학』 47, 한민족어문학학회, 2005.

김연철, 「박인환의 현실주의 시 연구」, 『관악어문연구』 21(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6.

6) 임수경, 「한국전쟁 체험 양상별 시인 연구 - 김수영, 신동엽, 박인환을 중심으로」, 『러터러시연구』 12(3), 한국리터러시학회, 2021.

김호성, 「박인환 시에 나타난 ‘체험’의 의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박민규, 「1950년대 전쟁 체험의 시적 양상과 주체의 문제」, 『우리문학연구』 60, 우리문학학회, 2018.

정유화, 「전쟁체험과 담론 주체의 존재방식 : 시론과 시의 관계를 중심으로 - 박인환론」, 『우리문학연구』 17, 우리문학학회, 2004.

김창평, 「박인환의 6.25 전후 작품 연구」, 『나랏말싸미』 12,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1997.

7) 박성현, 「한국 전후시의 죽음의식 연구 : 김중삼·박인환·전봉건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박하라, 「박인환 시에 나타난 ‘죽음’ 연구 - 들뢰즈의 시간 개념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65,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3.

허금주, 「박인환 시에 나타난 죽음의식 연구」, 『한국언어문화』 19, 한국언어문화학회, 2001.

8) 박연희, 「전후, 실존, 시면 표상 : 청년 모더니스트 박인환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4,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

이현원, 「박인환 시에 나타난 실존적 신(新) 관념 - 6.25 동란을 배경으로 창작된 시를 중심으로」, 『한국어문연구』 12, 한국어문연구학회, 1999.

다. 또한 전쟁 체험 세대로서의 박인환이 느낀 불안과 우울이 작품에 투영된 양상을 논의한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동안의 연구는 주체의 심리 분석에 있어 불안, 우울, 죽음 의식에 편향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시인이자 한 개인으로서 박인환이 느낀 감정 중에서도, 분노와 체념의 정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알기르다스 그레마스(Algirdas Julius Greimas, 1917~1992)와 자크 폰타뉴(Jacques Fontanille, 1948~)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정립된 ‘정념기호학’을 적용하고자 한다.⁹⁾

‘정념기호학(Sémiotique de Passions)’은 “‘정념(情念)’을 기호학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인데, ‘감정기호학’¹⁰⁾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정념은 강하고 지속적인 인간의 감정을 의미”¹¹⁾한다. 또 “이성과 대립적 관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합리적 속성을 지니고 있고, 인간의 육체에 귀속되어 있어, 격렬하게 느끼는 쾌감이나 고통이라고 정의”¹²⁾내리기도 한다.¹³⁾ 정념기호학은 “철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현상학, 미학, 윤리학의 분야에서 개념을 빌려 그 이론을 성립”¹⁴⁾하고 ‘기질적 차원(dimension thymique)’을 발전시킨 것이다.

정념기호학을 적용하여 시 텍스트를 분석할 경우, 주체가 느끼는 정념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박인환의 전쟁시를 정념기호학으로 분석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정념 주체가 지니게 된 분노와 체념의 표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그레마스가 「분노에 대하여」¹⁵⁾에서 정리한 어휘소적, 통합체적 기술을 중심으로 주체가 품고 있던 기대가 전쟁으로 인해 좌절됐을 때 나오는 불만족이 ‘분노’ 정념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밝히고 이러한 정념이 불안과 회의, 체념, 허무로 영역이 확대되는 과정을 탐색할 것이다. 3장에서는 분노의 일탈 형태로서의 ‘체념’ 정념이 일어나는 형태를 ‘정념 도식’에 적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로써 전쟁이 박인환이라는 한 인간이자 시인에게 미치는 갈등 및 분노와 체념

9) ‘정념기호학’을 적용하여 문학 텍스트를 분석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손주리, 「<나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의 정념기호학적 연구 : 분노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홍정표, 「프랑스 보들레르 시 <백조>의 정념과 담화 기호학적 분석」, 『기호학연구』 72, 한국기호학회, 2022.

-----, 「그레마스 기호학에서 정념 도식의 적용과 한계 - 이효석의 『화분』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24, 한국기호학회, 2008.

김미현, 「분노의 문학과 정념기호학 - 김사과의 『미나』를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44, 한국기호학회, 2015.

오은엽, 「이청준 <별레 이야기>에 나타난 분노의 정념과 서사적 상상력」, 『국제어문』 78, 국제어문학회, 2018.

-----,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정념의 기호학적 연구 - <금따는 콩밭>, <금>, <노다지>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47, 한중인문학회, 2015.

백승국, 「이문열의 소설 <詩人>의 정념 기호학적 분석」, 『한국학연구』 19,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10) 조창연·이주영, 『기호학과 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40쪽.

11) 상동.

12) 백선기, 「영화에서 표출된 정념의 기호와 그 함축적 의미-영화 2010<하녀>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28, 한국기호학회, 2010, 139쪽.

13) “‘감정(sentiment)’은 유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정동(情動)’, 즉 일시적으로 급격히 일어나는 감정의 규칙적이고 일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정서(emotion)’는 돌발적이고 급작스러운 반응 혹은 운동으로서 강력한 강도와 짧은 지속을 나타낸다. 그러나 ‘정념(passion)’은 인위적이고 지속적인 정서로, 강력한 정서라는 점에서는 정서와 비슷하지만 지성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조창연·이주영, 앞의 책, 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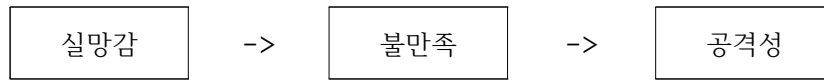
14) 홍정표, 『정념기호학-문학텍스트에 나타난 희로애락』,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4, 16쪽.

15) 그레마스가 1981년 『Documents de recherche』과 『1983년 의미에 관하여 II』에 수록한 분석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홍정표(위의 책)과 오은엽(앞의 논문, 2015)의 내용 분석을 참고하였다.

정념과의 관계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2. 전쟁 인지로 인한 ‘분노’ 정념

홍정표는 그레마스의 「분노에 대하여」를 참고하여 ‘분노’ 정념을 어휘적 차원의 방법론을 정립한 바 있다. 그는 ‘쁘띠 로베르’ 사전을 활용하여 ‘분노’를 “공격성을 동반한 격렬한 불만족”¹⁶⁾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정의에 사용된 어휘소 ‘불만족’의 사전적 정의를 “희망과 권리에서 실망한 참기 힘든 감정”으로 보았다. 이 두 정의를 참고하여 작성된 분노의 연속적인 시퀀스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분노 주체가 자신이 희망했던 삶과 이상에서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면, 실망감을 준 외적 계기는 분노의 시발적 상태를 형성하게 만든 원인이 되며, 이는 곧 주체의 기대감¹⁷⁾과 상반되는 지점에 있다 할 것이다. 모더니스트 박인환 시인은 중학 시절부터 예술가적 기질이 발동하여 시와 그림, 영화 등을 탐닉하였으며 자유로운 정신의 기질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작품에 서구 취향적 소재를 활용하고 도시적 감각이 다분히 드러나는 것에서 박인환이 모더니즘적 낭만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은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박인환을 포함하여 전쟁을 체험한 모두에게 실망과 불만족을 남겼다. 즉, 전쟁이 분노의 시발적 상태를 유발시킨 주범이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주체의 내면에는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가치 대상과 ‘연접’되지 못해 분노를 포함한 다양한 부정적 정념이 복합적으로 누적된다. 그리고 지속성(aspect duratif)의 관점에서 분노 정념은 씩씩함, 원통함, 불안, 우울 등의 정서 영역으로 확장된다. 박인환의 시 세계에 불안과 우울, 회의 등의 정념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분노에서 촉발된 것과 유관하다고 볼 수 있다.

저 묘지에서 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 파괴된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은 바다에서 연기처럼 꺼진 것은 무엇입니까.

16) 홍정표, 앞의 책, 56쪽.

17) 이것은 ‘단순 기대감’에 해당한다. 단순 기대감은 “주체가 가치 대상과 /연접이기를 원함 vouloir-être-conjoint/으로 표현될 수 있다.”(홍정표, 위의 책, 58쪽)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S_1/\text{원하다}/[S_2 \rightarrow S_1 \cap O_v] \quad (*S_1 : \text{상태 주체}, S_2 : \text{행위 주체}, O_v(\text{Objet de valeur}) : \text{가치 대상})$$

박인환이 지녔던 단순 기대감은 개인의 특수한 취향에 근거한 이상으로도 볼 수 있으나, ‘자유와 평화’라는 인간이 지닌 보편적인 이상으로도 인식해도 무방할 것이다.

인간의 내부에서 사멸된 것은 무엇입니까.

일 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뺏어 간 나의 친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슬픔 대신 나에게 죽음을 주시오.

인간을 대신하여 세상을 풍설로 뒤덮어 주시오.

건물과 창백한 묘지 있던 자리에

꽃이 피지 않도록.

하루의 일 년의 전쟁의 처참한 추억은

검은 신이여

그것은 당신의 주제일 것입니다.

— 「검은 신이여」 전문, (『전집』, 94-95쪽)

위 인용시의 기본 테마는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자의 분노와 절규이며, 작품의 내용을 분석하여 세 가지 층의 통사적 구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분노를 질문의 형태로 표현하며 검은 신과 이접된 상태
- 둘째, 절망적 상황에서 전하는 부정적인 두 개의 요구 사항
- 셋째, 신의 부조리한 행위로 인해 느끼는 회의와 체념의 정념 상태

분노의 ‘의식 상태’는 전쟁 때문에 ‘소중한 것을 상실’한 상태에 의해 성립되고, 주체와 연결(∩)되어야 할 가치대상과 이접(U)된 상황으로 발생한다. 인용시에서 정념 주체는 ‘검은 신’에게 6개의 질문을 던지며 분노를 표현한다. “저 묘지에서 우는 사람”과 “파괴된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 “전쟁이 뺏아 간 나의 친구”는 전쟁으로 인해 아픔을 겪어야 했던 사람에 대한 명명이다. 또 “검은 바다에서 연기처럼 꺼진 것”, “인간의 내부에서 사멸된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요소들에게 대한 부재를 부조하며 비판적 전언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일 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물음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도래하지 않으리라는 절망을 담은 수사적 의문이다.

이렇게 비판적인 상황에서 정념 주체는 ‘검은 신’에게 2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드러낸다. 그것은 ‘생(生)’이 아닌 ‘죽음’에 가까이 있으며 ‘인간’을 향한 믿음보다는 인간이 만든 폭압적 행위로 인한 불신에 닿아 있다. 박인환 시인은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 인간의 행복보다는 인간 존재의 파멸과 불행을 더 원하는 신의 또 다른 면을 발견”¹⁸⁾한 것이다. 그렇기에 신의 부조리한 행위를 목격한 주체는 공격성의 분노 정념에서 일탈의 형태로 회의와 체념을 표출하고 이를 근간으로 한 타나토스 충동을 여과 없이 그려낸다.

18) 이현원, 앞의 논문, 148쪽.

전쟁 상황에서 느끼는 분노 정념은 부동의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 사행(procès duratif)’으로서 반복적으로 느끼는 고통이며 이 불쾌한 정서는 다음 작품에서 허무라는 복합적인 정념을 향해 나아간다.

평범한 풍경 속으로
손을 뺀다면
거기서 길게 설레이는
문제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죽는 즐거움보다도
나는 살아나가는 괴로움에
그 문제 되는 것이
틀림없이 실재 되어 있고 또한 그것은
나와 내 그림자 속에
넘쳐흐르고 있는 것을 알았다.

이 암흑의 세상에 허다한 그것들이
산재되어 있고
나는 또한 어두움을 찾아 걸어갔다.

아침이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비밀이
내 피곤한 발걸음을 최촉催促하였고
세계의 낙원이었던
대학의 정문은
지금 총칼로 무장되었다.

목수꾼 정치가여
너의 얼굴은 황혼처럼 고옴다
옛날 그 이름 모르는 토지에 태어나
굴욕과 권태로운 영상에 속아가며
네가 바란 것은 무엇이었더냐

문제 되는 것
평범한 죽음 옆에서
한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나는 내 젊음의 절망과
이 처참이 이어 주는 생명과 함께
문제 되는 것만이
균집 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 「문제 되는 것 - 허무의 작가 김광주金光洲에게」 전문. (『전집』, 92-93쪽)

이 작품은 두 가지 상반되는 조건 속에서 느끼는, 주체의 분노라는 심적 상태를 반어와 역설적 표현으로 드러낸다.

첫째, 평범한 풍경이지만 암흑의 세상이라는 것

둘째, 황혼처럼 고운 정치가의 얼굴과 내 젊음의 절망이 대립된다는 것

인용시에서 주체는 “평범한 풍경 속으로 손을 뻗”는다. 그러나 그 풍경이 보여주는 현실은 평범한 것과 이접(U)된 상황이다. 세상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암흑의 세상’이고 “세계의 낙원이었던/ 대학의 정문은/ 지금 총칼로 무장되었”기 때문이다. ‘평범함’은 5연에서 ‘죽음’과 함께 한 번 더 쓰이고 있다. 죽음을 평범하다고 말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이 전혀 평범한 일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시에서 박인환 시인은 ‘평범함’을 반어적 표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체는 ‘죽는 즐거움’이 아닌 ‘살아가는 괴로움’이 ‘문제 되는 것’임을 토로한다. 전쟁 중에 살아있어 잘된 일일 것이나 그것이 괴로움으로 인식되고, 오히려 죽는 일이 즐거움이라 느끼는 분노와 체념의 복합적인 정념의 심적 상태는, 정념 주체가 심적으로 쇠약한 상태임에 대한 반증이다.

‘세계의 낙원’을 지향했을 주체가 전쟁을 통해 마주하게 된 절망과 불만족의 상태는 ‘목수꾼 정치가’에 대한 분노와 공격으로 향해간다. “황혼처럼 고”운 얼굴을 한 정치가에게 “굴욕과 권태로운 영상에 속아가며/ 네가 바란 것은 무엇이었”는지 묻는 것이다. 여기에는 절망과 허무가 스며 있다. 전쟁기를 살았던 세대가 지냈을 불안과 절망에 대해 “역사발전의 논리나 미래의 부정으로 점철되었던 그들의 의식이 내면적 필연성이 아닌 강요된 현실에서 온 것이라 할 경우, 그들의 부정적 절망의식은 이런 면에서 정당하다”고¹⁹⁾ 본 견해처럼, 박인환 시인이 전쟁기 시편에서 드러내는 분노와 절망은 허무주의로 나아가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주체∩전쟁 없는 행복한 삶(이상)’과 ‘주체∪전쟁 없는 행복한 삶(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결핍에 기인한다.

결핍의 인식 주체는 기질적 차원에서 /불쾌/와 /분노/라는 내포적 의미를 지니면서, 그 ‘괴로운 상태’를 다음과 같이 강한 공격성으로 표현한다.

나는 너희들이 매니페스토의 결함을 지적한다
그리고 모든 자본이 붕괴한 다음
태풍처럼 너희들을 휩쓸어 갈
위험성이
파장波長처럼 가까워진다는 것도

옛날 기사技師가 도주하였을 때
비행장에 굶은비가 내리고
모두 목메어 부른 노래는
밤의 말로末路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자본가여

19) 송기한, 「역사의 연속성과 그 문학사적 의미」, 『1950년대 문학 연구』, 예하, 1991, 171쪽.

새삼스럽게 문명을 말하지 말라
정신과 함께 태양이 도시를 떠난 오늘
허물어진 인간의 광장에는
비둘기 떼의 시체가 흩어져 있었다.

신작로를 바람처럼 굴러간
기체機體의 중축中軸은
어두운 외계 절벽 밑으로 떨어지고
조종자의 얇은 작업복이
하늘의 구름처럼 남아 있었다.

잃어버린 일월日月의 선명한 표정들
인간이 죽은 토지에서
타산치 말라
문명의 모습이 숨어 버린 황량한 밤
성안成案은
꿈의 호텔처럼 부서지고
생활과 질서의 신조信條에서 어긋난
최후의 방랑은 끝났다.

지금 옛날 촌락을 흘러보낸
슬픈 비는 내린다.

— 「자본가에게」 전문, (『전집』, 112-113쪽)

위 인용시는 전쟁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힌(terrorisé)’ 주체가 비-상태-의지(~이지 않기를 원하기)”²⁰⁾ 즉 ‘자본가’가 “인간이 죽은 토지에서/ 타산치 않기를 원하기”를 지향하며, 반자본주의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비판적 어조를 토대로 작품의 내용을 몇 가지 층위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가에게 문명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며 자본가와 이접된 상태
둘째, 성안이 부서지고 생활과 질서의 신조가 어긋난 상태
셋째, 인간과 문명이 죽은 토지에 슬픈 비가 내리는 상태

박인환 시 세계를 관통하는 반자본주의와 반시장주의적 태도는 위 인용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체는 자본가의 “매니페스토의 결함을 지적”하면서 “자본이 붕괴한 다음/ 태풍처럼 너희들을 휩쓸어 갈” 것이라고 엄포는 놓는다. 자본가에 대한 분노가 시의 초반후부터 끝까지 일관된 어조로 나타나는 것이다(주체U자본가). 그리고 그들을 향해 “새삼스럽게 문명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자본과 대립 관계에 있는 ‘정신’이 ‘태양’과 함께 사라진 ‘인간의 광장’에 “비둘기 떼의 시체가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성안은/ 꿈의 호텔처럼 부서지고/ 생활과 질서의 신조”도 이곳에서 어긋났다. 그러므로 인간과 문명이 죽은 토지 위에는 ‘슬픈

20) 알지르다스 J. 그레마스.자크 폰타뉴, 유기환.최용호.신정아 옮김, 『정념의 기호학』, 강, 2014, 10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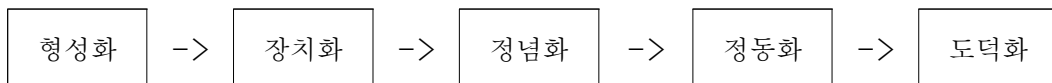
비'가 내린다. 이 작품에서 엿볼 수 있듯이 “세속적 자본주의에 대한 환멸과 혐오는 진보적 리얼리즘에서 멀어진 이후 한국전쟁기와 전후의 1950년대에서도 지속되면서 박인환 시세계의 배후”²¹⁾를 이룬다. 연결될 수 없는 자본-자본가라는 가치대상과의 대립은 주체의 분노 정념을 강화하고 시적 긴장을 형성한다. 분노 정념을 느끼는 주체는 종결되지 않는 전쟁과 가치 대상과의 대립 상황으로 불만족을 느끼고 슬픔으로 확대된다.

분노 정념은 전쟁 상황에 놓인 박인환 시인이 시 공간 안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감정이라 할 것이다. 이는 그가 상상하는 이상적 세계가 좌절되고 전쟁이라는 폭력 속에서 불만족의 감정이 극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전쟁이 공격성을 동반하는 분노라는 정념으로 표출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분노 정념이 박인환의 시 속에서 영역을 확대할 때, 불안이나 회의, 체념, 허무 등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체념’을 일으키는 양태들

정념기호학에서는 행위의 결과가 하나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어떤 감정이 생기면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 감정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게”²²⁾ 된다. 앞서 살펴봤듯이, 전쟁은 믿을 수 없는 살육 현장과 파괴 실상을 목격한 주체로 하여금 분노 정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거대한 폭압 앞에서 한 개인의 분노는 현실을 제압하거나 바꿀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었다. 그러므로 박인환의 시에서 분노 정념은 일탈 형태로서 죽음 충동을 동반한 회의와 체념 정념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번 장에서는 체념 정념의 양상을 ‘정념 도식’에 적용하고 탐색하고, 체념을 일으키는 양태를 찾아보고자 한다.

‘정념 도식’은 다음 표와 같이, 모두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²³⁾



정념도식 순서	내용
형성화 (constitution)	하나의 주체가 감각의 동요를 겪으면서 긴장 주체로 깨어나는 단계. (어떤 충격에 의해 심적 평정을 잃는 주체의 모습이 발견되는 단계, 이때부터 하나의 주체는 긴장 주체로 탈바꿈하게 된다.)
장치화 (disposition)	동요하는 이 긴장 주체가 자신의 불안한 상태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단계.
정념화 (pathémisation)	긴장 주체가 겪은 불안 또는 동요의 원인이 밝혀지고, 모든 의구심이 풀리는 단계. (정념적 변형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긴장 주체는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질투심을 일으키는, 말하자면, 심적 변화를 겪는 정념 주체로 변형된다.)

21) 박민규, 「문화, 교양, 자본 그리고 자유 - 초기 박인환의 이념적 모색과 시적 향방」, 『한민족문화연구』 61, 한민족문화연구, 2018.
 22) 알지르다스 J. 그레마스.자크 폰타뉴, 유기환.최용호.신정아 옮김, 앞의 책, 29쪽.
 23) 위의 책, 29-30쪽 참고.

정동화 (émotion)	정념으로 인해 생긴 신체적 반응, 즉 정념적 발현의 단계. (바로 이 단계에서 정념 주체는 하나의 신체를 지닌 주체, 신체적 주체, 하나의 신체로 발현된다. 정념화 단계에서 심적 변화가 발생한다면, 정동 단계에서는 신체적 변화가 일어난다.)
도덕화 (moralisation)	정념 행로에 대한 최종평가가 내려지는 단계. (좋음과 나쁨을 나누는 윤리적 또는 미학적인 판단에 해당함)

위 도식을 토대로 체념 정념이 드러나는 박인환의 시를 분석하면, 인식 주체(sujet connaissant)의 추상적인 내면세계를 표면에 드러낼 수 있다.

나와 나의 청순한 아래
여름날 순백한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유행품으로 화려한
상가의 쇼윈도를 바라보며 걸었다.

전쟁이 머물고
평온한 지평에서
모두의 단편적인 기억이
비둘기의 날개처럼 솟아나는 틈을 타서
우리는 내성內省과 회환에의 여행을 떠났다.

평범한 수확의 가을
겨울은 백합처럼 향기를 풍기고 온다
죽은 사람들은 싸늘한 흙 속에 묻히고
우리의 가족은 세 사람.

토르소의 그늘 밑에서
나의 불운한 편력인 일기책이 떨고
그 하나하나의 지면紙面은
음울한 회상의 지대로 날아갔다.

아 창백한 세상과 나의 생애에
종말이 오기 전에
나는 고독한 피로에서
빙화氷花처럼 잠든 지나간 세월을 위해
시를 써 본다.

그러나 창밖
암담한 상가
고통과 구토가 동결된 밤의 쇼윈도
그 곁에는

절망과 기아의 행렬이 밤을 새우고
 내일이 온다면
 이 정막靜寞의 거리에 폭풍이 분다.
 - 「세 사람의 가족」 전문, (『전집』, 116-117쪽)

표준 정념 도식 5단계에 따라, 위 인용시를 형성화, 장치화, 정념화, 정동화, 도덕화로 구분하여 탐색해 보면, 정념 도식의 행로 위에서 정념화된 주제(sujet passionné)의 불안정한 에너지 발견하게 된다.

정념 도식의 첫 단계인 형성화는 ‘주체가 감각의 동요를 겪으면서 긴장 주체로 깨어나는 단계’로 정념 행로의 출발점이 된다. 「세 사람의 가족」의 경우, 1, 2연이 형성화 단계에 해당한다. 주체는 1연에서 ‘순백의 결혼식’이라는 행복한 경험을 ‘주체∩행복한 일상(과거)’의 형태로 회상하고, 2연에서 과거와 ‘전쟁’이라는 ‘주체∪행복한 일상(현재)’과 대립되고 있음을 인식한다. 그리고 2연에서 장치화에 도달하면서, 전쟁이 머무는 동안 “내성과 회환에의 여행을 떠”나며 주체가 놓인 상황을 떠올린다. 3, 4연에 이르러 긴장 주체가 겪는 동요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된다.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싸늘한 흙 속에 묻히고” 주체는 “토르소의 그늘 밑에서/ 나의 불운한 편력인 일기책”이 떨고 있음을 발견하고, 일기책 “하나하나의 지면”이 “음울한 회상의 지대로 날아”가는 것을 느낀다. 그 결과, 주체는 5연에서 ‘고독한 피로’라는 신체적 변화를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감응적 불안정성(instabilité phorique)의 상태에서도 주체는 “빙화처럼 잠든 지나간 세월을 위해/ 시를 써 본다”. 그러나 6연의 도덕화 단계에서, 현실이 여전히 ‘암담’하고 “고통과 구토가 동결된 밤의 쇼윈도”와 같다고 결론 내린다. 이윽고 인용시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이 “내일이 온다면/ 이 정막의 거리에 폭풍이 분다”고 표현함으로써 현실과 미래에 대한 주체의 체념 정념을 드러낸다. 평가 행위소(actants évaluateurs)인 주체가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는 지점인 것이다.

다음 인용시 「종말」에서도 위와 유사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생애를 끝마칠
 임종의 존엄을 앞두고
 정치가와 회색 양복을 입은 교수와
 물가지수를 논의하던
 불안한 상들리에 아래서
 나는 웃고 있었다.

피로한 인생은
 지나支那의 벽처럼 우수수 무너진다.
 나도 이에 유형類型되어
 나의 종말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숨 가쁜 호흡은 끊기지 않고
 의식은 죄수와도 같이 밝아질 뿐

밤마다 나는 장미를 꺾으러

금단의 계곡으로 내려가서
 동란動亂을 겪은 인간처럼 온 손가락을 피로 물들이어
 암흑을 덮어 주는 월광을 가리키었다.
 나를 쫓는 꿈의 그림자
 다음과 같이 그는 말하는 것이다.
 …… 지옥에서 밀려 나간 운명의 패배자
 너는 또다시 돌아올 수 없다 ……

…… 처녀의 손과 나의 장갑을
 구름의 의상과 나의 더럽힌 입술을 ……
 이런 유행가의 구절을
 새벽녘 싸늘한 피부가 나의 육체와 마주칠 때까지
 노래하였다.
 노래가 멈춘 다음
 내 죽음의 막이 오를 때
 오 생애를 끝마칠 나의 최후의 주변에
 양주 값을
 구두 값을 책값을
 네가 들어갈 관棺 값을 청산하여 달라고
 (그들은 사회社會의 예절과 언어를 확실히 체득하고 있다)
 달려든 지난날의 친구들.

죽을 수도 없고
 옛이나 현재나 변함이 없는 나
 정치가와 회색 양복을 입은 교수의 부고訃告와
 그 상단에 보도되어 있는
 어제의 물가 시세를 보고
 세 사람이 논의하던 그 시절보다
 모든 것이 천 배 이상이나 앙등되어 있는 것을 나는 알았다.
 허나 봄이 되니 수목은 또다시 부풀어 오르고
 나의 종말은 언제인가

어두움처럼 생과 사의 구분 없이
 항상 임종의 존엄만 앞두고
 호수의 물결이나 또는 배처럼
 한계만을 헤매이는
 지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자
 이젠 얼굴도 이름도 스스로 기억지 못하는
 영원한 종말을
 웃고 울며 헤매는 또 하나의 나.

— 「종말」 전문, (『전집』, 101-102쪽)

체념하는 주체는 형성화 단계인 1연에서 “생애를 끝마칠/ 임종의 존엄을 앞”에 두고 “불안한 상들이에 아래서” 웃고 있다. 이 웃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 자조적 태도에서 기인한다. 주체의 상태를 양태화하는 2연의 장치화 단계에 이르러, 긴장적 주체는 ‘피로한 인생’이 “지나의 벽처럼 우수수 무너”지고, “나의 종말의 목표를 지향하”여 스스로 움직이고 있음을 자각한다. 3, 4연의 정념화 단계에 도달하면, 주체가 장치화 단계에서 언급했던 ‘종말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어 긴장도가 상승하게 된다. “밤마다 나는 장미를 꺾으려/ 금단의 계곡으로 내려가서/ 동란을 겪은 인간처럼 온 손가락을 피로 물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피로 물든 손가락으로 “암흑을 덮어 주는 월광을 가리”킨다. 이런 ‘나’를 향해 ‘꿈의 그림자’는 “지옥에서 밀려 나간 운명의 패배자/ 너는 또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주체는 4연에서 유행가를 노래하며, 노래가 끝난 다음 “내 죽음의 막이 오를” 것으로 예측한다. 그렇게 “생애를 끝마칠 나의 최후의 주변”에는 ‘친우’들이 양주, 구두, 관 값을 청산하여 달라며 달려들 것이라는 암담한 미래를 떠올린다. 이러한 정념의 흐름은 정동화 단계에서 ‘숨이 가쁜 호흡’으로 드러나거나 ‘웃고 울며 헤매는’ 신체적 발현으로, 긴장적 주체의 정념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담고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5, 6연의 도덕화 단계에서, 주체는 체념 정념을 드러내며 평가 행위소를 둘러싼 주변 세계가 불안정한 것(물가 시세, 자본주의, 비인간성)에 대해 스스로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

체념 정념은 박인환의 전쟁시에서 분노 정념만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의지로는 자기 앞에 놓인 상황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과 믿기 어려운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좌절한 데서 온다. 이는 ‘운명의 패배자’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도 인지할 수 있듯이 주체가 느끼는 무력감이며 ‘한계’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자 하는 허무와 우울의 표지이다. 요컨대, 현실과 이점의 상태로 고립된 채, 고통을 감내하는 현실화된 주체로서 체념 정념을 드러내는 것이다.

4. 결론

박인환 전쟁시의 화자는 긴장감을 느끼고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주체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박인환 전쟁시에 나타난 분노와 체념을 정념기호학의 틀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분노라는 정념을 주제화하여 ‘실망감->불만족->공격성’이라는 구성에 따라 어휘소적, 통합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그 결과, 정념 주체가 전쟁으로 인해 기대 가치와 이점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노 정념은 ‘검은 신’, ‘정치가’, ‘자본가’에 대한 부정과 비판적 태도로 드러나고 일탈 형태로 나아가 죽음 충동을 자아내는 절망과 회의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박인환의 전쟁시에서 분노 정념의 일탈 형태로서 체념 정념을 ‘형성화->장치화->정념화->정동화->도덕화’라는 ‘정념 도식’에 맞춰 분석해보았다. 체념의 정념 행로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은, 긴장된 주체가 등장하여 과거와 현재의 대립 구도 속에서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현실을 암담하고 희망 없는 세계로 표현한다는 데 있다. 평가 행위소로서 주체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림과 동시에 체념 정념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 주체를 둘러싼 주변 세계의 불안정한 모습들, 가령 전쟁으로 인해 급격하게 상승한 물가와 인간의 생명보다 물질 및 자본을 중시하는 인심 등을 비판하며, 변하지 않는 세태에 대해 스스로 한계를 인식

하고 체념 정념을 표출한다. 이러한 체념 정념이 기초를 이루면서 박인환 전쟁시는 불안과 우울, 허무, 죽음 충동의 부정적 정념을 내포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본고에서는 정념기호학을 활용하여 박인환 전쟁시의 주체가 분노와 체념을 드러내는 양상을 살펴보고, 전쟁이 한 인간이자 시인에게 미친 영향을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탐색으로 박인환의 문학에 붙는 ‘값싼 유행의 송배자’ 혹은 ‘경박한 멋내기’ 등의 편협한 수식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며, 전쟁 체험 세대이자 종군 작가로서의 박인환이 격동의 시대에 대해 진정성 있게 고민한 과정을 조명한 것이다. 이 논의가 전쟁과 정념 사이의 관계성을 밝히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또, 박인환 시에 나타나는 다른 정념들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 문헌>**<자료>**

- 강계순, 『아! 박인환』, 문학예술사, 1983
 맹문재 편, 『박인환 전집』, 실천문학사, 2007,
 박인환, 『한국전후문제시집』, 신구문화사, 1961.
 엄동섭·엄철 엮음, 『박인환 문학전집 1 - 시』, 소명출판, 2015.
 -----·김낙현 엮음, 『박인환 문학전집 2 - 산문·번역』, 소명출판, 2020.
 윤석산, 『박인환 평전』,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03.

<논저>

- 강계숙, 「'불안'의 정동, 진리, 시대성: 박인환 시의 새로운 이해」, 『현대문학의 연구』 51, 한국문학연구회, 2013.
 김영철, 「박인환의 현실주의 시 연구」, 『관악어문연구』 21(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6.
 -----, 『박인환』,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김용희, 「전후세대 '언어'의 문제와 모더니티 - 박인환의 경우」, 『한국언어문화』 49, 한국언어문화학회, 2012.
 -----, 「전후 센티멘털리즘의 전위와 미적 모더니티」, 『우리어문연구』 35, 우리어문학회, 2009.
 김은철, 「박인환 시의 현실과 시적 대응」, 『한민족어문학』 47, 한민족어문학회, 2005.
 김창평, 「박인환의 6.25 전후 작품 연구」, 『나랏말쌈』 12,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1997.
 김호성, 「박인환 시에 나타난 '체험'의 의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라기주, 「박인환 시에 나타난 불안의식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4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5.
 박민규, 「1950년대 전쟁 체험의 시적 양상과 주체의 문제」, 『우리문학연구』 60, 우리문학회, 2018.
 박성준, 「박인환 최초 발표작에 관한 재론」, 『국어문학』 73, 국어문학회, 2020.
 박성현, 「한국 전후시의 죽음의식 연구 : 김종삼·박인환·전봉건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박슬기, 「박인환 시에서의 우울과 시간 의식」, 『한국시학연구』 33, 한국시학회, 2012.
 박연희, 「전후, 실존, 시면 표상 : 청년 모더니스트 박인환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4,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
 박지은, 「박인환 시의 불안, 죽음 의식과 이를 통한 시쓰기의 문제」, 『한국시학연구』 55, 한국시학회, 2018.
 박현수, 「전후 비극적 전망의 시적 성취-박인환론」, 『국제어문』 37, 국제어문학회, 2006.
 박한라, 「박인환 시에 나타난 '죽음' 연구 - 들뢰즈의 시간 개념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65,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3.
 백선기, 「영화에서 표출된 정념의 기호와 그 함축적 의미-영화 2010<하녀>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28, 한국기호학회, 2010.
 성은주, 「한국 전후시의 불안의식 연구 : 박인환·김수영·전봉건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박사

- 학위논문, 2014.
- 손주리,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의 정념기호학적 연구 : 분노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 송현지, 「박인환 시에 나타난 연대 의식 연구」, 『우리어문연구』 52, 우리어문학회, 2015.
- 여태천, 「박인환 시에 나타난 언어적 불안과 부끄러움 -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2(2), 국제비교한국학회, 2014.
- 이재훈, 「박인환 시의 현실인식과 사상성 연구」, 『한국문예창작』 6(1), 한국문예창작학회, 2007.
- 임수경, 「한국전쟁 체험 양상별 시인 연구 - 김수영, 신동엽, 박인환을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12(3), 한국리터러시학회, 2021.
- 장서란, 「박인환 시의 저항성 연구 - 능동적 허무주의와 새로운 도덕으로서의 멜랑콜리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95, 국제어문학회, 2022.
- 전병준, 「박인환 시의 멜랑콜리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0(1), 한국근대문학학회, 2019.
- 정애진, 「박인환 시 연구 : '희망'과 '불안'의 두 세계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3(11),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 정애진, 「박인환 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 정유화, 「전쟁체험과 담론 주체의 존재방식 : 시론과 시의 관계를 중심으로 - 박인환론」, 『우리문학연구』 17, 우리문학회, 2004.
- 조창연.이주영, 『기호학과 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최서윤, 「전후 반공주의와 시적 자유의 간극 - 박인환의 경우」, 『한국문학과예술』 46, 사단법인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3.
- 허금주, 「박인환 시에 나타난 죽음의식 연구」, 『한국언어문화』 19, 한국언어문화학회, 2001.
- 홍성식, 「박인환 시의 현실의식과 탈색의 과정」, 『새국어교육』 73, 한국국어교육학회, 2006.
- 홍정표, 「프랑스 보들레르 시 <백조>의 정념과 담화 기호학적 분석」, 『기호학연구』 72, 한국기호학회, 2022.
- , 『정념기호학-문학텍스트에 나타난 희로애락』,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4.
- 알지르다스 J. 그레마스.자크 폰타뉴, 유기환.최용호.신정아 옮김, 『정념의 기호학』, 강, 2014.

<박인환 전쟁시의 정념기호학적 연구 - 분노와 체념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황선희(중앙대)

김태경 선생님의 발표문 「박인환 전쟁시의 정념기호학적 연구」는 박인환의 전쟁시에 나타난 ‘분노’와 ‘체념’을 중심으로 정념기호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논의입니다. 불안, 우울, 죽음의식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던 선행연구들과 달리 분노와 체념이라는 정념을 초점화하신 대목이 특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박인환의 시를 편협하게 해석해 왔던 그간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박인환의 전쟁시에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 선생님의 발표문은 의미 있는 연구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 선생님의 답변을 청해 보는 방식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념기호학이라는 방법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념’을 기호학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인 정념기호학(감정기호학)에서 박인환 시의 정념 주체를 분석할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셨습니다. 박인환의 전쟁시에 나타났던 다른 정념에 주목해 온 기존 논의들을 떠올릴 때, 이는 충분히 타당한 접근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꽤 오랫동안 문학 연구의 주요 방법론으로 채택되어 온 ‘정동’이나 ‘감정’ 개념이 아니라 ‘정념(기호학)’의 개념을 선택하여 박인환의 시를 새롭게 읽어 내하고자 하신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3번 각주에 감정, 정서, 정념을 구분하는 설명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정념’이라는 개념이 정동이나 감정과 구분되는 지점은 어디에 있는지, 정동이나 개념이 아닌 ‘정념’이라는 용어를 선택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지 선생님의 언어로 설명해 주신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정념기호학의 방법론이 시 텍스트에 나타나는 정념의 양상을 다소 도식화할 우려는 없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전쟁기에 시를 쓴 수많은 시인들 중에서도 박인환의 전쟁시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육군 소속 종군 작가단으로 활동하면서 전쟁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박인환의 이력만 보더라도 박인환의 전쟁시는 주목할 만한 텍스트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박인환인가에 대한 의문은 선생님의 발표문을 끝까지 다 읽고 난 후에도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기를 경험한 다른 시인들과 박인환의 전쟁시가 변별되는 자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글을 통해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드려 봅니다. 전쟁기에 시를 쓴 다른 시인들과 변별되는 박인환만의 독특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선생님께서는 박인환이 “전쟁 체험 세대이자 종군 작가로서” “격동의 시대에 대해 진정성 있게 고민”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론과 본론 부분에서 박인환 시의 ‘진정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보니 결론 부분의 그와 같은 표현이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박인환 혹은 박인환 시의 진정성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념기호학적 분석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인환의 전쟁시에 나타난 ‘분노’와 ‘체념’ 정념을 분석함으로써 선생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박인환의 어떤 면모를 드러내고자 하셨는지, 후속 연구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도 간단히 청해 듣고 싶습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념기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박인환의 전쟁시를 꼼꼼하게 살펴 주신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으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시면서 선생님께서 하셨던 이런저런 고민들을 나누어 주신다면 선생님 연구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여러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토론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튀르키예 거주 시리아 난민 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 사례 연구

- 서울여대 서비스 러닝을 중심으로 -

손다정(서울여대)

목차

1. 서론
2. 난민 대상 한국어교육
3. 난민 청소년 대상 비대면 한국어교육 사례
4. 결론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여대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과와 연계되어 실시된 ‘튀르키예 거주 시리아 난민 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 서비스 러닝의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해외 거주 난민 대상 한국어교육의 의의를 확인하고 향후 교육의 방향을 제언하는 데 있다.

지역과 경계를 넘나들며 소통하는 시대에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일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인공 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이 개별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오히려 시작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언어를 학습하는 일은 지역과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언어를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데에만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언어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하고 언어를 학습하면서 문화를 학습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언어를 학습’하는 일도 그렇다. 학습자들은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언어 능력이 향상되는 것 외의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재난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난민에게 언어와 언어를 학습하는 일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쟁과 재난을 피해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난민들에게 언어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언어가 난민들에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만큼 언어를 학습하는 일도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된다. 낯선 언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일시적으로, 혹은 장기간 거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언어를 학습하는 일은 필수적인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민들이 언어를 학습하는 의미는 실용적인 데 그치지 않는다.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난민들은 일종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자기 효능감을 느낄 기회를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를 학습하면서 ‘일상생활의 연장’을 경험하게 되어 처한 상황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한다. 서울여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러닝(Service-Learning)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튀르키예에서 거주 중인 시리아 난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줌(Zoom)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튀르키예에 거주 중인 시리아 난민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언어가 아니다. 그렇지만 현지에서 먼저 한국어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시리아 난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후 3학기 동안 지속된 이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참여하며 한국어를 학습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시행된 튀르키예 거주 시리아 난민 청소년 대상의 한국어교육 사례를 정리하고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 거주 난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한국어교육의 의의와 방향에 대해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난민 대상 한국어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서울여대에서 실시한 서비스-러닝으로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해외 거주 난민 대상의 한국어교육의 의의와 방향을 논의해 볼 것이다.

2. 난민 대상 한국어교육

난민(難民, refugee)이란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사람”으로 정의되며¹⁾ 현행 「난민법」에서는 난민에 대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다²⁾. 또한 같은 법에서 난민은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을 “난민 인정자”로,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인도적 체류자”로,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난민 불인정 결정이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기각 결정을 받고 이의 신청의 제기 기간이나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의 제기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을 “난민 신청자”로,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재정착 희망 난민”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난민법」에 따른 난민의 분류

명칭	정의	성격
난민, 난민 인정자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

1) 표준국어대사전 ‘난민’ 검색 결과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검색일: 2024. 2. 5.)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난민’ 검색 결과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B%82%9C%EB%AF%BC&dt=20201211#undefined>(검색일: 2024. 2. 5.)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인도적 체류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난민 신청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나. 난민 불인정 결정이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기각 결정을 받고 이의 신청의 제기 기간이나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의 제기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재정착 희망 난민	재정착 희망 난민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

<표 1>의 분류에 따르면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 신청자’ 등은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 중인 난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정착 희망 난민’은 대한민국 국외에 거주 중인 난민으로 볼 수 있다. 「난민법」상 난민의 범위에 속하는 이들 난민들은 모두 한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 난민들에게는 한국어교육이 필수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난민들 역시 한국어교육을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은 특정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교육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난민법」 제4장에서는 난민 인정자 등의 처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1절 33조와 34조에서 특히 교육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난민법」 제4장 난민 인정자 등의 처우 제1절 난민 인정자의 처우

조항	내용
제33조(교육의 보장)	① 난민 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 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연령과 수학 능력 및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 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 인정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난민법」 제4장 제1절 제33조에 따른 교육의 보장은 「난민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초중

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34조에 따른 사회 적응 교육 등은 「난민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난민법」에서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난민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으로서가 아니라 초중등교육의 일환으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부처 중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법무부인데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사회 통합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난민만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유정(2020)에서 밝힌 난민 대상 한국어교육 교재 현황을 보아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난민 대상 한국어교육에서 난민을 대상으로 개발된 교재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주민, 다문화 배경의 학습자를 위해 개발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 실시된 난민 대상 연구 동향을 살펴봐도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영환(2020)에 따르면 난민 대상의 한국어교육 연구는 2010년 이후가 되어서야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까지 총 14편의 연구가 발표되었을 뿐이다. 주영환(2020)까지 포함한다고 하여도 모두 15편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학위 논문이 모두 14편, 학술지 논문은 1편이다.

난민들에게 언어 능력이, 언어 교육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난민 대상의 한국어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오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 사회에 「난민법」이 처음 제정된 것이 2013년이 되어서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³⁾ 「난민법」은 한국에서 201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 개정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난민법」 제1장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3년 이전까지는 난민의 개념과 지위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못하였으며 난민에 대한 처우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 대상으로서 ‘난민’ 역시 명확하게 설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난민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인식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하여 2021년에 발표한 ‘대한민국 난민 인식 변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남녀 중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이 53%로 찬성 33%보다 많았다. 2018년 조사 시 반대가 56%, 찬성이 24%였던 것과 비교해 반대는 다소 줄고 찬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난민 수용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부담(64%), 범죄 등 사회 문제 야기(57%) 등을 반대의 이유로 꼽은 사람이 많았다. 법적 장치의 부재,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난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난민 처우 문제가 개선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난민 대상의 한국어교육은 난민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 오지 못하였다. 이제 「난민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난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도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난민 대상의 한국어교육은 다문화 배경의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이나 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일부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한국어교육은 모두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가 주요 대상이며 난민 신청자와 재정착 희망 난민에 대해

3)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곳이 한국이라는 것도 아울러 밝힌다. 물론 박정아·한정우(2023: 108)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한국은 이미 1993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러나 2001년까지 한국에서 난민 인정자의 지위를 획득한 경우는 단 한 명에 불과했다. 또한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인 2%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한국은 북한 이탈 주민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을 완전히 배척하는 국가라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는 공식적인 형태의 한국어교육은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정받기를 원하는 난민이 한국어교육의 대상이 되는 유일한 난민 집단이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의 난민 인정자나 인도적 체류자, 난민 신청자, 재정착 희망 난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계 곳곳에서 난민으로서 한국어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난민들이 존재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한국어교육은 현재 거의 부재하며 난민구호단체 등을 통한 비공식적 한국어교육이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어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난민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한국어교육의 대상이 되는 난민의 유형

유형		성격
대한민국 거주 난민	난민 인정자	대한민국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난민법」에 다른 교육의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인도적 체류자	대한민국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된 사람으로 「난민법」에 다른 교육의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난민 신청자	대한민국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신청한 사람으로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비거주 난민	재정착 희망 난민	대한민국 「난민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난민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사람
	타국 거주 난민	타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한국어교육을 희망하는 사람

3. 난민 청소년 대상 비대면 한국어교육 사례

3.1. 서비스-러닝(Service-Learning)으로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울여대에서 교양 과목으로 개설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서는 이 교과목의 서비스-러닝(Service-Learning) 활동으로 튀르키예에 거주 중인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였다. 서비스-러닝은 ‘봉사-학습’으로 ‘교과목과 관련된 폭넓은 지식을 지역 사회 봉사과 통합한 교수-학습’ 방법이다.⁴⁾ 유숙영·김선경(2022: 116)에서는 서비스-러닝에 대해 “실천을 통한 배움(Learning by Doing)이라는 경험 학습을 바탕으로 수업과 연계한 봉사 경험에 대해 성찰과 피드백을 통해 전인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서울여대의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SI 교육센터에서는 서비스-러닝의 개념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4) 서울여자대학교 SI 교육센터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러닝 http://csie.swu.ac.kr/sub.html?page=swusi_subject3(검색일: 2024. 2. 5.)

<그림 1> 서비스-러닝(서울여대 SI 교육센터)



즉 교과에서 학습한 것을 활용해 지역 사회에 봉사하며 다시 그 경험 속에서 성찰과 피드백을 통해 학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서비스-러닝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여대의 서비스-러닝 수업의 개요와 목표는 다음 <표 4>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표 4> 서울여대 <서비스-러닝> 개요와 목표

	내용
과목 개요	전공과 교양 교과목을 효과적으로 교수하고 학습하기 위하여, 교과목 내용과 연관된 봉사활동을 지역 사회 비영리 단체에서 실행하게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문 지식과 더불어 시민 의식을 습득하게 한다.
학습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계된 수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2. 연계된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3. 연계된 수업, 또는 전공에 대한 분명한 학습 동기를 말할 수 있다. 4.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존중/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서울여대에서는 교과별 담당 교수자가 교과와 서비스-러닝을 연계할 것인지를 선택해 적절한 활동을 SI 교육센터를 통해 추천받거나 직접 기획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러닝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과에서는 튀르키예에 거주 중인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활동을 서비스-러닝으로 교과와 연계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여대 SI 교육센터에서는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2월 20일까지 ‘난민’을 주제로 ‘(사)리흡’, ‘(사)난민들의 피난처’ 등의 난민을 지원하는 국제 NGO와 협력하여 글로벌 서비스-러닝(GS-L: Global Service-Learning)을 진행하였다. 글로벌 서비스-러닝은 서울여대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해외 봉사 경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세계 시민을 키우는 교육 방법”이다.(유숙영·김선경, 2022: 116) 그러나 2021-2022년 겨울 당시 코로나 상황으로 현지 봉사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글로벌 이슈 중의 하나인 ‘난민’을 주제로 하되 난민을 해외 난민과 국내 난민으로 구분하고 해외 난민의 경우에는 (사)리흡과 함께 협력해 튀르키예거주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하여 비대면 형식으로, 국내 난민의 경우에는 (사) 난민들의 피난처와 함께 이태원 거주 난민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하는 형식으로 글로벌 서비스-러닝이 운영되었다. 아울러 난민 아동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유니씨드’와 함께 대면, 비대면 형식으로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착 지원을 위한 교육 플랫폼 개발 활동도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글로벌 서비스-러닝 활동의 일

부로 진행된 튀르키예 거주 시리아 난민 대상 글로벌 서비스-러닝은 청소년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영어와 한국어교육, 미술 치료 활동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이 글로벌 서비스 러닝에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이 활동에 참여한 난민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한국어교육을 요청하면서 학기 중 서비스-러닝 활동으로 연계할 방법을 찾게 되었다. 이에 이 글로벌 서비스-러닝에 참여하는 서울여대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 교수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담당한 교수자로서 학기 중에 담당하는 교양 과목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과와 연계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다음 <표 5>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

<표 5> 서울여대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개요와 목표

	내용
과목 개요	한국어에 담겨 있는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학 전문가로서 기본 소양을 키운다.
학습 목표	이 수업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학의 기본 지식을 쌓아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학습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탐구해 볼 것입니다.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언어와 문화의 기본 개념과 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2. 한국어의 특징을 형성한 배경을 이해하고 한국어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3. 한국 문화의 특징을 형성한 배경을 이해하고 한국 문화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5대 핵심 역량	글로벌 경쟁력 35점, 공동체 가치 25점, 의사소통 능력 20점, 통합적 사고력 10점
4대 핵심 역량	글로벌 시민 역량 40점, 창조적 문제 개발 및 해결 역량 30점, 감성적 인지 역량 20점, 디지털 문해 역량 10점

이처럼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한국학 전문가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길러 주는 수업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활동을 통해 효과적인 서비스-러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수업과 연계되어 실시되는 서비스-러닝은 1학점이 부여되는 활동이며 한 학기 총 32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과 중간 성찰회, 기말 성찰회를 제외하고 11주간 2시간씩 총 22시간을 실제 봉사활동에 사용해야 하며 매주 실행한 봉사에 대해 성찰하는 활동을 진행한 후 성찰일지를 작성하는 시간에 총 10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튀르키예 거주 중인 시리아 난민 대상의 비대면 한국어교육 활동은 다음 <표 6>과 같이 일정을 설계하였다.

<표 6> <한국어와 한국 문화> 서비스-러닝 일정

	서비스-러닝 활동	교과 내용
1주차	서비스-러닝 전체 오리엔테이션	수업 안내 서비스-러닝 활동 참가 안내
2주차	난민, 튀르키예 거주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이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 탐색하기 한국어교육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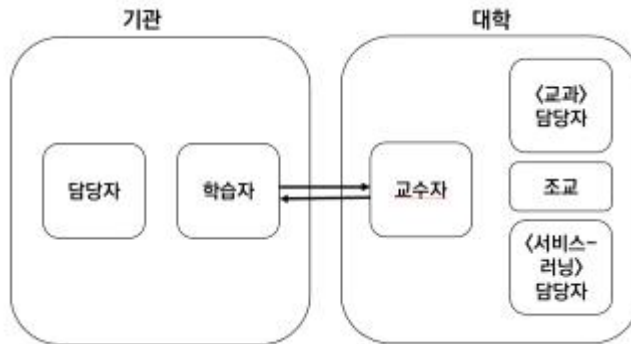
	기관 상건례, 분반 한국어문화교육 교수요목 설계	
3주차~7주차	한국어문화교육 실시	언어와 문화 이해하기 한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8주차	중간 성찰회 실시	중간 시험 실시
9주차~15주차	한국어문화교육 실시	한국 문화의 특징 이해하기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관계 이해하기
16주차	기말 성찰회 실시	기말 시험 실시

<표 6>과 같은 일정으로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거주 중인 시리아 청소년 난민을 대상으로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였다. 기간은 모두 3학기로 2022년 1학기부터 2023년 1학기까지였다(① 2022. 3.~6., ② 2022. 9.~12., ③ 2023. 3.~6.).

3.2. 참여자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과와 연계한 서비스-러닝은 다음 <그림 2>와 같은 참여자들로 운영되었다.

<그림 2> <한국어와 한국 문화> 서비스-러닝 참여자



참여자별 주요 역할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한국어와 한국 문화> 서비스-러닝 참여자

참여자		역할	
기관	담당자	(사)리홉(ReHope) 튀르키예 이스탄불 사업소 담당자	대상 난민 모집, 비대면 학습을 위한 장소 제공, 비대면 수업 중 통역(2022-2까지)
	학습자	시리아 난민	한국어 학습
대학	<교과> 담당자	<한국어와 한국 문화> 담당 교수자	서비스-러닝 참여 학생 모집 전체 일정, 교수요목 설계, 성찰 과정 관리
	<서비스-러닝> 담당자	<서비스-러닝> 담당 교수, 연구원	기관-교과 연계, 성찰 과정 관리, 행정 지원
	조교	서비스-러닝 기존 참여자	기관 담당자와 서비스-러닝 참여 학생 간 소통 전체 일정, 교수요목 설계, 성찰 과정 관리

교수자	<한국어와 한국 문화> 수강생으로 <서비스-러닝> 참여 신청 학생	교수요목 설계, 수업 자료 개발, 교수 활동, 성찰
------------	--------------------------------------	------------------------------

(사)리훅의 튀르키예 이스탄불 사업소를 통해 글로벌 서비스-러닝에서 한국어교육에 참여한 시리아 난민의 교육 지속 요구를 확인하고 2022년 1학기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과와 튀르키예 거주 시리아 난민 대상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교과와 연계한 <서비스-러닝>으로 함께 개설하였다. 개강 1주차에 수업과 연계한 서비스-러닝 활동을 본 교과 수강생에게 소개하고 참여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교수자로 참여할 학생을 모집하였다. 2022년 1학기에는 난민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현지 상황과 난민들의 문화적 배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 2학기부터는 난민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총 3학기 동안 진행된 비대면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와 교수자에 대한 정보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한국어와 한국 문화> 서비스-러닝 교수자와 학습자

	학기별 참여자					
	2022-1		2022-2		2023-1	
교수자	6명		6명		6명	
	문헌정보학과	1학년	교육심리학과	1학년	영어영문학과	2학년
	불어불문학과	1학년	행정학과	2학년	자율전공(자연계열)	2학년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전공	3학년	소프트웨어융합학과	2학년
	저널리즘전공	2학년 3명	중어중문학과	4학년	디지털영상전공	2학년
	소프트웨어융합학과	2학년	디지털영상전공	4학년	생명환경공학전공	3학년
			경영학과	4학년	경영학과	3학년
학습자	17명		3명		2명	
	성인	11명	청소년	3명	청소년	2명
	청소년	6명				

2022년 1학기에는 성인들도 학습자로 참여하였지만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업이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데 어려움을 겪어 2022년 2학기부터는 자신의 참여 의지가 강한 학습자를 중심으로 대상을 정하였다. 학습자의 수는 줄었지만 교수자의 수는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는 교양 수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이라는 특징 때문이었다. 학생들은 한국어교육이나 국어국문학 등 언어 교육 관련 전공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전에 한국어교육 경험 역시 일천한 상태였다. 해당 교과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어문화교육학을 접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교육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주 교과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과 연계해 가르칠 내용을 직접 정하고 교수 학습을 위한 자료를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대신 튀르키예 현지 시간과 대상이 되는 청소년 난민의 참여 가능 시간을 고려해 수업 시간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평일 밤 22:30이 활동 시작 시간이 되었다. 이와 같은 부담을 고려해 교수자로 참여하는 학생의 수를 줄이지 않았고 교수자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서로 협업하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

다.

3.3. 교수-학습 설계와 수업 운영

2022년 1학기에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글로벌 서비스-러닝에 학습자로 참여한 학생과 새로 학습자로 참여하게 된 학생을 추가로 포함해 비대면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글로벌 서비스-러닝에서 22시간 학습을 한 학습자 집단과 한국어를 처음 학습하는 학습자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청소년과 성인으로 다시 집단을 나누어 총 4반으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출석률 등을 고려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총 2반으로 신규로 추가되는 학습자 없이 수업을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하였다. 따라서 한국어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설계는 학기별로 서비스-러닝에 참여하는 교수자 집단은 변하였지만 그 내용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전 학기에 교수자로 서비스-러닝에 참여한 학생 중 성과가 좋은 학생을 조교로 선발하여 교수-학습 내용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서비스-러닝에 참여해 한국어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로 활동할 학생들이 한국어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 교과목의 학습 내용과 함께 세종학당재단에서 발간하는 《세종 한국어》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대상 학습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내에서 KSL 한국어 교재로 개발된 《표준 한국어》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 익힘책 등도 참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랍인을 위한 알짜 한국어 1, 2》와 같은 아랍어 사용자에게 특화된 한국어 교재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그 밖에 기본적인 한국어문화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 기관 발간 교재도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실제로 운영된 한국어 수업의 숙달도 등급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한국어와 한국 문화> 서비스-러닝 교수-학습 단계

	학기		
	2022-1	2022-2	2023-1
교수-학습 단계	자모 시작반	1급 초반	1급 중반
	자모 이후반(1급 초반)		

교수-학습 내용은 숙달도 등급별 교재를 참고하되 대상 학습자의 연령과 관심사를 반영해 구체적 교수요목을 설계하도록 하였다. 참고한 교재가 대체로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도 참고하도록 하였지만 해당 교재는 국내에 거주하며 중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러닝의 대상 학습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수업 내용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교수-학습의 내용이 된 것은 ‘한국어 음운, 한글 자모, 자기소개, 날씨, 기분, 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일상생활’ 등이었다. 또한 한국어 교수 내용에 포함된 것을 문화 교육으로 확장하거나 대상 학습자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문화 교육 주제 선정(케이팝 등), 교수자-학습자 간 친밀감 형성을 위한 학교 소개를 주요 내용으로 한 문화 교육 등이 병행되었다.

주차별 교수-학습 내용은 사전에 계획되었지만 주차별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라 재조정되기도 하였다. 라마단 기간, 청소년 학습자들의 학교 시험 기간, 네트워크의 불안정성, 현지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의 전기 문제 등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수업이 온전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줌(Zoom)을 통해 회의를 예약하고 회의실 주소를 기관 담당자와 조교가 공유한 후 교육 시

간에 맞춰 회의실을 열고 기관 담당자와 조교가 참여하여 소그룹 회의실을 나누어 분반하여 실제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은 반별로 주 교수자, 보조 교수자, 수업 자료 개발자 등으로 교수자들이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2022년 1학기에는 기관 담당자가 참여해 통역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1학기에는 통역 지원 없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교수자로 참여한 학생들은 사전에 계획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그림 3>과 같은 수업 자료를 개발하였다. 이 자료를 줌 회의실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별도의 학습자용 자료를 함께 개발하여 수업 전에 현지 기관 담당자에게 파일로 전송하여 학습자들이 출력본을 수업 중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학기 종료 후에는 교수자들이 제작한 수업 자료를 인쇄하여 제본한 후 책자 형태로 현지에 보내어 서비스-러닝 활동이 진행되지 않는 방학 동안 복습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3> <한국어와 한국 문화> 2022-1 서비스-러닝 수업 자료⁵⁾



교수 학습 설계와 수업 운영은 다음 <그림 4>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그림 4>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수 학습 설계와 수업 운영



수업 자료는 수업 전에 제작하여 교과 담당 교수자와 이전 서비스-러닝에 참여하여 대상 학습자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능력을 파악하고 있는 조교에게 피드백을 받도록 하였

5) 이 자료는 청소년 난민 대상 수업을 담당할 조에서 제작하여 사용한 것이다.

다. 수업 진행 후에는 성찰 일지를 작성하며 수업 진행과 자료 활용에 대해 성찰하며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거쳐 다음 수업 준비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성찰 일지는 서울여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러닝 시스템을 통해 작성, 확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교수자로 참여한 학생이 작성한 성찰 일지는 <그림 5>와 같이 보고되며 개별 일지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교과 교수자와 조교의 피드백이 진행될 수 있다.

<그림 5> <한국어와 한국 문화> 2022-1 서비스-러닝 성찰 일지

학생자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강	4	■	■	■	■	■	■	■	■	■	■	■	■	■	■	■
김	0	■	■	■	■	■	■	■	■	■	■	■	■	■	■	■
박	4	■	■	■	■	■	■	■	■	■	■	■	■	■	■	■
박	5	■	■	■	■	■	■	■	■	■	■	■	■	■	■	■
안	9	■	■	■	■	■	■	■	■	■	■	■	■	■	■	■
이	3	■	■	■	■	■	■	■	■	■	■	■	■	■	■	■
지	9	■	■	■	■	■	■	■	■	■	■	■	■	■	■	■

학생자 : 안 9

주 : 12주 (2022.05.18 - 2022.06.25)

분사일 : 2022.05.18(수)

시간 : 22:30 - 23:30 총 1시간

오늘 한 일

때문에 둘 다 알아야한다 라고 언급만 하고, 고유어 수로 넘어가 하나-열, 스펠까지 함께 읽고 쓰기 연습을 했다. 이후 하나-열이 나열이 아니고 하나와 단위 명사가 붙으면 한+십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며 관찰부터 열심히 할게 공부하고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열십 이후의 나열을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맞추어 학생들의 나이를 학습한 후에는 "몇 살이에요?" "저는 13/16 살이에요."로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이후 bbs 멤버들을 통해 스물 이후의 나열을 말하는 방법도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운 것 또는 느낀 점

이제 느리, 빨리 학생은 고유어 수를 읽고 있어서 좋았다. 이번 수업이 너무 어렵진 않더라 걱정했는데, 이미 두 학생이 아는 내용이 있어서 보다 수월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단위 명사가 들어가면 순치의 형태가 변하는 것과 열십 이후의 나열을 조합하는 개념이 헷갈리진 않더라 걱정했지만, 초반에는 느리더라도 맞추고자 노력하여 수업 마지막에 bbs 멤버들의 나열을 맞출 때는 아주 대답을 유창하게 해냈다. 항상 잘 따라해주는 학생들을 때문에 수업이 즐겁게 느껴지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앞으로의 기대 / 해결할 문제

앞으로 2차시가 남았는데, 마지막 차시는 관세복습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그간 문화 수업이 부족했던 것 같아 다음주는 문화 수업으로만 진행하려고 한다. 또한 이번주에 불리 나가야하는 학생이 있어서 복습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복습을 한 주 넘어간만큼 재역지 있도록 자세하게 다음주에 진행해야한다!

다음에 할 일 / 준비물

다음주 문화 수업 준비 → 학생분들이 k-pop 원정!
다다음주 전체 복습 계획

댓글

K-POP 관련 문화 수업도 기대됩니다!! 이번주에도 수고하세요~!

4월 22일 22:30:00 (수) 100% 댓글

답사합니다!

총

2022.05.18(수) 22:30:00 (수) 100% 댓글

하나 그 때와 '복' 수업을 계획할 것 같았는데 12월 14일(수) 열십 안 나열도 읽고 한국어 나열도 읽고 그해에 읽지 못하여, 내일(목)도 읽지 못하여 불 다루서해 나가기를 말한 학생입니다.

4월 22일 22:30:00 (수) 100% 댓글

한국어 나열은 계획하고 안 다루는 진행했습니다! 후면에는 관세 복습으로 한국어 나열을 읽어볼까 고민했지만, 한국 내에서도 불리 어려워지고 있고 '수'만 읽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수업 자료를 모두 안 나열해 재학생입니다! 감사할 내일

3.4. 운영 결과: 의의와 한계

3.4.1. 시리아 난민 청소년 학습자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과와 연계하여 서비스-러닝으로 실시된 튀르키예 거주 중인 시리아 청소년 난민 대상의 한국어교육은 <표 3>의 한국어교육의 대상이 되는 난민의 유형 가운데 대한민국 비거주 난민 중 타국 거주 난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22년 1학기에는 난민 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학습자들이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형식으로 <표 3>의 타국 거주 난민으로 온전히 분류할 수 없는 학습자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2022년 2학기부터는 기관에서 모집하거나 미술 치료, 영어 교육 등으로 실시되는 서비스-러닝에 참여하는 동시에 한국어교육에도 참여하게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본인의 의지가 확실히 있으면서 규칙적인 학습이 가능한 청소년⁶⁾으로 대상을 제한해 한국어교육을 희망하는 타국 거주 난민이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이 대상 학습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과정을 통해 단순 일회성 경험이 아니라 실질적인 한국어 교수-학습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동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비거주 난민으로 한국에 재정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일주일에 불과 한두 시간 정도 실시되는 한국어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1년 반 동안 학습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학습 의지가 청소년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성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이유, 또는 문화적인 이유로 인해⁷⁾ 실용적인 목적 없이 한국어 학습을 지속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보였다. 이에 반해 청소년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기 효능감 차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일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 6)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는 '18세 미만의 인정 난민, 비호 신청자, 유엔 난민 기구의 보호 또는 원조를 받는 실향민'을 '난민 아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노총래 외(2018)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 인구의 51%가 이에 해당한다.(박정아 · 한정우, 2023: 111) 이 연구에서는 '아동'이라는 표현 대신 '청소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실제 한국어교육에 참여한 대상 학습자의 연령이 10대 중반으로 청소년의 범위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 7) 심숙경(2023: 239), 정혜경 · 조희선(2016: 102)에서는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이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이후 발생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생겨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시리아 인구 중 1/4에 해당하는 570만 명의 시리아인이 2019년 통계 기준으로 튀르키예,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이라크 등으로 도피하여 거주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특히 튀르키예에 37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거주 중인데 양은지(2020: 59-62)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 이후 튀르키예에서는 당시 튀르키예의 대통령인 에르도안을 중심으로 시리아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정혜경 · 조희선(2016: 112-113)에서는 튀르키예가 튀르키예에서 법적 난민이 될 수 없었던 시리아 난민에게 '임시 보호 지위'를 부여해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을 보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튀르키예 내 난민 캠프로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난민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를 설치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의 배경을 통해 이들 난민 대부분이 무슬림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외교부(2019)에 따르면 시리아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지닌 국가로 아랍 국가 중 가장 다양한 민족, 종교, 종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아랍인이며 공용어 역시 아랍어이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87%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서비스-러닝에 참여하는 서울여대 학생들의 성별이 모두 여성이고 학습자로 참여하는 난민들도 모두 여성이었다. 또한 라마단 등 특정 시기와 특정 요일, 시간에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했다. 또한 정혜경 · 조희선(2016: 121~126)에서는 튀르키예 거주 시리아 난민들의 경제적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이들 난민들은 합법적으로 노동 허가를 받기가 어려웠고 노동을 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현지인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 급여를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여성이 가장 되는 가구가 증가한 상황에서 이들의 수입이 대체로 남성에게 비해 낮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을 보였다.

박정아·한정우(2023: 128-129)에서는 난민 청소년들의 이주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난민 청소년의 이주 경험의 본질적 구성 요소로 불안과 트라우마를 갖고 가족 해체와 결합의 경험, 상실감과 고국 향수, 낙인, 관계 속의 갈등, 인정, 초국가주의적 삶 등을 꼽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난민 청소년들에 대해 “‘난민’이라는 고단한 이름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자신들의 내일은 지금보다 나아지리라는 매우 조심스럽게 기대와 희망을 품고 사는 ‘삼가면서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이라고 설명하였다. 청소년 시기의 특징과 난민으로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낯선 언어이면서 학습 기회가 충분하지 않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이들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인정을 경험하며 초국가주의적 삶을 꿈꿔 나가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1급 중후반 정도의 숙달도 상태에 놓여 있으나 지속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러닝에 교수자로 참여한 학생들은 성찰 일지를 통해 대상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의를 실제로 보고하였다.

3.4.2. 비대면 수업 방식

튀르키예에 거주 중인 시리아 난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이 서비스-러닝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시되었다. 유숙영·김선경(2021), 이해진(2022), 최윤희·김진선(2022) 등에서는 코로나 시기 서비스-러닝을 비대면으로 운영한 사례를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비대면으로 진행된 서비스-러닝이 대면으로 진행된 서비스-러닝에 비해 만족도와 성취감, 실제 교육 효과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었으며 이해진(2022)에서는 활동의 다양화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튀르키예에 거주 중인 시리아 난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서비스-러닝 역시 코로나 시기 튀르키예와 한국 간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실제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는 차원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 것에 대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언어 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안정적인 전기 설비와 네트워크 환경, 컴퓨터 등의 도구 완비 문제로 인해 수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서비스-러닝에 교수자로 참여한 학생들은 성찰 일지를 통해 네트워크나 전기 문제로 학습자가 수업 시간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웠거나 하나의 기기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줌 회의실로 입장해 작은 화면에서 학습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웠다는 등의 여러 문제를 보고하였다. 또한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낯선 문자인 한글을 ‘씨야’ 하는데 도구를 통해 쓰고, 또 줌을 통해 학습자들이 쓴 것을 교수자들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소리 문제로 학습자들에게 정확한 발음을 교수하기가 어려웠으며 학습자들의 발음을 정확히 청취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하였다. 한편, 수업 전에 수업 자료를 제작하여 현지에 파일 형태로 전달하였으나 학습자에게 출력본 형식으로 제때 전달되지 않아 수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와 같이 ‘교육’을 실현하는 데는 비대면 방식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그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3.4.3.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이 3학기간 진행되면서 대상 학습자들은 66시간 정도 비대면 방식으로 한국어를 학습하였다. 3학기 연속으로 한국어교육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 까지 진행된 글로벌 서비스-러닝에서도 한국어를 학습했기 때문에 한국어의 음운을 학습하는 것부터 총 88시간 정도 한국어를 학습하였다.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씩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면서 1급 중후반 정도의 숙달도까지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2023년 1학기에는 통역 지원 없이 교수 학습 내용에 해당하는 한국어 수준 정도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공식적인 학습이 중단되는 기간에도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쇄본 교재를 전달하였으며 한 학기 동안 교수자와 학습자로 만나 인간관계를 형성한 후 SNS 매체를 통해 개별 소통을 이어간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공식적인 한국어 평가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물론 매 시간 교육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게임 등을 통해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였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학습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교수자로 참여한 학생들 역시 교수의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다음 교수에 반영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실용적인 목적 없이 진행되는 교육이라는 점 때문에 평가의 부담을 학습자에게 지우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교육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 공부할 내용을 확실히 안내하고 다음 서비스-러닝 활동에 교수자로 참여할 학생들에게 학습자들의 수준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평가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험을 통해 얻은 자기 효능감을 활용하여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데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한국어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수업 자료를 교수자가 개별적으로 그때 그때 학습자의 요구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대신 교재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한국어 능력을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등의 변화가 요구된다.

3.4.4. 서비스-러닝에 참여한 대학생

이혜진(2022)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러닝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개인 측면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뿌듯함, 다양한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함, 공감과 설득을 위한 의사소통의 경험을 해 봄 등을, 학업 및 진로 측면에서 수업 내용의 맥락 적용을 통한 이해 및 확장, 전공에 대한 본질적 고민 및 시각의 확대, 말하기 및 쓰기 경험 등을, 사회 및 시민 측면에서 사회 및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의 계기, 작지만 세상을 바꾸는 경험, 시민의식 경험의 기회 등을 얻었다고 설명하였다. 최윤희·김진선(2022)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러닝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찰 일지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과 학업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며 사고 확장과 내적 성장을 경험하였고 팀워크 강화 및 협동심과 책임감이 증진되었다고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유숙영·김선경(2021)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러닝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깨닫고 타인을 돕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며 서비스-러닝 과정에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경험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은 관계 맺음의 즐거움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한편 유숙영·김선경(2022)에서는 난민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서비스-러닝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성찰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난민 특성에 대한 이해의 변화

가 생겼고 봉사 대상이 된 난민을 돕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국제 사회에 대한 비전과 사회 참여 의지에 기반한 계획을 설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비대면 서비스-러닝과 난민 대상의 서비스-러닝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학기 동안 진행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난민 청소년 대상 비대면 한국어교육 서비스-러닝에 교수자로 참여한 학생들의 성찰 일지를 통해서도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표 10>은 3학기 동안 진행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서비스-러닝에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로 참여한 학생들의 성찰 일지 내용을 범주별로 정리한 것이다.⁸⁾

<표 10> <한국어와 한국 문화> 서비스-러닝 참여 학생들의 성찰 내용

범주		내용
다른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학습자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p>-(2022-1, 안○)한국어와한국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분들의 언어권, 문화권에 대해 배우며, 문화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p> <p>-(2022-1, 강○)수강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제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권의 언어가 아니기도 했고, 또 문화도 제가 평소 잘 접하지 못했던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었기에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p> <p>-(2022-1, 박○1)그저 언어만을 가르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 역시 소중한 공부라 되었습니다.</p> <p>-(2022-2, 우○)우선 제가 한국 문화를 알려주면서 저도 학생들을 통해 튀르키예의 날씨문화와 언어 등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되었습니다.</p> <p>-(2022-2, 한○)아이들과 소통하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p> <p>-(2023-1, 박○1)저는 서비스 러닝을 통해 다른 문화의 사람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다른 문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p> <p>-(2023-1, 강○)나의 문화와 다른 사람의 문화를 비교하며 저울질 하지 않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p> <p>-(2023-1, 박○2)할라와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다른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깨닫고 할라의 문화에 대해 사전 조사를 더 많이 해 보게 되었다.</p>
	난민에 대한 이해	<p>-(2022-2, 장○)난민 아동 관련해서는 원래도 관심이 많았지만 더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됐다. 책과 다큐멘터리로만 봤을 때는 내가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지만 꽤 멀고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리아 난민 학생들과 만나며 그들이 구체화된 형상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더욱 가까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무언가 있다는 것이 다가왔다.</p> <p>-(2022-2, 노○)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누르에게 한국어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당장 누르의 삶에 실용적인 언어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피곤할텐데 졸음을 참으며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대단했다.</p> <p>-(2022-2, 한○)서비스-러닝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문제, 글로벌 이슈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할 수 있었고, 아는 데서 더 나아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지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은 어렵고 거창하기만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과 행동,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p> <p>-(2023-1, 유○)시리아 내전과 난민에 관한 관심의 변화도 큰 변화 중 하나이다. 서비스러닝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이들의 이야기가 뉴스나 기사로만 접할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활동을 통해 직접 대화하고, 생활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면서 조금</p>

8) 성찰 일지 내용 전체를 살펴 범주를 구분하고 대표적인 내용 중심으로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학생들의 일지 내용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표기 표현상의 오류도 그대로 포함되었다.

		<p>더 입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p> <p>-(2022-1, 안○)당연시 여기던 사소한 문화들이 타 문화권에서는 새로운 문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모문화권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p> <p>-(2022-1, 강○)수업을 수강하면서 서비스 러닝을 준비하니 배운 내용을 응용해서 다시 누군가에게 내 것으로 소화된 것을 알려주어야 하므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에 대해서도 이론적인 배경을 더 열심히 듣게 되고,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서비스 러닝의 수업 준비 시간이 되어주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수업의 수강생으로서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p> <p>-(2022-1, 지○)평범한 강의에서 수업을 듣고 머리로 외우고 시험을 보는 방식과는 다르게 직접 활동을 실천하고 참여하면서 얻는 경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p> <p>또한 지식을 배우고 외웠을 때는 단기 기억장소에만 머물렀다가 시험이 끝나면 날라가는 느낌을 받지만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활동을 실천했을 때 얻는 경험은 몸에 새겨지는 지식이고 장기 기억장소에 기억으로 머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p> <p>-(2022-2, 장○)외국인들에게 질문이 많아졌다. 한국어를 배울 때 어느 지점이 어려운지, 한국 사람들과 어떤 점에서 차이를 느끼는지 등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졌다. 이런 변화는 목표했던 자문화에 대한 이해와 타문화에 대한 흥미 가지기에 부합한다.</p> <p>-(2022-2, 한○)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 멀리서, 가까이서 바라보는 경험을 통해 우리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p> <p>-(2023-1, 조○)서비스 러닝이 끝난 지금 학기 초보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했고, 수업 내용과 서비스 러닝 활동 준비 과정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p> <p>--(2023-1, 강○)한국 문화에 대한 지평이 넓어졌다.</p>
<p><교과> 학습 증진</p>	<p>한국어교육 능력</p>	<p>-(2022-1, 안○)초반에는 번역기를 사용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등 한국어를 사용하러기보다 통역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았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한국어 수업에 역효과라는 생각이 들었고, 수업 후반부로 갈수록 수업 자료에서도 번역기 보다는 사진 자료로 대체하여 최대한 한국어 노출을 늘리고자 했고, 통역 선생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는 상황일 땐 느리지만 어렵지만 한국어로 서로 이야기하고자 노력했다. 당시엔 어렵고 힘들어도 나에게도 학생들에게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 되었다.</p> <p>-(2022-1, 강○)긴 문장 대신 짧은 단어와 문장을 통해 설명하고, 수업 교안을 함께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니 차츰 저도, 학생들도 수업에 적응해가고 잘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p> <p>-(2022-2, 장○)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과 대화할 때 말이 자동으로 느리고 강조점이 생기고 발음을 더 씹어서 하게 되는 내 모습이었다.</p> <p>-(2022-2, 노○)점차 시간이 지나면서는 수업을 계획하고 자료를 만들때에 누르가 이 부분을 어려워할 것 같으니 빼거나,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한국어 단어를 찾아서 미리 준비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초반보다는 적은 횟수로 생기게끔했다.</p> <p>-(2022-2, 이○)첫 수업이 끝난 뒤, 외국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한국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다른 점도 많고 조심해야 할 점도 많다고 느꼈다.</p> <p>-(2023-1, 조○)수업을 진행하는 나와 팀원들도 점차 이해하기 쉽게 수업하는 방법을 터득하며 잘 진행했다. 한국어 교육이 해보지 않은 부분이고 흥미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아니었지만, 해보고 싶은 마음 하나로 도전해 본 활동이다. 처음에는 어렵긴 했으나 막상 활동을 이어 나가다 보니 잘해 나가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p> <p>-(2023-1, 강○)한국의 문화와 한국어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p> <p>-(2023-1, 유○)마침내 어느 순간부터 통역 선생님 없이도 우리끼리 수업을 즐겁게 진행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p>
	<p>수업 준비</p>	<p>-(2022-1, 안○)사실 나도 한국어와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져 수업을 신청한 것이었고, 살면서 학생의 입장만 겪어봤지 이렇게 활동으로 선생님의</p>

		<p>위치에 놓인다는 것도 부담을 더해줬다. 하지만 부담감 덕분에 더 열의를 가지고 수업을 준비해나갈 수 있었다.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수업이 유익하고 재미 있을지 고민하고, 그에 맞는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공부하고, 학습 이해를 돕는 자료를 찾는 등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했다.</p> <p>-(2022-1, 강○)수업 전부터 무척 열정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인해 수업 시작 훨씬 전부터 다양한 한국어 수업 자료를 찾아보고 제작했습니다.</p> <p>-(2022-2, 노○)누르는 내게 한국어 수업을 항상 기다린다고 말해주었고 그 말처럼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수업시간을 더 알차게 구성하고 준비하려고 노력했다.</p>
의사소통 경험	교수자, 조교와의 소통	<p>-(2022-1, 안○)학생들의 이러한 부담감을 알고 계시는 교수님과 조교님이 항상 살펴봐주시고 피드백 해주시는 과정으로 도와주셔서 부담감에 대한 문제는 서서히 해결되었다.</p> <p>-(2022-1, 강○)수업을 위해서 조교님, 교수님, 통역 선생님의 도움이 정말 크게 느껴졌고</p> <p>-(2022-2, 이○)교수님과 소통을 통해서도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p> <p>-(2022-2, 한○)어려울 때는 팀원들, 교수님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었습니다.</p> <p>-(2023-1, 윤○)다행히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아 다른 내용으로 수업자료를 만들어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같은 팀원들에게 피드백을 받았을때 우리끼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p>
	학생 간 소통	<p>-(2022-1, 강○)함께 다른 수업을 진행하는 학우분들과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협력 관계를 통해 만들어낸 질 좋은 자료를 결과물로 활용할 때, 수업도 훨씬 풍부해졌고 아이디어 고갈이 될 때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료를 나누고 수업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이 어색했고 불편하게도 느껴지기도 했지만, 차츰 이런 과정이 익숙해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도 함양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p> <p>-(2022-2, 장○)소통을 시도했을 때 수업의 호흡이 더 풍성하게 이어지는 것을 느꼈다.</p> <p>-(2022-2, 이○)처음엔 팀원들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나에겐 당연한 것이, 상대방에겐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그 과정을 겪으니, 서로 더 잘 이해되고, 단합되는 시간이었다.</p>
	학습자와의 소통	<p>-(2022-1, 안○)한국어와한국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분들의 언어권, 문화권에 대해 배우며, 문화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p> <p>-(2023-1, 박○)저는 이 과정에서 점점 발전하는 소통을 보며 보람을 느끼며 수업시간이 더 재미있어지고 더 즐거운 수업을 만들고 더 보람있는 시간을 주고 싶어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p> <p>-(2023-1, 유○)사실 나는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서비스러닝 활동을 하면서 그런 고정관념을 깨게 되었다.</p>
개인적 성장	미래 계획	<p>-(2022-1, 안○)세종학당을 제외하고는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매우 제한적이었어서 이후 기회가 된다면 전공언어를 살려 양질의 한국어문화 학습 자료의 보급에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p> <p>-(2022-2, 장○)2년 내에 튀르키예에 꼭 가서 학생들을 볼 것이다.</p> <p>-(2022-2, 우○)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튀르키예도 가보고 싶습니다.</p>
	문제 해결 능력	<p>-(2022-1, 박○)터키와 한국의 물리적 거리와, 터키의 불안정한 인터넷 상황으로 이를 해결할 방법이 별 달리 없었다. 그렇기에 이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다.</p> <p>-(2022-2, 한○)학기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고 느낀점들이 나중에는 비슷한 고민들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주었고,</p>

		- (2023-1, 조○) 이번 서비스 러닝 활동을 통해 배우면서 해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개인적 성장	- (2022-1, 이○) 이전에는 아무말도 못하고 땀만 흘리고 있었더라면, 지금은 잘은 못하더라도 말을 뱉으려고 노력하는 수준까지 성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 공포증을 이겨내는데 이 서비스러닝도 큰 도움이 되었다. - (2022-1, 박○2) 서비스러닝으로 나는 한단계 성장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즉 더 꼼꼼하고 계획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었던 것 같다. - (2022-2, 노○) 무언가를 배울 때 나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항상 웃으면서 대답해주고, 시키지 않아도 노트에 필기하면서 공부하고,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누르의 태도 덕분에 나 또한 자극을 받고 누르같은 학생이 되어야겠다고 느꼈다. - (2023-1, 박○1) 전 다른 문화를 배울 때 어떤 태도로 소통을 하고 어떤 태도로 수업에 참여하면 좋을지 생각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 (2023-1, 강○) 앞으로 많은 사람들과 문화적 교류가 있을텐데, 나는 이제 문화적 교류를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 (2023-1, 유○) 한국에 살면서 만나게 될 외국인들과도 언어의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은 채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 해외여행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먼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

<표 10>과 같이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로 참여한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난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다른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였으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으로서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한국어교육 능력을 향상하였다. 한편 조별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교과 교수자와 조교와의 소통 기회를 부여한 결과 의사소통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미래 계획을 세우게 된 것, 문제 상황에 봉착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긴 것 등 개인적 성장을 성찰 일지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성찰 일지의 내용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과의 학습 목표인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학습하고 특징을 확인하며 실제 사례를 탐구해 보는 것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계된 수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문제 상황에 배운 지식을 적용해 보는 기회를 얻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경험을 가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러닝의 목표도 성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교양 선택 과목과 연계하여 한국어교육이 서비스-러닝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바로 ‘교수자’로 참여하게 된 상황에서 교육 초반에는 통역 지원 없이는 수업이 어려울 만큼 비전문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로서 대상 청소년이 한국어 실력을 향상해 나가는 동안 교수자가 되는 학생들은 매 학기 초보 상태에서 학습자와 대면하게 된다는 것도 학습자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결론

이 연구를 통해 서울여대에서 개설된 교양 선택 과목인 <한국어와 한국 문화>와 연계한 한국어교육 서비스-러닝을 중심으로 튀르키예에 거주 중인 시리아 난민 청소년 대상 비대면 한국어교육 사례를 살펴보았다. 난민 대상의 한국어교육 자체가 난민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도 부족한 상황에서 난민 중에서도 한국에 비거

주 중이면서 한국에 정착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으나 한국어교육을 희망하는 '타국 거주 난민'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소개하였다는 데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난민 중에서도 특히 튀르키예에 거주 중인 시리아 난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이주 경험이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자기 효능감을 향상하는 데 한국어교육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에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로서 활동한 학생들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동시에 난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대면'이라는 수단은 이와 같은 한국어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게 하기도 한다. 특히 안정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교육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타국 거주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향후 이 사례에서 확인한 교육의 의의는 향상하면서 한계는 줄이는 방향으로 교육이 설계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이와 같은 한국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효과를 검증하고 체계적으로 교수 학습 내용을 설계하는 등의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민영(2018), 「난민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고경민(2015), 「‘난민’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의 설계 및 교재 개발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9(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164~192면.
- 김양희(2014), 「국내 거주 난민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유정(2020), 「난민 학습자를 위한 실생활 초급 한국어 말하기 교재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은희(2019), 「난민 대상 한국어교육을 위한 능력 중심 교육과정 설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박정아·한정우(2023), 「삼가면서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 난민청소년의 이주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5(3), 한국다문화복지학회, 107~135면.
- 심숙경(2023),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이해」, 『Muslim-Christian Encounter』 16(2),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237~263면.
- 안미리(2018), 「교양교육과 연계한 서비스러닝의 사례연구」, 『문화와융합』 40(5), 한국문화융합학회, 227~252면.
- 양은지(2020), 「터키의 난민 환대 정책: 권위주의 체제와 난민 수용의 역설」,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유숙영·김선경(2021), 「대학생의 비대면 서비스-러닝에서 학습 경험과 성장의 탐색」, 『사고와 표현』 14(3), 한국사고와표현학회, 131~161면.
- 유숙영·김선경(2022), 「대학교육에서 글로벌 서비스-러닝 사례연구: 국내외 난민을 중심으로」, 『글로벌교육연구』 14(4), 글로벌교육연구학회, 113~139면.
- 유숙영·서윤경(2011), 「기독교대학의 봉사-학습(Service-Learning) 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 『기독교교육정보』 31, 185~211면.
- 이은주(2017), 「난민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혜경 외(2016), 『이민정책론』, 박영사
- 이혜진(2022), 「비대면 서비스-러닝 수업 사례연구: W대 <나눔 서비스-러닝>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345~335면.
- 전계령(2020), 「아랍권 난민 아동 대상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시리아 아동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정혜경·조희선(2016), 「‘아랍의 봄’ 이후 시리아 난민에 관한 연구: 주변 중동 국가로의 유입을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18(3),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101~134면.
- 주영환(2020), 「국내 난민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최영진(2019), 「글로벌 서비스 러닝과 다문화주의」, 『다문화콘텐츠연구』 32,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65~91면.
- 최윤희·김진선(2022), 「대학 교양 수업에서의 비대면 서비스러닝 운영 사례 연구: H대학교 <사고와 표현(SL)을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41(3),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13~138면.
- 편윤희(2015),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 분류 제안」, 『한국어교육연구』 3,

한국어교육연구학회, 113~137면.

한국리서치 난민인식조사 연구팀(2021), 「난민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변화 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리서치.

한영란(2019), 「재정착난민 청소년의 한국어 및 학교생활 적응교육 실태와 방향: 교육지원 과
정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튀르키예 거주 시리아 난민 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 사례 연구 - 서울여대 서비스 러닝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안예림(중앙대)

이 연구는 난민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비대면으로 진행된 난민 대상의 교육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난민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저 역시 매우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러닝’이라는 방식을 통해 난민 학습자와 교수자인 <한국어와 한국 문화> 수강생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난민 대상 한국어교육이 활발히 연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표 3>에서 한국어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난민의 유형을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 신청자(이상 대한민국 거주 난민), 재정착 희망 난민, 타국 거주 난민(이상 대한민국 비거주 난민)’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이중 타국 거주 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타국 거주 난민은 한국에 거주한 경험이 없는 난민이고, 아직 한국에 정착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다른 난민 유형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거주 경험이 있거나 곧 한국에 정착하게 될 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다 실제적인 교육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국 거주 난민이 아닌 다른 유형의 난민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교육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수정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둘째, 현재 한국에서는 난민 비자 소지자들 역시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사회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배경을 가진 학습자들과 달리 난민 학습자들은 한국에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진행하신 수업에서도 2022년 1학기 이후부터는 성인 학습자는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워 청소년 학습자만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음에도 성인 학습자가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셋째,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교수자가 한국어문화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업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셨을 듯합니다. <표 6>의 일정에서는 2주차에 ‘한국어문화교육 교수요목 설계’에 대한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바로 다음 주부터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교육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여 학생들도 수업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피드백을 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국어학 발표

사회자 : 황희선(중앙대)

- 발표 : 유영관(강원대) 77
의문형 간접인용 표현 ‘-냐고’에 대한 일고찰
-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 토론 : 윤경선(한성대)

- 발표 : 임현열(경성대) 96
한중 동형 한자어의 의미에 대한 n-gram분석
- 토론 : 최윤(강원대)

의문형 간접인용 표현 ‘-냐고’에 대한 일고찰

-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

유영관(강원대)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 및 분석 대상
3. 의문형 간접인용 표현 ‘-냐고’의 제시 형태
4. 대학 기관 한국어 교재 분석
5. 대학 기관 외 한국어 교재 분석
6. 결론

1. 서론

이 연구는 의문형 간접인용 표현인 ‘-냐고’¹⁾가 사전류와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 더 나은 방향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간접인용 표현은 발화원문의 문장 종결형에 따라서 달라진다. 국어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문장 종결의 형태는 ‘서술, 의문, 명령, 청유, 감탄’ 정도로 나눈다. 연구자에 따라 ‘서술법’의 하위범주에 ‘평서, 감탄, 약속’ 등을 더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감탄’이나 ‘약속’은 ‘평소’의 하위범주로 볼 때도 있어 ‘서술, 의문, 명령, 청유’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권재일(2012)에서는 ‘약속법’이 ‘서술법’의 다른 범주와는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고도 하였다. 다수의 문법서에서는 앞서 밝힌 ‘서술, 의문, 명령, 청유, 감탄’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²⁾ 고경태(2014:154)에서는 인용절의 문장 종결형에 따라 부착되는 종결어미와 종결어미의 성격을 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상대높임법의 성격으로 볼 때, ‘해라체’로 통일되는 양상을 보임을 밝히고 있다.³⁾

1) 표준문법에서는 결합되는 선행요소의 품사나 선어말어미에 따라 ‘-느냐고’, ‘-(으)냐고’, ‘-(이)냐고’로 제시가 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냐고’로 대표하겠다.

2) 권재일(2012:272-301)에서는 ‘약속법’을 ‘서술법’의 하위범주로 지위를 설정한다.

서술법 - 행동 수행과 관련 없음: 평서법, 감탄법
 - 행동 수행과 관련 있음: 약속법

3) 인용절의 문장 유형에 따른 종결어미(현재)

유형	인용절 말 어간과 시제소	부착되는 종결어미	종결어미 성격
ㄱ. 평서문, 감탄문	동사	-ㄴ다/는다	해라체
	형용사	-다	해라체
	명사+‘이-’	-라	옛말 어미
ㄴ. 의문문	동사	-(느)냐	해라체
	형용사	-(으)냐	해라체

간접인용은 국어교육이나 한국어교육에서 문장의 확대를 위하여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항목이다. 직접인용은 발화원문의 문장종결법과 상관없이 그대로 가져와 ‘라고’ 또는 ‘하고’만 덧붙이면 되지만 간접인용은 문장종결법에 따라 결합하는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룬 의문문의 간접인용 형식인 ‘-냐고’는 결합하는 선행요소의 품사나 선어말어미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에서는 의문형 간접인용 표현 ‘-냐고’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표현을 학습하는 대상이 주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내국인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이 자세하게 또는 규범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정형화된 형식으로 교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⁴⁾ 한국어 교재에서 ‘-냐고’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수차례 연구되었지만 2015년 이전에 발간된 교재를 대상으로 한 결과가 많다. 따라서 최근 새롭게 발간된 한국어 교재에서는 어떠한 경향을 띠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분석에 사용된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논의의 배경 및 사전류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4장에서는 ‘대학 기관 발간 한국어 교재’, 5장에서는 ‘대학 기관 외의 기관에서 발간한 한국어 교재’에서 ‘냐고’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 결론에서는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였다.

2. 선행연구 및 분석 대상

의문형 간접인용 표현 ‘-냐고’는 문장의 확대에서 간접인용절의 표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접인용의 ‘라고’, ‘하고’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직접인용의 ‘라고’는 인용격조사라는 범주로 비교적 통일되게 제시되고 있으나, ‘-냐고’는 의문형 종결어미 ‘-냐’와 인용격조사 ‘고’의 결합으로 처리하거나, ‘-냐고’를 ‘-다고, -(으)라고, -자고’ 등과 함께 부사형 어미로 처리하기도 한다(고영근 외(2018); 유현경 외(2018); 함병호(2020)) 등.

‘-냐고’에 대한 연구로는 김현숙(2011), 박기선(2012), 이동석(2014) 등이 대표적이다. 김현숙(2011)에서는 ‘-느냐고’, ‘-(으)냐고’가 아닌 구어적 통용 형태 ‘-냐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설문 조사지 방법을 통해 확인했는데 설문 결과를 통해 규범적인 형태보다 구어적 통용 형태가 더 일반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구어적 통용 형태인 ‘-냐고’를 교수목록에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하기도 한다.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어적 형태를 우선하며 규범적인 형태⁵⁾를 부가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박기선(2012)에서는 말뭉치 자료의

	명사	-(이)냐	해라체
ㄷ. 명령문	동사	-(으)라	옛말 어미
	동사 ‘주다’→‘달다’		
ㄹ. 청유문	동사	-자	해라체

4) 김현숙(2011)에서는 설문 조사 결과 규범 형태인 ‘-느냐고’, ‘-(으)냐고’의 사용 비율이 3% 미만으로 나타난 것을 바탕으로 구어적 통용 형태인 ‘-냐고’가 일반화 과정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적인 설명을 통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규범 형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고의 한국어 교육적 관점에서는 규범 형태를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교수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구어적 통용 형태를 부가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5) 의문문 간접인용 - 국립국어원(2002)

분석을 통해 ‘-냐고’의 통합 양상을 살폈다. 국립국어원(2005) 자료를 규범문법으로 하여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의 메타 언어적인 설명을 통해 ‘-냐고’에 결합하는 선/후행 통합 양상을 살펴보았다. 해당 논문의 필자도 밝혔듯이 통합 양상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냐고’에 의한 간접의문문 형식이 담화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기 어려웠다. 이동석(2014)에서는 ‘-냐’계 어미의 결합 분포를 구어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느냐/으냐/냐’가 각각 특정한 어간과 결합한다는 결합 제약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 국어사전 및 연구 논저를 비판적으로 보고 실제 말뭉치 자료의 분석을 통해 ‘-냐’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냐고’는 간접인용의 범주 안에서 연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간접인용을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고경태(2014), 박은하(2016), 최은경(2016) 등이 있다. 고경태(2014)에서는 총 19종의 교재 및 지침서를 다뤘는데⁶⁾ 간접인용 표현의 생성방법을 인용절의 완형성에서 찾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교육 내용으로 ‘인용할 문장의 해라체 변환+고 하다’와 같은 간단한 규칙을 제시하였다. 박은하(2016)에서는 고려대, 경희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⁷⁾를 바탕으로 메타언어의 쓰임을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어 교재에서 기술되고 있는 메타언어와 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메타언어가 교재별로, 교사별로 공통되게 기술을 하고 있지

	선행 환경	예
-느냐고	① 동사 어간	먹느냐고, 보느냐고
	② ‘있다’, ‘없다’ 어간	있느냐고, 없느냐고
	③ 어미 ‘-았-’, ‘-겠-’	먹었느냐고, 보았느냐고, 예뻐느냐고, 놀았느냐고
-으냐고	① ‘르’를 제외한 받침으로 끝난 형용사 어간	높으냐고, 추우냐고
-냐고	① 받침 없는 형용사 어간	예쁘냐고, 착하냐고
	② ‘르’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 어간	기냐고, 머냐고
	③ ‘이다’, ‘아니다’ 어간	학생이냐고, 아니냐고

6) 고경태(2014:147-148)의 내용에 필자가 간행 시기를 덧붙임

연번	서명	간행처	간행 시기
1	매일 만나는 한국어2	충북대 출판부	2011
2	배우기 쉬운 한국어2	성균관대 출판부	2006
3	배워요 재미있는 한국어 + 교사용 지침서	하위기획출판	2010
4	살아있는 한국어2	계명대 출판부	2009
5	서강 한국어 2A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12
6	쉽게 말하는 한국어 3	충북대 출판부	2011
7	알기 쉽고 재미있는 중앙 한국어 3(상)	중앙대 출판부	2012
8	열린 한국어 중급 1	하우	2011
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2	한국외대 출판부	2008
1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역락	2010
11	유학생을 위한 톡톡 튀는 한국어	박이정	2009
12	재미있는 한국어 3	교보문고	2010
13	한국어 중급 1	경희대 출판문화원	2012
14	한국어 2	건국대 출판부	2009
15	한양 한국어 2	한양대 출판부	2010
16	함께 배우는 건국 한국어 2-1	건국대 출판부	2011
17	함께 배우는 한국어 2	동국대 출판부	2009
18	100시간 한국어	연세대 출판부	2007
19	Path Finder 2	이화여대	2009

7) 재미있는 한국어3(2010), 경희 한국어 중급1(2005), 서강 한국어 2A/2B(2008), 연세 한국어 2-2~3-1(2013), 이화한국어 3-1~3-2(2011)

않다고 지적하며 의미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최은경(2016)에서는 간접인용 표현을 32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각 교재에서 제시된 순서와 특징, 시기 등을 검토하였다. 사용된 교재는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에서 발간한 교재이다.⁸⁾ 위 내용과 각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분석에 사용된 교재 대부분은 2010년을 전후로 발간된 교재이며 가장 최근에 발간된 교재는 2015년에 발간된 '서울대 한국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문형 간접인용 표현 '-냐고'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첫째, 사전류에서 '-냐고'에 대해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 실제 한국어 교재⁹⁾에서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김현숙(2011)의 유형 분류를 바탕으로 살펴볼 것이다. 17종의 한국어 교재¹⁰⁾를 바탕으로 살펴볼 것인데 대학교 등에서 발간한 한국어 교재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 교재, 세종학당에서 발간한 교재도 같이 볼 것이다. 한국어 교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최근의 내용들을 수록한 것으로 개정판을 내거나 새로운 교재를 출간한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의문형 간접인용 표현 '-냐고'에 대한 차이점이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의문형 간접인용 표현 '-냐고'의 제시 형태

3.1. 논의의 배경 및 개설

김현숙(2011)에서는 의문형 간접인용 표현 '-냐고'가 한국어 교재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한국어 정규 과정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인지도가 높은 9종의 교재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¹¹⁾ 본 연구에서는 김현숙(2011:38)의 분류를 따라 분류하도록 하겠다.¹²⁾

8) 재미있는 한국어3(2010), 함께 배워요 한국어 2A/2B(2015), 서강 한국어 2A/2B(2008), 서울대 한국어 3A(2015), 연세 한국어 2-2(2013), 이화한국어 3-1~3-2(2011)

9) 분석에 사용된 한국어 교재(가나다 순)

① 대학교 한국어 교재: 함께 배우는 건국 한국어 2-2(2014), 경희한국어 문법 3(2014), 경희한국어 중급1 문법(2020), 고려대 한국어 4A(2021), 서강 한국어 2B(2012), 한국어3(2005), 서울대 한국어 3A(2015), 서울대 한국어+(2023), 성균 한국어 3 어휘·문법(2019), 연세 한국어 2(2007), 새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2-2(2019), 이화한국어 3-1(2011)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 중급1(2010),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2013),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2020)

③ 세종학당 한국어 교재: 증보판 세종한국어6(2021), 세종학당 실용한국어3(2022)

10) 서울대 교재는 2000년 이후로 세 차례에 걸쳐(2005 / 2015 / 2023) 한국어 교재를 발간하였다. 두 번째 발간된 2015년 자료를 하나의 분기점으로 하여 최근(2023년) 새롭게 발간된 한국어 교재 발간 시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본 연구는 김현숙(2011)의 후속 연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전 교재와 개정된 교재 사이의 차이점을 살피기 위해서 이미 다른 교재도 일부 포함하였다.

11) 1유형 교재: 한국어3(서울대)

2유형 교재: 서강한국어 뉴시리즈 2B(서강대), 아름다운 한국어(한국어교육 개발연구원), 연세 한국어 2(연세대), 말이 트이는 한국어Ⅲ(이화여대), 쉬워요 한국어3(한국어교육문화원)

3유형 교재: 한국어 중급1(경희대), 재미있는 한국어3(고려대), 배워요 재미있는 한국어3(배재대)

12) 한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은 학습자의 성격이 비슷하여 학교문법을 기반으로 구성된 초등/중등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지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은 학습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아직까지 국가 수준의 규범문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현숙(2011)에서는 의문형 간접인용 표현 '-냐고'를 규범 형태와 구어적 통용 형태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되는 형태와 두 가지가 함께 제시되는 형태로 분류하였다.

(1) ‘-냐고’ 제시 유형

- ① 1유형: 규범 형태 ‘A-(으)냐고’, ‘V았/었/겠-느냐고’ 제시
- ② 2유형: 구어적 통용 형태 ‘-냐고’만 제시
- ③ 3유형: 구어적 통용 형태 ‘-냐고’ 제시 후 규범 형태를 부가적으로 설명

1유형은 규범문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구어적 형태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2유형은 소위 구어적 통용 형태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기술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3유형은 본문이나 예문을 통해 구어적 통용 형태를 제시하고 별책부록 등을 활용해 규범 형태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유형이다.

한국어 간접인용문의 피인용문은 인용문의 문장종결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인용문의 의문문의 경우 결합되는 선어말어미가 무엇이나에 따라서 간접인용 표현이 결정되기도 한다. 규범문법에서는 결합하는 선행 환경에 따라 ‘-느냐고’, ‘-(으)냐고’, ‘-냐고’를 선택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최근의 문법서¹³⁾에서도 유사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남기심 외(2019:353)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1> 간접인용절에서의 문체법 종결어미의 중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 ‘고’
평서형	-다	-다	-라	
의문형	-느냐	-(으)냐	-냐	
명령형	-라			
청유형	-자			

문장종결법에 따라 피인용문의 종결어미가 통일되는 현상은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남기심 외(2019)에서는 상대높임법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이는 ‘해라체’로 중화된다고 보는 고영근 외(2018); 이금희(2009); 고경태(2014); 함병호(2020)의 입장과 차이를 보인다.

3.2. 사전류

사전은 문법서보다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내용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규범적인 성격이 강해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어휘, 어미, 조사 등을 확인할 때 준거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전류는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문법²¹⁴⁾, <어미·조사 사전>, <한국어 문법 사전> 등인데 특히 <표준국어대사전>은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 두루 사용하고 있다. <어미·조사 사전>, <한

13)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고영근·구본관(2018), 개정판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유현경·한재영·김홍범·이정택·김상규·강현화·구본관·이병규·황화상·이진호(2018),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남기심·고영근·유현경·최형용(2019), 전면개정판 새로 쓴 표준국어문법론, 한국문화사
 14) <한국어문법2>의 정식 명칭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2’로 외국인 한국어 연구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엄밀하게 사전으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어미·조사 사전’의 역할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어 문법 사전>은 특히 한국어교육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어미·조사 사전>의 정식 명칭은 ‘한국어 학습 전문가용 어미·조사 사전’으로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표현들을 주로 사용하였다. <한국어 문법 사전>의 경우 저자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체계 및 설명은 전통 국어 문법 이론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한국어교육 현장에서의 응용을 전제로 제작되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전류에서 의문형 간접인용 표현 ‘-냐고’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메타 언어적인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표 2> 한국어 사전류의 메타 언어적 분석

표제어	설명	사전
-느냐고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간접인용절에 쓰여, ‘-느냐’에 인용을 나타내는 격조사 ‘고’가 결합한 말	표준국어대사전
-으냐고	(‘르’를 제외한 받침 있는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간접인용절에 쓰여) 어미 ‘-으냐’에 인용을 나타내는 격조사 ‘고’가 결합한 말	
-냐고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간접인용절에 쓰여, 어미 ‘-냐’에 인용을 나타내는 격조사 ‘고’가 결합한 말.	
-느냐고	(동사 어간이나 ‘있다’, ‘없다’ 어간, 어미 ‘-았-’, ‘-겠-’ 뒤에 붙어) 다른 사람의 질문 내용을 전달함을 나타내는 표현. 어미 ‘-느냐’와 인용의 ‘-고’가 함께 쓰인 표현 #주로 말할 때는 ‘-느냐고’를 ‘-냐고’로 쓰기도 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으냐고	(형용사 어간이나 ‘이다’, ‘아니다’ 어간 뒤에 붙어) 다른 사람의 질문 내용을 전달함을 나타내는 표현. 어미 ‘-으냐’와 인용의 ‘고’가 함께 쓰인 표현. #말할 때 ‘-으냐고’를 ‘-냐고’로 쓰기도 한다.	
-냐	의문형으로 표현된 내용을 간접적으로 옮겨 말함을 나타낸다. 형태 정보 ‘-냐’는 받침 없는 형용사, ‘르’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 ‘이다’에 쓰인다. ‘-으냐’는 받침 있는 형용사에 쓰인다. ‘-느냐’는 동사, ‘있다/없다’, ‘-았-’, ‘-겠-’ 뒤에 쓰인다. 의문문의 간접인용 간접인용에서 의문문은 모두 ‘-(느)냐’의 꼴로 바뀌고 이에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 ‘고’가 붙어 ‘-(느)냐고’의 꼴로 된다.	어미 조사 사전 (이희자, 이종희)
-(느/으)냐고	인용을 나타내는 ‘고’가 결합한 간접인용문 형식 원화자의 말이 서술문으로서 의문문이면 ‘-(느/으)냐고’를 쓴다.	외국어로서의 한 국어 문법 사전 (백봉자)

사전류(<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문법2>, <어미·조사 사전>, <한국어 문법 사전>)를 김현숙(2011)에서 제시한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모두 1유형에 속함을 알 수 있다. 규범적인 형태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어문법2>에서는 구어적 통용 형태를 제시하여 제4의 유형

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4. 대학 기관 한국어 교재 분석

현재까지 대학 기관에서 발간한 한국어 교재는 무수히 많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는 ‘서울대 한국어’, 연세대 한국어, ‘경희 한국어’, ‘서강 한국어’ 등이 있다. 한국어 교재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내용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일부 새롭게 생성된 어휘는 교재에 수록이 되며 반대로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어휘는 목록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법의 경우 그 기능을 기술하는 차이가 어휘처럼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4.1. 개정 교재 혹은 새로운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경희대 한국어’, ‘고려대 한국어’, ‘서울대 한국어’, ‘연세대 한국어’, ‘성균 한국어’가 있다. 최근의 한국어교육에서는 규범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비문법적/비규범적인 표현이 더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화자와 청자 사이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의문형 간접인용 표현 ‘-냐고’도 이러한 흐름 위에서 본다면 규범 형태보다 구어적 통용 형태인 ‘-느-’, ‘-으-’를 탈락시킨 형태가 더 빈번하게 교수목록에서도 드러날 것이다.

<표 3> 한국어 교재의 메타 언어적 설명과 유형 분석(대학 기관 발간1)

표제어	설명	교재	유형
-냐고 하다	의문형 ‘-냐고 하다’는 ‘-넌/습니까?’, ‘-아/어요?’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문장을 전달할 때 사용한다.	경희 한국어 문법3: 91쪽	2 유형
동사+냐고 하다	‘동사+냐고 하다’는 의문형의 간접 인용으로 다른 사람이 한 질문을 전달할 때 사용한다.	경희한국어 중급1 문법: 84쪽	2 유형
[간접화법] -냐고 하다	‘-냐고 하다’는 의문문의 간접화법이다. 의문문의 간접화법은 현재 시제일 때 동사 뒤에는 ‘-느냐고 하다’, 형용사 뒤에는 ‘-(으)냐고 하다’를 붙여야 한다.	고려대 한국어 4A: 39쪽: 112쪽	3 유형
A(으)냐고 하다 V느냐고 하다 N(이)냐고 하다	간접 인용문	한국어3: 32	1 유형
A(으)냐고 하다 V느냐고 하다 N(이)냐고 하다	의문문의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 형용사, 동사, 명사와 모두 결합	서울대 한국어 3A: 246쪽	1 유형
V느냐고 하다 A으냐고 하다 N이냐고 하다	질문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 구어체에서는 ‘-느-’, ‘-으-’를 생략한 형태인 ‘-냐고 하다’를 주로 사용.	서울대 한국어+ 문법과 표현: 14~15쪽	4 유형

-냐고 하다	is the indirect speech form to pass the message from interrogative sentence	연세한국어 2-2: 273쪽	2 유 형
-냐고 하다	This is used with an action or descriptive verb as an indirect expression to indirectly relay what one has heard as a question from another person.	새연세한국어 어휘와문법 2-2 별책부록: 19~20쪽	3 유 형
V/A냐고 하다	‘-냐고 하다/묻다’는 동사형용사의 어간, 명+이(다)에 붙어 다른 사람의 질문 내용을 인용하거나 전달할 때 사용.	Sungkyun Korean 3 Vocabulary-Grammar: 38	2 유 형

‘경희한국어’는 2유형으로 구어적 통용 형태인 ‘-냐고’만 제시한다. 김현숙(2011)에서 분석한 경희대 교재는 2002년에 발간된 것으로 당시에는 3유형으로 분류가 되었다. 최근에 간행된 ‘경희한국어’는 2020년에 발간된 것으로 중급1 문법에서 표3과 같이 ‘동사+냐고’만 제시한다.¹⁵⁾ 하지만 고급 교재에 상대높임표를 제시하는데 ‘해라체 의문형 종결어미’에 ‘느냐/으냐’를 제시하여 3유형으로 처리할 여지를 두기도 한다. 이는 다음에 나오는 표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 ㄱ. 장민 씨가 어디에 가냐고 했어요.
 ㄴ. 하루에 한국어를 얼마나 공부하냐고 하셨어.
 ㄷ. 이사한 곳이 학교에서 머냐고 했어요. (경희 한국어 중급1 문법:84)

- (3) ㄱ. 집에 가냐? / 가느냐?
 ㄴ. 일을 마쳤냐? / 마쳤느냐?
 ㄷ. 요즘 바쁘냐?
 ㄹ. 내일은 휴식이냐? (경희 한국어 고급1 문법:150)

<표 4> 상대높임표 부분 발체(경희한국어 고급1 문법:150)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격식	아주 낮춤	-(는/ㄴ)다	-(으/느)냐	-(으)라 -아라/어라	-자	-(는)구나

예문(2)는 실제 해당 목표문법인 ‘-냐고’를 교수하는 중급1에서 나오는 예문으로 동사나 형용사에 따른 결합 정보를 알 수 없다. 예문(2ㄱ~ㄷ) 모두 선행 용언의 어간에 ‘-냐고’ 형태를 결합하여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고급1의 상대높임표와 그에 따라 제시되는 예문에서는 동사, 형용사에 따른 어미 결합의 차이를 보인다. 예문(3)은 고급1 교재 상대높임표에 제시된 예문으로 동사와 형용사, 명사가 해라체 의문형 종결어미 ‘-냐’의 선행요소로 나왔을 때 어떠한 결합의 차이를 보이는지 나타내고 있다. ‘-으/느-’가 생략된 ‘-냐’의 형태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15) 새로 간행된 ‘경희한국어’는 전통적인 ‘동사/형용사’의 개념에서 벗어나 ‘동사’로 통칭하며 개별 분류를 할 때는 ‘동작동사’, ‘상태동사’로 나눈다.

‘고려대 한국어’는 3유형으로 실제 학습을 하는 부분에서는 단순하게 제시하고 ‘문법 찾아보기’를 통해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현재 시제일 때 동사의 경우 ‘-느냐고 하다’, 형용사의 경우 ‘-(으)냐고 하다’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구어의 경우 동사, 형용사의 구분 없이 ‘-냐고 하다’를 사용할 수 있음을 부기하였다. 고려대 교재는 말하기 활동 중심의 통합 교재인 ‘고려대 한국어’와 의사소통 활동 중심으로 분권된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 두 가지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앞서 분석된 교재는 개정 전의 ‘재미있는 한국어’였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교재는 ‘고려대 한국어’로 서로 다른 만큼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서울대 교재’는 2000년에 출시한 교재를 2005년 한 번의 수정·보완을 거친 후 개정판 한국어 교재가 출간되기 전까지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교재는 ‘한국어3’으로 의문형 간접인용 표현의 제시는 1유형이다. 메타 언어적인 정보는 제시되지 않으며, 선어말어미에 따른 결합 양상은 예문을 통해서 일부 제시하고 있다. 구어적 통용 형태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2015년에 개정 출간된 서울대 한국어 3A에서 규범적 형태를 강조하는 1유형으로 제시를 하였다. 당시 교재에서는 구어적 형태를 드러내지 않았으나 2023년에 출간된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4b)와 같이 ‘-느-’, ‘-으-’가 생략된 구어적 형태를 주로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 한국어+’는 가장 최근에 나온 한국어 교재로 의문형 간접인용의 제시 형태는 1유형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전의 교재와는 달리 구어적 통용 형태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유형으로 처리하겠다.

(4) ㄱ. 몇 시까지 박물관에 가야 하느냐고 물어보세요

- ㄴ. 어떤 음악이 좋으냐고 해서 조용한 음악이 좋다고 했어요.
- ㄷ. 영호 씨가 저에게 아침을 먹었느냐고 했어요.
- ㄹ. 친구가 저에게 어제 많이 바빴느냐고 물어봤어요.
- ㅁ. 나나 씨에게 주말에 같이 부산에 가겠느냐고 물어봤어요.
- ㅂ. 여행사에 전화해서 고향에 가는 비행기표가 있느냐고 물어봐 줄래?

(서울대 한국어+ 3A 문법과 표현:14-15)

‘한국어문법2’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규범적인 형태를 먼저 제시(1유형)하고 ‘말할 때’ 또는 ‘구어체’에서는 ‘-느-’, ‘-으-’가 생략된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정보를 통해 제4의 유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김현숙(2011)에서 분석에 사용한 ‘연세한국어’는 2007년에 발간된 것으로 ‘-냐고’의 제시 유형은 2유형이었다. 구어적 통용 형태만 제시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새연세한국어’는 3유형으로 주교재에서는 메타 언어적인 정보가 기술되지 않고 별책부록에 타언어권 화자를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기술을 하고 있다. 결합하는 선행요소에 따라 ‘동사/있다/없다+느냐고’, ‘형용사+(으)냐고’로 구분됨을 비교적 자세하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주교재에서는 ‘-냐고’만 제시하고 있어 학습자들이 별책부록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러한 차이를 알 수 없게 된다.

(5) ㄱ. 동생이 저에게 몇 시까지 수업을 듣냐고 해요

- ㄴ. 아버지께서 저에게 요즘 많이 바쁘냐고 하셨어요.
- ㄷ. 사무실 직원이 존 씨에게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고 했어요.
- ㄹ. 한국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2-2:45)

‘성균 한국어’는 2019년에 발간된 것으로 비교적 최근에 발간된 교재라고 할 수 있겠다. ‘-냐고’의 제시 형태는 2유형으로 구어적 통용 형태만 제시한다. 교재의 메타 정보에 ‘동사·형용사의 어간’, ‘명사+이(다)에 붙어’를 기술하여 학습자들도 쉽게 ‘-냐고’와의 결합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6) ㄱ. 히엔 씨가 매일 한국어 공부를 하냐고 했어요.
 ㄴ. 빙빙 씨가 어제 적성검사를 받았냐고 했어요.
 ㄷ. 왕량 씨가 대학 수업은 어렵지 않냐고 했어요.
 ㄹ. 뚜언 씨가 어학당을 마치고 나서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했어요.
 ㅁ. 제임스 씨가 대학에 입학하면 무엇을 전공할 거냐고 했어요.
 ㅂ. 유미 씨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냐고 했어요. (성균한국어 3 어휘·문법:38)

이와 같이 같은 기관에서 발간한 교재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문법 표현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기도 한다. 교재를 개발할 때 개발자가 새로운 연구 결과와 최근의 흐름을 적극 반영하느냐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2. 근래에 개정하지 않은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건국 한국어’, ‘서강 한국어’, ‘이화 한국어’¹⁶⁾로 대표할 수 있는 교재들이다.

<표 5> 한국어 교재의 메타 언어적 설명과 유형 분석(대학 기관 발간2)

표제어	설명	교재	유형
A(으)냐고 하다 V냐고 하다	-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또 다른 이에게 전할 때 사용.	건국 한국어 2-2: 208쪽	1 유형
-냐고 하다	- ‘-냐고 하다’ is used with verbs, adjectives, and 있다/없다, -이다/아니다. It is always attached directly to the end of a stem.	New 서강 한국어 2B 문법·단어 참고서: 21쪽	2 유형
V/A냐고 하다	- ‘-냐고 하다/묻다’는 동사·형용사의 어간, 명+이(다)에 붙어 다른 사람의 질문 내용을 인용하거나 전달할 때 사용.	성균 한국어 3 어휘·문법: 38쪽	2 유형
A/V+냐고 하다	- 다른 사람의 질문 내용을 인용하거나 전달함을 나타낸다.	이화한국어 3-1: 119쪽	3 유형

‘건국 한국어’는 2009년부터 개발 착수하여 발간된 교재로 의문형 간접인용 표현의 제시 형태는 1유형이다. 교재에서는 ‘-냐고 하다’의 선행요소로 ‘동사/형용사/명사’가 왔을 때의 결합

16) 이화한국어는 2023년 11월부터 ‘새 이화한국어’가 1급부터 발간 중이다.

정보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선어말어미와의 결합 정보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7) ㄱ. 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전화로 용돈이 적으냐고 하셨다.
 ㄴ. 스티븐 씨가 혼자 살아 본 경험이 있느냐고 했어요.
 ㄷ. 마리가 너한테 무슨 책을 읽느냐고 했어.
 ㄹ. 선생님께서 왜 숙제를 안 했느냐고 하셨다.
 ㅁ. 룸메이트가 이따가 언제 집에 올 거냐고 물었다. (건국 한국어 2-2:102)

예문(7ㄱ,ㄷ)은 ‘-냐고’의 선행요소로 형용사와 동사가 위치했을 때의 형태로 각각 ‘-으-’, ‘-느-’가 실현되어 있다. (7ㄹ)은 시제선어말어미 ‘-었-’이 결합되었을 때 ‘-느-’가 실현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선어말어미 ‘-(으)시-’, ‘-겠-’의 결합에 따른 실현 정보는 확인할 수가 없다.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New 서강 한국어(서강 한국어 New 시리즈)’는 2002년에 출판된 서강 한국어를 수정 보완한 교재로 의문형 간접인용 표현의 제시 유형은 2유형이다. 구어적 통용 형태만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학생용 교재를 통해서는 ‘-냐고’의 결합 정보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힘들다. 별책부록으로 제공하는 ‘문법·단어 참고서’에 ‘동사/형용사’, ‘있다/없다’, ‘이다/아니다’의 어간에 ‘-냐고 하다’가 결합됨을 기술하고 있다.

- (8) ㄱ. 오늘 시간 있냐고 했어요.
 ㄴ. 유리 씨가 언제 점심을 먹냐고 했어요.
 ㄷ. 투안 씨가 어디로 여행을 가냐고 했어요.
 ㄹ. 선생님이 언제부터 한국어를 공부했냐고 했어요.
 ㅁ. 앤디 씨가 언제 점심을 먹을 거냐고 했어요.
 ㅂ. 유리 씨가 현우 시를 아냐고 했어요.
 ㅅ. 타쿠야 씨가 춤냐고 했어요. (New 서강 한국 한국어 2B:146, 참고서:21-22)

예문(8ㄱ-ㄷ)은 의문형 간접인용 표현 ‘-냐고’의 선행요소로 형용사 ‘있다’, 동사 ‘먹다, 가다’가 위치했을 때의 결과이다. 구어적 통용 형태로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느-’, ‘-으-’의 결합 예시가 전혀 없다. (8ㅂ)은 어간 말음에 ‘ㄹ’이 있는 동사로 규범적인 형태로 제시한다면 ‘아느냐고’로 실현이 되어야 하지만 ‘아느냐’로 실현이 되었고 (8ㅅ)은 어간말음에 ‘ㅂ’이 있는 불규칙 형용사로 ‘추우냐고’로 실현되지 않고 ‘춤냐고’로 아주 간략하게 제시가 되었다.

‘이화 한국어’는 김현숙(2011)에서는 ‘말이 트이는 한국어’를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당시 ‘-냐고’의 제시 형태는 2유형이었다. ‘이화한국어 3-1’은 2011년에 발간된 교재로 ‘-냐고’의 제시는 3유형이다. 이화한국어는 ‘문법’ 란을 통해 해당 목표 문형에 대한 메타 언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추가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Tip’을 통해 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¹⁷⁾ ‘-냐고’의 경우 ‘-느-’, ‘-으-’가 결합된 형태로도 쓰일 수 있음을 보충하였다.

17) 이화한국어 3-1(2011:119)
 ‘A/V+냐고 하다’는 다른 사람의 질문 내용을 인용하거나 전달함을 나타낸다.
 Tip. ‘V+느냐고 하다/묻다, A+(으)냐고 하다/묻다’의 형태로도 쓰인다.

(9) ㄱ. 모두들 영민 씨가 어떻게 지내냐고 했어요.

ㄴ. 저에게 내일 바쁘냐고 했어요.

ㄷ. 사귀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봐요.

ㄹ. 결혼했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ㅁ. 언제 결혼할 거냐고 해요.

ㅂ. 보통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이화 한국어 3-1:119)

예문(9ㄱ-ㄷ)은 의문형 간접인용 표현 ‘-냐고’의 선행요소로 ‘동사와 형용사, 있다’의 어간이 제시되었을 때의 결합 정보이다. ‘V+느냐고’, ‘A+(으)냐고’와 같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구어적 통용 형태를 강조하여 나타내었다. (9ㄹ-ㅁ)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나 표현이 제시되었을 때의 형태로 일반적인 구어적 통용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5. 대학 기관 외 한국어 교재

5.1.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 과정은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과정으로 결혼 이주민, 근로자, 유학생, 중도 입국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인 대학 기관에 비해서 수업 시간도 적으며 교재도 국립국어원에서 기획한 표준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의 빠른 적응과 실제적인 한국 생활이 목적인 만큼 교수하는 내용은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들과 구어적인 요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준 교재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사용되었는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교재로 2010년에 발간한 교재를 사용하다가 2020년에 개정된 교재가 발간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이 대부분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라는 교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표 6> 한국어 교재의 메타 언어적 설명과 유형 분석(사회통합프로그램)

표제어	설명	교재	유형
(동/형)냐고 하다 (명)(이)냐고 하다	- ∅	한국어 중급1: 48쪽	2 유형
동/형+냐고 하다	- 간접화법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 155쪽	2 유형
동/형-냐고 하다	-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질문의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 87쪽	2 유형

기존에 사용되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 교재는 목표 문형에 대한 메타 언어적인 정보가 생략되어 있어 이 문형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에 개정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재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술하여 상황 맥락을 알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 (10) ㄱ. 영주 씨가 나한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ㄴ. 마리나 씨가 몇 시에 퇴근하냐고 물었어요.
 ㄷ. 선생님이 고향에서 무슨 일을 했냐고 질문했어요.
 ㄹ.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에 얼마동안 체류할 거냐고 물었어요.
 (한국어 중급1:48-49)

- (11) ㄱ. 요즘 시청률이 가장 높은 드라마가 뭐냐고 했어요.
 ㄴ. 말하기 대회는 언제까지 접수해야 하냐고 했어요.
 ㄷ. 다음 한국어 수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냐고 했어요.
 ㄹ. 이번 주말에 뭐 할 거냐고 했어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155)

- (12) ㄱ. 공연이 몇 시에 시작하냐고 했어요.
 ㄴ. 주말에 무슨 전시회에 갔냐고 했어요.
 ㄷ. 고향 친구가 저한테 고향에 언제 오냐고 해요.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87)

예문(10)-(12)에서 보듯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서는 의문형 간접인용 표현 ‘-냐고’를 모두 2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0년 개정판 한국어 교재는 학습자의 자율학습을 위해 ‘익힘책’을 개발하였는데 익힘책에는 본교재에서 부족하게 제시된 ‘-냐고’의 선행 환경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특히 ‘-냐고’와 동사/형용사의 시제에 따른 결합 정보에 대해서 표를 통해 연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5.2. 세종학당 한국어 교재

세종학당 재단은 ‘누리 세종학당(이하 세종학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스스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자들이 다양한 한국어 교재를 E-Book 형태로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용되는 교재는 ‘세종학당 실용 한국어’, ‘세종한국어(2022)’, ‘증보판 세종한국어’ 등이 있다.

‘세종한국어’는 2011년부터 개발되어 사용되었으며 2019년 부분 수정을 거쳐 ‘증보판’을 발간하였다. 그후 2022년에 개정판 세종한국어를 발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다.

<표 7> 한국어 교재의 메타 언어적 설명과 유형 분석(세종학당 발간)

표제어	설명	교재	유형
*-는다고/ㄴ다고 하다	- 듣거나 읽은 진술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사용.	실용 한국어3: 103쪽	X
-(으)냐고 하다 -느냐고 하다	‘-(으)냐고/느냐고 하다’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전달할 때 사용.	증보판 세종한국어6: 128쪽	1 유 형
-내요	- ‘-내요’는 ‘-냐고 해요’의 줄임 표현.	세종한국어(2022) 4A: 32쪽	X

‘세종한국어’는 국립국어원에서 기획한 한국어 교재로 개별 연구자의 입장보다 국책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한국어 문법 표현들도 가장 표준화된 형태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증보판 세종한국어’는 의문형 간접인용 표현 ‘-냐고’에 대해서 규범 형태 ‘A-(으)냐고’, ‘V+느냐고’, ‘A/V+았/었/겠+느냐고’로 나타나는 1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용 한국어’ 교재와 지침서에서는 ‘평서형’에 대한 간접인용만 제시하고 있어서 ‘의문형 간접인용’의 제시 유형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교수자의 선택에 따라서 교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개정된 ‘세종한국어(2022)’의 경우 ‘세종한국어 3A’에서 간접인용을 교수하는데 ‘평서형, 청유형, 명령형’의 간접인용은 교수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의문형’은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세종한국어 4A’에서 축약형 ‘-내요’를 제시하여 ‘의문형 간접인용’ 표현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3) ㄱ. 창립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쯤 되느냐고 물으셨어요.
 ㄴ. 기념품은 뭐로 결정했느냐고 하셨어요.
 ㄷ. 식당 측에서 메뉴를 뭐로 정하면 좋겠느냐고 전화가 왔었어요.

(증보판 세종한국어 6:128)

예문(13)에서는 현재 시제 형용사의 결합 정보는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동사의 결합 정보와 선어말어미가 결합했을 때의 활용 형태는 비교적 잘 제시하고 있다. (13ㄱ)과 같이 ‘-냐고’의 선행요소로 동사가 결합했을 때 ‘-느냐고’로 실현되고 있다. (13ㄴ)은 동사나 형용사에 선어말어미 ‘-었/았-’이 결합했을 경우로 규범 형태인 ‘-느냐고’로 실현이 되었다. (13ㄷ)은 선어말어미 ‘-겠-’과의 결합 형태이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규범적인 형태를 강조하는 교재는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교재가 구어적 통용 형태를 강조하고 있으며 규범적인 형태를 부기하는 교재도 일부 존재한다. 규범적인 형태를 먼저 제시하고 구어적 통용 형태를 부기하는 형식도 새롭게 나타났다. 김현숙(2011)의 유형 분류에 제4의 유형을 추가할 수 있다.

(14) ‘-냐고’의 제시 유형

- ① 1유형: 규범 형태 ‘A-(으)냐고’, ‘V았/었/겠-느냐고’ 제시
- ② 2유형: 구어적 통용 형태 ‘-냐고’만 제시
- ③ 3유형: 구어적 통용 형태 ‘-냐고’ 제시 후 규범 형태를 부가적으로 설명
- ④ 4유형: 규범 형태를 제시하고 구어적 통용 형태를 부가적으로 설명.

한국어 교재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수정·보완되거나 개정판을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특히 원활한 의사소통을 중요시하는 한국어교육 차원에서는 목표 문형에 대한 제시도 규범적인 형태보다는 구어적 통용 형태를 좀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상대적으로 적게 제시가 되었지만 규범 형태를 제시하고 구어적 통용 형태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4유형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후 발간될 한국어 교재에서는 어느 유형을 선택하는지 분석해 본다면 경향을 보다 확실하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한국어교육을 일찍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이화여대’, ‘서강대’의 경우 기관에서 발간한 한국어 교재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의

문형 간접인용 표현인 ‘-냐고’를 제시할 때 개정 전의 교재와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4 유형까지 고려하여 유형 제시를 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의문형 간접인용 제시 유형의 변화

대학 기관	‘-냐고’의 제시 유형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서울대	1유형	1유형	4유형
연세대	2유형		3유형
고려대	3유형		3유형
경희대	3유형	2유형	2유형
이화여대	2유형	3유형	
서강대	2유형		

민현식(2007)에서 지적하듯이 한국어 교재의 회화문은 현실 구어형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교재 편찬자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의 철학에 따라 문어적 규범형을 가르치거나 구어적 통용형을 가르칠 수 있다. 하지만 교재에는 원칙적으로 문어적 규범형을 제시하고 부가적으로 구어적 통용형을 제시하는 것이 교수나 입장에서나 학습자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나 선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다.¹⁸⁾ 현재의 한국어 교재에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구어적 통용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의문형 간접인용 표현인 ‘-냐고’가 사전류와 한국어 교육용 교재인 ‘서울대 한국어’, ‘고려대 한국어’, ‘연세대 한국어’, ‘경희대 한국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 ‘세종한국어’ 등 17종의 한국어 교재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그 메타 언어적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김현숙(2011)의 유형 분류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는데 ‘증보판 세종한국어’와 ‘서울대 한국어+’는 규범문법의 형태를 비교적 잘 제시하고 있었으며 ‘서울대 한국어+’의 경우 ‘규범적 형태’를 먼저 제시한 후 ‘구어적 통용 형태’가 주로 사용됨을 부가적으로 기술하여 제4의 유형으로 분석이 가능하게 했다. 최근에 개정 발간된 ‘경희한국어’와 ‘새연세한국어’는 개정 이전과 다르게 제시하였다. ‘고려대 한국어’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는 구어적 통용 형태만 제시가 되었다.

‘사전류’는 ‘준거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자료에 비해서 어휘나 문법 등의 규범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적 관점에서는 규범 형태를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교수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구어적 통용 형태를 부가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전류’에서는 규범형을 잘 지키고 있지만 구어적 통용 형태를 같이 제

18) 이는 평가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을 통해 한국어 실력을 검증하고 있다. 개별 학습 기관에서는 시험 문제의 정오(正誤) 판단을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르면 되지만,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에서 구어적 통용 형태로 학습했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문어적 규범 형태로 출제가 된다면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편이다. 한국어 교재의 경우 규범형과 구어적 통용 형태가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재를 제작하는 주체와 이용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시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교재에서는 구어적 통용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모든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

최근의 교재 발간 경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어적 통용형을 선호하는 의사소통 맥락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문어적 규범형을 가르치거나 구어적 통용형을 가르치는 것은 오롯이 교수자의 몫이다. 학습 내용은 평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재에는 규범형을 제시하고 구어적 통용형을 부가 설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

‘-냐고’와 같이 규범형과 구어적 통용형이 같이 사용될 수 있는 한 예로 ‘-나요’와 ‘-(으)니까요’, ‘-나 보다’와 ‘-(으)니까 보다’가 있다. 종결어미가 결합한 형태를 고려한다면 쟁점이 되는 표현은 ‘-나’와 ‘-(으)니까’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선행요소로 동사를, ‘-(으)니까’는 선행요소로 형용사를 요구하는 것이 규범 형태이나 ‘-나’의 선행요소로 형용사로 오는 경우도 구어의 쓰임에서 통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규범형과 구어적 통용형이 공존하는 표현들에 대해 한국어 교재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추후 자세히 살펴보겠다.

<참고 문헌>

1. 한국어 교재

-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2014). 함께 배우는 건국 한국어 2-2. 건국대학교 출판부.
 경희한국어 교재편찬위원회(2020). 경희한국어 중급1 문법.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2021). 고려대 한국어 4A.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국립국어원(2020).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 하우.
 국립국어원(2021). 증보판 세종한국어6. 하우.
 김중섭 외(2014). 경희한국어 문법3. 하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0).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 중급1. 한국이민재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3).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 한국이민재단.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8). New 서강한국어 2B. 하우.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5). 한국어3. 문진미디어.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서울대 한국어 3A. two ponds.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23). 서울대 한국어+ 3A.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성균어학원 한국어학당(2019). 성균한국어3 어휘·문법. 하우.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7). 연세 한국어2.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9). 새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2-2.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1). 이화한국어 3-1. EPRESS.

2. 사전류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커뮤니케이션북스.
 백봉자(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하우.
 이희자·이종희(2010).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3. 논저

- 고경태(2014).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간접인용 표현의 교육 내용 검토. 국어국문학 166. 국어국문학회. 141~163쪽.
 고영근·구본관(2018). 개정판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구종남(2016). 인용표지의 연결어미적 기능. 국어국문학 63. 국어국문학회. 71~101쪽.
 권재일(2012). 한국어문법론. 태학사.
 김건희(2022). 높임법에 대한 일고찰-남한과 북한 높임법의 최근 기술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63(11). 한말연구학회. 1~31쪽.
 김현숙(2011). 간접인용문에서 의문문의 실현 양상과 한국어교육에의 적용 문제. 어문연구 70. 어문연구학회. 29~52쪽.
 남기심(2001). 현대 국어 통사론. 태학사.
 남기심·고영근·유현경·최형용(2019). 전면개정판 새로 쓴 표준국어문법론. 한국문화사.
 민현식(2007). 구어적 통용과 문어적 오용. 문법 교육 6. 한국문법교육학회. 52~113쪽.
 박기선(2012). 한국어 간접의문문 형식의 사용 양상 연구-말뭉치 분석을 통한 ‘-냐고’의 통합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39. 한국어의미학회. 175~203쪽.

- 박지순(2022). 한국어 교재의 상대높임법 분석. 반교어문연구 60. 반교어문학회. 231~260쪽.
- 박은하(2016). 한국어 교재와 교수 언어에서의 메타언어 쓰임 - 피동과 간접인용의 의미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국어교육학회. 새국어교육 107. 433~457쪽.
- 안주호(2022). 최근 한국어 높임법 사용과 변화 양상. 동악어문학 86. 동악어문학회. 121~143쪽.
- 유필재(2018). 현대국어 해라체 의문형 어미 '-느냐/으나, -니'의 변화. 어학연구 54(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79~96쪽.
- 이금희(2009). 한국어교육에서의 간접인용문 변형. 반교어문연구 26. 반교어문학회. 81~102쪽.
- 이동석(2014). '-냐'계 어미의 결합 분포에 대하여-구어 말뭉치 분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6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47~281쪽.
- 이정란(2017). 한국어교육을 위한 간접인용 구문 분석. 우리말연구 51. 우리말학회. 269~291쪽.
- 이정택(2015). 우리말 높임법의 본질과 상대높임법 체계. 문법 교육 24. 한국문법교육학회. 145~160쪽.
- 최은경(2016). 간접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 국제언어문학회. 국제언어문학 35. 179~206쪽.
- 함병호(2020). 간접인용절의 통사적 지위. 국제언어문학 47. 국제언어문학회. 343~375쪽.

<의문형 간접인용 표현 '-냐고'에 대한 일고찰 -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윤경선(한성대)

이 연구는 한국어 교재와 사전에서 의문형 간접인용 표현 '-냐고'의 제시 양상을 확인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더 나은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냐고'에 대해 어문 규범을 기준으로 한 내용만 제시하는 교재도 있고 한국인이 실제로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양상을 제시하는 교재도 있으며 모두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기관의 교재를 분석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제시 방향(4유형)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냐고' 사용 양상 조사 결과, 문법에 맞게 쓰는 사례보다 그렇지 않은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 한 연구(김현숙, 2011)를 참고해 보아도 한국어 교재에서 구어적 쓰임을 중시하는 최근의 경향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어문 규범이 주가 되고 이런 구어적 쓰임을 부가적으로 알려주는 '4유형'이 더 나은 방식이라는 데에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문법 제시 방법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수자에게도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논문을 흥미롭게 읽었고, 논문을 읽으며 떠오른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의문형 간접인용 표현의 제시 방법에 대해 '4유형(규범 형태를 제시하고 구어적 통용 형태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더 나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4유형은 교재라는 대상이 지닌 보수성을 유지하며 한국어교육이 가진 평가의 측면에서 학습자에게 갈 수 있는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제시 방향이라고 보고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 제시법이 학습자의 이해도와 학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제시법에 비교하여 4유형이 가지는 교육적 효과와 이점은 무엇인지를 눈으로 확인되는 증거가 따라와야 한국어교육에서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학습자 대상의 사전 또는 사후 설문조사, 교수자 대상의 질적 조사, 유형별로 수업을 실시한 후 결과 비교 분석 등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 설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후속 연구 방향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2. 규범적 형태를 제시하고 구어적 통용 형태도 부가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교재와 사전에 모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교재에만 한정해서 말씀하신 것인지요. 논문의 소제목이나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한국어 교재에서의 제시 방법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사전과 교재를 모두 분석 대상에 두셨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처럼 한국어 교사와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기능적 측면이 강한 사전은 한국어 교재와 동등한 관점에서 보시고 논의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중 동형 한자어의 의미에 대한 n-gram분석

임현열(경성대)

발표문은 별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한중 동형 한자어의 의미에 대한 n-gram분석>에 대한 토론문

최윤(강원대)

토론문은 별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고전문학 발표

사회자 : 신성환(강원대)

- 발표 : 김지은(남서울대) 101
江湖時調의 ‘江湖’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드라마 <나쁜엄마>에 형상화된
‘故鄉’의 의미 연구
- 토론 : 김성문(중앙대)

- 발표 : 이채영(동국대) 113
TV 드라마 <악귀>에 나타난 ‘월귀 이야기’의 현대적 변용 양상과 의미
- 토론 : 진수현(중앙대)

江湖時調의 ‘江湖’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드라마 <나쁜엄마>에 형상화된 ‘故郷’의 의미 연구

김지은(남서울대)

목차

1. 들어가기
2. 강호시조의 유교적 출처관과 ‘江湖’의 의미
3. 드라마 <나쁜엄마>에 형상화된 ‘故郷’의 의미
4. 나가기

1. 들어가기

최근 드라마의 경향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심심찮게 ‘歸郷’을 소재로 하는 설정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귀향의 의도가 단순히 고향에 대한 동경심에서 비롯되거나 혹은 현대 사회 트렌드의 하나인 ‘귀농’의 삶을 좇는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일종의 사회적 패배와 몰락을 겪은 후에 돌아가는 의도적인 장소의 성격으로 드러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나쁜엄마>(JTBC, 2023)나 <웰컴투 삼달리>(JTBC, 2024) 등을 들 수 있는데 두 작품 모두 서울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주인공이 인생의 실패나 크나큰 역경을 맞이한 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후일을 도모하는 방식의 서사 패턴을 포착할 수 있다. 그런데 드라마의 이러한 패턴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고향으로 귀거래하던 出處觀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자신이 처한 정치적 입지나 당쟁 및 사화 등 각종 역사적 사건에 따라 出과 處를 반복하는 삶을 살았고 이것은 하나의 도식적인 패턴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당대에는 비일비재한 일들이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처세관 및 세계관은 ‘강호시조’라는 독자적인 장르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더욱 공고히 다져질 수 있었다. 때문에 서울은 입신양명하여 정치적 위상을 드러내며 治人할 수 있는 장소였고 시골(고향)¹⁾은 실패했거나 잠시 몸을 숨기는 도피처의 공간, 혹은 치유나 회복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았던 까닭에 修己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적 인식이 비단 조선조 사대부들의 삶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출세관을 드러내는 방식에도 적용이 되면서 일부 드라마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고향’이 지니는 본질적 의미 자체는 매우 보편적인 것으로서 시대와 역사를 가로지르며 하나의 관습적 인식으로 자리 잡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인간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으며 그에

1) 전원, 전가 또는 강호는 모두 서울의 대립항으로서의 시골에 속한다. 곧 그곳은 정치현실의 공간으로서의 서울과 대척점에 선다. 서울은 出, 시골은 處의 공간이다. 원칙적으로 출과 처는 상호배타성을 띠지 않는다. 다만 때의 선택만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서울과 시골은 서로 넘나들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호배타성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신영명, 「시골로 내려온 서울, 서울로 오르지 못한 시골」, 『시조학논총』 26집, 한국시조학회, 2007, 81쪽.)

다른 나름의 철학적 세계관과 정치에 대한 인식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귀향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 최근 드라마 중 하나인 <나쁜엄마>를 주 대상으로 하여 여기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사대부의 강호시조에 나타난 處(江湖)의 의미와의 연관성 및 변별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들을 비교하기에는 두 장르의 간극이 너무 멀고 마땅한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에 대한 비교는 처음부터 한계점을 내포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시조가 조선시대 내내 향유되면서 우리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고유한 관념이나 사상 및 정서를 오롯이 담고 있는 精髓라는 점이다. 또한 時節歌調로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주류 문학 장르로 ‘현대 드라마’나 ‘조선시대 시조’ 모두 당대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문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현대의 많은 드라마나 다양한 콘텐츠의 소재를 우리의 고전에서 추출하여 활용하는 점을 상기한다면 시조와 현대드라마를 연결하는 연구작업은 전혀 불가능한 작업도 아니다. 물론 드라마 <나쁜엄마>의 제작진의 작품의 기획 의도나 시나리오 작업 과정 중에 조선조 사대부들의 출처관에서 모티프를 따왔다는 제작 의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나면 온전히 수용자의 몫이라는 점 역시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전의 가치와 생명력은 작품 당대의 역사적 의미규명과 함께 오늘의 현실에서 제기되는 삶의 문제와 연관시켜 새롭게 해석될 때 제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²⁾에 이 글은 드라마 <나쁜엄마>에 드러난 고향의 의미를 16세기 사림의 출처관과 비교 고찰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일단을 탐색하는데 머무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고전 콘텐츠가 현대적 관점에서 삶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고 적용되고 있는지를 비록 지엽적이거나 살필 수 있는 검토가 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2. 강호시조의 유교적 출처관과 江湖의 의미

그간 고시조에서 강호시조가 지니는 위상은 매우 높았기에 이에 따라 연구자들에 의해 이미 많은 연구업적이 이루어진 바 있다. ‘강호가도’라는 대전제적 세계관은 물론이고 사회적 배경 및 정치적 담론과 개별작품에 이르기까지 그 위상에 걸맞게 다수의 논의들이 축적되었다. 여기서는 강호시조 개별작품을 논하기보다는 기존의 논의에 기대어 이를 바탕으로 강호시조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출처’의 관념과 ‘강호’의 의미를 현대 드라마를 통해 재탐색하고자 함이다. 즉, ‘강호자연’이 지니는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라기보다는 현대 드라마에도 ‘강호’의 의미와 유사한 형태로 ‘歸鄉’이라는 설정이 자주 드러나는 까닭에 두 가지 양상이 어떠한 변별점과 유사점을 지니는지 살피기 위한 준거의 지표로 삼는 데 의미를 두게 될 것이다. 특히 16세기 강호시조에 대한 논의가 가장 중심이 된다고 보고 여기에 드러난 江湖의 의미와 이를 대하는 사대부들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16세기 강호시조는 기본적으로 자연을 매개로 한 심성수양을 통해 획득한 인간의 내면적 완성을 노래한다. 곧 강호시조는 유교적 정치이념의 양대축인 修己와 治人 가운데 수기의 이념을 담은 문학이다. 물론 그 수기가 치인과의 현실적 연관성을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 강호시조는 다시 보수적 이상주의와 개혁적 현실주의의 두 유형으로 양분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강호시조가 수기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³⁾ 16세기 사림은 그들의 독특

2) 박영주, 「강호시조의 감성적 특징과 교육적 가치」, 『시조학논총』57집, 한국시조학회, 2022, 8쪽.

3) 신영명, 『사대부시가의 연구』, 국학자료원, 1996, 156-157쪽.

한 사회경제적 조건 때문에 중앙정계로의 진출과 향촌 사회로의 복귀라는 정치적 형태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경험을 겪는다. 江湖는 기본적으로 향촌사회로의 복귀라는 정치행위에 의해 형성된 공간이다. 사족이나 사림 모두를 범칭하는 개념으로 사대부란 용어를 쓸 수 있다면 이 사대부가 중앙정계로 나아가는 행위를 出, 향촌사회로 돌아오는 행위를 處라고 한다.⁴⁾

유교적 출처관의 요점은 맹자가 말한 바, “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란 구절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과 같이 정치가 혼탁할 때에는 물러나 조용히 개인의 차원에서 도를 지키며, 혼탁하지 않을 때에는 나아가 그 도를 만민에게 펼치는 데 있다. 전자는 獨善이며 후자는 兼善이다. 16세기 사림이 취한 처의 생활은 유교에서 이상으로 여기는 정치생활 양식인 독선과 겸선 중 전자에 해당한다. 독선은 그러므로 왕도정치의 실현이라는 유교적 정치 이상의 포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혼탁한 정치 현실에 대한 강력한 거부의 의미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겸선을 위한 한 예비과정의 의미로 사용할 것인지는 사림의 구체적인 정치 현실상의 위상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⁵⁾ 이때 處의 공간, 즉 江湖로 歸鄉⁶⁾하는 의미와 태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향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사림과 사대부들의 정치, 철학, 문학 등이 활발히 연구되면서 흔히 이현보-이황-권호문-장경세로 이어지는 嶺南 士林과, 송순-이이-정철-신흠-윤선도로 이어지는 畿湖·湖南 士林과의 차이를 주목하는 경향을 접할 수 있다. 혹자는 정치적 지역적 기반을 중시하여 嶺南, 畿湖, 湖南 등의 지역적 차별성을, 혹자는 主理, 主氣 등의 철학적 견해 차이를 주목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전자들은 중앙정계의 진출을 부정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處의 생활을 통해서 이념적 순수성을 가지고 道學의 궁리에 더욱 철저했다면 후자들은 處의 생활을 중앙정계 진출을 위한 修身의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정계 진출에 긍정적이라는 차이를 갖는다⁷⁾고 김학성은 설명한다.

‘강호’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남사림은 정치이상의 실현을 위해 중앙정계로의 진출을 통해 정치 현실을 개혁하기보다는 처의 생활을 통한 이상주의적 방식으로 그것을 개혁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처의 생활공간으로서의 강호자연을 혼탁한 정치 현실과는 단절된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한다.⁸⁾

반면 기호·호남사림은 정치 이상의 실현을 위해 비록 혼탁한 정치 현실일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현실주의적 정치개혁의 입장을 취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강호자연을 정치 현실과는 완전히 단절된 공간으로 보지 않고 중앙정계로의 진출에 필요한 하나의 발판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강호자원은 혼탁한 정치 현실과는 단절된 공간이라기 보다는 언젠가 다시 중앙정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하나의 정치진출을 예비하는 장소⁹⁾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강호에 대한 두 사림의 견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중의 차이일 뿐 강호 자연에 대한 용도나 가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뜻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때로는 이들의 견해 차이가 개별작품에서는 혼재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4) 신영명, 「숨어살기의 논리:삼국유사의 <피은>과 강호시조」, 『시조학논총』21집, 한국시조학회, 2004, 173쪽.

5) -----, 앞의 책, 26쪽.

6) ‘歸鄉’은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의 의미를 지니며 ‘處’는 강호시가에서 사대부들이 중앙정계에서 물러나 ‘향촌사회로 돌아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들 사이에는 분명 의미상으로 미세한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보다 큰 범주에서 處와 같은 개념으로서 歸鄉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이러한 의도는 특히 드라마 <나쁜엄마>를 인식한 데서 기인한 것임을 밝혀둔다.

7) 김학성, 『한국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437-438쪽 참조

8) 신영명, 앞의 책, 33-34쪽.

9) -----, 위의 책, 34쪽.

16세기 강호시조는 기본적으로 자연을 매개로 한 심성수양을 통해 획득한 인간의 내면적 완성을 노래한다. 곧 강호시조는 유교적 정치이념의 양대축인 수기와 치인 가운데 수기의 이념을 담은 문학이다. 물론 그 수기가 치인과의 현실적 연관성을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 강호시조는 다시 보수적 이상주의와 개혁적 현실주의의 두 유형으로 양분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강호시조가 수기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¹⁰⁾ 즉 이들에게 있어 수기를 통한 심성수양은 왕도정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자질이였으며 강호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필수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대부는 출사하여 자신의 뜻을 펼침으로써 태평성대를 건설하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大夫(君子, 大人)가 되어 백성들이 孝悌忠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유가적 이상세계(太平聖代)를 구현하는 것이다. 소는 아직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公卿大夫의 일을 할 수 없고 農工商의 일에 종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뜻을 고상하게 할 뿐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뜻을 고상하게 한다는 것은 ‘仁義’에 거하고 말미암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修己’이다. 따라서 ‘修己’는 大人君子가 되기 위한 과정, 즉 ‘治人’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修己’에 힘쓰지 않은 ‘小人’이 집권하면 ‘亂世’¹¹⁾가 되는 것이고 ‘修己’를 완성한 ‘君子’가 정치를 하면 ‘太平聖代’가 되는 것이다.¹²⁾

정리하자면 영남사림과 기호·호남사림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강호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輕重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드러날 뿐 기본적으로 강호 속에서 修己를 지향하고 있다. 수기의 목적은 결국 사대부 스스로가 군자가 되어 태평성대 건설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있는 것이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정치란 무조건 부정적이고 꺼려야 하는 존재라기보다 마땅히 유가적 이상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제도로 인식한다. 그 과정에서 수기에 힘쓰지 않은 소인이 집권했기에 난세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연유로 말미암아 그들의 개별작품에서 시름과 고민을 토로하는 부분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강호시조에서는 강호와 정치 현실의 관계는 상호 배타적인 이분법적 논리로 바라보기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상주의에 입각해 강호와 정치 세계와의 단절을 표방하는 영남사림과,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강호를 일종의 정치 진출의 수단화로 여기는 기호·호남 사림 모두의 견해는 어쨌든 결국 태평성대 구현이라는 같은 이치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드라마와의 연관성을 논하기 위해서 드라마에서는 정치참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을 드러내는 데 있어 매우 유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드라마 텍스트로 선정한 <나쁜엄마>에서는 철저히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 정치와 자연을 격절시킨다. 정치의 세계는 세속적이고 탐욕과 타락으로 가득한 곳이며 그 안에 있는 인물들 역시 부패와 살인 등을 일삼는 악의 전형을 보여준다. 결국 그 끝은 파국으로

10) 신영명, 앞의 책, 156-157쪽.

11) 예컨대, 농암의 <漁父短歌>에서 ‘人世’는 ‘정치현실’이라기보다는 ‘부조리한 현실, 즉 亂世’로 해석해야 한다. <漁父短歌> 1장에서 말한 바, ‘시름이 없는’ ‘漁父의 生涯’를 온전히 영위하려면 ‘깊은 생각’과 ‘높은 지조’를 견지하고 소인배들과 맞서 亂世를 바로잡으려는 욕망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人世는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찬 현실’이 아니라 ‘세속적 욕망을 채우기에 여념이 없는 小人輩’들이 권력을 擅斷함으로써 초래된 세계, 즉 ‘亂世’를 의미한다. 이는 亂世를 구할 현자를 의미하는 ‘濟世賢’을 언급한 데서도 알 수 있다. 長安과 北關은 백성들의 삶과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정치의 장(정치현실)’일뿐, 그 자체로 ‘속세’나 ‘혐오스런 정치현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공간이 아니다. 문제는 그 공간을 君子(濟世賢)가 아닌 小人들이 장악함으로써 세상이 어지러워진다는데 있다. 즉 앞서 언급한 바, 화자의 시름은 長安과 北關(정치의 장)이 소인들에 의해 장악됨으로써 亂世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박연호, 「士大夫의 現實에 대한 關心과 世俗的 慾望」, 『한민족문화연구』 제36집, 2011, 80-81쪽.)

12) 박연호, 위의 논문, 74쪽.

이어지며 정치를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그려내고 있다. 반면 이와 대척적인 의미를 지닌 곳으로 설정된 고향인 ‘조우리’라는 마을은 순수의 세계 그 자체로 형상화하고 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존재하지만 그마저도 이상적으로 풀어나가는 형국을 보여준다.

3. 드라마 <나쁜엄마>에 형상화된 故郷의 의미

1) 숨어살기의 논리가 적용되는 장소

원래 선비는 세상에 나아가 도를 펼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 세상에 그 뜻을 펼치지 못할 때 자연에 은거하면서 홀로 그 도를 지킬 수밖에 없다. 세상에 나아가 뜻을 펼치는 것을 겸선, 홀로 도를 지키는 것을 독선이라 한다. 숨어사는 삶의 괴로움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지금이 나아갈 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일은 선비에게 있어 절체절명의 사건이 된다.¹³⁾ 이처럼 강호시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현실에 따른 정치적 입장과 관련해 사대부들이 보이는 태도나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강호에 묻혀 사느냐 아니면 강호를 등지고 세상에 나아가느냐가 핵심인 셈이다. 이러한 출과 처에 대한 선택은 사대부들 스스로가 선택하여 기꺼이 원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위 상황과 여건이 받쳐주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정치의 꿈을 잠시 접고 귀거래하는 경우도 흔했다. 어쨌든 전자나 후자 모두 강호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이른바 ‘숨어살기’를 지향했음은 쉽게 유추가 가능하다.

강호자연은 숨어살기의 장소로서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드라마 <나쁜엄마>에 주목하는 주된 이유는 사대부들이 왕도정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처세의 방식인 ‘출처’의 논리에 따른 숨어살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인공 최강호가 고향인 ‘조우리’로 물러나는 ‘처’와 ‘검사직’으로 나아가는 ‘출’의 행위가 반복하면서 이것이 드라마 서사 전체 호흡을 리드하고 있다. ‘조우리’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로 그려지는데 아름다운 자연과 순수한 마을 사람들로 구성된 곳이다. 전술했듯이 순수의 세계로 표방하고 있는 조우리라고 해서 마을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나 마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요소들은 약한 것이거나 파괴적인 것이 아니다. 나약한 인간의 천성에서 비롯된 것들이고 결국 그마저도 아름다운 방식으로 갈등이 해결되며 그 과정 안에서 인물들은 다양한 깨달음과 성숙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다가 서사의 후반부에 이르러 깨달음을 얻은 주인공 강호가 다시 검사직으로 복직하여 정치 세계로 나아가 자신과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되면서 드라마는 절정을 맞이하게 된다.

즉, 드라마 <나쁜엄마>는 주인공인 강호¹⁴⁾(이도현 扮)가 검사·정치 세계로의 출과 고향으로의 처를 반복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주인공 강호를 중심으로 처음 검사로 임관(出, 구성점1), 사고로 검사직·정치세계에서 물러남(處, 구성점2), 복수를 위해 다시 검사직으로 복귀(出, 구성점3)라는 3개의 중요한 구성점이 서사 전체를 리드하는 중심축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를 주인공의 출과 처를 기준으로 크게 네 부분¹⁵⁾으로 나누어 표

13) 신영명, 앞의 논문, 166쪽.

14) 드라마 <나쁜엄마>에서 배우 이도현이 분한 주인공의 이름은 ‘(최)강호’로 ‘최고로 강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강호자연’에서의 ‘江湖’와는 우연히 소리만 같을 뿐 의미는 전혀 다르다.

15) 드라마를 出處에 의해 네 부분으로 구획하는 것은 필자에 의한 것임을 밝혀둔다.

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出處 시기	구성점	해당 사건
제1기(出)	구성점1	주인공 강호가 검사, 정치의 세계로 出하여 승승장구하는 시기
제2기(處)	구성점2	불의의 사고를 겪은 후 고향인 '조우리'로 귀향하여 處하는 시기
제3기(出)	구성점3	'조우리'를 떠나 다시 서울로 出하여 검사로 복귀하는 시기
제4기(處)	결말	검사에서 물러나 재귀향 후, 평안한 삶을 영위하는 완전한 處의 시기

그런데 위의 표에 나타난 제2기의 '處'와 제4기의 '處'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전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지만 후자는 일련의 사건들과 욕망의 투쟁 속에서 이치를 깨닫고 자신의 신념대로 다시 귀향하여 평안을 누리며 참된 선을 발휘하며 살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의 제일 마지막 장면은 소위 '잘나가는' 검사로서의 강호의 모습이 아니라 고향인 조우리에서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과 소박하게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특히 주인공 강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시기를 참고 기다리며 때를 기다렸다. 이는 일종의 '숨어살기'의 모습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대부들이 행했던 물러남과 나아감을 적절히 알고 몸을 낮추고 기다리는 처세의 모습과 유사하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드라마의 전체 서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 유교적 출처관의 핵심은 왕도정치를 기치로 하는 정치 이상의 실현에 있는 것이다. 사대부들의 대의는 성리학적 사유를 근간으로 하여 자신의 수양을 통해 백성과 나라를 위한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정치형태나 모습은 조선 시대의 유교적 정치실현과는 다소의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시대를 가로질러 공통적으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혼탁하지 않은 정치와 그러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드라마 <나쁜엄마>에서는 정치세계의 혼탁함을 정치인들의 검사·대기업과의 결탁, 대기업의 횡포, 약자에 대한 편견과 무시, 권력의 남용, 심지어 권력과 부의 획득을 위한 살인 등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주인공 강호는 이를 회복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보이는데 그가 비록 사림과 같은 정치인은 아니지만 검사라는 직업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사대부들의 대의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검사로서의 진정한 정의 실현은 주인공 강호가 처의 공간에서 자기 자신을 수련한 연후에 얻어지는 것이기에 심성수양의 공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2) 심성수양의 장소

강호는 바로 처의 공간이다. 사대부는 이 공간에서 중앙정계의 치열한 정치쟁투로부터 얼마간 벗어나 조용히 철학적 성찰의 길을 걸을 기회를 얻는다. 이 길은 곧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바 본성을 따르는 일이 된다. 이것을 심성수양이라고 한다. 강호에는 자연이 있다. 강호시조에 있어서 자연은 숨어살기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심성수양을 위한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곧 하늘의 명을 따르는 수양의 과정을 돕는 역할을 자연은 한다. 본성을 닦는 데 있어서 매개로 하는 일을 助養이라고 한다.¹⁶⁾

세속은 인간의 욕망이 서로 충돌하는 공간이다. 그 충돌을 수렴하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 중의 하나가 바로 정치다. 이런 관점에서 세속은 정치 현실이 살아 숨 쉬는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곳은 충돌과 갈등이 난무하는 욕망의 쟁투공간이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자연이 등장한다. 자연은 충돌과 갈등이 아니라 평화와 안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흔히 상정된다.¹⁷⁾ 이렇듯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효능은 어떤 이유로든 지치고 피로한 인간에게 위로와 힐링을 주는 것이다. 최근 드라마에서도 이 같은 소재나 이야기 포맷은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의 고향은 강호시조와 마찬가지로 평화와 안식, 그리고 심성수양 및 치유의 공간으로까지 확대되어 제 기능을 충실히 하게 된다. 본 연구의 텍스트인 드라마 <나쁜엄마>에서도 엄마가 살고 있는 곳이자 강호의 고향인 ‘조우리’는 주된 서사가 일어나는 공간적 배경이지만 단순한 배경의 의미를 넘어 여러 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앞 절에서 살핀 바대로 자연은 인물에게 전형적인 ‘숨어살기’로서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 그 자체로 지닌 무한의 에너지를 준다. 시골 마을은 서울과 물리적 거리감을 형성해 심리적 안정감을 줄뿐더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통해 인물이 치유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자연은 인간에게 마땅히 몸과 마음을 기르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자명하다. 특히나 이곳은 주인공이 나고 자란 곳이며 그 집은 여전히 엄마(라미란 분)의 존재로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드라마는 조우리라는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이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심성수양’이라는 데 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을 따르는’ 일은 심성수양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 강호에게 특히 심성수양이 강조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미 그가 패륜의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서울로 가 검사가 된 강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대기업 회장의 양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홀어머니와의 천륜을 끊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이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을 거스르는 인간의 패륜이라고 할 만하다. 또한 자신의 첫사랑이자 아이들의 어머니인 미주(안은진 분)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쌍둥이 아이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강호의 캐릭터성은 天倫을 지키는 모습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그러다 강호는 정치적 음모에 의해 추락하면서 힘과 권력, 건강한 육체까지 모든 것을 잃고 불구가 되어 고향에 내려오게 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동물이 있어.

그게 뭘지 알아? 사람 그리고 돼지.

돼지 하면 모두가 더럽고 냄새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 돼지는 똥 오줌도 한 자리에서만 누고 잠도 깨끗한 데서만 자. 체온을 낮추고 벌레를 떼 내려고 진흙목욕도 자주하고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돼지를 좁은 우리에 억지로 가둬놓은 거지.

결국 진흙으로 목욕을 할 수 없게 된 돼지는 자신의 똥과 오줌에 몸을 비비게 됐고 그렇게 점점 더 더러워지고 난폭하게 변해간 거야. 참 가엽지 않니? 그런데 진짜 가여운 건 말야.

돼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평생 땅만 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그건 바로 넘어지는 거지.

그래 맞아. 넘어져 봐야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야.

돼지도 그리고 사람도.”¹⁸⁾

16) 신영명, 앞의 논문, 173쪽.

17) _____, 위의 논문, 177쪽.

18) 드라마 <나쁜엄마>(제1화, 2023.4.26) 프롤로그의 대사. 작가가 시청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한 돼지는 시종일관 드라마 내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귀향 후 강호는 신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심성수양은 엄마와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강호와 악연으로 단절되었던 주변인들과도 화해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또한 강호는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이 전개되는데 본연의 자신을 찾는 여정이야말로 그 자체로 심성수양, 修己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강호는 사고로 인해 일곱 살의 지능을 지닌 채 다시 재기하기까지의 고통스러운 과정과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 시간을 참고 견디며 얻게 된 건강과 자신의 본 모습, 깨닫게 된 인생의 진실들은 獨善으로 얻어진 결과인 셈이며 결국 이러한 모든 심성수양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조우리 마을 사람들이나 쌍둥이 아이들은 세속적 욕망과는 다소 거리가 먼 순수한 인간들로 표상된다. 이들은 자연과 동격인 존재로 주인공 강호의 修己 과정과 깨우침에 시너지를 준다. 사대부들이 말하는 人心, 道를 추구하는 것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시대 보편적이며 인간 보편적인 화두들이다. 시조가 지니고 있는 유학적인 이념 등 굳이 어떤 특정 사상 등에 기대지 않더라도 현대의 드라마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통용되는 까닭이다.

한편, 드라마 내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가 바로 돼지이다. 일곱 살의 지능으로 더 이상 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강호는 고향마을에서 엄마가 하던 돼지농장을 물려받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돼지를 기르고 주사를 놓고 거름이나 퇴비 처리 등 모든 일련의 작업들은 훈련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새로운 배움의 과정 속에 있으며 필시 어려운 학문이 아니더라도 '배움' 자체는 심성수양의 또 다른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냄새나고 더러운 돼지라는 동물을 정성스럽게 기르며 정을 쏟는 모든 작업은 곧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인격을 다루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주목할 것은 드라마 <나쁜엄마>의 마지막 장면이다. 다시 검사직으로 복귀한 강호는 과거의 강호는 아니다. 심성수양으로 무장한 강호는 더 이상 세속의 일에 집중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복수의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복귀한 검사직에서 다시 물러난 강호는 최후에는 조우리로 귀향한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전원의 아름다운 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만끽한다. 이는 그간의 갈등과 역경을 모두 잊고 강호에서의 남은 삶을 행복하게 보내겠다는 의지를 잃어낼 수 있는 까닭이다. 즉 심성수양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강호는 남은 삶을 江湖, 즉 자연 속에서 편안함을 즐기고자 함인 것이다.

3) 치유의 장소

강호에 머물며 독선기신 하든, 세상에 나아가 겸선천하 하든 16세기 강호시조의 작가 계층인 사림파 문인들의 최종 목표는 도의 실현이다. 이것은 그만큼 그들이 자체적으로 강한 치료의 의지를 지닌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곳에서 갈등을 하든지 도를 실현해야 한다는, 치료의 관점에서 본다면 갈등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치료의지가 강한 것이기 때문이다.¹⁹⁾ 김상진의 이러한 논의는 강호시조를 중심으로 시조가 지닌 문학치료의 효과를 강조한 논의이다. 시조만이 지닌 치료 효과들과 더불어 시조를 창작하는 과정과 행위 자체로부터 이미 치료의 효과를 수반함을 설명한다. 그런데 주된 텍스트가 강호시조이므로 시조의 창작 및 진행되는 공간이나 시상의 연원은 대부분 자연으로부터 촉발되었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따라서 강호자연에서 창작된 강호시조가 지닌 치료 및 치유

19) 김상진, 「시조의 문학 치료적 기능에 관한 고찰」, 『시조학논총』 26집, 한국시조학회, 2004, 48쪽.

의 효과는 더욱 시너지를 얻는다고 여겨진다. 이는 역설적으로 江湖가 지닌 치유, 치료의 힘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획득한다.

강호시조에 나타나는 모습 중 하나는 그곳 삶에서 안정과 조화의 추구이다. 자신의 욕망과 현실적인 상황의 불일치 속에서 갈등하던 화자는 그러한 심리적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고 은거의 삶에서 안정과 조화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불안과 우울의 정서로 괴로워하는 일련의 작품에서와는 달리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적응하고자 조화로움을 보임으로써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부분적으로는 거기서 찾아오는 즐거움을 노래하게 된다.²⁰⁾ 물론 갈등하고 방황하던 화자가 안정을 찾는 데 영향을 끼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강호자연’이 주는 위로와 안식이었을 것이다. 자연 속에서 은거하며 그들과 벗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고 불안과 우울의 정서로부터 탈피했을 개연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자연’이라는 소재는 과거로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인간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귀향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는 여전히 현대 드라마에서 끊임없이 등장한다. 귀향, 곧 고향은 자연과 동격인 셈이다.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대중들의 니즈는 그 불안의 해답을 자연으로부터 찾고 본연의 힘을 얻기 위한 치유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나쁜엄마>의 주인공 강호 역시 마찬가지이다. 힘과 권력을 위한 욕망의 자장 안에서 몸부림치던 그는 적대자(악인)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하반신 불구와 머리를 다치는 심각한 상해를 입는다. 거대한 정치세력 앞에서 유능하고 촉망받던 젊은 검사 강호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 없지만 강호의 어머니는 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강호를 고향집으로 데려와 지극한 간호와 혹독한 재활훈련으로 강호는 마침내 다시 걷게 되는 기적을 보이게 되고 신체의 기적은 곧 정신을 되찾는 데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강호시조에서 자연 속에서 치유의 과정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나가기를 대신하며 : 강호시조의 ‘江湖’와 드라마<나쁜엄마>의 ‘故鄉’ 비교

본 연구는 강호시조에서 ‘강호’라는 공간과 드라마 <나쁜엄마>에 드러나는 ‘고향’의 의미를 비교 탐색한 것이다. 강호와 고향은 모두 자연을 내포한다. 따라서 이들이 지니고 있는 1차적이고 단순한 의미는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강호시조나 특정 드라마에는 일정한 의도나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의도에 따라 내포된 의미를 살필 필요성이 제기된다. 강호시조나 드라마 <나쁜엄마>에는 ‘정치’라는 특수한 요소가 공통적으로 중심화두로 등장한다. 따라서 강호나 고향의 의미는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살펴야 한다.

당시 사대부들은 자신의 당파를 군자당으로, 적대시하는 당파를 소인당으로 규정하였다. 적대시하는 당파가 정권을 잡았다는 것은 소인들에 의해 정국이 운영되는 난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현실은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시각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계에서 밀려난 사대부들의 시각일 뿐이다. 강호시조의 작가들이 강호자연과 정치현실을 청정과 혼탁이라는 대립적 형상으로 제시한 것은 정계에서 밀려난 상황에서 현실의 부조리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지 출사나 현실 자체를 세속적 욕망으로 점철된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던 것은 아니다.²¹⁾ 때문에 강호시조에서 정치를 ‘혼탁하게’ 바라보는 것은 드라마

20) 김상진, 앞의 논문, 34쪽.

21) 박연호, 앞의 논문, 89-90쪽.

<나쁜엄마>에서의 그것과는 결이 다르다. 드라마에서는 정치 현실을 부조건 부패와 타락한 것으로 인식하고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호시조에서 드러나는 정치현실에 대한 회의적 태도는 밀려난 사대부들의 입장에서 온 고뇌와 번민 때문이지 정치 그 자체를 악으로까지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강호시조 개별작품에 따라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강호와 정치현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드라마 <나쁜엄마>에서는 고향과 자연을 선과 악이라는 흑백논리로 분할하여 이분법적 논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이들의 공통점은 우선 드라마 <나쁜엄마>에서는 이야기 포맷 설정을 사대부의 출처관과 유사하게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대부들의 일정 삶의 양식이 거의 현대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는데 출처의 논리나 숨어살기 외에도 주인공의 직업적인 면에서도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주인공 강호의 직업은 검사로서 이는 매우 정치와 결부할 요소가 크고 힘의 논리에 좌우된다. 특히 정의와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측면에서 사대부들이 중앙정계로 나아가 치인을 하는 입장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심성수양과 치유의 공간이라는 점이다. 사대부들이 정치현실을 제대로 개혁하기 위한 조건은 일단 심성수양이라고 할 수 있다. 영남 사림과 기호·호남 사림, 그리고 현대의 드라마까지 이어져 공통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심성수양인 썸이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치현실에 참여해야만이 제대로 된 왕도정치나 이상의 실현 혹은 정의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현대의 정치에도 다름 아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修身도 하지 못한 채 정치세계에 들어와 齊家是 물론이고 治國-平天下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江湖時調의 ‘江湖’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드라마 <나쁜엄마>에 형상화된 ‘故鄉’의 의미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성문(중앙대)

김지은 선생님의 발표문 잘 읽어 보았습니다. 16세기 강호가도 문학과 21세기 현대 드라마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점이 흥미롭습니다. 모쪼록 이 시도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강호시조의 ‘강호’에 대해 2장에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반적인 수준의 내용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빼면, 몇 개의 각주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故鄉, 歸鄉, 處, 江湖 등 용어에 대한 문제

- 본문에서 ‘故鄉’과 ‘歸鄉’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강호가도의 ‘江湖’와 비교하려면 귀향보다는 고향이 적합해 보입니다.

각주6) ⇒ ‘歸鄉’은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의 의미를 지니며 ‘處’는 강호시가에서 사대부들이 중앙정계에서 물러나 ‘향촌사회로 돌아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들 사이에는 분명 의미상으로 미세한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보다 큰 범주에서 處와 같은 개념으로서 歸鄉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이러한 의도는 특히 드라마 <나쁜엄마>를 인식한 데서 기인한 것임을 밝혀둔다.

- 선생님께서는 ‘처’와 ‘귀향’을 같은 개념으로 쓰겠다고 하였는데,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세한 차이점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나쁜엄마>를 인식한 데서 기인한다고 제시한 이유도 납득이 어렵습니다.

▷본 발표문의 핵심은 드라마 <나쁜엄마>에 형상화된 ‘고향’과 강호가도의 ‘강호’가 갖는 의미를 살피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를 3장에서 ‘숨어살기’, ‘심성수양’, ‘치유’의 장소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강호는 이 셋은 따로가 아닌 하나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는 드라마에서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숨어서 심성수양을 하며 치유하는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따라서 3장을 보다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9~10쪽 ⇒ 강호시조에서 정치를 ‘훈탁하게’ 바라보는 것은 드라마 <나쁜엄마>에서의 그것과는 결이 다르다. 드라마에서는 정치 현실을 부조건(무조건?) 부패와 타락한 것으로 인식하고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드라마에서 정치 현실을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악한 정치인들이 주로 등장해서 서사를 끌어나가고 있고, 주인공이 정의롭지 않은 검사, 약자를 괴롭히는 검사로 살았던 것이지, 드라마에서 정치 현실 자체를 절대 악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강호'와 '고향'의 차이점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사대부와 검사를 두고, 직업이 유사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비문이 많습니다.

문맥에 맞는 정확한 단어를 구사하고, 문장을 좀 더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표현(인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각주 3과 각주 10)

·각주 19) 2004 --> 2007

발표문만 보고 급히 작성한 토론문이라 행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V 드라마 <악귀>에 나타난 ‘원귀 이야기’의 현대적 변용 양상과 의미

이채영(동국대)

목차

1. 서론
2. ‘계획된 원귀 만들기’에서 비롯된 원귀 숭怨의 심화
3. <악귀> 서사 전반을 추동하는 殃禍의 과정
4. 고전 원귀 서사의 解冤을 대체하는 원귀 퇴치 과정과 의미
5. 잠정적 결론

1. 서론

귀신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 해왔다. 그중 원한을 품고 죽은 귀신을 가리키는 冤鬼는 인간에게 특히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인식되어왔다. 고전문학에서 ‘원한을 품고 죽은’ 원귀의 사연에는 대체로 모해, 폭력, 강간, 살해와 같은 사건이 담겨 있고, 원귀가 殃禍하는 과정이 여러 사람들의 죽음이나 廢畝 등의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원귀’는 고전문학의 소재로만 그치지 않는다. 고전문학에서 발견되는 원귀 이야기의 전형적인 모티프는 오늘날 다양한 문화콘텐츠에서도 활발히 계승, 변용되고 있다. 특히 TV 드라마를 비롯한 여러 영상콘텐츠에서 원귀를 소재로 서사를 풀어내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女鬼가 등장하는 <월하의 공동묘지>(1967)나 <여곡성>(1986)과 같은 영화를 비롯하여, 여름이 되면 특집 프로그램으로 편성, 방영된 KBS TV 드라마 <전설의 고향>¹⁾은 ‘납량 특집’이라는 기획 의도에 맞춰 시청자에게 공포와 원한의 촉발과 해소가 유발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한국 원귀 소재의 영상콘텐츠라 할 수 있다. 소복을 입은 여귀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저마다의 개성을 지닌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원귀는 2000년대 이후에도 영화와 TV 드라마에서 지속적으로 제작되어왔다. 이러한 원귀 콘텐츠 제작의 지속은 원귀 서사에 대한 수요층이 꾸준히 존재해왔다는 것을 방증한다.

원귀 서사가 꾸준히 향유되고 창작되는 저변에는 원귀 서사만이 가지는 독특한 색채와 원귀 서사가 유발하는 특정 감각과 정서가 존재한다. 그것은 단순히 공포의 정서나 감각으로만 제한되지는 않는다.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 윤리 등에서 교묘하거나 완전하게 이탈할 수 있었던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발생한 범죄, 폭력의 상황에 노출된 약자가 원한을 품고 결국은 죽게 되는 과정을 목도하는 것에서 향유층이 느끼거나 감지할 수 있는 비극적 정서와 문제의식, 그리고 원귀가 초현실적인 힘을 발휘하여 복수를 하거나 인간 세계에서 위해를 가하는 서사 전

1) <전설의 고향>은 1977년~1980년에 KBS TV에서 방영되었고, 이후 KBS 1TV, KBS 2TV로 옮겨 가면서 1981년~1989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8년, 2009년에 방영되었다.

개가 주는 공포의 감각 및 복수가 가져오는 통쾌감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작용한다.

원귀 서사가 가지는 이러한 복합적이면서 독특한 특성 때문에, 원귀 소재 영상콘텐츠에 대한 선행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제작된 원귀 콘텐츠처럼, 다양한 주제의 논의가 지속되어 온 바 있다. 원귀 콘텐츠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1) 원귀를 소재로 한 개별 영상 콘텐츠 작품 연구²⁾, 2) 여러 원귀 콘텐츠 간의 비교 분석 연구³⁾, 3) 영상콘텐츠에 드러난 원귀 고전 서사의 수용과 변주에 대한 연구⁴⁾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이론적 배경의 프레임(frame)에서 원귀 콘텐츠 그 자체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을 가능하게 해 주고, 국내외의 여러 원귀 콘텐츠 간의 특성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원귀와 관련된 역사, 종교, 철학, 민속, 예술 등과 영향 관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또한 통시적인 관점에서 원귀 서사의 전승과 변용의 양상이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고찰할 수 있게 하는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도 선행 연구에서 진행된 분석과 다양하게 제기된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원귀를 주요 소재로 한 영상콘텐츠 1편을 선정하고 ‘원귀 서사’가 가지는 원형적 구조라는 프레임에서 해당 영상콘텐츠를 분석하면서, 이를 통해 원귀 서사의 현재적 위치와 자장의 일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텍스트는 TV 드라마 <악귀>이다. TV 드라마 <악귀>는 2023년 SBS TV에서 방영되었고, 김은희 작가가 집필한 12부작 드라마이다. <악귀>는 실제 김은희 작가가 원귀와 관련된 실제 사례나 고전 문헌, 민속학 등을 다양하게

-
- 2) 김시무(2008), 「공포영화의 이론과 실제 - <여고괴담> 시리즈를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4-1,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5~32쪽; 김혜미(2010), 「영화 <장화, 홍련>의 공포 표현에 관한 연구: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이론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아름(2011), 「1990년대의 불안과 <여고괴담>의 공포」, 『한국극예술연구』 34, 한국극예술학회, 291~324쪽; 안정아(2023), 「한국 호러 영화 속 ‘여귀’의 정체성 연구: <여고괴담> 시리즈를 중심으로」, 『반영과 재현』 6, 영상문화지평연구소, 61~77쪽;
- 3) 김지영, 「1970-1980년대 한국 사극 공포영화의 서사관습과 의미구조」, 『한국문예비평연구』 72,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519~559쪽; 박진, 「권력의 공포와 모성 이데올로기의 붕괴 - <분신사바>, <신데렐라>, <령>, <여고괴담4: 목소리>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39, 국제어문학회, 344~366쪽; 진수현(2021), 「영상콘텐츠에 재현된 공포와 전복의 욕망: 원귀와 괴수 소재 영상콘텐츠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36,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379~406쪽; 진수현(2022), 「귀신 소재 영상콘텐츠에 재현된 소외된 자」, 『다문화콘텐츠연구』 39,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29~250쪽; 임대회(2019), 「동서양 오컬트 영화 속 악의 이미지 스토리텔링 복합 연구-<월하의 공동묘지>(1967), <엑소시스트>(1973), <링>(1998)을 중심으로-」,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37-4,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31~345쪽; 한동균(2019), 「한국공포영화의 시대별 괴물 캐릭터의 특성 및 의미 분석」, 『문화와 융합』 41-3, 한국문화융합학회, 219~248쪽;
- 4) 김아름(2014), 「아랑 설화의 현대적 변용 연구: - 드라마 <아랑사또전>과 영화 <아랑>을 중심으로」, 한국고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소라(2018), 「영화 <장화홍련전>의 서사적 변용과 지향의 변모」, 『우리문학연구』 58, 우리문학회, 79~122쪽; 오현화(2019), 「한국 영화 속 괴물 서사의 변모 양상 - 전통적 귀신관과의 영향 관계 및 변화를 중심으로」, 『동방문화와 사상』 7,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63~291쪽; 윤정안(2019), 「사라진 원귀: 영화 <장화, 홍련>의 서사 전략과 편견의 전복」, 『씨네포럼』 33,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149~180쪽; 윤정안(2019), 「영상 매체에 수용된 원귀 이야기의 양상과 변화」, 『우리문학연구』 63, 우리문학회, 53~74쪽; 이명현(2017), 「영상서사에 재현된 환향녀 원귀의 양상과 의미 - TV 단막극에 재현된 환향녀 원귀를 중심으로」, 『語文論集』 69, 중앙어문학회, 253~272쪽; 이정원(2007), 「영화에서 여성에 대한 기억과 실제: 고소설 이본 연구 관점에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71~91쪽; 이찬욱, 이채영(2008), 「韓國 鬼神의 原型성과 아랑형 女鬼譚」, 『우리문학연구』 24, 우리문학회, 85~114쪽; 조현설(2003),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과 고전 여성문학 원귀의 해원 형식과 구조 안팎」,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65~96쪽; 황인순(2013), 「<아랑설화>의 현대적 변용 양상 연구 - 드라마 <아랑사또전>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9, 한국여성문학학회, 391~415쪽; 황인순(2017), 「대안적 연대를 통한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 - <아랑설화>의 현대적 변용으로서 <마을, 아치아라의 비밀>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539~574쪽.

조사하고 작품 속에서 이를 풀어내려고 시도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작가의 조사 과정이나, 집필 의도에 대한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악귀>는 고전 서사 등을 참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작한 영상콘텐츠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실제 드라마 <악귀>의 서사 전반을 관통하는 주요 사건인 '장진리 마을 살해 사건'은 원귀와 관련된 기록, 실제 사례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외에도 태자귀, 객귀, 아귀 등 다양한 귀신에 대한 묘사나 또 주술, 퇴치 등에서도 고전 문헌이나 전통적인 무속과 연관된 모티프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고전 서사, 특히 원귀 서사가 TV 드라마 <악귀>에서 어떻게 계승, 변주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계승, 변주 양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단할 수 있게 해 준다.

한편, TV 드라마 <악귀>를 주제로 한 선행 연구로는 본 발표문 작성 시점인 2024년 2월을 기점으로 3편의 학술 논문을 찾아볼 수 있었다. 강혜진은 악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신화적 사유의 차이를, 토착 신앙-보편종교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드라마 <악귀>와 극장용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의 특징을 분석하였다.⁵⁾ 염원희는 두 편의 드라마 <악귀>와 <손 the guest>를 한국 오컬트 드라마로 규정하고 이들 드라마에서 드러난 악의 형상화, 한국적 오컬트의 특징을 고찰하고 또 악에 대항하는 인간의 연대와 한계 극복의 서사라는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바 있다.⁶⁾ 이원진은 마술적 리얼리즘과 토속적 미래학 등의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소설 「저주투끼」와 드라마 <악귀>를 비교 연구하면서 이들 작품에 나타난 마술적 실재론에 대해 논의하였다.⁷⁾

이러한 선행 연구의 논의는 텍스트에 대한 관점과 해석을 확장하였고, 또한 풍성하게 논의의 장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논의를 참고하되, 본고에서는 전술한 것처럼 고전문학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전승, 창작, 향유되어오던 '원귀 이야기'에서 주로 발견되는 서사의 추동 논리이자 주요 모티프가 될 수 있는 원귀의 '함원(含怨)-양화(殃禍)'의 과정이 TV 드라마 <악귀>에서도 발견된다고 보고, 원귀 서사가 드라마에서 어떻게 현대적으로 변용되고 있는지 그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원귀 서사가 TV 드라마에서 변용된 양상과 의미를 탐색하고, 미약하게나마 원귀 서사에 대한 향유층의 기대 지평과 원귀 서사의 원초적 생명력을 가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계획된 원귀 만들기'에서 비롯된 원귀 숨怨의 심화

숨怨은 숨과怨의 합성어로, 풀이하자면 '원한을 품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체로 사람들은 "죽는다면 천수를 다하고 자연스럽게 죽는 것"⁸⁾을 소망하며, 이러한 소망과 상반되는 경우의 죽음을 기피하고자 한다. 특히 他殺이나 急死 등의 죽음을 맞이한 이가 원귀가 되었다는 다양한 설화 및 고전 소설 등은 "정상적으로 죽지 못한 사람은 보통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보다 원한이 많고 또 제대로 위로받지 못하면 모두 귀신이 되어 공중을 배회"⁹⁾한다는 무

5) 강혜진(2023), 「악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신화적 사유 - <악귀>와 <스즈메의 문단속>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84, 한민족문화학회, 135~178쪽.

6) 염원희(2023), 「한국 오컬트 드라마의 악의 재현과 대항의 논리 - <손 the guest>(2018)과 <악귀>(2023)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8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41~267쪽.

7) 이원진(2023), 「소설 「저주투끼」와 드라마 <악귀>에 나타난 마술적 실재론 - '샤먼의 저주'라는 원격 작용을 통한 실제의 새로운 인과성」, 『영상문화』 43, 한국영상문화학회, 93~123쪽.

8) 崔吉城(1996), 『韓國人の恨』, 예전사, 138쪽.

속적 사생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함원의 과정은 곧 원귀가 생겨난 원인이면서, 한편으로는 뒤이어 전개될 원귀 서사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므로, 원귀 서사에서 주요 모티프로 기능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고전 서사와 드라마 <악귀>에 나타나는 함원의 양상을 분석하도록 한다.

먼저, 고전 서사에서 발견되는 원귀의 함원 양상은 몇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다. 고전 소설에서 원귀가 되는 성별은 주로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고, 남성의 경우 원귀가 되는 작품이 없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¹⁰⁾ 소설뿐 아니라 설화에서도 원귀로 설정된 성별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다양하게 드러난다고 논의되었다.¹¹⁾ 원혼형 설화를 정절형, 욕구형, 좌정형으로 나눈 강등학 외(2000)의 논의나, 신원형, 구애형, 좌정형으로 나누어 주로 여귀로 설정되는 원혼형 설화의 특징과 의미를 살핀 조현설(200)의 논의에서도 설화의 원귀가 주로 여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²⁾ 고소설과 설화에서 주로 여귀로 묘사되는 원귀의 함원 양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귀 함원의 과정이 내포하는 가치나 의미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귀가 등장하는 고전 소설이나 설화의 경우, 주로 계모, 다른 妻妾 등 가족 구성원에 의한 毀節 위기나 謀害에 의해 고난을 겪거나, 또는 勒婚 강요나 외부인의 輒決 강요에 의한 고난을 겪는 것으로 고난의 과정이 시작되고 이러한 고난의 과정이 심화되어 자살이나 타살로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이 나타난다.¹³⁾ 타살은 타인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고통과 원한이 촉발될 수밖에 없다. 자살의 경우 본인이 선택한 죽음이라는 점에서 타살과 차이가 있어 보이나,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가정으로 대표되는 사회에서 축출되거나 도태되어 다시 귀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선택하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강요당하여 자살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타살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원한이 촉발될 수밖에 없다는 서사의 논리가 형성된다.

주로 정절 이데올로기가 이러한 모해와 함원의 과정에서 주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한국의 정절, 열녀 이데올로기의 실현에 대해 우쾌제는 중국 劉向의 『列女傳』에서 후대로 내려오면서 정절을 강조한 『列女傳』으로 변모되었고, 한국과 일본에 전래되어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논하면서, 특히 고려말부터 조선조 말까지 개인 문집에만 일백여 편이 수록되어 전해진 것을 근거로, 한국에서의 정절, 열녀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강력하게 실현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¹⁴⁾ 그런데, 이러한 정절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여성이 지켜야 할 조선 사회의 덕목이나 윤리로만 기능한 것이 아니었다. 조선 후기 양반들이 가문의 위상을

9) 村山智順 저/ 노성환 옮김 (1990), 『조선의 귀신』, 민음사, 108쪽.

10) 최기숙(2006), 「여성 원귀의 환상적 서사화 방식을 통해 본 하위 주체의 타자화 과정과 문화적 위치: 고전 소설에 나타난 '자살'과 '원귀' 서사의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고소설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325~355쪽 참조.

11) 안병국(1997), 『귀신설화연구』, 규장각, 77쪽 참조.

12) 강등학 외(2000),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130쪽; 조현설(2003),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과 고전 여성문학 원귀의 해원 형식과 구조의 안팎」,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65~96쪽.

13)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고전소설로 「권익중전」, 「귀영전」, 「김인향전」, 「장화홍련전」, 「유치현전」, 「유희현전」, 「정을선전」, 「숙영낭자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여성 원귀가 등장하는 고소설과 설화에서 유사한 고난의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윤정안(2017), 「고전소설의 여성 冤鬼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66쪽.

졸고(2022), 「서사 문법과 서사 논리의 추동 요소 분석을 통한 원귀형 고전소설의 의미와 한계 고찰」, 『국제어문』 91, 국제어문학회, 145~150쪽.

14) 禹快濟(1991), 「列女傳의 韓.日 傳來와 그 受容樣相 考察」, 『語文研究』 21, 語文研究會, _____(2006), 「동아시아의 열녀 이데올로기 실현 양상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14, 동아시아고대학회, 684~686쪽.

높이기 위해 '정절 이데올로기'를 이용했다¹⁵⁾는 선행 연구는, 열녀 이데올로기가 단순히 당대의 여성관을 보여주던 덕목으로만 존재했거나, 또는 여성 본인의 선택으로 행해지던 죽음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양반층의 신분이나 지위의 공고화나 강화를 위한 도구로 여성의 희생을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당대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장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후술하겠지만, 원귀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도 여성의 정절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원귀 서사의 소재적, 주제적 측면에서 고찰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드라마 <악귀>에서는 이러한 정절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소재의 함원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드라마 <악귀>에서 원귀 되는 인물은 1화부터 12화까지 중심 서사를 이끄는 인물 '향이' 외에도, 2~3화에 등장한 '현우', 그리고 4~5화에 등장한 여러 객귀들을 들 수 있다.

먼저, 서사 전반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안타고니스트(antagonist) '향이'의 함원의 과정을 살펴보자. 원귀 '향이'가 '여성'으로 설정되었고, 이 원귀의 '함원-양화-해원'의 과정이 중심 서사를 이끄는 서사 논리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원귀를 여귀로 설정하여 중심 서사를 전개하는 고전 서사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전문학에서 주로 인과적 순서, 또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원귀의 '함원-양화-해원'의 과정으로 서사를 전개하는 것과는 달리, <악귀>에서 '향이'의 함원은, 양화 전이 아닌 양화 후, 드라마의 결말 직전에 제시된다. 드라마 <악귀>의 이러한 서사 전개 방식은 곧 원귀의 양화로 인한 여러 인물들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궁금증을 강화하고, 또 다른 인물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원귀와 대치하는 '구산영'과 '염해상'의 추적과 조사의 과정에 시청자가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여타의 현대의 호러 장르 영상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서사 전개의 방식이기도 하다. 원귀가 복수를 하는 원인, 즉 원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원인을 서사 중반까지 숨기고 있다가 서사의 후반부에서 사건의 해결 전후로 원귀의 함원 원인을 드러내는 과정은, 향유자에게 서사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면서 해악을 끼치는 원귀에게도 사연이 있었음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또한 특정 문제에 대한 은폐가 야기한 문제 상황이 원귀의 복수로 이어졌다는 정황과 함께, 이러한 은폐된 문제를 세상에 폭로하고 공론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악귀>에서는 '구산영'과 '염해상'의 조사와 추적 중에 악귀와 연관된 물품인 '붉은 댕기', '옥비녀', '옹기조각', '초자병' 등을 찾아내면서 원귀가 살아있을 때 어떠한 상황을 겪었는지, 또는 죽기 직전의 기억이 어떠한지를 '구산영'이 단편적으로 읽어내고 이를 토대로 원귀의 죽음 원인과 그 과정을 등장인물들과 향유자가 추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처음에는 '구산영', '염해상'이 원귀를 '이목단'으로 추리하지만, 여러 화에 걸쳐 새로운 단서가 하나씩 발견되면서, '이목단'이 아닌 그의 언니 '이향이'가 원귀가 된 것이 서사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밝혀진다. 이는 범인을 찾아가는 미스터리나 스릴러 장르의 '진범 찾기'를 통한 사건 해결의 지연, 진범으로 의심되는 다양한 인물 배치 등의 서사 기법과 유사하다. 진범 찾기 과정의 복잡성과 혼선의 전략은 원귀 서사를 전개하는 또 다른 스토리텔링 기법의 한 축이라 할 수 있겠다. <악귀>에서도 6.25 전쟁 후인 1958년, '장진리'에서 무당이 한 아이를 잡아 태자귀를 만들었다는 신문 기사 보도를 찾고 '구산영'과 '염해상'이 이 사건을 추적하면서 함원의 과정이 조각조각 나뉘어 드라마의 거시 서사 전반에 걸쳐 연결된다.

서사의 중후반부에 가서 밝혀지는 부분이지만, '이향이'의 함원은 한 여자아이를 원귀를 만들어 조종하고자 하는 어른들의 의도와 계획에서 비롯되었다. 1950년대, '염해상'의 조모인 '나병희'는 거대한 부를 축적,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태자귀'를 만들고자 무당을 사주하였다. 배고프고 가난하던 장진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에서 한 명의 희생양만 내어주면 대신 녀

15) 이정주(2007), 「조선시대 貞節 倫理의 실천자와 身分」, 『역사민속학』 24, 한국역사민속학회, 104쪽.

낙하게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래에 동참하고, 마을의 어린 여자아이들이 모두 모인 밤, 무당은 ‘이향이’를 지목한다. ‘향이’에게 전해진 붉은 댕기를 동생 ‘목단’이 착용하는 것을 ‘향이’는 막지 않는다. 그리고 친구들과 놀던 ‘목단’은 무당에게 유인되어 서울 ‘나병희’의 집으로 끌려가 감금되고 굶주림 끝에 살해된다. 이 과정에서 ‘이향이’는 동생을 대신 서울로 보냈다는 자책감과 함께, 어머니의 자살, 연이은 아버지와 오빠의 사고사 등을 겪으면서 집안 몰락의 과정을 혼자서 겪어내야 한다. ‘향이’는 무당에게 ‘목단’을 보낸 대가로 가족이 건네받았던 돈을 들고 동생 ‘목단’을 찾아 다시 집으로 데려오려고 서울로 향한다. 그러나 무당은 ‘향이’에게 돈을 건네받고 ‘이목단’이 감금된 곳에 ‘향이’를 데려가 ‘목단’과 함께 감금시킨다. 그리고 ‘향이’와 ‘목단’을 함께 굶기다가 ‘향이’의 눈앞에서 ‘목단’을 죽이고, ‘향이’도 살해한다.

특기할 만한 부분은 부에 눈이 먼 재벌과 무당의 탐욕에 의해 ‘의도된 함원’의 과정이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고전에서는 원귀의 초월적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원귀를 만드는 함원의 과정이 드러나는 사례가 없다. 그러나 <악귀>에서는 악귀를 이용하여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어린아이를 감금하고 원귀로 만드는, 타인이 의도한 함원의 과정이 그려진다. 이들은 돈을 지불하고 거래했으니, 어린아이를 감금하고, 굶기고, 살해하고, 신체 훼손을 하는 등의 기이하고 악랄한 범죄 행위를 합당하게 여기고 악행을 자행한다. 원한을 강하게 품을수록, 더 강한 능력을 지닌 태자귀가 된다고 보고 목단을 오래도록 굶겨서 죽이거나, 목단이 죽는 모습을 보게 하여 ‘향이’가 강한 원한을 품도록 의도하고, 두 아이를 살해하고 얼굴로 피가 튀기자 소리 내어 웃는 무당의 모습은 잔혹하고 기괴하게 묘사된다. 그리고 ‘염해상’의 조모 ‘나병희’는 눈빛 하나 바뀌지 않고 무표정하게 이 모든 과정을 지시하고 보고받는다. 무당과 ‘나병희’의 이러한 모습은 악귀가 된 ‘향이’보다 더욱 악랄하고 잔혹한 더욱 강조되며, ‘악귀’라는 드라마 제목에서 지칭하는 ‘악귀’는 ‘향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관점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무당과 ‘나병희’ 뿐 아니라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딸이 될지도 모르는 마을의 희생양 만들기에 동의한 장진리 주민들 역시 ‘향이’의 함원 과정에서 세세하게 묘사된다. 장진리 주민들은 하현달이 뜬 밤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한 곳에 모여 서서 무당이 붉은 햇불을 들고 희생양이 될 아이를 고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다린다. 그들은 딸을 잃을 피해자이자, 딸과 돈을 거래하는 것에 동의한 공모자이다. 아이들에게 침묵한 채로 마을에 모여 아이들을 무당에게 선보이는 어른들의 모습은 어두운 밤하늘, 붉은 햇불과 더해져 어둡고 비정하게 묘사된다. ‘목단’이 무당을 따라 서울로 간 이후, ‘나병희’가 거래 성사로 보낸 각종 음식이 마을에 몰려 들어오고, 마을에서는 마치 큰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별걸게 불을 피워 놓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술과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밤을 보낸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은, 이들과 함께 음식 먹고 즐기는 것에 동참할 수 없는, 가족을 잃은 ‘이향이’의 시점에서 묘사된다.

원귀 서사에서 ‘함원’의 과정은 서사를 견인하는 동력이면서 여러 기능을 지닌다. 원한을 품고 누군가가 죽는 과정을 통해 원귀가 탄생하게 된 원인과 그 결과를 서사에서 풀어나가게 만드는 인과적 기능, 또 허황되게 보일 수 있는 비현실적인 원귀 이야기의 개연성을 확보하게 하는 기능, 또 원한을 품고 죽는 상황이 원귀 서사를 접하는 향유층의 주변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향유자가 감정이입하고 등장인물에 스스로를 대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도 지닌다.

또한 원귀 서사에서 ‘함원’에서 자행된 범죄나 문제 상황은 원귀 서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현실에서 자행되는 폭력, 범죄, 또는 현실에 만연해 있으나 해결되지 않는 부조리한 문제 상황이나 사람들의 인식, 가치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폭력적

상황, 부조리한 문제 상황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의해 원귀의 함원은 현실의 논리에서 개인이 해소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상황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희생되는 개인을 보여주는 함원의 과정은, 원귀 서사가 기반을 둔 시대적 배경에서 엿볼 수 있는 당대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나 그 시대에 내재해 있는 가치관과 사회 전반의 인식 등 문제 상황에 대한 폭로의 기능을 한다.

고전문학의 함원의 과정은 곧 당대 여성의 삶의 기반과 여성들에게 강요되던 여성상과 그 이면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처첩 갈등이나, 계모 등에 대한 당대 향유층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저이다. 드라마 <악귀>의 함원 과정에서는 개인의 잘못된 욕망과, 이를 묵인하고 동조한 또 다른 개인들이 모여 하나의 집단이 희생양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는 작가에 의해 변용된 허구적 상상력이 드라마에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딸을 팔아 연명하려 한 장진리 주민들의 선택이나, 무고한 아이를 죽이면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재벌과 무당의 모의 과정 등은, 근현대사에 떠오른 물질만능주의, 천민자본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문제 상황을 반영하면서 집단이 집단 이익을 위해 모의하여 개인을 희생시킬 수 있는 여러 실제 사건들을 연상하게 한다.

한편, 이는 '희생양' 제의의 변화로 볼 수 있으나,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는 제의가 아닌, 살해와 은폐라는 범죄에 대한 집단의 공모이자 동참의 발현이다. 한 개인의 과욕과 집단의 침묵 및 동조는, 결국 악귀 탄생과 또 다른 많은 이들의 죽음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악귀 서사와 양화의 과정을 개연성 있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드라마 시청자가 악귀가 된 '향이'보다 더 악귀 같은 '나병희', 무당 등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고 제목의 악귀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반문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을 한다. 즉, 함원의 극대화 과정, 원귀 만들기를 의도하여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고 공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임으로써 실제 조선에서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또 다른 형태로 발생하고 자행되는 개인의 탐욕과 사회의 침묵에 따른 공모나 공모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인간 경시, 물질 만능의 세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한다.

3. <악귀> 서사 전반을 추동하는 殃禍의 과정

양화(殃禍)란 '어떤 일로 인하여 생기는 재난', 또는 '지은 죄의 양값음으로 받는 재앙'으로 정의된다.¹⁶⁾ 특정 원인에 의해 생긴 재난, 재앙이라는 뜻에서 전자와 후자의 뜻풀이는 유사해 보이지만, 후자의 경우 '지은 죄의 양값음'이라는 원인의 한정에서 전자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후자의 양화 개념은 특히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논리와 상통한다. 이는 고대 중국에서부터 연원을 찾을 수 있는 관념으로, 『상서尙書』의 “하늘은 착한 일을 하면 온갖 복을 내리고, 나쁜 짓을 하면 온갖 재앙을 내린다.”¹⁷⁾나, 『주역周易』의 “선업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치고, 불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넘친다.”¹⁸⁾에서도 관련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조원일은 이외에도 다양한 문헌에서 중국 전통의 인과응보

16) 네이버국어사전, “검색어: 양화”, <https://ko.dict.naver.com/#/entry/koko/f1f5e243cdd548e69c6639aa20ef6431>

17) 『尙書』, 「伊訓」, “作善降之百祥, 作不善降之百殃.”

18) 『周易』, 「文言傳」, “積善之家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

관념을 찾아볼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중국 전통의 인과응보 관념이 불교의 업보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논의한 바 있는데,¹⁹⁾ 각 종교나 신앙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인과응보의 관념은 불교, 기독교, 무속신앙 등 다양한 종교와 신앙에서 공통되게 발견되는 특징을 보인다.

원귀가 일으키는 양화 역시 사전적 정의 중 두 번째 정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타살이든 자살 강요든 간에, 한 인간이 죽어 원귀가 될 정도의 원한을 품게 만든 죄를 지은 자가 그에 상응하는 재앙을 받는 것이 원귀 서사의 양화 과정이다.

고전문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양화의 양상은 몇 가지로 나뉜다. 첫째, 원귀가 자신에게 직접 해를 가했던 인물을 죽이는 경우(<유치현전>, <유희현전>, <정을선전> 등)이다. 둘째, 하늘이나 동물 등으로 표현된 초월계의 대리 조력으로 원귀가 함원하게 한 가해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장화홍련전> 등)이다. 셋째, 원귀의 출현으로 인해 가해자는 아니지만 부사나 원귀의 마을 사람들이 죽는 경우(<김인향전>, <유치현전>, <유희현전>, <장화홍련전>, <정을선전> 등)이다. 그리고 넷째, 이로 인해 원귀가 생전에 살던 곳이 폐읍에 이르는 경우(<유치현전>, <유희현전> 등)가 있다.

요컨대, 원귀가 함원하게 만든 가해자를 직접 죽이거나 혹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양상과 가해자 외에 원귀가 거주하던 고을의 부사나 마을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죽는 양상으로 나뉠 수 있고, 이러한 죽음의 확대가 결국 폐읍으로 이어져 이러한 문제가 조정에까지 전달되는 상황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양화에는 가해자에 대한 개인적 징치뿐 아니라, 마을을 넘어 조정과 임금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원한을 알리고 원한 발생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되기를 촉구하는 원귀의 메시지가 내재해 있다. 한 개인을 죽게 만들었음에도 조작되거나 은폐되었던 문제는 또다른 타인의 연쇄적인 죽음으로 양화가 확대되면서, 조사되고 밝혀지기 시작한다.

드라마 <악귀>에 나타난 양화 양상도 고전문학의 양화 양상과 공통점이 있다. <악귀>에서도 가해자 및 가해자가 아닌 다른 인물들이 계속해서 원귀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이러한 죽음의 확대로 인해 장진리가 폐읍에 이를 정도의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또 이로 인해 원귀의 의도와 욕망을 추적, 조사해나가면서 결국 원귀의 양화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 역시 고전문학의 설정과 공통된다.

그러나 원귀 고전 소설과는 달리 여귀가 ‘구강모’, ‘구산영’ 등 다양한 인간의 육신을 옮겨 가며 병의하고, 악귀에 썩인 인간의 육신과 악귀의 초월적 능력의 결합으로, 악귀가 병의된 인물의 주변인들이 죽어나가는 과정이 서사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악귀>만이 가지는 특징이다.

<악귀>에서 악귀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들의 양상은 대체로 유사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보이지 않는 줄에 의해 질질 끌려가듯이 괴롭고 고통에 가득 찬 표정으로 걸어가던 인물이 손에 온 힘을 주고 발버둥치면서도 결국 스스로 밧줄을 천장에 매달아 밧줄에 목을 매고 역지로 자살하는 형태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고통에 가득 차 허공에 있는 어떠한 기운에 저항하려 하다가 결국 옥상에서, 또는 창 밖으로 뛰어내려 죽음을 맞이하는 양상이 여러 인물을 통해 재현된다. 각각의 인물 모두 본인이 의도한 자살이 아니라는 점은, 특히 인물의 손목에 생긴 검붉은 피멍을 통해 증명된다. 죽지 않기위해 검붉은 피멍이 들 정도로 강력히 저항했다는 亡者의 손목 흔적은 악귀의 양화를 증명하는 표식이다.

또한 이들의 죽음은,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염해

19) 조원일(2022), 「중국 육조시기의 인과응보 사상 연구」, 『동양문화연구』 36,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127~132쪽.

상'은 악귀에 의한 어머니의 자살을 어린 나이에 눈 앞에서 지켜본 충격으로 평생 진상을 추적하면서 민속학자의 길을 선택한 인물로 묘사된다. '이홍새' 역시 자신이 따르던 선배 형사 '문춘'이 기이한 자살을 택하자 자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구산영', '염해상'과 함께 추적과 조사를 이어간다. 이처럼 가족이나 지인의 기이한 죽음의 과정, 즉 양화의 상황을 주요 인물이 직접 목격하는 것은 곧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악귀를 쫓는 '염해상' 캐릭터나 '이홍새' 캐릭터의 행위에 개연성을 마련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또한 '구산영' 혼자서는 불가능한 악귀와의 대립과 악귀 퇴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서사 논리를 구성하는 요소로도 기능한다.

<악귀>에서 양화의 과정은 드라마 1화부터 12화에 이르기까지 각 회차에 분산된 별개의 자살 및 살인 사건을 하나의 거시 서사로 이어지게 하는 한편, 드라마의 서스펜스(suspense)와 미스터리(mystery)를 추동시키는 원리이자 중심 축으로 작용한다. 악귀의 양화에 의해 아버지 '구강모'가 죽은 뒤, '구강모'에 병의한 악귀가 남긴 유서와 붉은 댕기에 의해 '구산영'은 악귀에 병의하는 것으로 드라마의 발단이 이어진다. '구산영', '염해상', '이홍새' 등의 인물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미스터리로 보이는 악귀에 의한 양화로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적으로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자살과 살인 사건을 추적한다. 이들의 조사와 추적 중에도 원귀에 의한 살인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양화는 심화되고 거시 서사의 갈등 진폭은 더욱 극대화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사는 극의 클라이맥스(climax)에 도달한다.

전술하였듯이 고전문학에서는 원귀의 곡성을 듣거나, 원귀가 출현한 것만으로 사망한 인물이 등장한다. 이는 원귀의 양화 능력의 발현인 한편, 원귀의 직간접적인 출현에 의해 겪게 되는 인간의 공포 정서와 감각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악귀>에서 원귀를 보거나 원귀의 소리를 듣고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악귀>의 4화에서 마을에 소환된 객귀들의 존재로 인해 마을 노인들이 사고사를 겪거나 병환으로 사망하는 상황이 묘사된다는 점은 고전문학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원귀 소리를 듣거나, 원귀를 보자마자, 또는 원귀의 존재가 가까이 있어서 사망하는 양화 양상은 원귀에 대한 향유자의 공포 정서를 극대화한다. 특히 원귀를 비롯한 귀신은 인간이 어린 시절부터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이야기 속 존재이자, 다양한 사진이나 영상에 포착되었으나 현실 논리로는 해명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형상, 또 불가해한 사고나 죽음 등의 원인으로 여전히 회자되는 집단기억에 자리한다.

귀신은 死後의 존재이며, 또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죽음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대다수의 인간은 죽음에 대한 선형적 공포, 거부감과 더불어 죽는 과정의 고통을 필연적으로 회피하고 두려워한다. 이러한 인간의 거부감, 공포 반응은 未知의 사후 존재이자 불길한 죽음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귀신에 대해서도 일관되거나 유사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처럼, 원귀에 대한 집단기억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 반응은, 원귀 서사의 양화 과정을 향유하는 동안 원귀 서사의 등장인물이 보고 겪는 상황에 시각적으로 더욱 몰입함으로써 극대화될 수 있다.

시각뿐만이 아니라 청각 정보(소리의 크기나 울림 같은) 역시 공간감의 단서로 함께 활용되어 인간이 소리를 내는 사물과의 거리, 위치 그리고 사물의 존재감을 경험하는 요소로 사용된다. 즉, TV 드라마의 향유자는 원귀 양화의 과정에서 원귀에 대한 존재감이나 원귀의 위협적 행위에 대한 실제감 등을 경험하고 또 그 의미를 인지적으로 평가, 분석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향유자의 공포 정서를 더욱 강화하거나 지속시킬 수 있다.²⁰⁾ 따라서 원귀 서사의 양화 과정은

20) 안익진(2013), 「관객은 허구에 불과한 공포영화의 괴물을 왜 무서워하는가?」, 『미디어, 젠더&문화』

원귀 서사가 호러, 서스펜스, 스릴러 장르의 특성을 각각 유지하면서도, 이를 자연스럽게 융합하여 원귀 서사만이 가지는 특유의 서사 논리와 장르적 색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 논리와 장르적 색채는 향유자가 원귀 서사에 기대하는 지점과 연결되면서 시대, 장소, 매체와 상관없이 원귀 서사만이 가지는 고유의 자장을 지속적으로 생성해 낸다.

한편, 원귀 서사의 양화 과정을 ‘희생양’의 관점에서 보자면, 희생양이 새로운 희생양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희생양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독해할 수 있다. 원귀가 되기 전 ‘이향이’는 장진리에서 무당의 지목과 함께 ‘이향이’의 가족,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암묵적 동의로 희생양이 되어 결국 살해당하고 원귀가 된다. 가족과 마을 집단의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희생양으로 선택된 ‘이향이’는 원귀가 된 뒤 ‘나병희’와 ‘염해상’ 집안의 부를 축적해주는 조건으로 새로운 희생양을 선택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 과정에서 ‘나병희’의 남편과 아들이 죽고, ‘염해상’의 엄마, ‘염해상’의 엄마를 도와 악귀를 추적하던 ‘구강모’ 집안으로까지 희생양이 늘어간다.

희생양의 전염은 가정과 사회가 개인을 희생양으로 몰았던 상황을 원귀가 모방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원귀에 의한 희생양이 늘어날수록 원귀의 뿔이 부각되는 한편, 소녀였던 ‘이향이’의 희생양 만들기를 주도하고 공모하고 침묵한 개인, 집단의 뿔도 함께 부각된다. 이는 원귀가 되기 전 이향이가 살아가던 시대적 배경과 점차 만연해가던 물질만능의 논리 때문에 이향이가 죽음을 맞으면서도 결코 넘어설 수 없었던 희생양의 문제를, 원귀가 된 후 사후세계 또는 무속적 가치와 비현실이 발현한 힘의 작용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는 원귀가 되어서야 비로소 잘못된 풍습이나 관념, 선택에 저항할 수 있는, 바꿔 말하면 원귀가 되기 이전에는 바꿀 수 없는 사회의 지배적인 분위기와 관념, 인식이 얼마나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반영한다. 그리고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양으로 내몰아 왔던 과거의 역사나 미래의 가능성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희생양이 된 개인의 원한과 피해가 다른 개인이나 사회로 확장, 전이되면서 비로소 타자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사적 복수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폭력성과 잘못된 관념에 대한 고발과 폭로로 확장될 수 있도록 만드는 촉발제 기능을 하는 것이다.

4. 고전 원귀 서사의 解冤을 대체하는 원귀 퇴치 과정과 의미

함원과 양화의 과정은 고전문학과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원귀 서사에서 두루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다. 그러나 解冤의 과정이 제시되는 다수의 고전 원귀 서사와는 달리, 드라마 <악귀>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고전 원귀 서사의 해원 과정을 대체하고 <악귀>를 결말로 이끄는 동력은 바로 악귀 퇴치이다. 물론 고전 서사 중에도 요괴나 이물 퇴치담이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인간에 빙의하여 인간 세계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요괴나 이물과 마찬가지로 배척 대상이 되는 원귀가 퇴치되는 결말의 서사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듯 보인다. 그러나 ‘여성 원귀’를 소재로 한 많은 고전 서사에서 퇴치나 배척보다는 해원의 과정을 결말부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드라마 ‘악귀’에서 등장하고 있는 원귀 역시 요괴, 괴물, 이물 등으로 불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생을 누리다가 원한을 품고 죽은 원귀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원귀 서사가 동일한 요소나 구조적 특징을 지녀야만 하는 법칙이

26.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54~61쪽 참조. 이 논문에서 안의진은 원귀가 아닌 괴물로 공포영화 관객의 공포 반응을 분석하고 있다.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성 원귀를 해월에 이르게 한 고전 원귀 서사와 여성 원귀를 퇴치시킨 드라마 <악귀> 서사 결말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 보면, '원귀 서사'의 현대적 변용 양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징이나 유의미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논의한, 여귀 소재의 고전 소설에서 여귀가 해월에 이르면서 결말을 맺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解冤이란, 원통한 마음을 풀다는 뜻을 의미한다. 원귀의 함원과 해원이 반드시 대칭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함원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또는 함원을 일으킨 문제 상황에 대한 징벌과 해결 등의 과정이 원귀가 해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월은 또한 원귀가 원한을 풀으로써 이승을 떠도는 귀신 상태에서 벗어나 망자의 세계인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고전 원귀 서사에서, 원귀가 직접 귀신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초월계의 조력으로 악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양화의 과정만 묘사되는 사례도 있으나, <장화홍련전>이나 <김인향전>의 경우, 원귀가 부사를 찾아가 함원하게 된 문제 상황을 알리고 현실 세계의 제도로 악인이 징벌되면서 원귀는 해월에 이른다.

또한 악인의 징치 후 대다수의 고소설에서 원귀가 된 여성의 정혼자가 원귀의 시신이나 혼을 위로하는 행위를 하거나(<김인향전>, <정을선전>), 또는 정혼자를 통해 원귀의 사연을 들은 천자가 원귀의 혼을 위로하는 상황(<유치현전>, <유희현전>)이 이어지자, 원귀는 再生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죽었던 여성이 정혼자나 천자의 위로나 특정 행위에 의해 다시 살아난다는 재생 모티프가 활용된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죽기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죽어'서 원귀가 되었으므로 원귀가 아닌 인간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완전히 원한을 푸는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생은 원귀의 함원과 해월의 인과성을 강화하면서, 여성 인물이 인간→원귀→인간이라는 생사, 존재, 세계의 전환을 모두 겪는 비범한 과정을 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모티프로도 기능한다.

이러한 죽은 이의 재생은 현실계의 논리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초월계의 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고전문학의 서사 논리를 전제로 한다. 즉, 원귀는 현실계의 논리로 설명되기 어려운 존재이므로 원귀의 생성, 소멸, 영향력의 논리를 설명할 수 있는 초월계의 논리가 원귀 서사의 기저에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²¹⁾ 이처럼 전통적인 원귀 서사의 결말부에서 해월은 필수적으로 제시되며, 원귀가 재생하면서 원귀는 궁극적인 해월에 이르고 이로써 원귀 서사를 관통하던 갈등이 해소되면서 서사는 종결된다.

그런데 드라마 <악귀>에서는 고전 원귀 서사에서 나타나는 원귀의 재생 과정이 드러나지 않으며, 원귀의 직접적인 해월이 제시되지 않는다. 오히려 원귀는 서사의 마지막에 각성한 '구산영'에 의해 완전히 퇴치되면서 소멸되고 서사는 마무리된다.

원귀의 퇴치는 <악귀>의 등장인물 '염해상'이나 '구강모'의 목표로 묘사되었다는 점에서 서사의 초반부터 예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원귀 퇴치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욕망은 서사의 중후반부로 가면서 '염해상'뿐 아니라, '구산영', '이홍새'와 그 외 주변인물들로 확장되어 간다. 그러나 원귀 퇴치의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이는 무당과 계약을 맺고 원귀를 만들어낸 '나병희'뿐이다. 무당은 이항이를 죽인 뒤, '나병희'에게 원귀를 다시 없애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러나 '나병희'는 거대한 부를 이뤘음에도 끝없는 탐욕 때문에 남편, 아들, 며느리 등을 계속 희생시키며 원귀를 곁에 두고 조종하려 한다. 그래서 원귀를 없애기 위해 원귀의 정체를 조사하는 손자 '염해상'이나 '구산영'의 시도에 '나병희'는 조롱하고 분노한다. 유일하게 원귀의 정체와 퇴치 방법을 아는 '나병희'의 방해로 '구산영'과 '염해상' 등 원귀에 빙의되었거나 원귀에

21) 졸고(2022), 앞의 논문, 157쪽.

의해 가족을 잃은 인물들은 오로지 새로운 조사와 추적을 통해 원귀 퇴치 방법을 알아내야만 하는 입장에 놓인다.

‘구산영’과 ‘염해상’은 ‘염해상 모’나 ‘구강모’가 원귀를 퇴치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조사하고 모은 자료들을 단서로 삼고, 이와 관련될만한 새로운 자료 조사 및 현장 조사를 지속하고, 형사 ‘문춘’과 ‘홍새’가 조사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원귀 퇴치 방법을 찾으려 애쓴다. ‘염해상 모’와 민속학자였던 ‘구강모’는 원귀를 퇴치하기 위해 원귀가 깃든 물건 5가지를 모아 이를 묻고, 원귀의 정체를 알면 원귀를 제거할 수 있다는 가설 하에 이를 기록으로 남기면서 실행에 옮기지만 끝내 가설은 실패로 돌아갔다. 속임수를 잘 쓰는 특성을 지닌 원귀가 흘려둔 거짓 정보도 원인이었으나, ‘구강모’와 ‘염해상 모’가 원귀의 정체를 ‘이향이’가 아닌 ‘이목단’으로 잘못 파악한 것도 실패의 원인이었다. 따라서 ‘염해상’과 ‘구산영’은 ‘이목단’으로 오해한 원귀의 정체를 새롭게 조사하여 밝혀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원귀의 정체를 아는 유일한 인물 ‘나병희’를 찾아간 구산영은 원귀인 척 연기하고, 이에 속은 ‘나병희’를 통해 원귀의 이름이 ‘향이’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염해상’ 등은 ‘이향이’가 누구인지를 조사하면서, ‘이향이’가 ‘이목단’의 언니였고, ‘목단’과 ‘향이’ 모두 ‘나병희’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추적과 조사 과정에서, ‘구산영’ 일행은 ‘구강모’가 추측했던 원귀 퇴치의 방법은 ‘이향이’의 속임수였고, 무당이 ‘나병희’에게 알려준 방법으로 원귀를 퇴치해야만 함을 깨닫고 ‘나병희’의 집에 숨겨져 있는 단서를 찾아 나선다. 원귀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원귀가 살해될 때 잘린 손가락을 찾아 손가락을 태우는 것인데, ‘염해상’은 오랜 추적 끝에 이 방법을 알게 되어 원귀의 손가락이 숨겨진 ‘나병희’의 집으로 향한다. 그리고 12화에 이르면 ‘나병희’의 저택에서 이미 ‘구산영’의 몸을 지배한 원귀 ‘이향이’와 ‘염해상’이 손가락을 차지하기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며 몸싸움을 벌인다. 원귀의 공격으로 ‘염해상’이 쓰러지고 손가락을 챙겨 달아나려던 원귀는, 다시 살아보겠다는 의지로 각성한 ‘구산영’의 강력한 힘에 의해 결국 퇴치되고 소멸된다.

한편, 이러한 퇴치의 과정을 퇴치로만 놓고 보면 드라마 <악귀>에서의 원귀는 해원을 전혀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전 서사의 해원의 과정이 1)악인에 대한 징치나 처벌, 2)원귀가 되기 전 함원을 하게 된 원인이나 문제 상황의 폭로 또는 공론화, 3)시신을 향한 위로나 염습 등의 행위, 의례 등의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원귀 퇴치를 추구하는 드라마 <악귀>의 서사 전개 과정에서도 1)악인에 대한 징치나 처벌, 2)원귀가 되기 전 함원하게 된 원인이나 문제 상황의 폭로 또는 공론화가 이루어지며, 3)원귀를 향한 위로나 시신을 찾는 행위 등이 나타난다. 1)은 드라마 1화 ~ 12화의 서사 전반에 지속되던 원귀 양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며, 2)는 원귀 양화를 추적하면서 원귀를 없애려 하는 ‘구산영’과 ‘염해상’의 조사와 발견 속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3)원귀를 향한 위로의 발언은 원귀의 아픔에 공감하며 분노하는 ‘구산영’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① 산영: 이목단.. 그 아이가 악귀가 분명해요. 나라도 그런 일을 겪었다면.. 악귀가 돼서라도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을 거예요.

② 산영: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어요? 그 어린아이를 끔찍하게 죽여서 태자귀를 만들고.. 저렇게 좋은 집에서 돈 펴펴 쓰면서 사니까 행복했냐고!

해상, 그저 말없이 산영을 바라보는데..
 산영,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쪽에 놓인 돌을 들어 건물 앞에 세워진 해상의 차 창문 유리를 향해
 집어 던진다. 와장창 깨지는 유리. 놀라서 바라보는 흥새.
 산영: 신고할 거면 신고해요. 나도 돈으로 해결할 테니까.²²⁾

③ 비가 그친 화원재로 힘없이 들어서는 산영. 뒷마루에 가만히 걸터앉아 있다가.. 불빛에 비춰
 길게 드리워진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본다.

산영: 내가 당한 일.. 너무 끔찍해.. 너 많이 무섭고 아팠을 거야.
 (중략) 네 이름.. 네 사연 모두 알아냈어. 이제 니가 있어야 될 곳으로 보내줄게.²³⁾

<표 1> 드라마 <악귀> 중 원귀를 향한 위로와 공감의 대사

한편 원귀인 '향이'가 '산영'에게 시신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제시²⁴⁾되는데, 이는 3)원귀의 시신을 찾는 행위와 연관지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원귀가 '산영'을 이용해 자신의 손가락을 찾기 위해 한 말인 것이 추후에 밝혀지지만, 이러한 향이의 대사로 해상과 흥새는 수십 년동안 '나병희'의 저택 지하에 버려져 있던 시신을 발견하는 과정이 전개된다.

또한 원귀가 퇴치된 이후의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12화의 결말부에서 '산영'과 '해상'은 선유 줄불놀이를 보러 가서 귀신들과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는 장면이 나온다.

해상: 선유줄불놀이예요. 질병과 제약을 쫓고 경사를 부르는 벽사의 의미가 담겨 있죠. 또한 길을 잃고 떠도는 귀신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는 뜻도 담겨있어요. 수많은 흰 종이들과 불,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담긴 거대한 정화의식이지요.²⁵⁾

직접적인 치상은 아니지만, 줄불놀이에서 사람과 귀신들의 행복을 소망하는 '산영'과 '해상'의 모습은 악귀가 원을 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기원하는데, 이러한 장면은 원귀의 진정한 해원을 염원하는 부분을 드러내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악귀>에서 퇴치의 과정을 직접적으로 내세우지만, 원귀 양화와 퇴치의 과정에서 고전 서사에서 발견되었던 해원의 양상에 해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악귀>의 서사 전개에서 단편적,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전 원귀 서사의 해원의 양상이 일부 활용되었음에도 <악귀>에서 고전문학과는 달리 원귀의 '퇴치'로 서사를 종결하였는지 그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원귀인 '이향이'는 '구산영'의 신체를 뺏아서 못다한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욕망에서 문제가 되는 전제는 '구산영'의 신체를 뺏어야만 '이향이'가 살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고전서사에서 본인의 몸으로 다시 재생하는 원귀의 상황과는 다르다. 자신의 몸이 아닌 다른 이의 몸을 빼앗아야만 하므로 고전 원귀 서사와 <악귀>의 결말은 다르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특히 드라마 <악귀>의 프로타고니스트(protagonist)는 '구산영'이므로, '구산영'의 신체를 악귀가 완전히 빼앗게 되면 '구산영'은 완전히 고립, 패배

22) 김은희(2023), 김은희 대본집 『악귀』 2권, (주)세계사컨텐츠그룹, 71쪽.

23) 김은희(2023), 위의 책, 78쪽.

24) 드라마 11부 향이의 “내 시신을 찾아줘. 아무도 모르는 차가운 곳에 묻혀 있는 내 시신을 좋은 곳에 묻어줘.. 그 교수한테 부탁하면 찾아줄 거야..” 대사에서 알 수 있다. (김은희(2023), 위의 책, 323쪽)

25) 김은희(2023), 위의 책, 390쪽.

하게 되며, 이는 작가가 드라마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 청춘의 삶, 희망 등의 가치과 완전히 대치된다. 따라서 프로타고니스트인 ‘구산영’이 악귀에 빙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사의 결말을 위해서 원귀는 제거되어야 한다.

둘째, 고전 서사의 원귀와 드라마 <악귀>의 원귀는 그 존재 양상에서도 차이난다. 고전문학의 원귀는 자신의 함원한 상황을 타인이 알아주거나, 이에 대한 공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며 따르는 존재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전의 원귀와는 달리, <악귀>의 원귀는 계속해서 인간의 탐욕으로 존재감을 키우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인간을 타살하거나 조종하고 여러 사고를 일으킨다. 또한 ‘이향이’는 고전서사의 원귀와 달리 공적 처벌을 대리할 수 있는 경찰을 살해한다. 이처럼 <악귀>의 원귀는 고전서사 속 원귀에 비해 더 사악한 속성과 사회를 교란하는 영향력을 지니기에 사회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된다.

셋째, 그런데 악귀 제거의 방법에 꼭 퇴치, 퇴마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치상, 장례, 제사 등은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망자가 저승길로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거행하는 의례였다. 고전 원귀 서사에서도 원귀에 대한 위로의 말을 하거나, 시신을 찾아 치상하려는 등의 행위가 제시된 후 원귀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돌아오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치상, 장례, 제사 등을 통해 원귀를 해원에 이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귀의 해원보다는 원귀를 퇴치하는 과정으로 결말이 끝나는 것은 바로 <악귀>가 오컬트 장르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오컬트란, 초자연적 존재를 다루며,²⁶⁾ 선악의 대립구조가 분명²⁷⁾한 특징이 있다. 서양의 오컬트 장르에 해당하는 영화에서는 주로 ‘악귀에 빙의된 자, 악귀, 그리고 이를 퇴치하려는 자’의 갈등과 대립 구도로 서사가 전개되는 특징을 보인다. 다수의 오컬트 장르 영화에서는 악귀가 결말부에서 퇴치되느냐 퇴치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결말부의 색채 및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여러 메시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즉, 오컬트에서의 악귀는 해원의 대상이 아닌 퇴마 또는 퇴치의 대상이다. 악귀에 빙의되어 생사의 위협을 받는 인간을 구출하기 위해 악귀를 퇴치하는 상황으로의 전개는 개연적이다. 이러한 오컬트 장르의 문법, 즉 악귀와 악귀에 빙의된 자, 그리고 이를 퇴치하려는 자의 삼각 구도가 <악귀>에서도 결말부까지 서사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악귀>에서는 악귀에 빙의된 자인 ‘구산영’이 스스로 악귀와 대립하고 악귀를 퇴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처럼 <악귀>는 고전 원귀 서사나 또 기존 오컬트 장르의 서사 문법과 닮아 있지만 기존의 서사 논리와는 다른 <악귀>만의 결말을 풀어낸다. 이는 드라마 <악귀>大本집 『악귀』에 실린 작가 인터뷰, “오컬트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주로 서양 귀신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귀신이 많아요. 흥미롭고 우리와 조금 더 가까운 귀신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²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작가가 기획했던 한국형 오컬트 장르인 <악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전 원귀 서사가 오컬트 장르와 결합하면서 악귀 퇴치라는 결말로 변주되었으나, 서사 전개의 과정 속에서 고전 원귀 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던 해원의 양상이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 최민서(2003), 「한국 오컬트 드라마 연구: 악마성, 주술성, 전복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54쪽.

27) 염원희(2023), 앞의 논문, 3쪽.

28) 김은희(2023), 김은희大本집 『악귀』 1권, (주)세계사컨텐츠그룹, 415쪽.

5. 잠정적 결론

본고에서는 TV 드라마 <악귀>에서 원귀를 소재로 한 고전 서사의 구조와 요소가 변용되어 드러난다고 보고, 고전 원귀 서사의 구조를 '원귀의 함원-양화-해원'이라는 요소로 나눈다면, 이러한 구조가 실제 TV 드라마 <악귀>에서는 어떻게 계승, 변용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향유되는 원귀 서사의 패턴이나 공통된 특징이 유지되거나 변주되는 원인과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서사 구조와 요소 등을 중심으로 드라마 <악귀>를 분석하는 것에 치중하여 <악귀>가 원귀 서사의 현대적 변용으로서 가지는 심층적인 의미를 두루 고찰하지 못한 것에 한계가 있다. 이는 추후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TV 드라마 <악귀>에 나타난 ‘원귀 이야기’의 현대적 변용 양상과 의미>에 대한 토론문

진수현(중앙대)

이채영 선생님께서 본 논문에 잘 정리하셨듯, 대부분의 원귀 서사는 인간이 구축한 사회 내 질서 즉 시스템과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귀 서사는 우리 사회 내 규범과 도덕, 윤리 문제를 담론으로 형성한다고 볼 수 있고, 때문에 원귀 서사는 사회 시스템과 이데올로기를 초월해 그려질 수 없으므로, 결국 원귀 서사의 생명력과 전승력은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함의 반영 정도와 관련을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논문은 현대 TV 드라마 <악귀>에 재현된 원귀 서사의 주요 사건 진행의 추동 요인으로 작용하는 함원과 양화 모티브가 고전문학부터 창작, 향유, 전승되어 수용된 것임을 말합니다. 이야기의 전승 매체가 텍스트에서 영상으로의 변화가 물론 있지만, 이는 이야기의 전달 방식의 차이이지 이야기라는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원귀 서사에 담긴 모티브의 분석과 윤리적 담론, 이데올로기의 현대적 수용 양상 등을 살피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채영 선생님의 본 발표문을 통해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토론의 기회를 주신 중앙어문학회 관계자께도 감사드립니다. 다만, 본 논문의 논의 전개와 의문점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논문 내용에 대한 혹시 모를 오독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발표자께서는 5페이지에 고전문학 작품의 경우 원귀의 함원→양화→해원의 과정이 물리적 시간의 흐름으로 구성되는 것에 비해 TV 드라마 <악귀>는 그 과정의 시간을 뒤트는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개인적으로 이러한 서사 진행에서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장르의 융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 9페이지에 설명하신 것처럼 TV 드라마 <악귀>는 원귀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추리적 요소의 첨가로 스릴과 서스펜스의 극적 효과를 얻고자 함은 아닐까 합니다. 결국 고전과 현대의 매체에서 함원→양화→해원의 서사 구조는 같지만 그 서사의 전개 방식에 있어서 장르의 결합 형태와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2. 질문은 아닙니다. 이익의 『성호사설』제 5권, <만물문>, 염매고독에

“우리나라에는 염매(魘魅)라는 괴이한 짓이 있는데, 이는 나쁜 행동을 하는 자가 처음 만들 어낸 것이다. 남의 집 어린애를 도둑해다가 고의적으로 굶기면서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인다. 때로 맛있는 음식만을 조금씩 주어 먹이는바, 그 아이는 살이 쏙 빠지고 바짝 말라서 거의 죽게 될 정도에 이른다. 이러므로 먹을 것만 보면 빨리 끌어당겨서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죽통(竹筒)에다 좋은 반찬을 넣어 놓고 아이를 꺾어서 대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아이는 그 좋은 반찬을 보고 배불리 먹을 생각으로 발버둥치면서 죽통을 뚫고 들어가려 한다. 이럴 때에 날카로운 칼로 아이를 번개처럼 빨리 찢어 죽인다. 그래서 아이의 정혼(精魂)이 죽통 속에 뛰어들 후에는, 죽통 주둥이를 꼭 막아 들어간 정혼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다음, 그 죽통을 가지고 호부(豪富)한 집들을 찾아 다니면서, 좋은 음식으로 아이의 귀신을 유인하여 여러 사람에게 병이 생기도록 한다. 오직 이 아이의 귀신이 침범함에 따라 모두 머리도 앓고 배도 앓는다. 그 모든 병자들이 낮게 해달라

고 요구한 다음에는, 아이의 귀신을 유인하여 앓는 머리와 배를 낫도록 만들어 주는데, 그 대가로 받은 돈과 곡식은 드디어 자기의 이득으로 만든다.”

위의 내용이 전합니다. 드라마 <악귀>는 위의 기록을 각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이 논문에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8페이지 양화의 양상에서 고전문학에서는 개인에서 사회로 확장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현대 TV 드라마에서는 메시지는 있지만 뚜렷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고전문학에서는 보다 사회적 의미와 목적을 부각하는 반면, 현대는 그에 비해 흥미나 유희적 요소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4. 고전문학에서 원귀는 해원을 바라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해원이 이루어지면 원귀는 하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귀신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악귀>의 귀신은 그 함원의 서사로 비추어 볼 때, 원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원보다는 퇴치를 택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5.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 생각하고 계신 드라마 <악귀>가 원귀 서사의 현대적 변용으로서 가지는 의미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문 작성과 발표에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선생님의 글을 오독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문학 발표

사회자 : 김성연(세명대)

- 발표 : 이정현(한국외대) 133
 기지촌 여성과 혼종 가족 서사
 - 노라 옥자 켈리의 『여우소녀』와 하인즈 인수 핑클의
 『고스트 브라더』를 중심으로
- 토론 : 김예리(강원대)

- 발표 : 정진숙(강원대) 149
 오정희의 「파로호」에 나타난 이주와 귀환의 경계 넘기
- 토론 : 윤정엽(강릉원주대)

기지촌 여성과 혼종 가족 서사

- 노라 옥자 켈리의 『여우소녀』와 하인즈 인수 핑클의 『고스트 브라더』를 중심으로 -

이정현(한국외대)

목차

1. 서론 및 문제 제기
2. 기지촌의 변모와 죽음정치적 노동
3. 출구 없는 늪, 기지촌: 노라 옥자 켈리의 『여우 소녀』
4. 잔혹한 우연에 눈 뜨는 소년: 하인즈 인수 핑클의 『고스트 브라더』
5. 결론

1. 서론 및 문제 제기

한국전쟁 이후 경기도 북부를 중심으로 미군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지촌이 형성되었다. 기지촌 경제의 핵심은 성 노동이었다. 전쟁 직후부터 군사정권 시기에 기지촌의 여성들이 벌어들이는 달리는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었다. 기지촌 호황이 절정이던 1960년대에 기지촌의 유흥업소들은 전국을 다니며 여성들을 영입했다. 포주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운이 좋으면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갈 수 있다고 여성들을 유혹했다. 정부는 기지촌 여성들을 ‘애국자’로 추켜세우며 보건소에서 기지촌 여성들에게 콘돔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성병을 검진했다. 기지촌 여성들에게 미군 물자를 빼돌리게 하여 수익을 챙기는 사람도 늘어났다. 한국인들에게 동두천, 오산, 군산과 같은 도시의 이름은 매매춘, 미군의 폭력, 사회적 일탈, 부도덕과 동의어였다. 하지만 정부는 여성들을 ‘관리’하면서도 기지촌에서 벌어지는 술한 갈등과 범죄들을 ‘묵인’했다. 기지촌 여성에게는 ‘양공주’라는 낙인이 찍혔고, 그들은 노골적으로 차별받으며 미군의 폭력에 노출되었다.

강간당하고 구타당하고 살해당한 한국인의 신체는 ‘점령의 흔적’을 보여주는 상징적 기호로 작용했다. 점령의 흔적들 앞에서 한국인이 가장 먼저 마주했던 것은 후진국 콤플렉스였다.¹⁾ 미군이 저지른 각종 범죄로 인한 수치심과 모욕감은 기지촌 여성들을 향한 멸시로 전이되었다. 힘없는 여성들을 낙인찍는 행위는 체제의 모순을 은폐하기에 유용했다. 요컨대 기지촌 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철저히 ‘불온한 존재’²⁾로 취급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문학 텍스트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³⁾

1) 임유경, 『1960년대 ‘불온’의 문화 정치와 문학의 불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58쪽.
 2) “불온성의 감정은 기대한 행동이나 반응에서 벗어나는 이탈로 인해, 당연히 예상했던 궤적의 어떤 교란에서 발생한다. 우리의 사고나 행동을 규제하는 ‘정상적’ 분할의 선들을 횡단하며 밀고 들어오는 침범에서, 그 앞에서 느끼는 당혹에서 온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다. 다른 한편 불온성은 그렇게 밀고 들어온 것에 휘감겨 뜻밖의 곳, 알 수 없는 어딘가, 가고 싶지 않았던 어딘가로 말려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에서 온다.” 이진경, 『불온한 것들의 존재론』, 휴머니스트, 2011, 27쪽.
 3) 손윤권은 100여 편에 이르는 기지촌 소설들을 ‘한국전쟁 후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중반’,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2009년)’로 세 갈래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여성이 부대에 드나들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1980년대 후반부터 기지촌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소설과 증언록이 출간되었고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들이 재조명되었다. 윤정모의 『고삐』(풀빛, 1988), 안일순의 소설 『뺨벌』(공간미디어, 1995), 김연자 증언록 『아메리카타운 왕언니 죽기 오분전까지 악을 쓰다』(삼인, 2005), 임옥희의 연구서 『기지촌의 그늘을 넘어』(삼인, 2007), 문동환 목사의 활동기록 『두레방 여인들: 기지촌 여인들과 치유와 회복의 시간』(삼인, 2017) 등이 대표적인 텍스트들이다. 이 시기부터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두레방 활동이 전개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다. 사회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기지촌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텍스트가 늘어났으나 현재 노년에 이른 기지촌 여성들의 생애사는 아직도 여백으로 남아 있다. 미국인과 결혼해 미국으로 이주한 기지촌 여성들의 삶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는 기지촌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그들의 가족과 자녀는 돌보지 않았다. 애당초 그들은 정상 가족, 정상 국민의 범주에서 벗어난 존재로 치부되었다. 이를테면 이승만 정권 시기에 미군 혼혈아들을 국민으로 인정받지 않았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외 입양을 추진하여 그들을 사회에서 추방했다. 미국 정부는 1982년 ‘아메라시안(Amerasian)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950년부터 1982년까지 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 아시아 여성과 미국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들에게 미국으로 이주할 권리를 보장했다.⁴⁾ 그러나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은 계급, 성, 민족, 인종적 차별에 다시 노출되었으며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었다. 기지촌을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들은 미국에서 이혼 당하거나 극빈한 삶에 내몰렸고, 차별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었다.

이같은 문제의식 아래 이 글에서는 2000년대 이후 번역 출간된 노라 옥자 켈러(Nora Okja Keller)의 소설 『여우 소녀 *Fox Girl*』(솔 2008)와 하인즈 인수 핑클(Heinz Insu Fenkl)의 소설 『고스트 브라더 *Memories of My Ghost Brother*』(문학과의식, 2005)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두 작가는 미국으로 이주한 부모 아래 태어나 미국에서 성장한 이민 2세대 작가와는 달리 한국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에 미국으로 건너간 1.5세대 작가로 분류된다.⁵⁾ 두 작가의 아버지는 모두 독일계 미군이었다. 미군과 결혼한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두 작가는 미국 사회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성장했다. 하와이에서 성장한 노라 옥자 켈러는 2차 대전 중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수십 년 만에 침묵을 깨고 증언한 한국인 위안부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첫 장편소설 『종군위안부』(밀알, 1997)를 출간했다. 노라 옥자 켈러는 종군위안부를 보면서 미군과 결혼한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고, 기지촌 여성의 삶을 공부했다. 두

면서 미군과 연애와 동거를 하는 형태의 개별적 매춘을 주로 다루는 1기 기지촌 소설 작가들은 주로 남성이다. 그들의 작품은 양공주를 전통파괴자로 규정하고 비난한다. 1970년대에 발표된 기지촌 소설은 베트남 전쟁 말기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에 냉각된 한미 관계, 미군들의 성병 관리를 위해 실시한 기지촌 정화운동의 폐단, 미군 철수로 인한 기지촌 상권 붕괴, 미군에 살해된 기지촌 여성 문제, 혼혈아 문제 등 한결 복잡해진 기지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시기의 소설은 기지촌 여성의 내면심리를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등 1기의 소설이 보여준 피상적인 접근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박완서, 이순, 양순석, 강석경, 윤정모 등 여성 작가들이 기지촌여성 문제를 다룬 작품을 발표했다. 1990년대 이후 3기 소설은 군부독재의 종식과 문민정부 출범, 페미니즘의 대두라는 시대적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 기지촌여성의 입장을 남성 주체의 시선이 아닌 여성 하위계층의 시선에서 파악한 여성 작가들의 소설이 발표되었다. 2000년대에는 혼혈인에 대한 인종차별문제, 기지촌여성의 아메리칸 드림과 혼혈아의 입양으로 생긴 디아스포라 문제 등을 다룬 소설이 번역되었다. (손윤권, 『기지촌 소설의 탈식민성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9~44쪽 참고)

4) 정인섭,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258쪽.

5) 김종희 편,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 국학자료원, 2003, 17쪽.

번째 장편소설 『여우 소녀』가 그 결실이었다. 하인즈 인수 핑클의 경우 12살까지 부평 인근의 기지촌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주했기에 한국에서의 삶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고스트 브라더』는 한국에서 지낸 자신의 유년기를 다룬 자전적인 소설이다. 두 작가의 국적은 미국이지만, 그들의 디아스포라 경험은 소수자로서의 자신을 끊임없이 자각시켰다. 그것은 그들의 어머니가 겪은 비극의 흔적이자 한국전쟁과 냉전의 후유증이었다.

먼저 2장에서는 국가 정책에 따른 한국 기지촌의 변모양상과 기지촌에서 벌어졌던 성노동의 죽음정치적 특성을 논할 것이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 노라 옥자 켈러와 하인즈 인수 핑클의 소설을 분석하면서 기지촌의 삶이 어떤 식으로 혼혈 2세대들에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동안 두 작가의 소설들은 작가들의 국적 탓에 주로 영문학의 범주에서 연구되었으나 그들의 삶과 텍스트는 한국전쟁과 냉전, 기지촌의 성노동, 목인과 방관을 거듭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의 텍스트 역시 한국 문학의 범주에서도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혼혈 작가들의 텍스트를 응시하는 작업은 불온한 존재로 치부되었던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 차별의 악순환을 끊는데 작은 보탬이 될 것이다.

2. 기지촌의 변모와 죽음정치적 노동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기지촌 여성들을 관리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도 기지촌을 방관했다. 이 시기 성 노동자들은 주로 프리랜서로 일했다. 송병수의 소설 「쇼리킴」(1957)에는 기지촌 성노동자로 일하는 ‘달링 누나’가 등장한다. 그녀는 고아소년 쇼리와 함께 전쟁 시기 중공군이 구축한 참호에 거주하면서 미군들에게 몸을 판다. 쇼리는 헌병의 감시를 피해 누나와 미군을 연결해준다. 이범선의 「오발탄」(1959)에도 주인공 철호의 여동생이 흑독한 가난에 직면하자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에 나서는 장면이 나온다. 이렇게 초기 기지촌에는 조직된 힘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졌다.

1960년대 초반 교통부는 “휴가 기간을 즐기는 유엔군 병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대규모 관광 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⁶⁾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기지촌 관리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 휴가를 가는 미군 사병들을 국내에 불들어 외화를 획득하고자 했다. 그 결과 기지촌은 1960년대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미군 기지가 위치한 농촌 지역은 빠르게 상업지구로 바뀌었다. 미군 병사만을 상대하는 기지촌 클럽들은 「관광진흥법」 아래 ‘특수 관광시설 업체’로 등록되었고 면세 주류를 공급받았다. 1968년 등록된 여성들 53.3%에 달하는 여성들이 미군기지가 집중된 경기도 기지촌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동두천 지역에 약 7000명, 서울에 2231명, 부산에 2182명, 경상북도 지역에 1113명이 성노동자로 종사했다.⁷⁾

그러나 1969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베트남 전쟁의 전황 악화로 미국은 대아시아 정책을 다시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1969년, 닉슨 대통령은 팜에서 아시아에 주둔한 미군을 축소하고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이 맡도록 하겠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다. 그 결과

6) 「관광시설 확충」, 『동아일보』, 1960년 2월 3일.

7) 문승숙, 「욕망을 규제하고, 제국을 경영하기」, 문승숙·마리아 혼 엮음, 『오버테어』, 이현숙 옮김, 그린비, 2017, 113~120쪽 참고.

1971년 미국은 1955년부터 한국에 주둔했던 두 개의 보병사단 중 제7사단과 세 개의 공군 중대를 철수시켰다. 한국인들은 1968년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때 미국이 소극적인 대응을 기억하고 불안에 떨었다. 당시 베트남 전황은 구정공세로 악화되고 있었다. 아시아에서 두 개의 전선을 형성하기가 부담스러웠던 미국은 북한과의 충돌을 기피했다. 안보 공백을 우려한 박정희 정부는 미군들이 한반도에서 감축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기지촌의 성병관리와 주한 미군의 편익 증대를 골자로 협상에 나섰다.

때마침 1971년 7월 9일, '안정리 사건'이 발생했다. 신문기사와 미8군 중대 사건 보고서, 그리고 공식적인 한·미 조사에 따르면 50명의 흑인 군인이 5개 지역 기지촌 클럽에 동시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 폭력은 흑인을 차별한 한국인 클럽들을 겨냥한 의도적인 행위였다. 1천 명이 넘는 한국인들도 낯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그들에 맞섰다. 흑인과 한국인 사이에 싸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170명의 미 군경과 80명의 한국 경찰이 최루 가스나 공포탄으로 폭력을 진압했다. 기지 사령관 맥휘터(John C. McWhorter) 대령은 7월 10일 새벽 1시경 마을 내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한국 정부와 주한 미군 지도부는 기지촌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안정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기지촌 정책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다.⁸⁾

1971년 9월 SOFA 한미합동위원회는 기지 내 한국인과 미군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에 해결 조치를 권고할 책임을 부여했다.⁹⁾ 위원회는 기지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좁은 도로를 확장하고 가로등 수를 늘리고 미군이 자주 가는 업소들을 큰길가로 옮겼다. 그리고 위생설비와 위생상태를 개선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주한 미군의 불만은 미군 부대의 성병률을 낮추고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 엄격한 성병 검사를 강화하도록 주한미군과 한국이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자극제가 되었다. 성병은 1970년대 전반에 위원회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미국측이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여성들의 '정화'와 미군의 성병 전염을 줄이기 위한 '기지촌 정화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기지촌 정화운동으로 인종차별과 인종 폭력이 줄어들고 기지촌 내 위생 상태가 개선되었다. 이러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지촌 개선의 사회적 비용으로서 당국의 통제와 시민 생활의 군사화가 심해졌다. 경찰 직원, 검문소, 차량, 불시 점검의 수가 대부분의 기지촌에서 늘어났다. 기지촌 정화 운동은 결국 기지촌 여성들의 공간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¹⁰⁾ 일상화된 성병 검진으로 기지촌 여성들은 수시로 업주나 미군에게 검진 카드를 제시해야 했다.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지 않다가 업주나 미군들에게 적발될 경우 즉결처분이나 수용소 수감에 처해졌다. 일부 미군은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성들을 신고하기도 했다. 기지촌 여성 김연자는 자서전에서 "병이 있다고 곧바로 동두천과 의정부 사이 주내라는 산 속 마을에 있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진술했다.¹¹⁾ '몽키 하우스'¹²⁾라는 명칭이 붙은 진료소는 마치 교도소와 비슷했다. 그곳에서 벌어진 참상은

8) 캐서린 H.S 문, 『동맹 속의 섹스』, 이정주 옮김, 삼인, 2002, 119쪽.

9) 「한미군민관계위원회 발족, 기지촌 불상사 해결」, 『동아일보』, 1971년 9월 8일.

10) 캐서린 H.S 문, 같은 책, 122~131쪽 참고.

11) 김연자, 『아메리카타운 왕언니, 죽기 오분 전까지 악을 쓰다』, 삼인, 2005, 106쪽.

12) "국가는 이곳을 성병관리소라고 불렀지만, 미군들은 '몽키하우스'라고 불렀다. 강제로 끌려오는 성매매 여성들이 마치 동물원 우리 안에 갇힌 원숭이 같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었다. 몽키하우스는 성병진료소였지만, 실상은 기지촌 여성들을 감금하고 학대했던 장소로 이용됐다. 당시 정부는 기지촌 여성들을 '위안부'로 표현하며 성매매를 장려했다. 이들이 미군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달러가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때문에 성병 예방에도 열을 올렸다. 공무원들은 주 1~2회 기지촌을 돌며 여성들의 성병 검진을 실시했다. 성병에 걸렸거나 검진 기록이 누락되면 곧바로 몽키하우스로 끌려갔다. 성병에 걸린 미군들이 직접 찾아와 상대 여성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목된 여성은 변명할 틈도 없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상세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페니실린 과다 주입으로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고, 건강을 잃고 생계를 잃는 경우도 있었다. 정확운동의 시작은 기지촌 내 인종 문제에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지촌 여성에 대한 성병관리가 중심으로 변했다. 노라 옥자 켈러의 소설 『여우소녀』는 이 시기 성병 검진 강요와 검진을 빌미로 벌어진 미군의 폭력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결국 기지촌 정확운동은 “동아시아 반공블록 유지의 첨병인 주한미군의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성병관리-수용제도’를 형성 강화시킨 것”에 불과했으며 “기지촌 계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한 변곡점”¹³⁾이 되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지촌의 환경은 급변했다. 경제 성장으로 한국의 물가가 오르자 미군 사병들의 실질급여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기지촌의 경제는 급속하게 얼어붙었다. 성 노동 종사자들은 동남아시아 여성들과 러시아 여성으로 빠르게 대체되었고, 기지촌은 점차 활력을 잃었다. 그러던 중 1992년 동두천 기지촌에서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에게 26세 여성 ‘윤금이’씨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윤금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미운동이 전개되었고 연일 주한미군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기지촌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가 가장 폭력적인 형태로 물질화된 민족적 수치의 공간이자 제국의 초국적 공간”¹⁴⁾으로 떠올랐다. 진보 세력은 기지촌 여성 윤금을 미국에 짓밟힌 한국 여성의 표상으로 끌어올려 반미운동의 동력으로 삼았다. 반면 보수 세력은 기지촌의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다. 그들은 기지촌 여성의 고통을 베트남 전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수의 희생으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산업화 과정의 부수적인 피해로 여겼다. 윤금이 사건으로 진보세력과 산업화 세력 사이에 갈등은 깊어졌고, 기지촌 여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못했다.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핵심이 기지촌 여성의 육체, 특히 성병이라는 생명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었다는 점에서 ‘생명정치’로 명명할 수 있다.¹⁵⁾ 미셸 푸코는 ‘생명관리권력’을 논하면서 “육체와 인구의 연결 지점에서 성은 죽음의 위험보다는 오히려 생명의 관리를 중심으로 조직되는 권력의 중심적 표적”¹⁶⁾이 된다고 지적했다. 후발 근대화 국가로서 압축적인 근대화를 진행하면서 한국 사회는 아감벤의 표현처럼 상시적인 ‘예외상태’¹⁷⁾가 지속되었다. 특히 박정희 정권 기간에 두 차례의 ‘위수령’과 네 차례의 ‘긴급조치’, 아홉 차례에 걸친 ‘긴급조치’가 내려졌다. 이런 비상상태를 선포하면서 정부는 안보위협과 조국 근대화를 명분으로 삼았다. 기지촌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려고 주둔하는 미군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예외 상태의 중첩을 피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미군은 기지촌 여성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고, 기지촌은 여성들은 피해를 입어도 희생제의를 할 수 없는 ‘벌거벗은 생명’(호모 사케르)에 불과했다. 기지촌은 ‘현존하는 수용소’와 흡사한 공간이었다.

잡혀갔다. 성병관리소에서는 항생제 주사를 맞았다. 주로 매독 치료에 사용되는 ‘페니실린’이었다. 당시 기지촌에는 주사를 맞고 부작용으로 숨진 여성이 많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기지촌 여성들 ‘몽키 하우스’에 갇히다』, 『중부일보』, 2021년 3월 10일.

- 13) 김원, 「60~70년대 기지촌 계도화의 변곡점-특정지역, 한미친선협의회, 그리고 기지촌 정확운동」, 『역사비평』 통권 112호, 역사비평사, 2015, 176쪽.
- 14) 엘리자베스 쇼버, 『동맹의 풍경』, 강경아 옮김 나무연필, 2023, 138쪽.
- 15) 박정미, 「한국 기지촌 성매매 정책의 역사사회학 1953~1995년: 냉전기 생명정치, 예외상태, 그리고 주권의 역설」, 『한국사회학』 제49집, 제2호, 2015, 27쪽.
- 16)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 이규현 옮김, 나남, 2004, 164쪽.
- 17) “예외상태는 궁극적으로 규범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규범을 그것의 적용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 예외 상태는 어디까지나 현실에 대한 효과적인 규범화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아노미의 지대를 법 속에 도입하는 셈이다.” 조르조 아감벤, 『예외상태』, 김향 옮김, 새물결, 2009, 75쪽.

만약 수용소의 본질이 예외 상태의 물질화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로서 벌거벗은 생명과 규범이 하나의 식별 불가능한 경계 속으로 진입하는 공간의 창출에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질 때마다 그곳에서 자행되는 범죄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또 그곳의 이름이나 특수한 위치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잠재적으로 수용소의 현존과 마주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¹⁸⁾

비교문학자 이진경은 푸코의 ‘생명관리권력’과 노동의 개념을 죽음이나 죽음의 가능성에 연결된 것으로 재개념화하여 군사화된 사회의 기지촌에서 벌어지는 매춘을 ‘죽음정치적 노동’이라고 명명했다. 이 개념은 생명권력이 죽음을 조절하고 관리하며, 그와 동시에 노동을 착취하고 죽음을 연기함을 의미한다. 군사 노동자와 성 노동자의 서비스 노동은 필연적으로 감정적인 차원을 반드시 포함하게 된다. 그럼에도 서비스 노동자들은 감정적 연루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될 것을 강요받는다. 이 과정에서 기지촌 여성들은 체제의 모순을 가리는 대체물이 되었고, 동시에 미군과 한국의 관계를 매개하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까지 은근히 강요받았다. 주목받지 못한 은밀한 영역에 놓인 성노동자들은의 노동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신체와 정신을 소모하며 진행되었다. 군사 노동과 성 노동의 공통점은 자신의 신체를 소모품처럼 위험한 공간에 던져 놓음으로써, 누군가의 행위력을 대신 수행하며 스스로를 소비되게 만드는 기제를 지닌 점이다. 이처럼 신체와 생명을 상품화하는 대리 노동은 필연적으로 죽음정치적 노동이 되며, 반대로 죽음정치적 위험을 지닌 노동(인종, 젠더, 계급에서)은 낮은 층위의 존재가 그것을 대신하는 대리 노동이 된다. 푸코의 생명권력은 규율에 예측하는 대가로 권력이 삶을 부양해 줌을 의미하지만, 죽음정치적 노동에서 생명권력에 의한 삶의 부양은 국가나 제국의 노동 요구에 응하도록 동원하는 선에서 제한된다.¹⁹⁾

베트남전에 동원된 한국 남성들, 미군의 성욕 해소를 담당한 기지촌 여성들, 그리고 지금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동남아시아 여성들과 러시아 여성들은 죽음정치적 노동의 표본이다. 그들의 노동은 예외상태인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노동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방치되었다. 다음 장에서 독해할 노라 옥자 켈러와 하인즈 인수 펑클의 텍스트에 등장하는 기지촌 노동은 ‘죽음정치적 노동’의 적실한 예시로 읽힌다.

3. 출구 없는 늪, 기지촌: 노라 옥자 켈러의 『여우 소녀』

기지촌 여성과 2세의 문제를 다룬 노라 옥자 켈러의 소설 『여우 소녀』는 전세계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영국의 문학상인 ‘오렌지상’ 최종 후보에 오를 정도로 해외에서 주목을 받은 텍스트다. 3살 때 미국으로 건너간 켈러는 영어를 배우면서 미국인으로 성장했다. 켈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린 첫 소설 『중군위안부』를 출간한 후 미군기지 주변의 기지촌에서 벌어진 일들을 공부하여 두 번째 소설 『여우 소녀』를 발표했다. 이 소설은 기지촌 여성의 생애사 전체를 처음으로 다룬 논픽션 『전쟁 같은 맛』(글항아리, 2023)을 쓴 그레이스 M. 조의 연구²⁰⁾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18)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박진우 옮김, 새물결, 2008, 328쪽.

19) 나병철, 「역자 서문」, 이진경, 『서비스 이코노미』, 나병철 옮김, 소명출판, 2015, 9~11쪽, 92~93쪽 참고.

20) 그레이스 M. 조(Grace M. Cho)는 상선 선원이던 백인 미국인 부친과 기지촌에서 일하던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인 2세대. 그녀는 냉전 시기 외국인 혐오가 극심했던 워싱턴주의 작은 마을

‘덕희’는 태평양전쟁 중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한국전쟁 이후 기지촌에서 다시 미군에게 몸을 파는 기구한 삶을 산다. 덕희는 기지촌에서 흑인 혼혈아 ‘숙이’를 낳는다. 한편 덕희와 함께 월남한 현진의 아버지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덕희에게 씨받이의 대가로 돈을 주고 현진을 낳는다. 일본군과 미군에게 몸을 팔다가 씨받이로 이용되는 덕희의 신체는 한국 현대사에서 여성이 감당해야만 했던 고통을 대변한다. 딸 숙이 역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성매매로 내몰린다. 숙이는 엄마 덕희가 미군과 자는 장면을 일상적으로 목격한다. 숙이는 이미 초등학교 때 엄마의 애인인 미군 병사의 강요로 엄마와 함께 미군과 동침한 적도 있다.

덕희가 성병에 걸린 기지촌 여성들을 수용하는 ‘몽키 하우스’에 갇히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숙이는 덕희를 찾아온 흑인 미군과 동거한다. 반면 숙이의 친구이자 화자인 ‘현진’은 기지촌 상점의 유복한 무남독녀로 풍족하게 살아간다. 사라진 덕희를 찾기 위해 두 사람은 동갑내기 혼혈아 로베토의 도움을 받아 몽키하우스를 찾아 나선다. 로베토는 몽키하우스를 찾아가는 길에 아시아 여성을 비하하는 은어로 가득한 미군의 군가를 부른다.

“이것은 내 무기, 이것은 내 총,
 하나는 싸우려는 것, 하나는 재미 보려는 것!”

그러고는

“나는 길가에서 한 창녀를 보았지.
 여자가 두꺼비처럼 죽어 있는 걸 단박에 알았지.
 배에서 머리까지 화색이 없었지.
 그렇지만 나는 사정을 했어.
 그 여자가 죽었는데도 나는 사정했어!
 난 알아. 그게 죄라는 걸
 그렇지만 나는 다시 사정할 거야!”

“야 로베토, 너 지금 부른 노래가 무슨 뜻인지나 아니?” 우리는 농담으로 물었다.
 “물론이지, 나는 반은 미국인이야.”
 “그럼 ‘토드toad’는 무슨 뜻이야?” 숙이가 시험해보았다.
 “두꺼비.”
 “그럼 ‘퍽fuck’은 뭐니?” 내가 물었다. 로베토가 우리에게 욕할 때 그 단어를 자주 썼기 때문에 나쁜 의미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말로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랐다.
 “몰라?” 로베토가 놀려댔다. “너 정말 몰라? 숙이야, 네가 말해줘.”²¹⁾

업소의 포주와 진료소의 간호사들은 두 사람이 미성년자였음에도 그들이 검진 기록인 ‘ID카드’를 갖고 있는가를 캐묻는다. 기지촌에서는 자연스럽게 미성년자들도 잠재적인 성매매 여성

에서 자랐다. 열다섯 살 때, 모친의 조현병 발병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머니의 존재와 생애가 개인적·학문적 인생의 중대 지표가 되었다. 브라운대학 졸업 후 하버드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뉴욕시립대학에서 사회학·여성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21년 어머니의 생애를 다룬 논픽션 『전쟁 같은 맛 *Tastes Like War: A Memoir*』를 출간했다. 이 책은 전미도서상 후보에 올랐고, 2023년 국내에 번역 출간되었다. 노라 옥자 켈러의 소설 『여우 소녀』에서 묘사된 기지촌 묘사는 어머니가 살았던 기지촌의 삶을 탐구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21) 노라 옥자 켈러, 『여우 소녀』, 이선주 옮김, 솔, 2008, 118~119쪽. 이하 쪽수만 표시

으로 취급되었다. 숙이의 이웃에 살던 여성이 미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지만, 기지촌에서 잡음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헌병대는 자살로 결론을 내린다. “여성의 음부에 우산대가 꽂혀 있었는데도 군 헌병대는 여자의 죽음을 자살로 처리”(195쪽)한다.

“조호숙.” 남자는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발음했다. “당신 등록증 어디 있소?”

“저 애는 등록증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 여자는 힐책했다. 그녀는 숙이의 어깨를 무릎으로 내리 눌렀다. “사기꾼 같으니!”

입속의 혀가 굳어, 숙이는 힘들게 대답했다. “아니요, 아니요, 나는 아…….” 그녀의 목이 잠겼다.

“김 여사, 가만 있어요. 이것은 공적인 업무입니다. 조호숙 당신은 등록증도 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고 내가 경고했지요. 우리는 조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100~101쪽)

현진은 미군 ‘짜주’와 동거하면서 학교에 나오지 않는 숙이를 찾아간다. 그곳에서 현진은 숙이의 엄마 덕희가 자신의 친엄마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접하게 된다. 숙이와 현진은 어머니가 같은 자매였던 것이다. 그 말을 들은 현진은 자신과 함께 사는 어머니가 왜 그토록 자신을 미워했는지 깨달는다. 친어머니라고 여겼던 어머니가 계모라는 사실은 현진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현진은 엄마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해 왔지만 그때마다 “피는 못 속인다”는 저주를 들어야 했다. 현진은 자기 얼굴에 있는 큰 반점이 신생아일 때 자신의 얼굴을 숙이가 손으로 만졌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줄곧 계모에게 ‘양공주의 딸’이라는 멸시를 받았음을 알게 된 현진은 집을 나와 숙이처럼 성매매의 길에 접어든다.

로베토는 클럽을 홍보하면서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면서 살아간다. 로베토에게 여성의 신체는 돈과 교환되는 물질에 불과하다. 그의 유일한 꿈은 자신과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를 찾아 미국에 가는 것이다. 미군에게 버림받은 기지촌 여성과 아이는 ‘더러운 핏줄’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로베토는 더욱 미국 이주를 꿈꾼다. 그는 늘 아버지에게 온 편지를 지갑 깊숙이 넣고 다닌다. 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그리워하는 로베토에게 미국은 ‘풍요로운 선진국’이자 ‘낙원’의 표상이다. 로베토는 미국 이주를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은다. 변태적인 성행위를 갈망하는 미군들에게 현진을 처음 소개한 것도 로베토였다.

로베토는 조심해서 편지를 다시 접었다. 그 편지는 이미 양파껍질처럼 얇게 닳아 있었고 몇 년 전에 이미 찢어져 해진 부분들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나는 이제 영어를 더 많이 알아. 클럽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동안 미군들에게 배웠거든.” 그렇게 말하면서 뱀장어가죽 지갑 속으로 편지를 다시 끼워 넣었다. “미국에 가면 나는 굉장한 사람이 될 거야.” (141쪽)

로베토의 소개로 현진은 미군 세 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다. 로베토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미군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지 못한 것을 더 아쉬워한다. 몇 달 후 임신한 현진은 로베토가 건넨 약을 먹고 아이를 유산한다. 현진은 자신의 얼굴에 있는 커다란 반점 탓에 미군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질게 확장하고 미군의 변태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은다.

그때부터 나는 ‘후니걸’이 되었다. 다른 여자들이 스테이지 위에서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어떤 요청이든 응하는 바의 여자를 그렇게 불렀다. 나는 사람 크기만 한 미군들의 인형으로 언제

든지 미소 짓고 언제든지 무릎을 굽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여자가 되었다. 나는 누구하고든 미군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나오든 상관없이 무대에서 섹스에 응했다. 나는 내 보지에서 남자의 입으로 맥주를 부어주고 체리를 쏘아주었다. 나는 오줌도 받았고 똥도 받았다. 나는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끌고 온 개와도 오럴 섹스를 했다.(270쪽)

미군과 결혼해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던 숙이는 로베토의 아이를 임신한다. 숙이는 딸 ‘뮤뮤’를 순산하지만, 아이를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여긴다. 현진은 조카 뮤뮤를 자기 아이처럼 아껴졌지만 숙이는 뮤뮤를 익사시켜 죽이려고 시도한다. 현진은 클럽에서 번 돈을 모두 숙이에게 주고, 아이를 구한다.

세 달이 지닌 어느 오후 숙이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기에게 젖을 먹이며 빨리지 않는 한쪽 가슴은 주전자에 대고 있었다. 아기가 먹는 동안 그녀의 남은 젖이 주전자 안으로 죽죽 뿌려졌다. 아기와 배와 주전자가 모두 가득 찼을 때 그녀는 클럽에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따분해.” 그러는 말했다. “나는 나가서 일할 준비가 됐어.”

“왜 그래, 숙이야?” 나는 너무 피곤했다. 내가 아기를 돌볼 수 있다면 나는 집에 머무르는 걸 감지덕지하며 무대와 칸막이 방과 뒷골목에서 허니문으로 일하는 것을 그만둘 것이다. “아기는 내가 필요해.”

“그래, 나는 여기를 빠져나가는 게 필요해.” 숙이는 아기를 내 쪽으로 들이밀며 말했다. (278쪽)

뮤뮤를 돌보며 일하던 현진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 미국 하와이에서 한국 기지촌 클럽과 똑같은 가게를 운영하는 ‘윤 마담’은 ‘후니걸’로 유명한 현진에게 스카웃 제의를 한다. 현진은 로베토의 돈을 훔쳐 비자를 받는데 성공한다.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 현진을 붙잡은 로베토는 그녀를 가혹하게 폭행하다가 자신의 딸 뮤뮤를 위해 마음을 돌린다. 마침내 현진과 숙이는 모든 기지촌 여성들이 꿈꾸던 미국 땅을 밟는다. ‘폭사(Foxa) 클럽 하와이’는 국가만 다를 뿐 운영 방식은 한국 기지촌과 같았다.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윤 마담에게 빚진 비자 발급 비용, 숙식비, 의상비를 청산하려고 필사적으로 일한다. 여성들의 꿈은 윤 마담에게 진 빚을 갚고 독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빚으로 여성들을 옴아매는 클럽의 구조는 한국의 기지촌과 다를 바 없었다. 현진과 숙이는 미국에서도 신체와 정신을 소모하는 성노동에 내몰린다. 뮤뮤를 죽여서라도 한국을 벗어나려 했던 숙이는 또 다른 ‘기지촌’에 갇히고 만다. 현진이 뮤뮤와 함께 클럽을 탈출하자 숙이는 클럽에 남아 현진의 빚까지 갚는 길을 선택한다. 현진은 하와이로 이주한 계모의 오빠를 찾아갔지만 그 주소에는 미국인 ‘제리’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제리는 낯선 땅에서 온 현진과 뮤뮤를 기꺼이 환대한다.

나의 벗겨진 손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더니, 거친 부분을 쓰다듬고는 반투명의 벗겨진 피부껍질의 얇은 리본 같은 것을 떼어냈다. “휴우.” 그녀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녀는 내 손가락을 들어서 자기 입술에 댔다. “아파?” 그녀는 묻고는 손가락마다 키스했다. 나는 그것의 아픔에, 그리고 그것의 기쁨에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숨을 들이쉬면서 그녀를 숨결 속에 빨아들이며 나는 숙이의, 덕희의, 로베토의 그리고 나의 최상의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했다. 우리가 되고자 희망하고 바랐던 모든 것이 세상을 자신의 손안에 잡고서 들여다보며 자신의 것으로 사랑하는 이 보석 같은 소녀 안에, 그 소녀의 피부 속과 뼈와 피 안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있음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402쪽)

현진은 제리의 집에서 일하면서 뮤뮤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현진을 살린 것은 뮤뮤를 향

한 모성이었다. 뭉뚱의 재롱을 보며 현진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낀다. 다소 비약적인 결말이지만, 이것은 작가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결말이기도 하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디아스포라. 기지촌에서 발버둥치는 현진과 속이는 부모 세대의 고통을 대변하는 전사(前史)이며 뭉뚱은 작가가 상상한 어린 자신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4. 잔혹한 우연에 눈 뜨는 소년: 하인즈 인수 핑클의 『고스트 브라더』

기지촌 여성인 어머니와 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하인즈 인수 핑클은 경기도 부평의 기지촌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하인즈 인수 핑클의 아버지는 체코에서 태어났다. 1938년 자신의 고향인 슈테덴란트(Sudetenland)가 독일에 합병되자 그곳에 살던 다른 독일인들과 함께 독일 뮌헨으로 이주했다. 그는 체코에서는 독일인으로, 새로 정착한 독일에서는 체코에서 온 이주인 취급을 받았다. 젊은 시절 그는 나치 청소년 조직 히틀러 청년단(Hitler Youth)의 일원이었고, 미국으로 이민한 후에 군대에 지원해 한국에서 근무하던 중 베트남 전쟁에 두 번 참전했다. 한국에서 복무를 마친 후에는 미국과 독일의 여러 군부대를 돌아다니며 근무했다. 그는 제대 후 베트남전쟁 때 뿌려진 고엽제 후유증으로 암에 걸려 사망했다. 핑클의 아버지는 주류에 속하지 않는 백인으로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이주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어머니는 양공주로서 사회로부터 배척받은 주변인의 삶을 살았다.²²⁾ 끊임없이 전쟁과 이주를 경험한 부모의 삶은 핑클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과 미국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고스트 브라더』의 주인공 ‘나(인수)’는 바로 작가 자신의 페르소나다.

『고스트 브라더』의 원제는 ‘Memories of My Ghost Brother(내 유령 형의 기억)’다. 제목에 등장하듯이 소설 곳곳에는 ‘유령(Ghost)’이 언급된다. 주인공 인수의 가족은 경기도 부평의 기지촌에 있는 “한국사람 수만 명을 재미삼아 고문해 죽인 일본군 대령의 집²³⁾에서 살아간다. 이 집에는 집주인 황씨 아저씨, 인수와 부모님, 이모와 형부(이모부), 외사촌 용수와 혜순이, 시골에서 올라온 간난이 누나, 나가사키에 징용 갔다가 돌아온 부부가 함께 산다. 어린 인수는 가끔 일본군 대령의 유령을 본다. 그 유령은 늘 쓸쓸한 표정을 하고 있다. 이 공간은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 기지촌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었음을 암시한다.²⁴⁾

“바람소리와 들이치는 빗소리를 통해서 6·25때 죽은 피난민의 원성이 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가끔 내가 정원석을 쳐다볼 때는 나무 밑에 서서 슬프고 쓸쓸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일본군 대령 혼령도 보였다.” (15쪽)

인수는 기지촌 여성인 어머니와 백인 미군 상사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지만 자신의 혈통과 피부색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미군들은 맛있는 사탕과 초콜릿을 나누어 주는 재미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골에서 올라와 결혼할 미군을 만나려고 클럽에서 일했던 간난

22) 서승희, 『하인즈 인수 핑클의 ‘내 유령형의 기억’에 나타난 샴니즘적 소통의 시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2~4쪽 참고.

23) 하인즈 인수 핑클, 『고스트 브라더』, 문상화 옮김, 문학과이식, 2005, 13쪽. 이하 쪽수만 표시.

24) 『여우소녀』의 ‘덕희’의 삶이 지닌 의미와 비슷하다. 일본군 대령이 살았던 집에서 인수가 보는 유령들은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냉전을 지탱하는 예외적 장소인 기지촌의 희생자들이다. 그리고 인수의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고엽제 후유증을 앓는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은 모두 냉전 시기에 벌어진 ‘대리전’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 누나가 죽으면서 인수의 인식은 바뀌게 된다. 임신한 간난이 누나는 미군에게 버림받는다. 누나는 먹을 것을 잔뜩 가져와서 인수와 외사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날 밤 마당의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한다. 인수는 잠결에 간난이 누나가 나무에서 흔들리는 것을 얼핏 봤지만 꿈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후로 인수는 간난이 누나의 유령도 보게 된다.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기 때문에 꿈쩍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눈 감는 것조차 무서워서 엄마가 돌아놓거나, 나무가 움직이거나, 바람이 소리를 내기를 바랐다. 아주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엄마를 부르려는 순간 달이 나왔다. 달빛이 젖은 창을 지나 방안을 비추었을 때 하얀 옷을 입고 밤나무 가지 아래서 손을 흔들고 있는 간난이 누나가 보였다. 나는 미소를 짓고는 두려움 없이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다. (38쪽)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아버지는 인수를 용산의 미국인 학교에 보낸다. 아버지는 ‘야만적인 이교도’가 되지 않으려면 미국인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인 학교에서는 영어만 쓸 수 있었다. 이름을 묻는 선생님에게 ‘인수’라고 답하자 선생님은 ‘하인즈’라는 이름을 쓰라고 강조한다.

“이름이 뭐니?”

“인수요.”

“그게 미국 이름이니?”

“아니요.”

“여기서는 미국 이름을 쓸 거야. 한국말 하면 안 돼, 알았어? 미국 이름 말해 봐.”

선생님은 나를 교실 가운데 있는 책상으로 데리고 갔다.

나는 주위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선생님의 신발만 바라보고 있었다. 간난이 누나가 NCO 클럽에서 노랑머리 군인 자식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도, 틀림없이 지금 나와 똑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이름이 뭐지, 꼬마 신사? 대답해 봐.”

“하인즈.” (123~124쪽)

한국말을 쓰다가 선생님에게 입술이 터지고, 점심식사는 스파게티에 우유를 먹어야 하는 학교 생활에 인수는 진저리를 친다. 무엇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것은 미국 아이들의 따돌림이었다. 일요일 성당 주일학교에서는 반대로 순혈 한국 아이들에게 ‘잡종’, ‘튀기’라고 놀림을 받는다. 인수는 유일하게 ‘제임스’라는 아이와 친해진다. 같이 미국인 학교에 가자는 인수의 말에 제임스는 어렵다고 답한다. 제임스는 흑인 혼혈아였고, 백인 혼혈아인 인수보다 더 심한 차별을 받았다. 제임스의 아버지는 베트남에서 전사했고, 제임스의 어머니는 새롭게 결혼할 미군을 찾고 있다. 몇 년 후 제임스는 하수구에 빠져 죽는다. 이모부는 흑인 혼혈아가 딸린 여자를 좋아할 미군은 없으므로 제임스의 어머니가 아들이 하수구에 빠진 것을 방관했을 거라고 말한다.

“생각해 봐. 내가 똑같보라고 쳐 봐. 근데 임신해서 미군을 하나 잡았는데 월남 가서 죽어버렸단 말야. 위대한 미제국에서 연금은 나오지만 껌등이 애 하나를 먹여 살려야 하는 데는 돈이 부족하단 말야. 그래서 다른 미군 놔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계급이 더 높은 백인 말야. 누가 껌등이 애를 가진 갈보년하고 결혼하려고 하겠어.”

내가 녹지 않은 채로 찾잔 바닥에 가라앉은 설탕을 바라보려고 점점 고개를 숙였다. 한참 있다 형부

가 말했다.

“아마 그년이 검은색을 문질러 지우려고 애 얼굴을 오랫동안 세숫대야에다 처박아두었는지도 모르지.”

고개를 들어 형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피곤한데다 창피했다. 더구나 형부가 ‘똥갈보’, ‘깜둥이 미군’, ‘튀기들’ 그리고 ‘모른 척하는 망할 한국년들’을 얘기하는 것을 듣자니, 약간 처참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묵묵히 앉아 있었다. (286쪽)

기지촌에는 견고한 차별의 층위가 있다. 백인과 흑인, 미국인과 한국인, 클럽 포주와 여자들, 미군과 결혼에 성공한 여자와 그렇지 못한 여자……. 일본군 대령, 간난이 누나, 제임스의 유령을 보면서 인수는 기지촌에서 죽은 사람들을 떠올린다. 구두담이는 기차에 깔려 죽었고, 심부름꾼 아이는 버스 사이에 끼어 죽었다. 한 술집 여자는 굳지 않은 아스팔트에 하이힐이 박혀 트럭에 치여 죽었다. 한 여자아이는 콘돔을 빨다가 목에 걸려 죽었다. 간난이 누나의 미군 애인은 지폐 몇 장만 던지고 돌아섰다. 기지촌에서 죽음은 너무 흔했다. 그들은 모두 ‘유령’이 되어 인수에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세상은 거짓말처럼 조용했다. 인수는 이 잔혹한 세계에 조금씩 눈을 뜬다.

아폴로 클럽을 지나갈 때마다 불안해서 처음에는 두려움, 슬픔, 내 기억과 거기 있을지도 모르는 귀신, 그리고 아폴로 클럽에 대한 내 슬픔 같은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아폴로 클럽과 슬픔에 대한 두려움은 죽은 사람의 혼령에 대한 느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기 아래는 쓸쓸해. 나랑 같이 내려갈래?”

모든 사람들이 빨리 잊으려고 애썼다. 물에 빠져 죽은 여자와 아기 유령, 영원히 가버린 내 친구의 유령. 가끔 꿈속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곤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쓸쓸한 표정이다. (251쪽)

아버지도 아시아인들을 멸시했다. 그는 베트남에서 돌아왔으나 전황이 불리해지자 죽은 동료들의 복수를 위해 다시 파병을 자원했다. 두 차례 파병에서도 살아남은 아버지는 베트남에서 폭약을 터뜨리고 사람을 죽인 이야기를 덤덤하게 들려준다. 하지만 그토록 자신의 국가를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는 베트남에 뿌려진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암에 걸리고 만다. 어린 시절 인수의 꿈은 아버지와 같은 미군이 되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노랑머리’ 미국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제임스가 깜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물론 알기는 했다. 나는 우리 피부색과 비교해서 제임스를 깜둥이라고 부르면서 개한테 초콜릿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제임스도 아프리카 흑인과 자기가 닮았다고 노래하면서 스스로 초콜릿 노래를 불렀는데 그 애는 자기가 다르다는 것이 혼혈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 우리 둘이 오이노꾸, 잡종, 튀기 같은 별명 속에서 제임의 검은색은 녹아버렸고,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볼 때 나보다 자기를 더 이상하게 본다는 사실을 몰랐다. 10년이 지난 후에도 나는 제임스의 비극이 개 아버지가 흑인이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알 수도 없었다. (289쪽)

어느 날 인수는 ‘구리스토’라는 낯설면서도 친근한 유령을 본다.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구리스토’를 ‘그리스도(Christ)’라고 단정하면서 인수가 유령을 본 것을 ‘꿈’으로 치부한다. 고엽제 후유증을 앓던 아버지는 곧 귀국 명령을 받는다. 인수의 가족은 미국 이주를 준비한다. 짐을 정리하다가 인수는 사진 몇 장을 보고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 당연히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일 거라고 믿었지만 사진 속의 아이는 다른 사람이었다. 인수는 외사촌 혜순에게

“자신처럼 보이는 사진 속의 아이”의 정체를 듣게 된다. 그 아이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낳은 자신의 진짜 ‘형’이었다. 아버지는 인수 어머니에게 형을 포기해야만 결혼하겠다고 선언했고 결국 어머니는 형을 고아원으로 보냈다. 형은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모와 이모부는 오빠가 큰아들이기를 바랐어. 그리고 이모도 충분히 힘들었어. 울다 울다가 그 애를 포기하려고 소사에 있는 고아원에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왔어. 두 번이나 그랬어. 고아원에서 자꾸 그러면 그 아리를 다시 안 맡겠다고 협박을 해서 가족들이 전부 나서서 이모가 아이를 데려오는 걸 막았어. 나중에 고아원에서 그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서 그곳으로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었지. 전부 이모부 때문이야. 이모부는 자기 가족에 다른 남자의 아들이 섞이기를 바라지 않았으니까. 오빠가 어렸을 때 왜 이모부가 오빠를 이상하게 취급했다고 생각해? 우리 엄마가 이모부한테 오빠를 처음으로 건네주었을 때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 이모부는 아마도 오빠가 다른 남자의 아이일까 봐 두려웠던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아빠가 다른 내 형이야? 그 아빠 이름이 뭐야?”

우리는 그날 밤새도록 구리스토뿐만 아니라 간난이 누나의 자살, 형부의 나빠지는 건강, 용수의 경찰 문제, 엄마의 빛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럭키 스트라이크 한 갑을 다 피웠다. (327~328쪽)

인수는 자신의 존재가 ‘우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어쩌면 형의 운명은 자신의 운명이 될 수도 있었다. 유령 형을 알게 된 이후 인수는 한복을 입고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피 묻은 칼을 들고 방에 들어오는 악몽을 꿀 때마다 자신을 지켜준 ‘구리스토’ 유령을 떠올린다.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 어머니는 인수에게 사실을 고백한다.

“이상해요. 엄마, 정말 미국에 가고 싶어요?”

“6·25가 터졌을 때 엄마는 어린애였는데 그때부터 꿈꾸던 일이야.”

엄마가 망설임 없이 말했다.

“모든 멋진 것들이 나오는 곳이고 그 애가 있는 곳이지.”

지금은 검은색으로 비어 있는, 네 귀통이를 붙였던 흔적만 전에 뭔가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자리, 전에 구리스토의 사진이 있던 자리를 펼쳤다.

“언젠가는 그 애를 찾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는 거야. 네 아빠가 죽고 나면 언젠가는 그 애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 비밀을 네 동생한테도 말할 수 있겠지.”(331쪽)

『여우소녀』의 숙이와 현진, 로베토처럼 인수의 어머니도 미국 이주를 갈망한다. 어머니를 보면서 인수는 제임스와 간난이 누나를 생각한다. 그들의 유령을 보면서 인수는 자신의 경험을 글로 남기겠다고 마음먹는다. 이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령’은 삶을 인정받지 못한 자들의 ‘집합기억’과 ‘트라우마’의 다른 이름이다. 또한 ‘유령’은 “혼혈아의 존재를 지우려는 한국과 미국의 식민화 세력으로부터 살아남았다는 증거”이며 인수의 추억은 “기지촌 혼혈아의 유령들을 우리들 속으로 불러들이려는 일종의 문화적 제의”²⁵⁾이기도 하다.

5. 결론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은 한국 주둔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25) 이진경, 『서비스 이코노미』, 나병철 옮김, 소명출판, 2015, 296쪽.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300만~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지촌 위안소를 운영한 것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기지촌이 조성된 때로부터 65년,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기지촌인권여성연대’가 발족한 지 10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지 8년 3개월 만이었다. 2014년 122명이던 원고는 그사이에 24명이 세상을 떠났고 일부가 소를 취하하면서 95명으로 줄었다.²⁶⁾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왜 그런 것인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기지촌 여성들은 “파괴·가난·전쟁의 살육·전쟁으로 인한 가족과의 분리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상징”이자 “남북한의 지리적·정치적 분단과 남한 군대의 불안, 그리고 미국에 대한 끊임없는 종속의 살아있는 증언들”²⁷⁾이었다. 기지촌 여성들은 국가의 관리, 미군의 폭력, 사회의 냉대를 동시에 감당해야 했다.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한 여성들도 미국에서 또 다른 고립과 차별을 겪었다.

1980년대 후반 기지촌이 쇠락하면서 그곳에서 벌어졌던 폭력과 부조리를 폭로하는 소설과 증언록들이 출간되기 시작했다. 기지촌에서 노동했던 당사자들의 증언들은 늘어났지만 그들의 ‘가족’과 ‘자녀’의 이야기는 거의 없다. 가족들이 전쟁, 가난, 질병, 신체적 학대로 갈라진 상태였기에 기지촌 여성 본인들도 서로를 신뢰하고 의존하는 법을 알지 못했다. 아이를 낳은 여자들도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할 기회와 자원을 거의 갖지 못했기에 그들은 정상 가족을 구성하기 어려웠다. 대부분은 어머니가 되기를 기피했다. 많은 이들이 『고스트 브라더』의 인수 어머니처럼 자녀를 포기하고 입양기관에 보냈다. 미군 남성과 기지촌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들은 한국 사회에서 환대받지 못했다. 부계혈통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에서 혼혈아들은 오점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한 혼혈 작가 노라 옥자 켈러의 『여우소녀』와 하인즈 인수 핑클의 소설 『고스트 브라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작가의 소설은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의지에 반해 몸을 팔아야 했던 기지촌 여성들과 차별 섞인 시선을 감내해야 했던 혼혈아들의 이야기다. 그들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사의 중심에 배치했다. 두 사람의 소설을 겹쳐 읽으면 혼혈 가족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두 소설은 기지촌을 끔찍한 폭력을 재현하면서도 다음 세대의 희망을 얘기한다. 기지촌 여성 ‘현진’은 자신이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뮤뮤’에게 준다. 『고스트 브라더』의 주인공 ‘인수’는 기지촌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 즉 ‘유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겠다고 다짐한다. 인간은 태어날 시기를 스스로 정할 수 없다. 인간은 단지 섹스와 우연의 산물에 불과하다. 이 앙상한 진리에 동의한다면 소설에 묘사된 혼혈아들의 슬픔이 낫설지 않을 것이다.

<참고 문헌>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26) 「‘미군 위안부’ 40년 늙...“이제라도 국가폭력 인정 다행” 눈물」, 『한겨레』 2022년 9월 29일.

27) 캐서린 H.S 문, 앞의 책, 29쪽.

<기지촌 여성과 혼종 가족 서사 - 노라 옥자 켈러의 『여우소녀』와 하인즈 인수 핑클의 『고스트 브라더』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예리(강원대)

이정현 선생님의 「기지촌 여성과 혼종 가족 서사」는 여성적이고 디아스포라적인 태도로 기지촌이라는 한국의 역사적 비극의 현장을 그리고 있는 두 소설, 노라 옥자 켈러의 『여우소설』과 하인즈 인수 핑클의 『고스트 브라더』를 ‘혼종 가족 서사’라는 관점으로 읽고 있는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한국 전쟁과 냉전이라는 국제 사회의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관점과 기지촌 여성의 성적 학대나 한국 정부의 기지촌 정책 등과 같은 여성사회적이고 국가정책적인 측면에서 두 소설의 문학적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연구는 한국 문학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이민자 소설의 디아스포라적 상상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 문학 연구는 민족 혹은 국가 중심의 내셔널한 연구에서 탈경계, 탈식민, 탈국가의 트랜스내셔널한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선생님의 논문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남성적이고 국가적인 폭력으로부터 탈주하려고 하는 디아스포라적 주체를 통해 폭력적인 현실의 틈을 발견하려고 하는 소설적 서사를 주목하고 계신 듯 합니다. 선생님 논문 덕분에 중요하고 흥미로운 소설 작품을 읽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노라 옥자 켈러나 하인즈 인수 핑클 모두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혼혈 한인이면서 인생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산 이민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선에 위치한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은 소설가로서의 두 작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지촌이라는 상처 가득한 공간을 응시하는 것에 있어 기지촌을 배경으로 작품을 쓰고 있는 한국 태생의 작가들과 다른 이 두 작가만의 차이가 있을런지요? 이런 차이에 대한 주목을 통해 두 작가의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이 좀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여쭙습니다.

2) 두 작품 모두 한국 전쟁 이후의 기지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일제 식민지의 역사적 시간이 이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우소녀』에서는 주인공이라 할 숙이(호숙)와 현진의 어머니인 덕희가 종군위안부의 상처를 갖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고스트 브라더』에서도 주인공 인수가 사는 집이 굉장한 악행을 저지른 일본 대령의 집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시간은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실 특별할 것도 없으나 문학사적으로 식민지 시기와 한국 전쟁 이후의 시기는 매우 다른 시기처럼 다루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덕희라는 인물을 통해 일본군에서 미군으로 폭력의 주체는 바뀌었지만 점령군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는 피식민지 여성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노라 옥자 켈러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군이 일본군 대령집을 소설적 배경으로 삼은 하인즈 인수 핑클의 의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방은 되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식민지 상태에 있다는 것, 식민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피식민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두 작가는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텐데, 이러한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혼종가족 서사’라는 두 소설의 서사적 특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울러 노라 옥자 켈러의 또 다른 소설 『종군위안부』와 『여우 소녀』가 어

편 이어지는 맥락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아직 발표문의 상태라 사회학적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는 2장과 소설을 분석하고 있는 3장 및 4장의 내용들이 아직은 긴밀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발표문에는 적지 않으셨지만 논문 구상을 하시면서 미처 발표문에 적지 못한 생각들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정희의 「파로호」에 나타난 이주와 귀환의 경계 넘기

정진숙(강원대)

목차

1. 서론
2. 이주와 귀환의 경계 넘기
3. 삶과 죽음의 경계 이주
4. 결론

1. 서론

본고는 오정희의 소설 「파로호(破虜湖)」(1989)¹⁾에 나타나는 이주와 귀환의 경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로호」는 양구 화천에 걸쳐 있는 파로호와 미국의 유학생 사회를 배경으로, 영토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동하는 등장인물들의 이주와 귀환을 섬세한 시각으로 그려냈다. 「파로호」는 오정희가 현대사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작가의 문학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인류는 삶이 시작되면서부터 끊임없이 움직여왔다. 이동의 기본은 움직임으로 이동이라는 사건 자체는 시간의 변화와 상태의 변화를 수반한다. 이때 주목할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나 이주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과 이주를 통해 생겨나는 사회적, 지리적, 물리적 변화를 포함한다. 현대사회는 유학, 여행과 같은 이동뿐만 아니라 이주, 망명과 같은 복잡다단한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존 어리에 의하면, “이동할 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이동에 포함된 사회적 위치, 출발 당시의 지위, 부모의 상황 등 이주, 이동에 따르는 지리적 변동 등으로 더 나은 삶을 찾아가는 것”²⁾이다. 결국 “모빌리티스³⁾와 이동은 오늘날 공간(space), 장소(place), 경계(as boundless)가 갖는 의미들과 함께 연결”⁴⁾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오정희의 「파로호」에는 존 어리가 밝히는 모빌리티가 나타나는데 이는 선학들이 논의한 공간과는 다른 개념이다. 기존의 논의에서 공간은 소설 내부 인물들의 서사를 이루기 위한 공간적 특성으로 특정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면, 국

1) 오정희, 「파로호(破虜湖)」, 『불꽃놀이』, 문학과지성사, 2020. 오정희는 전상국과 동행하여 파로호의 선사시대 유적지 발굴 현장을 가본 후 전상국 선생님이 먼저 쓰실까 봐 서둘러 파로호를 썼다고 자백했다. 우찬제 편, 「자술 연보」, 『오정희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2007, 517~518쪽.

2) 모빌리티란, 여러 형태의 이동, 통신, 교통에 대한 분석으로 다양한 공간에서의 복합적 방식의 생활, 사회적인 문제를 탐색하고 살펴보는 일이다. 이동을 의미하는 단어 (mobile)의 의미가 몹(mob)으로 군중과 관계가 있다. 존 어리, 『모빌리티(MOBILITIES)』, 엘피, 2022. 피터 메리만-린 피어스 편저, 김태희·김수철·이진형·박상수 옮김, 『인문학, 이동을 생각하다-모빌리티와 인문학』, 엘피, 2019. 피터 애디 지음, 최일만 옮김, 『모빌리티 이론』, 엘피, 2019. 존 어리, 위의 책, 24~26쪽.

3) 모빌리티스(Mobilities)란 모빌리티의 복수형으로 단순히 사람, 화물, 정보 등의 이동 차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현대사회에서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유발하는 구조적 장치로 간주.

4) 윤신희, 「새로운 공간 개념으로서의 모빌리티」, 『국토 지리학회지』 52(4), 국토 지리학회, 2018, 474쪽.

가 간의 이동, 이주, 유학생, 귀환의 움직임은 살피는 것이다. 작품 「파로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끊임없이 이동하는 모티프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동하는 신체는 집 안과 밖 사이 어딘가 특별한 장소의 기억으로, 사람뿐 아니라 정보와 생각까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얻는 즐거움과 고통, 사회적, 물리적 효과에 대해 질문하고 그 대답을 찾는다.

본고에서 정의하는 이동은 기존의 디아스포라나 로컬과는 다른 개념이다. 디아스포라는 이주한 공간에서 정착하여 뿌리를 내린 결과이다. 신희정은 국가에서 기존의 터를 떠나 타지로 이동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갈등에 관하여 언급하였다.⁵⁾ 로컬은 토착 지역성의 개념으로 정주의 힘이 있으며 이주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수희·이병민은 기존의 연구자들이 사용한 로컬의 개념을 고찰하면서 로컬의 개념을 재해석⁶⁾하였는데, 이들이 밝히는 로컬은 단순히 지역의 공간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삶을 터전으로 하여 살아가는 지역인의 일상성과 능동성, 적극적인 활동을 포괄하였다. 이는 로컬이 지역이라는 공간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지역인의 지역 활동이라는 적극적 개념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본고가 정의하는 로컬과는 거리가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아스포라와 로컬의 과거는 고통과 아픔이 담보되었을지라도 현재는 정주하는 삶이 주는 안정감을 확보하게 된다.

본고가 정의하는 모빌리티는 현재도 이동 중인 상태이며 혼동, 불안, 폭력, 방향, 초조, 갈등과 같은 초긴장 상태로 그려진다. 이들이 버팀에서 성공하면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 지역 로컬의 중심이 된다. 타지에서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은 이주와 양가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이들이 버팀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죽음으로 내몰리고, 이주는 죽음 정주는 삶이므로 선택의 경계에 서게 된다. 현대인의 이주하는 삶은 과거 유목민의 삶과도 다르다. 과거 유목민의 이주로(路)는 비단길과 같이 고정적이었고 되돌아오는 길이 있었으므로 순환적인 길이었다. 그들이 이주하는 과정은 넓은 면적과 긴 시간을 담보한 정주와 다름이 없다. 현대인의 이주는 정주를 기대할 수 없는 이주의 순환이 연속되므로 희망이 없는 삶이고 결국은 죽음에 당도하게 된다.

본고의 관점이 되는 이동 연구로, 김지윤⁷⁾은 '1980년대 문학에 재현된 이동성의 문제에 주목하여 한국전쟁 전후의 국경 간의 이동, 피난, 이주'를 분석하였다. 선행들은 모빌리티에 대하여 '이동에 내재하는 다양성'⁸⁾으로 보고 '국경 간의 피난, 이주, 귀환'⁹⁾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오정희 「파로호」는 1980년¹⁰⁾대 국가의 현실을 이해하면 접근이 쉬우며, 시대적 탄압을 느끼는 문학인들은 그들의 죄책감을 일상성 문학으로 남기고자 했다. “어둠의 시대에 글을 쓰지 못”¹¹⁾ 한다고 언급한 그녀는 문학의 미학과 인간 본연의 삶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오

5) 신희정, 「귀환 이주자의 사회 갈등에 관한 연구 북미 지역에 거주했던 귀환 이주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하대 대학원 다문화학 박사학위 논문, 2021. 신희정은 귀환 이주자들의 특징을 경제적 측면과 실패와 연관성 있음과 기원국의 사회상으로 보았다. 25쪽.

6) 정수희·이병민, 「로컬의 인문학적 의미와 실천을 통한 지역발전-한국과 일본 로컬 클리어터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30권 제1호, 2023.

7) 김지윤, 「1980년대 이동의 정치와 문학의 대응」,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22.

8) 이용균, 「모빌리티의 구성과 실천에 대한 지리학적 탐색」, 『한국도시 지리학회지』 (18)3, 한국도시 지리학회, 2015, 148쪽.

9) 김지윤 앞의 글, 20~30쪽.

10) 1980년대는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재직 시절 평화의 댐 건설과 광주사태 등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기회가 최소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는 노동 문학과 민중문학과 분단 극복 문학이 있었으나 소설이 빈곤한 시기였다. 권영민과 조남현은 시와 시집은 활발했으나 소설 문단의 침체 시기라고 평가하였다. 권영민, 「문학」, 『1983년도 판 문예연감』, 한국문화 예술진흥원 편, 1984, 138쪽. 조남현, 「지금 여기」 종단면과 횡단면, 『문학 사상』, 1989. 12. 김지윤 앞의 글, 12~14쪽. 재인용.

정희¹²⁾ 소설에 대한 논의는 작중인물, 성장소설, 시·공간성, 모티프, 아버지의 부재, 중년여성 등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파로호에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로호」에 대하여 장현숙은 인물의 불안의식, 탈주 욕망, 왜곡된 허위의식¹³⁾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고가 집중하고 있는 이주와 귀환의 의미를 논의한 연구는 미진하다. 다만, 김치수가 「파로호」의 진정한 주제를 “병들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는 잔인한 쾌감을 느끼는 혜순이 내면의 부패와 붕괴를 고양이에게 복수”¹⁴⁾하여 겉으로 평온해 보이는 삶이 내면적으로는 죽음을 내포하는 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정희의 「파로호」 연구는 부분적이고 단편¹⁵⁾적이다. 따라서 본고가 기술하는 파로호에 나타나는 이주와 귀환의 경계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된다.

오정희 소설 「파로호」에 나타나는 이주와 귀환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등장인물 혜순, 병언, 주변 인물의 이동 경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물리적으로 현상을 면밀하게 분석한다. 2장에서는 이주와 귀환의 경계 넘기라는 텍스트로 혜순이 정주하지 못하는 미국 생활에서 귀환하여 정착하려는 모습으로, 귀환의 이유와 동기를 알 수 있다. 파로호 바닥에서 발견한 조각품은 귀환하지 못한 서러움이 담긴 얼굴 형상으로 혜순에게 다가올 또 다른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 도둑고양이는 혜순의 귀환 욕구와 일치하지만, 거짓 귀환의 과정을 따라가 본다.

3장에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와 이주의 텍스트로 파로호에 수장된 중공군, 평화의 댐 건설로 고향을 떠난 수몰민, 병언과 미국 유학생 사회 현재의 삶을 분석한다. 타국에서 주변인들이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 고국에서 자기가 받았던 대우, 미국 사회에서 일하는 삶에 대하여 병언과 주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본다. 민족의 정체성은 유동적이고 고정적이지 아니기에 개인이 느끼는 생각과 감정은 시간 장소 분위기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변화를 겪는다. 따라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주와 귀환의 경계를 넘나드는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2. 이주와 귀환의 경계 넘기

우리는 살기 위해 떠나려고 결심했을 때 누구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방향이 나타나는데,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가 혜순이 홀로 귀환하는 여정이다. 미국에서의 내가 병들어가는 섬처럼 홀로 고립되었다면, 고국으로의 귀환은 “단애(斷崖)의 끝 (...중략...) 오르막길 언덕을 올라가는 변속기어”¹⁶⁾로 상승 곡선이다. 혜순은 미국에서 시간제 파출부로 생업을 이어갔

11) 오정희, 『내 마음의 무늬』, 황금부엉이, 2006, 104쪽.

12) 김병익은 오정희를 ‘자아와 세계의 불화를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언급한다. 그녀의 소설 세계를 현실과의 대조가 아닌 숨겨진 내면의 추상으로, 해석이 아닌 존재의 영역으로, 존재 세계의 영원한 비밀, 무한한 은폐와 완강한 함구로 타인의 해석을 견제하고 단절을 시도한다. 김병익, 『세계에의 비극적 비전』, 『동경』, 동서문화사, 1983, 344쪽.

13) 장현숙, 「오정희의 「파로호」에 나타난 주제 의식 연구」, 『한국현대소설 학회』, 현대소설 연구 76, 2019, 205쪽.

14) 김치수, 「외출과 귀환의 변증법」, 『불꽃놀이』 해설, 문학과 지성사, 1995. 우찬제, 『오정희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7, 249~252쪽.

15) 「파로호」, 선행연구는 이소연·단유경·박미란·김영순·곽은희·이정희·윤애경·조희경·이봉일 등에 의해 자아실현을 위한 정체성 찾기, 서재원에 의해 타자로서의 자연 발견이라는 논지로 간략히 언급. 강숙아에 의해 서사의 시간과 스토리 시간 배치로, 정미숙·김경희·송창섭은 「파로호」 대한 간략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현숙, 「오정희의 「파로호」에 나타난 주제 의식 연구」, 현대소설 연구 76, 2019, 207쪽. 오정희 모빌리티 연구 정진숙(2023)이 있다.

16) 오정희, 앞의 책, 65쪽.

으나 난장판이 된 생활에서 정주하지 못하고 귀환함으로 물리적 사회적 삶이 살아나서 소설을 쓰게 된다. 그녀는 허탈한 상태에서 벗어나 내면의 공허를 채워줄 공간을 찾아서 집 밖 문밖의 세상으로 나아간다. 파로호는 도시의 삶에 길들여져 있던 그녀의 몸이 충전되고 살아나는 공간이다.

여달이문을 달아 개조한 점방들은 옛날 혜순이 피난 시절을 보냈던 저잣거리와 다를 바 없이 낙후된 모습이었다. 잡화점과 한약 장, 여인숙, 중국집 그리고 우중충한 화강암의 탑은 그 옛 풍경, 비와 바람과 햇빛, 또한 젖은 재처럼 고요한 시간의 마모 속으로 수긋이 어울려 들며 서 있었다.

(…중략…)

그들은 가판대에서 신문을 사서 구인 광고를 꼼꼼히 읽은 뒤 즉석 사진을 찍어 언제든 안주머니에 준비된 이력서에 붙인 뒤 초조히 우체부를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값싸고 품위 없는 공문서용의 노란 봉투 속에 넣어서 배달되는 정중한 거절의 문면.

(…중략…)

더 이상 자신이 떠돌이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주지시키는 행위.¹⁷⁾

혜순이의 파로호 들어가는 “자기부정과 환멸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아정체성을 회복”¹⁸⁾하려는 시도이다. 그녀의 귀환은 떠돌이에서 정착으로 살아있다는 자기 증명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녀의 고단한 몸을 실은 새벽 첫차는 양구 상무릉리로 이동하는 창가의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다. 여달이문을 개조한 점방과 옛 저잣거리는 낙후되었으나 거리에 비치는 비와 바람과 풍경은 고요하기만 하다. 그녀가 남편과 아이들을 미국에 남겨둔 채로 귀국하자마자 지하철 즉석 촬영소에서 사진을 찍어 이력서에 붙이고 신문을 사서 구인 광고란을 꼼꼼히 읽는 행위는 살아있다는 귀환의 신고식이다.

파로호는 그녀에게 희미한 회상의 기억을 불러왔다. 파로호가 물을 걷어내고 물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흥분한 그녀는 물이 잠기기 전 그곳에 가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힌다. 그녀는 칠 년 전 남편과 병가를 내고 파로호를 찾아 일주일 묵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몸은 퇴수지 바닥을 보아야겠다는 열정을 품고 당당하게 미지의 땅을 찾아가는 모험가로 변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의 몸은 “길을 찾아내는 움직이는 몸이고 자연에서 자연을 알아가고 탐색하는 몸”¹⁹⁾이다. 그녀의 결핍은 호수가 수몰되기 전 양구와 화천을 연결하였던 도로 “왜정 때 목탄 버스와 승합차가 다니던”²⁰⁾ 옛길을 걸으면서 심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다.

역사에 존재했던 선사인들의 이동 경로, 문화와 생활은 신기하기만 하다. “파로호 여행은 시간여행으로, 파로호에 닿기까지 등장인물들의 대사와 서술자의 묘사 등을 통해 수시로 암시된다. 시간은 선사시대, 고생대, 구석기처럼 고고학적 차원에서, 고대사, 고려 중기같이 먼 역사적 차원에서, 사변, 왜정, 일제 등과 같이 가까운 현대사의 차원으로 측정”²¹⁾하게 된다.

17) 위의 책, 70~73쪽.

18) 장현숙, 「오정희의 「파로호」에 나타난 주제 의식 연구」, 한국현대소설 학회, 현대소설 연구 제76호, 2019, 220쪽.

19) 존어리, 앞의 책, 54쪽.

20) 위의 책, 77쪽.

21) 송창섭, 「한국 영문학 속의 비교문학, 비교문학 속의 한국 영문학」, 『영미 문학교육』, 제9집 2호, 2005, 117쪽.

특히 백두산이 원산지인 흑요석은 선사인들이 소중히 여겼던 것으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지니고 다녔기 때문에 이것의 발견 경로에 따라 선사인들이 함경도 웅기에서 동해안을 따라 내려와 북한강 상류인 양구로, 다시 한강을 따라 금강 상류, 공주 석장리로 이동했다는 추론이 가능하게 되었지요.²²⁾

혜순은 강의 두 지류가 합쳐지는 곳에서 “지역의 지원을 받아 유물을 찾아 발굴 작업을 하는 단장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발굴단”²³⁾을 확인하고 다가간다. 조각나고 흩어진 파편을 모으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발굴단의 설명을 듣고 보니 흑요석을 중요하게 여긴 선사인들의 발견 경로는 함경도에서 출발하여 양구를 거쳐 금강 상류와 공주 석장리로 이동한 경로를 추론할 수가 있게 되었다.

「파로호」에서의 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갑자기 발굴 작업하던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들이 발견한 가름한 흰 돌은 세 개의 구멍이 뚫려 있으며 흠을 파내자 가름한 여자의 얼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옛 여인의 얼굴은 슬픔에 젖은 듯 울고 웃는 그리움과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간절함을 일으킨다. 사람들은 손바닥만 한 흰 돌을 살피며 낯섬은 호기심 속에서 잔잔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혜순은 가름한 옛 여인의 얼굴 같은 조각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만져 보자 시·공간을 거슬러 여인의 시선을 마주치는 듯한 환상을 불러온다.

“단장님 이거 보세요”

(…중략…)

“굉장한걸. 사람 얼굴이야. 대단한 물건이랴구.”

“뭘 찾았다구? 심봤어?”

작업하던 학생들이 단장 주위로 우르르 모여들었다. 혜순은 솔밭으로 향하던 발길을 돌려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씩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그것도 여자의 얼굴이었다. 단장은 손바닥으로 문질러 흠을 닦아내고 구멍을 메운 흠을 파내자 그것은 생생한 표정으로 되살아났다. 단순히 가름한 흰 돌에 세 개의 구멍을 내었을 뿐인데 그 구멍들이 어우러져 만드는 표정은 놀랄 만치 깊고 풍부했다. 학생들은 저마다 그 돌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다. 울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 등등 느낌을 말했지만, 혜순으로서는 그 얼굴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아낼 수 없었다. 옛 여인의 얼굴에서 깊은 슬픔, 지극한 그리움과 간절함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보고자 하는 그녀의 마음일 것이다.²⁴⁾

인간이란 감각의 몸을 지닌 이동하는 존재로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 사물을 보는 행동은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얼굴을 만지는 행위 자체는 상태의 변화 시간의 변화로 이동을 수반한다. 시각은 “상대의 얼굴이 어떤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예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삶을 이동하는 동안 얼굴에서 발견”²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끌림이란 어떤 이유가 아닌 자유로운 사림의 일환으로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혜순이가 파로호의 물

22) 오정희, 앞의 책, 109쪽.

23) 평화의 댐 건설로 물을 뺀 파로호 상류에서 유물 발굴을 조사하던 “강원대 유적 조사단 최복규 박물관장은 유적 발굴단과 파로호 상무룡리 일대를 3개월간 2차 발굴하는 도중 수습된 구석기 유물 중 흑요석 생활 용구와 타원형의 얼굴 모습 원시 조각 예술품” 동아일보 1988년 7월 18일 9쪽. 최관장은 얼굴 모양의 조각품은 섬세하지는 않으나 짐승의 뼈 등으로 조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조각품인 것 같다. 라고 말한 바 있다.

24) 위의 책, 113~114쪽.

25) 존 어리, 앞의 책, 52~53쪽.

이 빠진 수몰지에서 옛 여인의 얼굴을 만지는 행위 즉 만질 수 있음은 사물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동아일보 기사에 게재된 흑백사진은 파로호에서 수습된 얼굴 모양의 조각품이다. 파로호 바닥에서 발견한 돌 조각품의 모습은 혜순의 과거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이 수만 년 뒤 흙을 털고 일어난 여인의 얼굴로 비유되었다. 그녀가 귀국하여 증명사진을 찍는 모습은 현재의 자기 증명일 뿐 슬픔과 그리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설의 마지막이 여인의 눈을 향해 달려갔다면, 그것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동 후 귀환하지 못한 깊은 슬픔과 고국을 향한 지독한 간절함이 혜순이 홀로 귀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것이다. 돌 조각품에 귀환하지 못한 서러움이 남아있다는 해석은 남편과 아이들이 고국으로 귀환해야 비로서 혜순 가정의 정주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혜순이가 병언의 실직 이후 도미(渡美)한 낯선 공간에서 절망에 빠진 이유는 약속되지 않은 불안정한 미래와 뒤늦은 유학 생활에서 병언이 보여준 허위의식 때문이다.

아이들은 그 소란 통에 잠들 리 없건만 방에 틀어박혀 숨소리도 내지 않았다. 불안에 민감한 아이들은 아버지의 느닷없는 화냄과 가친 언동, 엄마의 잦은 짜증에 침묵으로, 관여치 않으므로써 대응하는 법을 익히고 있었다.

(…중략…)

무서운 것이 병들 보다도 병들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는 잔인한 쾌감이었다. 자기 자신을 복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기 안의 낯섦이었다.²⁶⁾

혜순의 이러한 생활은 아이들을 때리거나 어린아이처럼 통제력을 잃고 자주 우는 모습으로 표출된다. 그녀의 불안의식은 성장하는 아이들을 체벌하고 발가벗겨 문밖으로 내쫓았고, 병들 보다 병들어가는 자신의 낯섦을 응시하며 잔인한 쾌감을 느꼈다. 그녀가 자신 안에 내재한 분노와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도둑고양이를 죽이며 치열하게 싸웠던 남편과 자녀를 남겨두고 홀로 도망치는 모습이다.

감정을 발산할 통로가 막혀버리자 ‘혜순’의 치달는 분노는 도둑고양이²⁷⁾를 죽이는 장면에서 정점에 이른다. 고양이의 이동 경로는 집-바깥-집-숲속으로 나타났다. 고양이의 거짓 귀환의 결국은 죽음으로 미국의 혜순과 병언의 상태로 볼 수 있다. 혜순의 미국 생활도 춥고 배고프기에 귀환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속아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일을 나가지 않는 날 남루한 옷차림으로 숲으로 가서 햄 한 조각과 생선으로 배고픈 고양이를 유혹하여 나무에 매달았다. 고양이는 집을 벗어나 밖으로 떠돌았고 춥거나 배고프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다가 혜순의 미끼에 유인되어 숲속의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

“옛 주인의 집을 향해 귀향하려는 도둑고양이의 본능은 고국으로 귀향하고자 하는 혜순의 귀향 욕구와 일치한다. 떠난 옛 주인을 그리워하며 처량하게 우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폭력적인 조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떠나왔지만, 미국에서도 안주하지 못하고 절박함과 위기감으로 가득한 자신의 울음소리와 닮아 있다.”²⁸⁾

26) 오정희 앞의 책, 104~105쪽.

27) 고양이는 공포, 암흑, 교활함과 죽음을 상징하며 삶의 어둡고 부정적인 현실을 상징한다. 사람이 도망친다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개인의 이동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승훈, 『문학으로 읽는 문화 상징 사전』, 푸른 사상사, 2009, 49쪽.

28) 장현숙, 「오정희의 「파로호」에 나타난 주제 의식 연구」, 한국현대소설 학회, 현대소설 연구 제76호, 2019, 213~214쪽.

나무에 매달린 자루 속에서 악취를 풍기고 썩는 것은 고양이가 아닌 혜순의 내면이 병들어 부패해가는 그 무엇이었다.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장소 파로호는 혜순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고자 하는 호기심과 새로운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공간이다. 오정희 작품 속의 여주인공들이 현실의 삶을 감수하였다면, 「파로호」의 혜순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과감하게 실천하는 태도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람에 날리는 풀씨와 같이 수만 년의 흙을 털고 일어난 여인의 조각품은 살고자 하는 혜순에게 다가올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을 의미한다.

3. 삶과 죽음의 경계 이주

양구 화천에 살던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놓은 ‘파로호’는 화재어가 둘로 보인다. 파로호(破虜湖)의 깨트릴 파(破) 사로잡다 노략질하다(擄) 해석하면 정주와 맞물린다. 중공군에 초점을 두어 유적에서 찾으면 병들어 있는 병언의 모빌리티에 어울린다. 그러나 파로호(破虜湖) 문자와 전투 결과에 초점을 두어 오랑캐로(虜) 사로잡히다, 오랑캐로 분석하면 혜순의 귀환과 정주에 어울린다고 해석할 수 있다. 파로호는 1944년 북한의 금강산 댐을 건설하면서 방어막으로 설치되었다. 파로호의 옛 이름은 화천호였으나, 1951년 5월 이승만 대통령은 중공군 포로를 많이 잡은 호수를 파로호(破虜湖) <그림 2>로 명명한다.

“그게 예사 바람이 아니지. 떠도는 망령들의 부르짖음일 게요. 멀리 구석기 인들이 아니라도 육이오 때 중공군 수만 명이 수장당한 곳이라오.”

(…중략…)

파로호라는 이름의 유래 - 육이오 때 사단 병력의 중공군을 수장시키고 승리감에 취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오랑캐를 깨트렸다는 뜻으로 지었다는-²⁹⁾

한국전쟁 이전의 화천호는 북한 땅이었다. 인공호수 파로호가 생기기 전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사람들은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이 물에 잠기자, 국가가 정한 제도에 의해 고향이라는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저마다 자신들의 경계를 넘어 남으로 북으로 떠돌았다. 고향을 버려야 했던 수몰민들의 깊은 상실감은 커져만 갔고 이곳저곳 흩어져 살아야만 했다. 수몰민³⁰⁾에게 이동의 딜레마는 혼란스러운 그들만의 상흔이다. 수몰민과 수장당한 중공군의 부르짖음은 망령들의 떠도는 바람처럼 기억과 실체 사이의 거리만큼 조각나고 파편처럼 흩어졌다. 중공군 한국전쟁의 참여는 중공-한국-파로호로 군사적 이동을 하였기에 물리적 죽음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의 육체가 어디에 거하는지 경계에 따라 그들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었다.

노인은 자신이 태어나고 장가들어 아이들을 키웠던 정든 곳을 떠나게 된 사연을 간직하고 살아가던 중, 고향 마을이 드러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녀들과 찾아온다. 그는 유년 시절의 특

29) 오정희 앞의 책, 112쪽.

30) 1986년 12월 북한이 수공(水攻) 작전 전용으로 축조하는 금강산 댐에 대응하는 평화의 댐 건설이 착수되면서 기초 공사를 위해 하류에 있는 호수의 물을 빼면서 오랫동안 물에 잠겼던 바닥 약 3분의 2가 물으로 드러난 것이다. 경향신문, 1988. 06. 25, 13쪽.

정한 기억을 떠올리며 회상한다. “기억의 내용은 언제나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으나 회상은 가져올 수 없음”³¹⁾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기억을 현재 이곳으로 가져왔다. 그의 나이 서른세 살 되던 해 조상님 대을 이장하고 급히 짐보따리를 챙겨 나왔는데 막상 물이 빠진 고향마을을 바라보니 세월이 무상할 따름이다.

“여기서 사셨습니까?”

“살다마다요. 바로 이게 내 집 자리요. 태어나고 자라 장가들고 아이들을 낳았지요. 그게 사십삼 사 년 전인가……강제 이주 명령이 내려 떠났었어요. 화천댐 물을 빼서 고향 마을이 드러났다기에 자식들을 데리고 하룻길을 왔지.”³²⁾

노인은 자연에 묻혀 보냈던 소박한 어린 시절 한국전쟁 전의 이야기라고 회상하며 생각에 잠긴다. 노인의 기억은 현재에서 출발하여 과거 수몰민으로서의 상처와 회상을 더듬고 있다. 좋은 땅들이 모두 물속에 잠겼는데, 물이 빠진 파로호는 수몰 전의 모습 그대로 신작로 양옆으로 허리가 잘린 미루나무들이 돌아나 있고 주춧돌도 그 자리에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다. 빈 벌을 메우며 바람에 날리는 풀씨는 곧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고 싶은 노인의 내면이다. 집터를 알 수 있는 주춧돌과 빈 벌을 채우는 바람은 마른 풀들이 씨앗 주머니를 터트려 풀씨를 날리고 있다. 사십 년간 물속에 묻혔다가 바람결에 날리는 ‘풀씨’는 ‘생명’을 상징하며 파로호는 생명을 키우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인식한다.

“기념으로 이걸 가져가야겠지요? 집의 정원에 놓아두면 좋겠어요.”

청년이 힘겹게 주춧돌을 들어 올리며 말하자 노인은 고개를 젓고 손을 흔들었다.

“그나마 이 자리에 놔둬야 물속에서라도 천년만년 집터가 남아있지 않겠느냐.”

바람이 빈 벌을 가득 메우며 불고 있었다.

(…중략…)

흔들리는 마른 풀들이 씨앗 주머니를 터트려 풀씨를 날려 보내고 있었다.³³⁾

현대인의 유목민적인 이주의 삶이 생산적이지 않으며, 짐승의 노호(怒號)처럼 사납게 떠도는 바람은 귀환 이후의 정주를 의미하고 있다. 정주하는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작가는 물속에 묻혔다가 싹을 틔우는 목화씨와 천년만년 집터의 묘사로, 물이 빠진 텅 빈 땅에서는 쑥부쟁이, 망초, 갈대들이 자라고 냉이와 지경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과 대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파로호의 수몰민들이 자발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정든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병언 역시도 학교에서 해직되어 고국을 떠났으나 결국 정주³⁴⁾하지 못하는 상태로 나타났다. 그는 국가 공권력의 가시적 폭력으로 해고된 교사에서 유학생으로, 유학생에서 망명자로 돌아섰다. 그의

31) 기억은 개인적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서 체험을 재구성한다.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 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2, 20쪽.

32) 오정희, 앞의 책, 90쪽.

33) 위의 책, 91~92쪽.

34) 존 어리의 ‘거주와 커뮤니티’에서는 ‘비 정주성’과 ‘임시 거쳐 성’에 대하여 “거주한다는 것은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단순히 물리적인 정주가 아닌 것으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평온하게 머무르는 것, 느긋하게 쉬는 것, 편안해지는 것”을 내포한다. 한 장소에 오래 정주하여도 고향 같은 포근함을 느낄 수 없다면, ‘정주’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존 어리, 윤여일 옮김,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 이동과 하이브리드로 사유하는 열린 사회학』, 휴머니스트, 2012, 221~225쪽.

사회적 위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심어 주는 사회 선생님이다. 재단 측과 학교와의 파벌 싸움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서 쫓겨나자 그의 내면은 극히 축소되고 제한되었다. 그가 이주를 생각한 것은 그의 욕망이 좌절되어 허탈한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병언 가족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적인 위치의 변화, 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삶의 역할 변화”³⁵⁾등을 알 수 있다. 그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여 낮에는 식당 점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지만 공부는 지쳐있는 상태이다. 그의 이주는 억압하는 시대적 공동체에서 쫓겨나 자신을 짓누른 사회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증명 작업의 일환이었다. 그는 미국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했기에 사회적 죽음 또는 정주와 이주의 선택이 요구되는 상태이다.

「파로호」에서는 망명, 이주, 유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서 장소를 제기했다. 공간성 시각으로 볼 때, 병언의 집, 인권협회, 퀘이커 모임, 독립지사의 후예, 변절자 친일 매국노의 후손, 파로호 거의 모든 장소의 이동은 “특정 유형의 방문자를 끌어들이거나 쫓아내는 자리”³⁶⁾가 나온다. 병언의 집은 유학생들이 초대받았든, 초대받지 않았든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예외적인 자리였다. 그의 집은 된장찌개, 잡채, 불고기, 김치로 고향의 그리움을 달래는 장소다. 그러나 유학생들은 혜순의 음식에서 가정적인 분위기를 누리고, 쉬고, 고국의 향수를 다독이고 있지 않는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돌아가면 집안은 늘 난장판이 되었고 뒷정리는 언제나 그녀의 몫이었다. 혜순은 유학생들이 주말이면 한국식당에 가서 더 비싼 음식을 사 먹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배가 부르면 폐가 된다거나 논문을 쓰는 중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정리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동체를 위한 병언의 호의는 혼란한 상황으로 그의 집도 안주할 수 없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어느 때 누가 들이닥쳐도, 방금 설거지를 끝낸 후라도 혜순은 새로 밥을 지어야 했다. 병언이 누구에게나 밥과 김치, 된장찌개 먹고 싶으면 찾아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중략…)

그들은 술버릇도 얌전했다. 초대받은 자의 예의를 알았다. 배가 부르면 일어났다. 늦으면 자고 가면 되지. 한국에서처럼 밤새 이야기하고 놀자고 병언이 거들 말해도 그들은 폐가 된다거나 논문을 쓰는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돈을 치르지 않는 것만이 식당 손님과 달랐다.

(…중략…)

그들은 병언을 ‘선생님’이라 호칭하는 유일한 부류였다. 병언은 그곳에서 그저 문 Moon이었다.³⁷⁾

병언을 부르는 호칭 문, MOON, 선생님의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낮에 일하고 밤에 대학원 과정을 밟는 병언의 호칭은 문(MOON)이었으나,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유일한 부류는 유학생들이다. 문은 오고 가는 통로로 정주하지 않은 중간자를 의미하고, MOON은 낮에는 생선가게에 숨어있고 밤에만 나타나는 도피자이다. 유학생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선생님은 도피자이며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중간자로 이주한 땅에서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병언은 주워 읽는 글들을 바탕으로 시국을 토론하는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불안정한 모습이

35) 박명수, 「모빌리티 관점을 적용한 한국 현대소설의 분석-박경리 『토지』를 중심으로」, 『K-Culture 융합연구』 1, K-Culture 융합 연구소, 2022, 36쪽.

36) 존 어리, 앞의 책, 415쪽.

37) 오정희, 앞의 책, 94~95쪽.

다. 그는 대취하면 감상적으로 비감해져서 고국에 대해 떠도는 거짓된 글이 진실인 듯 망명객 처럼 한국의 시국을 논하며 미국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유학생들 사이에서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투사가 되었고, 마치 투옥되고 고문이라도 당한 듯 선량한 교사와는 다른 반 체제 인사로 연출되고 있다.

병언이 망명객처럼 비장히 말했다. 한국 사정이 어떠한가, 라고 유학생들이 물으면 병언은 “영망진창, 완전히 경찰국가요. 우린 그런 체제 아래 살고 있는 거요. 수업 중의 선생이 끌려가 돌아오지 않고…… 거대한 암 병동이오.”

병언은 자신을 잡아가려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듯 몇 번이고 되풀이 말했다.

“투옥되었나요? 고문도 당하셨어요?”

그들의 잇달은 물음에 병언은 치가 떨린다는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선량하고 착실한 교사가 뜻과는 달리 투사로 반체제 인사로 발전하게끔 연출되는 상황.³⁸⁾

유학을 온 “젊은이들이 세상과 불화할 때, 병언은 자신과 불화”³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의 불화는 너와 내가 아닌 나와 나 사이의 불화라고 할 수 있다. 병언은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타국에서 만나는 유학생들과 친일 매국노의 후손, 독립지사의 후예 등은 진실과 다른 균열 된 일면만을 보고 조국을 판단하고 있다. 거주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떠한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들이 이주한 곳은 가족이나 유학생들도 편안히 안주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이별과 만남으로 정주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유학생들 거주민과 이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폭발하여 불안해지고 신경은 초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지만, 반면 서로에게 유대감을 갖게 되기도 한다. 외국행을 택한 해외의 유학생들은 추방, 이민, 망명, 유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심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진다.

자유와 희망이 말살당하는 어둠의 시대는 한국에서만 아니라 시공간을 넘어 미국에 사는 유학생과 교민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유학생 사회는 객지 생활의 폐쇄성으로 인해 “다양한 유동적 연합”⁴⁰⁾을 유발한다. 이는 이동과 유동에서 정보를 교환하려는 현대사회의 물리적 이동으로 볼 수 있다.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프락치와 사찰원, 로열 웨일리들이 이루는 상류사회가 있다. 전직 고관의 자식이 해외 도피 재산의 충실한 관리인 노릇을 하는 일들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 개인이 국가의 위상보다 개인의 감정에 집중할 때 생기는 갈등의 문제는 국가를 위협에 빠트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삶의 영역에서 이주민, 유학생, 망명자들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학생들은 타향 혹은 외국에 존재하면서 고향 및 고국으로의 연계·연대가 된 상태이다. 이때의 떠나있음은 조국으로부터의 분리되어 뿌리 없음의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 타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주민 유학생들이 경험한 상실감은 새로운 도시에 환멸을 느끼며, 고유의 정체성과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몸부림친다. 그러나 그들은 목계 된 개인주의, 프락치, 사찰

38) 위의 책, 96~97쪽.

39) 손유경은 “젊은 주인공들의 좌절과 욕망, 동경과 환멸, 성장과 반성장이 근대 소설의 주요 모티프”라고 언급한다. 손유경, 「노년의 시간과 ‘견딜’의 감각」, 한국 현대문학연구 제68집, 2022, 189쪽.

40) 실제로 중세의 방랑, 유랑, 떠돌이, 이주, 여행하는 자들의 이동은 대부분 이들의 삶이 기초는 ‘동요와 이동’이었고 다양한 ‘유동적 연합’을 유발했다. 다양한 사회 공간의 모빌리티로는 이주, 유목, 유랑, 디아스포라 이동, 여행, 모험 여가 여행 등을 포함한다. 이들이 떠나있는 기간 시간의 지속성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상호작용을 거쳐야 신뢰가 형성되는 것으로 신체적·물리적 이동의 연결을 강조한다. 이들은 ‘위험과 곤경’에 처하여 물리적 이동의 위험을 완화할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존 어리, 앞의 책, 47~49쪽.

원, 객지 생활의 폐쇄성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회적 죽음의 상태 또는 정주와 이주의 선택이 요구되는 경계의 상태로 나타났다.

“이 친일 매국 놈 새끼 나와! 주둥아리들만 까져서 정치가 어떠니 사회가 어떠니, 민중이 어떠니…… 그렇게 가슴 쓰리고 아프면 왜 여길 왔지? 열뜨기 양놈이 다 되어 그걸 미국적 자유니, 양심이니 민주주의니 하고 떠들어? 나라 밖에서 제 나라 욕을 해대고 양놈들에게 살살 고자질해대고…… 그렇게 우국 지정에 가슴 아프면 들어가서 부딪쳐봐. 유치한 망명객, 우국지사 흉내 내지 말고 나는 니네들이 얼마나 계산에 빠르고 자기 보호에 민감한 줄 안다고, 이 약아빠진 도련님들. 네가 어째서 내 동족이야.”⁴¹⁾

연약해 보이는 염준기는 눈이 붉게 충혈된 얼굴로 변신술에 능한 이인걸을 향해 독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은폐에 서툰 프락치 취급을 받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빈곤한 삶에 지쳐 마음이 병들어 있다. 이들의 사적인 행동은 “술상이 얹어지고 접시가 날리며” 서로를 향해 반목하고 비판하는 등 무질서하다. 염준기는 술에 취해 이인걸에게 “왜놈 밑에서 작위를 받은 친일파 새끼”라고 몰아세우며 “너희 할아버지가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친일 매국할 동안, 우리 할아버지는 국가를 위해 독립운동을 했”음을 강조하면서, 유치한 망명객이 타국에서 우국지사 흉내 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교민들을 비판하고 있다. 변절자 친일 매국노의 후손 이인걸을 비난하는 독립지사의 후예 염준기는 입으로만 정치가 어떠니, 민중이 어떠니 하면서 나라 밖에서 미국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유치한 망명객들에게 환멸을 느껴 의견이 충돌한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삶이 피폐하여 살아있어도 병들어 있으며, 친일파 후손들과의 계층 간의 증오와 뿌리 깊은 불신으로 서로를 반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타국에서 버팀에 성공하면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 지역 로컬의 중심이 되지만 버팀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사회적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동에서는 “거주지를 떠나 이동하는 망명, 유랑, 이주민을 잠재적인 폭민 폭도로 인식하여 위험한 타자”⁴²⁾로 인식한다. 유동적인 그들이 무질서하게 보이는 이유는 언제 어디로 어떻게 이동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협회에서는 급진적 사상을 가진 퀘이커 교도들이 한국에서 찍어온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다. 이들은 선정적인 글귀의 일면을 보고 실상과 허상 내막을 고발하며 한국의 시국을 논하고 있다.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교도들의 시선은 조국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할 때, 이들의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진실인지 그렇지 않은 거짓인지를 구분하기는 난해한 상황이다. 유학 생활에 지친 사람들은 인권협회에서 시청한 광주민주화운동의 참상을 보고 모여서 서로를 비난하고 반목하며 자신들이 애국자라고 주장하며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폭도의 범주에 들어가 싸우는 형태로 보인다. 이들의 철저한 개인주의는 타지 생활의 폐쇄된 묵계(默契)로 서로를 질타하며 증오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고는 오정희의 「파로호」에서 이주와 귀환의 경계를 증명하고자 했으며, 오정희 문학을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함을 밝히고자 했다. 모빌리티 연구는 자동차,

41) 오정희, 앞의 책, 101~102쪽.

42) 존 어리, 앞의 책, 24쪽.

사회과학, 건축학, 인문지리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학과 관련하여 시 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이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오정희의 「파로호」는 미국의 유학생 사회와 파로호를 배경으로, 등장인물들의 이동 공간을 연결하여 재귀환하는 과정을 밝힌 중요한 작품이다. 거주한다는 것은 어떤 장소에 살거나 머무르는 것으로 편안해하는 삶을 말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간의 변화와 사회적 물리적 지리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여행과 같은 이동뿐만 아니라 이주, 망명과 같은 복잡 다단한 이동이 발생한다.

2장에서 이주와 귀환의 경계를 넘나드는 혜순은 미지의 땅을 찾아갔으나, 새로운 세계에 대한 환상을 접고 홀로 귀국하여 집 밖 파로호를 찾아간다. 그녀는 파로호 퇴수지 바닥에서 여인의 형상을 한 조각품을 발견한다. 수만 년의 세월 뒤에 흙을 털고 일어난 조각품은 그녀에게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을 의미한다. 도둑고양이의 이동을 반복하는 거짓 귀환은 죽음의 결과를 가져왔다.

3장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와 이주는 병언을 포함한 가족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이주한 미국에서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생활인으로 전락하였고 유학생, 이주민, 망명자들도 혼돈의 상태로 나타났다. 파로호에 수장된 중공군들은 고양이와 같이 물리적인 죽음에 도달한다. 고국을 떠난 이주민, 유학생들과 독립지사 친일파의 후손들은 객지 생활의 소외와 폐쇄성으로 계층 간 증오와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회적 죽음의 상태로 정주와 이주의 경계에 서 있다. 파로호의 모빌리티는 현재 진행형으로 가족들이 귀환하면 사회적 삶이 살아나서 혜순 가정의 정주가 이루어진다.



<그림 1> 동아일보 1988년 7월 18일 9쪽



<그림 2> 파로호 비 43)

43) 파로호 비는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산 20-2번지에 위치. 이승만 대통령이 오랑게를 물리친 호수라는 뜻에서 파로호(破虜湖)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그의 친필로 새겨진 파로호 비이다

<참고 문헌>

1. 基本 資料

- 오정희, 「파로호(破虜湖)」, 『불꽃놀이』, 문학과지성사, 2020.
- 존 어리, 김태한 옮김, 『존 어리 모빌리티 MOBILITIES』, 엘피, 건국대학교 모빌리티 인문학 연구소, 2022.
- 피터 메리만·린 피어스 편저, 김태희·김수철·이진형·박상수 옮김, 『인문학, 이동을 생각하다-모빌리티와 인문학』, 엘피, 2019.
- 피터 애디, 최일만 옮김, 『모빌리티 이론』, 엘피, 2019.

2. 單行本

- 권현익 지음, 정소영 옮김, 『전쟁과 가족』, 창비, 2020.
- 롤랑 바르트, 김희영 옮김,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 박춘희, 『오정희 소설 읽기』, 월인, 2018.
- 박혜경, 『오정희 문학 연구』, 푸른 사상, 2011.
-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 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2.
- 우찬제, 『오정희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7.

3. 論文

- 김병익, 「세계에의 비극적 비전」, 『동경』, 동서문화사, 1983.
- 권영민, 「문학」, 『1983년도 판 문예연감』, 한국문화 예술진흥원 편, 1984.
- 김지윤, 「1980년대 이동의 정치와 문학의 대응」,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22.
- 박명수, 「모빌리티 관점을 적용한 한국 현대소설의 분석-박경리 『토지』를 중심으로」, 『K-Culture 융합연구』 1, K-Culture 융합 연구소, 2022
- 손유경, 「노년의 시간과 '견딤'의 감각」, 한국현대문학학회, 한국 현대문학연구 제68집, 2022.
- 송창섭, 「한국 영문학 속의 비교문학, 비교문학 속의 한국 영문학」, 『영미 문학교육』, 제9집 2호, 2005.
- 신희정, 「귀환 이주자의 사회 갈등에 관한 연구 북미 지역에 거주했던 귀환 이주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하대 대학원 다문화학 박사학위 논문, 2021.
- 윤신희, 「새로운 공간 개념으로서의 모빌리티」, 『국토 지리학회지』 52(4), 국토 지리학회, 2018.
- 이용균, 「모빌리티의 구성과 실천에 대한 지리학적 탐색」, 『한국 도시 지리학회지』 (18)3, 한국도시 지리학회, 2015.
- 장세용, 「공간과 이동성, 이동의 연결망」, 『이주와 로컬리티의 재구성』, 소명출판, 부산대학교 한국 민족문화연구소 편, 2013.
- 장현숙, 「오정희의 「파로호」에 나타난 주제 의식 연구」, 한국현대소설 학회, 현대소설 연구 제 76호, 2019.
- 정주아, 「움직이는 중심들, 가능성과 선택으로서의 로컬리티(Local) - 한반도 서북 지역의 민족주의 문화 운동을 사례로」, 민족 문학사 연구회 제47호, 2011.
- 정진숙, 유춘동, 「모빌리티 로컬(Mobility Local)의 관점에서 본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 한국 연구, 2023, 06.

<오정희의 「파로호」에 나타난 이주와 귀환의 경계 넘기>에 대한 토론문

윤정엽(강릉원주대)

정진숙 선생님의 발표는 오정희의 소설 「파로호」를 ‘이주와 귀환’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그 ‘경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발표입니다. ‘파로호’가 만들어지면서 수몰되었던 장소가 평화의 댐 기초공사를 위해 물을 빼자 다시 드러나고 이곳에 선사시대 문화층이 발견됩니다. 「파로호」는 주인공 혜순이 그 장소를 찾아가며 이야기하는 다양한 ‘이주와 귀환’의 군상들이 기술되는 작품입니다. 선생님의 발표는 이를 ‘모빌리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파로호가 만들어질 때 국가의 강제 이주 명령에 고향 마을 떠난 노인, 교사직에서 영문도 모르고 해고당한 후 미국으로 이주한 혜순의 남편 병언, 미국에서 주말이면 병언과 혜순의 아파트로 모여들어 공짜 밥을 먹고 불평을 토로하는 다양한 이주 한국인들,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혼자 한국으로 돌아온 혜순 등 각양각색의 ‘이주’의 모습이 드러나는 「파로호」를 ‘모빌리티’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타당하고 의미 있는 작업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표문을 읽으면서 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주와 귀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발표는 서론에서 ‘모빌리티’를 공간과는 다른 개념이고, 기존의 디아스포라나 로컬과도 다른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어리를 인용하여 모빌리티를 ‘다양한 공간에서의 복합적 방식의 생활, 사회적인 문제의 탐색’으로 보며, 디아스포라는 이산 후의 정주, 로컬은 토착 지역민으로서의 정주로 규정합니다. 특히, 과거 유목민의 이주를 넓은 면적과 긴 시간을 담보한 정주로 규정하며, 일견 노마디즘과도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뉘앙스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현대인의 이주는 정주를 기대할 수 없는 이주의 순환이 연속되므로 희망이 없는 삶이고 결국은 죽음에 당도하게 된다.”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한 모빌리티의 개념으로 작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살짝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 발표의 마무리 문장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파로호의 모빌리티는 현재 진행형으로 가족들이 귀환하면 사회적 삶이 살아나서 혜순 가족의 정주가 이루어진다.” 서론에서 모빌리티를 궁극적인 정주가 불가능한 삶으로 정의 내리고, 작품 분석의 최종 마무리는 ‘정주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으니 과연 이 분석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과연 혜순이 ‘가족의 귀환’을 바라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작품 어디에서도 혜순이 ‘가족의 귀환’을 원하는 표현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발표자의 지나친 해석이 아닌지 조심하 말씀드려 봅니다. 특히, 혜순 이야기의 중심은 남편과 함께 간 미국에서(즉, 남편의 영문 모를 해고에 떠밀려 막연하게 새로운 삶을 찾아간 미국에서) 결국 정주하지 못하고 ‘소설을 쓴다’며(즉, 자신을 찾는다며) 한국으로 홀로 귀환한 혜순의 자기 발견하기로 보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혜순이 파로호에 수몰된 마을을 찾아가고 사람의 얼굴이 새겨진 차들을 마주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아 확인하기’(‘자아’라는 단어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발표문에 인용된 김병익의 주장을 인용하여)이지, 가족과 다시 만나는 것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부차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경계 넘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본 발표는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빌리티’가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엄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노마디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계’와 ‘너머’라는 노마디즘의 색깔이 많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가져온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발표자의 색다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해석의 문제를 살펴보면, 세 번째 장에서 병언의 호칭 문(Moon)으로 병언을 ‘문은 오고 가는 통로로 정주하지 않은 중간자를 의미하고, MOON은 낮에서는 생선가게에 숨어 있고 밤에만 나타나는 도피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굳이 영어로 본다면 ‘door는 ~~이고, moon은 ~~이다’가 됩니다. 병언의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병언을 문(moon)으로 부른다고, 굳이 괄호까지 치고 영어단어를 병기까지 해 둔 것은 성씨로서의 ‘문’과 주말 밤에 손님을 초대하는 ‘moon’을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door)으로까지 해석을 확장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기표의 미끄러짐에 의해 충분히 그러한 발상에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납득할 수 있는 가다듬은 표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굳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세 번째 장 앞부분에서 ‘파로호’의 의미를 병언과 혜순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부분의 문맥이 살짝 매끄럽지 못해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파로호’의 원 의미에서 ‘로(虜)’가 ‘오랑캐’로 한정되는데, 이것을 노략질(擄)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차라리 ‘오랑캐’로 한정하고, 한국 사회(병언)와 미국 사회(이민자), 그리고 가정(혜순)에서 오랑캐 취급 받는 다양한 인간 군상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더 어울리는 해석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어교육학 발표

사회자 : 장문정(성균관대)

- 발표 : 이경(서울과기대) 167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노력 연구
- 개인 교습 형태의 수업을 중심으로
- 토론 : 한하림(국립한밭대)

- 발표 : 조윤정(동서울대) 185
인도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발전 방향 연구
- KF 글로벌 e-스쿨 프로그램의 한국어 글쓰기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 토론 : 김보현(가천대)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노력 연구

- 개인 교습 형태의 수업을 중심으로 -

이경(서울과기대)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들이 수업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탐색함으로써 이들의 수업 전문성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사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어 교육 현장의 범위가 확대되고 한국어 학습자 변인이 다양화됨에 따라 한국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전문성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수업은 가르쳐야 할 내용과 학습자, 그리고 교사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시대와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 내용, 다양한 학습자 변인과 요구, 교사의 교육관과 교수법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갖춘 교사’에 대한 정의와 요건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수업의 중요한 주체인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교사 양성 과정(최은규, 2002; 강승혜, 2011; 육효창, 2019 등) 및 재교육 과정(이진경, 2012; 이선우·방성원, 2014; 방성원, 2016; 박민신·윤여탁, 2019 등), 비원어민 또는 현지 교원 대상 교육(김가람, 2015; 이수미, 2019; 이동은, 2023; 함계임, 2023)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교사 교육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매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다종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학생들과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사들에게는 “비일상적인 문제 상황에서 신속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며 빠르게 변화하여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적응적 전문성(adaptive expertise)’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이상훈, 2020:1300). 특히 국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비원어민 교사의 경우, 스스로가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 익숙하지 않은 교수·학습 맥락에 적응해야 하는 동시에 한국어 교실에 있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순간순간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가 수업 상황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의사결정 순간과 이에 따른 딜레마,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노력 등을 살핍으로써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이들의 전문성을 성장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비원어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전공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국내의 상황(김수은, 2021:36-37)을 돌아볼 때, 본고의 논의는 이들 교사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도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거나 졸업 후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어 교육 전공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어떠한 교수·학습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이인혜(2022)에서 비원어민 예비 교사의 경우, 개인 교습 형태, 즉 과외 수업 경력이 가장 많았음을 밝혔으며 이들이 예비 한국어 교사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이자 유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도출한 바 있다. 이렇듯 비원어민 전공생들이 향후 경험하게 될 교수 상황과 어려움을 살피는 것은 이들이 유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넘어 한 명의 교사로 준비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추수 지도 및 재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가 어떤 교수 경험을 겪고 있는지, 전문성이 어떠한 과정으로 향상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개인 교습 형태의 수업은 정해진 교육 내용이나 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목표 설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루는 내용과 그 범위, 교수 방법, 평가 등 교사 스스로가 전문성을 발휘해 수업을 설계하고 이끌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가 전문성 형성의 초기 단계에 가장 많이 경험하는 수업 형태라는 점, 수업의 전 단계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 교습 형태의 수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에 대한 인식

이 장에서는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살피고, 이에 대한 교사 스스로의 인식과 학생들의 인식을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비원어민 교사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혜현·김수은(2022:310)에서는 Medgyes(2001:433)의 정의를 참고하여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에 대한 정의를 아래의 네 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 . 한국어를 제2언어 혹은 외국어로 사용하는 사람
- . KFL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
- . 단일어 학습자 집단에게 가르치는 사람
- . 학습자와 동일한 모국어 화자

그러나 Medgyes(2001)에서도 이러한 정의는 특정 언어 사용 환경에서 일하는 비원어민 교사의 그룹에만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종종 이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질적인 언어 배경을 형성함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비원어민 교사의 수가 늘고 있으며 이들이 가르치는 학습자 역시 동일 국적에 제한되지만은 않는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태라(2020:20)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최근 국내에서 일부 대학과 교육 기관에서 비원어민 교원을 채용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이들이 학과 또는 교육 기관의 교강사로 근무하게 될 경우 자국의 학습자

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전체를 교육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2언어 또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점, 한국과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성장하여 한국어를 이해하거나 사용할 때 원어민 화자의 직관 및 발음²⁾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비원어민 교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원어민 교사의 정체성 및 어려움을 살피는 연구들에서는 이들 교사 집단이 스스로 원어민 화자에 비해 한국어 숙달도가 떨어진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교사로서의 삶을 지속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고, 교수 효능감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신은경, 2015; 이인혜, 2022; 강성가 외, 2023 등). 또한 학습자들의 인식 관련 연구에서도 비원어민 교사보다 원어민 교사를 선호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니콜라 프라스키니, 2010; 이인혜, 2018) 이와 같은 학습자의 선호 역시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의 자신감과 효능감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한 연구에서도 비원어민 교사가 가진 강점과 차별화된 역량이 분명히 존재함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원어민 교사는 한국어 사용 능력이 부족할 수는 있으나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 능숙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략을 전수할 수 있는 좋은 학습자 모델이 될 수 있다(Medgyes, 2001; 김가람, 2023). 또한 원어민과의 상호작용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학습자에게 '정리적 여과기'를 낮추는 역할을 하며(이인혜, 2018), 대조언어적인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교수를 할 수 있다는 점(최윤곤, 2010, 이해현, 김수은, 2022)에서도 장점이 있다. 이에 이해현, 김수은(2022:311)에서는 비원어민 한국어 교육 전공자들을 이중언어문화 및 학습 경험 등에 탁월한 장점을 가진 인재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³⁾

지금까지 선행 연구를 통해 비원어민 교사가 가진 특성과 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가 그러하듯, 비원어민 교사 역시 다양한 변인이 존재하므로 집단적인 특성을 넘어 개개인의 고유한 경험과 성찰, 이에 반영된 관점 등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원어민 교사들이 수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울이는 노력과 스스로에 대한 평가, 딜레마 등을 개별 수업의 맥락에 기반하여 질적으로 탐색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고는 비원어민 교사들이 경험하는 교수·학습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들여다보고 지원 및 교육이 필요한 지점을 찾을 것이며 나아가 비원어민 교사가 교사로서 성장해 가는 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수업 전문성에 대한 관점

교사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손승남, 2005:92). 교사의 역할 중 단연 중요한 영역은 수업이며, 수업에서 학생의 흥미를 높이

- 1) 김가람(2022)의 연구 대상자 중 한 명인 비원어민 교원의 경우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공 교과를 강의하고 있으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여러 학생들 나라의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지식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밝히고 있다.
- 2) 니콜라 프라스키니(2009)에서도 비원어민의 경우, 한국어 문법성 판단 및 사회문화적인 직관이 떨어지고 원어민 화자의 언어 능력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었음을 언급하였으며 강성가 외(2023)에서도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문법 판단 등에 있어 의식과 언어 직관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어민 교사의 개념에 한국어에 대한 직관을 포함한 바 있다.
- 3) 미국 대학의 학습자들이 '전문성을 갖춘 비원어민 교사에게 긍정적이었으며 원어민 여부보다는 한국어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했다는 이인혜(2018:249)의 연구 결과 역시 주목된다.

고 지식을 전수하며 학습을 촉진하는 것은 교사의 고유한 역할인 동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Elkind, 1976; 이상훈, 2020:1299에서 재인용).

이상훈(2020:1302-1303)에서는 수업이 다양성, 동시성, 즉시성, 비예측성, 공개성, 역사성 등의 특징을 가지는 문화적 속성을 지닌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수업을 잘한다’는 것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으며 교사의 ‘수업 전문성’ 역시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수업 전문성은 행동 중심, 지식 중심, 성찰 중심 등의 관점에서 정의되어 왔는데, 먼저 행동 중심 관점에서 수업 전문성을 살핀 연구는 교사가 수업 중에 하는 행동의 표준을 제시하며(‘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는지, 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는지’ 등) 이러한 표준적 행동을 잘 해내는 교사를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양하고 변동성이 큰 수업 맥락에서 교사의 행동이 늘 적절한 것은 아니며 교사의 행동에 따른 학생의 반응과 성취 결과 역시 일관적일 수 없다. 따라서 개별 수업의 특수한 상황을 배제한 교사의 행동만으로는 전문성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교사의 PCK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PCK 연구에서는 주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 영역과 하위 요소,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었으며 교사의 지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교사의 지식이 수업의 전문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점, 그보다는 이러한 지식을 수업 상황에 적절하게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이상훈, 2020)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⁴⁾

한편 교사의 전문성을 ‘역량’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기존의 교사 교육 및 교사 특성 관련 연구들이 교사의 지식과 기술이 구체적인 맥락 내에서 어떻게 선택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였음(김가람, 2023:176)을 지적하면서 “특정 영역에서의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을 넘어서 다양한 환경이나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의 총체”로서 역량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이미혜, 2019;정다운, 2019;김태라, 2020;이혜현.김수은, 2022; 김가람, 2023).

위와 같은 관점에서 교사의 역량은 정적인 것이 아닌 역동적이고 맥락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이혜현.김수은, 2022:323), 교사는 ‘성찰’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성찰적 관점에서 교사는 ‘모방하는’ 존재가 아닌 ‘성장하는’ 성찰적 실천가이며(이선영, 2018a) ‘지식의 적용자’가 아닌, 수행 상황에서 문제를 스스로 도출하고 자신의 앎을 성찰함으로써 기존의 앎을 개선해 나가는 ‘학습자’라고 할 수 있다(이상훈, 2020). Richards & Farrell(2005)에서는 성찰적 교사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기 점검, 저널 쓰기, 결정적 사건 분석하기, 티칭 포트폴리오 구축하기 등을 제시하였으며 그룹 단위에서 사례 연구와 수업 관찰, 교사 협력 그룹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상훈(2020)에서는 앞선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대안적 관점으로서 ‘적응적 전문성’을 제시하였다. 적응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반복적 전문가’와는 다른 특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즉 반복적 전문가가 과거의 오랜 경험과 통합된 지식 및 기술을 바탕으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사람이라면, 적응적 전문가는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변화하는 맥락에 효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변화무쌍한 상황에서도 탁월한 수행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정의된다(김동창, 2020:205).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적응적 전문가는 인지

4) 그러나 PCK를 제안한 Shulman(1987)이 수업 전문성에 대해 ‘구체적인 교과 내용을 상황이나 맥락에 맞추어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눈높이에서 변형하여 제시하는 실천 지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에 따르면, 이러한 지식 역시 단순하게 ‘아는 것의 목록’에 머무르지 않고 맥락에 맞게 실천하는 능력을 포괄하여 이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적 유연성과 메타 인지기술, 자기 규제 등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김동창, 2020:205) 새로운 상황에서 기존의 지식과 경험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례적인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이상훈, 2020:1314).

본고에서는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들에게 이러한 ‘적응적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적응적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제로서 교사의 ‘성찰’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심층 면담의 방식으로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들의 수업 경험과 딜레마, 전문성 및 수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⁵⁾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이를 통해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발전 과정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였거나 과정 중에 있는 비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비원어민 교사들의 기본적인 상황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단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비원어민 교사는 총 16명으로 30대 1명, 40대 이상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20대였으며 응답자 중 5명은 남자, 11명은 여자였다. 또한 베트남 국적이 6명, 중국 국적이 4명으로 많았으며 우즈베키스탄 국적이 2명,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캐나다가 각 1명씩이었다. 비원어민 교사의 대부분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으로, 12명이 6급, 3명이 5급이었고 캐나다 국적의 1명이 3급⁶⁾을 보유하고 있었다. 16명 중 2명(경영학 전공 1명, 국어학 전공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으며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평균 4년 6개월 정도였다⁷⁾.

응답자들의 수업 경력은 3개월에서 최장 5년 3개월 정도였으며 응답자마다 편차는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2년 이하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한국어 수업 경험의 유형을 묻는 질문에서 2명을 제외한 14명의 응답자가 개인 언어 수업을 해 봤다고 응답하였으며 국내 대학 교육기관(부설 어학교육원)에서의 교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회, 국내 사설 교육기관(학원, 유학원 등 사업자 등록된 기관)에서 수업을 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회 있었으며 해외 사설 교육기관에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회, 해외 대학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회 있었다. 또한 비원어민 교사들은 주로 하는 수업의 형태로 오프라인 대면 수업을 4명, 온라인 실시간 수업(Zoom, 웨비나 등)을 11명, 온라인 비실시간 수업(영상 업로드 등)을 1명이 선택하였다.

한편 비원어민들의 기본 상황과 인식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후에는 아래 7명을 대상으로 1차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일정이 맞지 않아 불참한 2명을 제외하고 총 5

5) 익숙하지 않은 상황, 예외적인 환경에 놓였을 때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들의 적응적 전문성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6) 해당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은 3급으로 높지 않았으나 한국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 되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최장 거주 기간은 10년 이상, 최단 거주 기간은 16개월이었다.

명의 교사가 그룹 면담에 참여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면담 참여자 정보

이름	국적	전공(학부/대학원)	학위 유형	한국어능력수준	개별 면담	그룹 면담
PH	베트남	한국어교육/한국어교육	석사 재학	6급	O(43분)	O
LW	대만	중국어교육/한국어교육	석사 재학	6급	O(33분)	O
AL	인도네시아	영문학/한국어교육	석사 재학	6급	O(31분)	O
SY	베트남	관광경영/한국어교육	석사 재학	5급	O(21분)	O
TH	베트남	한국어교육(미디어영상)	학부 졸업	6급	O(40분)	
DJ	우즈베키스탄	관광경영/한국어교육	석사 재학	6급	O(33분)	
YB	중국	경영학/한국어교육	석사 재학	6급	O(23분)	O

3.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비원어민 교사들의 경험 세계를 살피고 성장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질적 연구 중 근거이론 방법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비원어민 교사 교육과정의 개발 및 실행에 7년 이상 참여한 전문가이며 비원어민 교사들과 수업 또는 면담을 통해 지속적인 접촉을 해 왔기에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 Sensitivity)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최소화하고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삼각측정법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하나 이상의 출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쳤다. 즉, 본 연구는 비원어민 교사의 수업 경험과 전문성 향상의 노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기초 설문조사와 심층 개별 면담, 심층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응답 결과와 면담 녹화본, 면담 및 분석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 비원어민 교사가 개발한 자료 등 다양한 출처에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비원어민 교사에게 실시되었던 설문조사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2> 기초 설문조사 문항

범주	내용
기본 정보	· 성별, 연령대, 국적(모국어), 한국어능력수준, 전공,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 여부, 거주 경험
수업 경험	· 한국어 수업 경력, 수업 유형, 수업 형태(온/오프라인 등)
자신의 교수 행위에 대한 평가	· 나는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목표에 대해 안다, 나는 학습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 등 16개 문항(5점 척도)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 나는 수업의 효과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다, 나는 스스로의 한국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 7개 문항(5점 척도)
수업 시의 어려운 점	· 처음 수업을 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
비원어민 교사로서의 강점/약점	· 비원어민 교사로서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 · 비원어민 교사로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하고 있는 노력

이후 면담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교사 중 국적을 고려하여 총 7명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교원의 일대일 면담뿐만 아니라 연구자와 다수의 교원이 참여하는 그룹 면담 방식도 함께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상호 간에 수업 경험 및 사례를 공유하고,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성찰'하는 것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별 면담 과정에서 수업 자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경우, 교사가 사용하고 있거나 직접 개발한 수업 자료를 받아 살펴봄으로써 분석 자료를 다각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개별

면담과 그룹 면담은 모두 온라인 화상 플랫폼인 Zoom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개별 면담의 경우 한 교사당 30~40분 내외로, 그룹 면담은 70분 동안 진행하였다. Zoom을 통해 녹화된 내용은 STT 서비스인 클로바 노트를 통해 텍스트로 변환하였으며, 이후 연구자가 원 자료와 텍스트 파일을 비교하며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기초 설문조사 항목은 Jamovi의 기술통계 분석 기능을 통해 정리하였으며 면담 녹취록은 Nviv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질적 분석은 개방 코딩, 축 코딩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는데, 먼저 본 연구에서는 면담 녹취록을 줄 단위로 분석하여 비원어민 교사의 발화 중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코드를 부여하였다. 각 코드명은 교사 발화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의미 범주로 개념화하였으며 이렇게 개념화된 내용은 다시 대표성 있는 상위의 의미 범주로 재범주화하였는데, 이때에도 분석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머무르지 않도록 관련 문헌과 연구에서 유사한 내용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범주를 분류하거나 범주명을 작성하였다(유기웅 외, 2012:90).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전체 면담 내용에서 비원어민 교사들이 응답한 내용의 주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언급 횟수를 통해 그 중요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방 코딩 작업을 통해 총 205개의 코드가 입력되었으며 이후 코드들은 다시 51개의 소범주로 2차 범주화되었다. 3차 분류에서는 다시 11개의 의미 범주로 묶을 수 있었으며 최종 7개의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후 본 연구에서는 개방 코딩을 통해 생성된 의미 범주들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 코딩을 실시함으로써 비원어민 교사의 수업 경험이 어떻게 수업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이에 관여하는 중재 조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⁸⁾.

4. 연구 결과

4.1 비원어민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비원어민 교사들의 기본적인 수업 경험 및 교사로서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교수 행위에 대한 성찰,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비원어민 교사로서의 강점/약점에 대한 문항의 기술 통계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⁹⁾.

-
- 8) Strauss & Cobin(2001)의 근거이론 방법에서는 패러다임 틀에 따라 중심 범주에 다른 범주를 연관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패러다임 틀에는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행위/상호작용, 그리고 결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을 확인하고 묘사하는 과정이 축 코딩의 핵심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유기웅 외, 2012:94)
- 9) 1-3은 수업 목표에 대한 지식 및 이해, 4-5는 한국어 지식을 활용한 교육 내용 구성, 6-7은 학습자 중심 교육 내용 구성, 8-11은 교육 목표 및 맥락을 고려한 교육 방법 활용, 12-13은 학습자 참여도 및 흥미도 제고 전략, 14-15는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소통 창구 마련, 16은 학습자 평가 실행에 관련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0.942$ 로 나타났다.

<표 3> 자신의 교수 행위에 대한 평가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Min	Max
1. 나는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목표에 대해 안다.	16	4.25	0.856	2	5
2. 나는 학습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	16	4.44	0.629	3	5
3. 나는 학습자의 한국어 지식을 신장시키기 위해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	16	4.44	0.814	3	5
4. 나는 한국어 체계를 생각하며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	16	4.19	0.981	2	5
5. 나는 한국어 의사소통 기능의 영역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	16	4.31	0.704	3	5
6. 나는 학습자의 특성(모국어,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	16	4.44	0.629	3	5
7. 나는 학습자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	16	4.25	0.683	3	5
8. 나는 한국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한다.	16	4.06	1.181	1	5
9. 나는 교육 내용에 적절한 교육 방법을 활용한다.	16	4.00	1.211	1	5
10. 나는 학습자의 특성(모국어, 학습 환경)에 적절한 교육 방법을 활용한다.	16	4.25	0.775	3	5
11. 나는 내가 주로 하는 수업의 형태(온라인, 오프라인)에 적절한 교수 방법을 활용한다.	16	4.25	0.775	3	5
12. 나는 학습자의 참여도를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활용한다.	16	4.38	0.719	3	5
13. 나는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높이기 위한 방법과 전략을 활용한다.	16	4.25	0.931	3	5
14. 나는 학습자의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제공한다.	16	4.19	0.834	3	5
15. 나는 학습자와 수업 시간 외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메일, 카톡 등)을 마련한다.	16	4.25	1.125	1	5
16. 나는 학습자의 성취 정도를 확인한다.	16	4.44	0.892	2	5

위 항목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에 대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은 전체 항목에서 ‘자주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보였는데, 특히 교육 내용 구성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지식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는 항목, 학습자의 성취 정도를 확인한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교수법과 관련한 항목, 즉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한다, 교육 내용에 적절한 교육 방법을 활용한다’의 두 개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표 4>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Min	Max
1. 나는 수업의 효과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다.	16	4.31	0.793	3	5
2. 나는 스스로의 한국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공부한다.	16	4.63	0.806	2	5
3. 나는 한국어 교수법에 대해 공부한다.	16	4.19	1.047	2	5
4. 나는 한국어 수업을 잘하기 위해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듣거나 조언을 듣는다.	16	3.81	1.167	2	5
5. 나는 한국어 수업을 잘하기 위해 책이나 논문을 찾아본다.	16	4.00	1.265	1	5
6. 나는 한국어 수업을 잘하기 위해 다른 교사의 수업을 참고한다.	16	4.38	0.885	2	5
7. 나는 다른 교사들과 수업에 대해 이야기한다.	16	3.81	1.276	1	5

한편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비영어권 교사들은 ‘스스로의 한국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공부한다’는 응답에 가장 높게 반응하였다. 이는 수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이 중요하며, 비영어권 교사로서 이러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음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나는 수업을 잘하기 위해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듣거나 조언을 듣는다’, ‘나는 다른 교사들과 수업에 대해 이야기한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였는데, 이는 비영어권 교사가 주로 하고 있는 수업의 형태가 개인 교습이므로,

가르칠 내용과 교수 방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함께 수업을 하는 동료 교사들과 논의하기 어려운 맥락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비원어민 교사로서 가지는 장점

[그림 2] 비원어민 교사로서 가지는 단점

또한 비원어민 교사들은 비원어민 교사로서 갖는 장점으로 ‘학습자 특성에 맞는 수업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10명, 62.5%). 반면 단점을 묻는 질문에서 비원어민 교사들은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7명, 43.8%). 또한 ‘교육 목표에 맞는 수업 내용 구성’의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을 보였다(4명, 25%).

정리하자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원어민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이 한국어 수업 목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추고 있다고 보았으며,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학습자의 성취 정도를 평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았다. 반면 교육 내용에 맞는 다양하고 적절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이후 교수법 지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비원어민 교사로서의 장단점을 묻는 질문에서 교사들은 학습자 특성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았으나,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4.2 비원어민 교사 대상 면담 결과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원어민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아래와 같은 의미 범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면담의 내용에서 가장 많이 도출된 내용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47개, 22.9%)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40개, 19.5%), ‘비원어민 교사로서의 장점’(32개, 15.6%) 순으로 나타났다.¹⁰⁾

10) 연구 참여자별로 도출된 코드의 수를 나눠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LW, PH를 비롯하여 AL, DJ의 경우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에 대한 언급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TH와 SY는 비원어민 교사로서의 장단점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다. 또 YB의 경우, 수업 전문성 요소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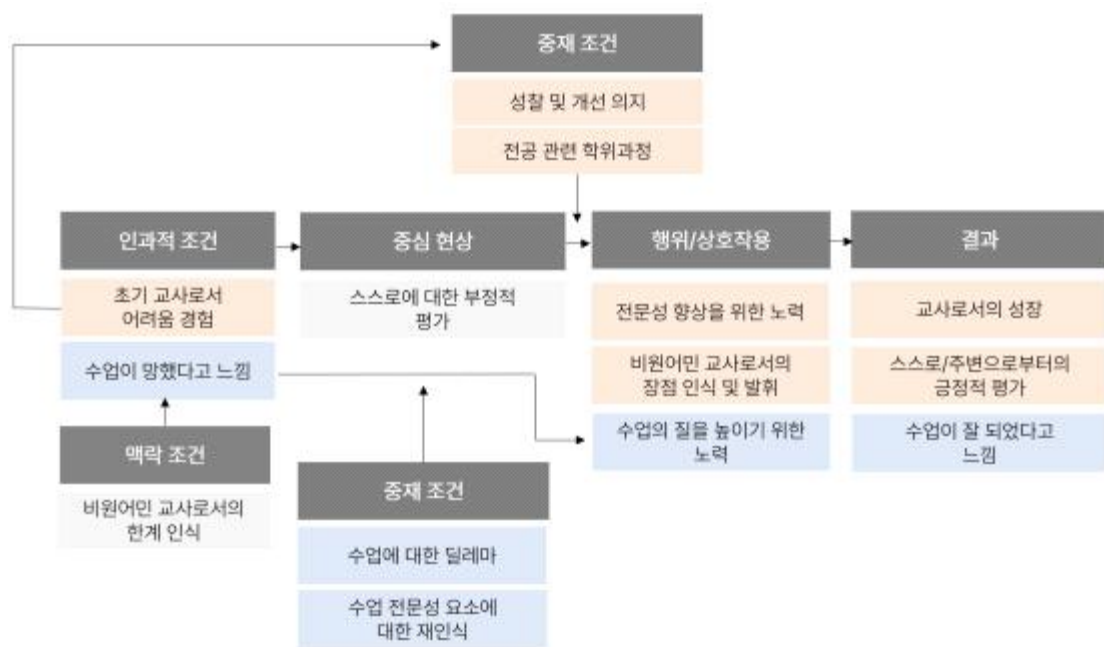
<표 5> 면담 내용 코딩 결과

1차로 입력된 코드		2차 범주화		3차 범주화
모국어와 한국어 사용 비중	2	수업에서의 딜레마	5 (2.4%)	① 교사로서의 고민 (5, 1.5%)
교사의 권위에 대한 고민	2			
학습자의 시선과 평가	1			
수업 여건 마련에 어려움	1	처음 교사로서 어려웠던 점	8 (3.9%)	② 교사로서의 성장 (22, 10.7%)
자신감 부족	1			
교수법에 대한 지식 부족	3			
학습자에 맞는 수업 내용 구성이 어려움	2			
준비했던 것과 다른 결과에 실망	1			
수업 내용이 보다 전문적으로	2	교사로서 발전되었다고 느끼는 점	14 (6.8%)	
매끄러워진 수업 운영과 진행	4			
학습자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능력	2			
수업에서 한국어 사용 비중이 높아짐	3			
학생들 질문에도 능숙하게 대처	1			
학습자가 아닌 교사로서 생각하게 됨	2	교사로서 받거나 느끼는 긍정적 평가	6 (2.9%)	③ 교사로서 스스로 느끼는 평가 (14, 6.8%)
한국어교육 전공자로서의 차별성	2			
교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전문성	1			
학생들로부터 받은 긍정적 피드백	3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평가	8 (3.9%)	
여전히 발전 단계에 있는 미숙한 교사	7			
원어민 교사와 비교되는 전문성	1	비원어민 교사로서의 단점	15 (7.2%)	④ 비원어민 교사로서의 장단점 (47, 22.7%)
한국어 사용에 대한 확신 부족	8			
고급 학습자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부담	4			
비원어민 교사에 대한 불신	2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 할애	1			
모국어로 효율적 설명 가능	7	비원어민 교사로서의 장점	32 (15.5%)	
학습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 가능	8			
롤모델의 역할	2			
효과적이었던 방식을 수업에 적용	6			
이중언어 사용자	1			
학습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	8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40 (19.3%)	⑤ 수업 전문성에 대한 생각과 수반 노력 (54, 26.1%)
배운 지식을 통해 수업 성찰 및 반영	17			
한국어 지식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	4			
원어민과의 협력, 소통	11			
비원어민 교사 간의 소통 및 모델링	2			
한국어 교육 관련 지식 및 기술 함양(학위)	6	수업 전문성 요소에 대한 생각	14 (6.8%)	
한국어 지식	5			
수업 기술	2			
학습자에 대한 이해	3			
컨디션 관리	1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 보유	1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	47 (22.7%)	⑥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 (47, 22.7%)
자격증 보유	1			
수업 분위기 조성	1			
사전 준비를 철저히	7			
학습자를 고려한 수업 내용 구성	8			
학습자의 성취도를 높이는 수업 방식 고안	17	수업이 망했다고 느낄 때	15 (7.2%)	⑦ 좋은 수업과 망한 수업 (18, 8.7%)
학습자의 집중도와 참여도 제고 노력	14			
학습자 상담	1			
수업이 잘 안되었다고 느끼는 이유	6			
예측하지 않은 돌발 상황	4			
수업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수업 내용 개선	1	수업이 잘 되었다고 느낄 때	3 (1.4%)	
학생들이 집중하지 못할 때 흥미 요소 포함	2			
수업을 따라오지 못할 때 난이도 조정	2			
수업이 잘 진행되었다고 느끼는 순간들	3			
총계	207			

비원어민 교사들이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으로는 ‘학습자의 성취도를 높이

는 수업 방식 고안', '학습자의 집중도와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다수 언급되었는데, 이중 '학습자의 성취도를 높이는 수업 방식'으로는 '과제 부여하기,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문법이나 내용과는 차별화, 사전에 어휘 목록 제공, 유의미한 활동 위주의 진행, 효과적인 평가 방식, 체계적인 수업 시스템 마련(상담→수업)'과 같은 내용이 나타났다.

또한 개방 코딩을 통해 도출된 요인들을 토대로 축 코딩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 3] 비원어민 교사의 전문성 향상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먼저 비원어민 교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거나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 근데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냥 과외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D)
- 아직 그럼 그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졸업도 안 했고 너무 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SY)
- 장점은요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인 선생님보다 비교 안 된 것 같아요. (TH)

이러한 중심 현상이 나타나게 된 맥락에는 이들이 '비원어민 교사'라는 특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존재하며 나아가 교수 경험의 초기 단계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인해 이러한 중심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처음에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자료를 찾는 게 좀 어려웠어요. (AL)
- 수업하는 그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아직 전문가

	A:AL	B:DU	C:LW	D:PH	E:SY	F:TH	G:YB
1: 교사로서 느낀 것	1	0	1	0	0	0	1
2: 교사로서 스스로	1	3	2	1	2	2	0
3: 교사로서의 성장	4	4	2	3	2	3	1
4: 비원어민 교사로서	3	4	1	1	4	1	3
5: 수업 전문성 요소	4	4	3	1	3	5	6
6: 수업의 질을 향상	5	5	10	10	2	2	5
7: 좋은 수업과 칭찬	1	0	1	1	1	1	2

도 아니고 저도 이제 배우고 있는데 초급이라도 그래도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DJ)
 . 처음에 저도 한국말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초급 단계 가르치는 게 별거 아니에요. 어려운 점이 아마 없을 거예요라고 생각했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와, 이런 거 어떻게 설명, 학생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SY)
 . 한국말을 잘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그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뭐지 교수법 교수법이라고 하는 거죠. 교수법을 제일 힘들어 했을 것 같아요. 그때. (TH)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비원어민 교사들은 이와 같은 중심 현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나 상호작용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즉, 중심 현상인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변화시키는 중재적 조건에는 ‘㉔개선을 위한 의지와 실행력’, 그리고 ‘㉕전공 관련 학위 과정에의 진입’ 등의 조건이 존재했다.

. 저의 모든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정해놓고 따라하게 했지만 논문 같은 거 읽어보니까 수업 이렇게 하면 재밌구나 또 요즘에 뭐 또 많이 반영해야 하구나 이런 거는 다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㉔개선 필요성 발견_PH)
 . 저희 학과에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고 교원 자격증이 나오는 그런 수업들을 듣고 있고 교수법 수업을 듣고 (중략) 이번에 그 실습 수업에서도 잠깐 수업을 하고 고려대 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㉕전공 관련 학위 과정에의 진입_DJ)
 . 전공 교육을 들으면서 도입 부분의 중요성을 깨달았는데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이거 같이 복사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중략) 그때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걸 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㉕전공 관련 학위 과정에의 진입_YB)

이러한 중재 조건을 통해 비원어민 교사들은 ‘비원어민 교사로서의 장점을 인식하고 이를 발휘’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개선해 나가고 있었으며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거나 배운 지식을 수업에 반영하는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었다. 이들이 언급하고 있는 ‘비원어민 교사로서의 장점’으로는 ㉔모국어로 효율적 설명 가능, ㉕학습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 가능, ㉖롤모델로서의 역할, ㉗학습에 효과적이었던 방식을 수업에 적용, ㉘이중언어에 대한 지식, ㉙학습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도출되었다.

. 수업을 ○○어를 알려주고 그러면 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래도 초급 수준에서는 제가 이제 러시아어로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 학습자들이 이제 불안감이나 그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빨리 이해하고. (㉔모국어로 효율적 교수 가능_DJ)
 . 비원어민 교사로서의 장점은 일단 학생들과 같은 언어 배움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겪은 어려움을 학생들도 겪고 있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㉕학습자로서의 경험 공유_LW)
 . 나도 그런 예전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극복했다 이런 거를 조언해 주고(㉖롤모델로서의 역할_PH)
 . 저는 제가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기억에 잘 남는 방법을 생각해서 그때 학생한테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㉗효과적이었던 방식을 수업에 적용_YB)
 . 그 학생이 이제 ◆◆어 하고 한국어 둘 다 잘 못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두 개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 한국어를 모르면 중국어라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하나씩 하나씩. (㉘이중언어에 대한 지식_YB)
 . 선생님처럼 친구처럼 근무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수업 중에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학생이 저를 선생님이로 호칭하지 않고 ○○어로 그냥 나이가 더 많을 때 그런 오빠 그런 거 불러요.(㉙학습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_SY)

또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비원어민 교사들의 노력은 ‘㉚배운 지식을 통해 스스로의 수업을 성찰하고 이를 다시 수업에 반영’하려고 하거나 ‘㉛발음, 어휘 등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향상’하고 ‘㉜교육 관련 지식 및 기술을 함양’하려는 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 . 예전에 정서적인 요인 관련해서 논문을 많이 찾아와서 읽었더니 학습자가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수업에 많이 차지하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하구나.(㉔수업 성찰 및 적용_PH)
- . 한국어 교수법 같은 거 배우고 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스키마를 활성화시키고 나서 본인이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다 본인이 추측하게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이제 중국어 가르칠 때도 단어의 뜻을 먼저 가르쳐주지 않고 그 맥락에서 스스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있고(㉔수업 성찰 및 적용_YB)
- . 저 발음 많이 연습하고 있죠. 발음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 학생한테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한테도 다른 나라 학생한테도 가르쳐준 애가 만약에 발음 제대로 하지 못하면 비교가 될 거잖아요.(㉕발음 등 한국어 지식 향상_TH)
- . 네 우선 저는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전문 지식이 한국인 교사를 비해서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런 지식 최대한 이제 많이 배울 수 있게 노력하고 있고 △△어도 사실 △△인이라고는 하지만 △△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거든요. (중략) 한국어하고 △△어 다 지금 어학 지식을 많이 배우고 있고(㉕ 발음 등 한국어 지식 향상_YB)
- . 저는 일단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배경 지식 아니면 전문 지식이라든지 쌓고 있어요.(㉕교육 관련 지식 및 기술 함양_LW)

또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㉔사회적 관계 및 자원을 활용’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특히 다른 비원어민 또는 원어민 교사의 수업을 참고하면서 문법 가르치는 방식, 최신 정보 등을 살펴본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단지 정확성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원어민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참고하기 위해 원어민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언급도 나타났다.

- . 만약에 어떤 문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저도 100% 이 문법을 이해하고 못하거나 어떤 어떨 때 쓰는 거를 더 알고 싶을 때는 다른 교사들이 수업을 한 거 있잖아요. K-MOOC이구나 거기나 아니면 세종학당이나 아니면 유튜브 보드 보고 이런 식으로 찾아 보고 있어요.(㉔사회적 관계 및 자원 활용_DJ)
- . 가끔 가끔 그래요. 일단 한국어 모르는 척 그리고 과외 사이트 들어가서 다른 인기 강사들의 수업을 가끔 들어요. 지금 최신 정보를 얻으려고 이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거 저도 그냥 가끔 해요.(㉔사회적 관계 및 자원 활용_LW)
- . 저는 원어민 친구에게 많이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지 틀린지 또 예전에는 맞게 쓰는 거를 목표였지만 요즘은 멋있게 쓰는 욕구가 많이 생겨서 너가 그런 이럴 때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많이 물어보고 조언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㉔사회적 관계 및 자원 활용_PH)

특히 수업이 문화적 활동임을 감안할 때, 비원어민 교사의 경우 학습자의 교수.학습 맥락과의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신이 경험한 언어권에서의 수업 방식이 아니라, 한국에서 새롭게 형성한 학습 경험을 교수 행위로 전이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 .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공부했을 때 제가 제일 부족했던 거는 말하기였거든요. 저희 이제 문법만 배우고 그냥 번역하고 그런 식으로 문법 번역식 교수법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중략) 그래서 말하기를 그래도 다 처음부터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말하기를 그래도 위주로 의사소통 중심으로 하고 있고(DJ)
- . 제가 처음에는 약간 ○○에서는 뭐지 스크린 컴퓨터 스크린 같은 거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그거 PPT 잘 만들어서 그거 통해서 강의하는 것을 배웠어요. ○○에서 그냥 칠판에 글을 써서 하는 건데 아마 그거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TH)

한편 교사들의 이러한 노력은 수업 장면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수업이 망했다’고 느꼈을 때, 비원어민 교사들은 수업 내용을 개선하거나 난이도를 조정하고, 수업에 흥미 요소를 포함시키는 등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 . 제가 한국어를 가르쳤을 때 아무래도 한국어 저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문법을 찾을 때 정확한 차이점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학습자가 이 부분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물어보면 아니면 예상치 못한 범위를 넘어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만약에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되게 수업을 망했다라는 생각도 들고.(LW)
- . 학습자의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리고 점점 눈빛이 눈빛 달라졌을 때 처음에는 되게 눈을 떠서 흥

미롭게 듣고 있는데 점점 단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집중 학습자 집중이 안 될 때 (중략) 수업 내용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게 가면 안 되고 또 너무 쉽게 가면 안 되니까? 그 균형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수업 질 향상을 위한 노력_PH)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바탕에는 수업에 대한 딜레마 경험, 그리고 수업 전문성 요소에 대한 재인식 과정이 존재했다. 교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치가 충돌하고 갈등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때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이를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자칫 교사의 수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경험이 적은 교사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보완해 갈 경우 오히려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진용성.장은섭, 2019:527-528). 본 연구의 면담에 참여한 비원어민 교사들도 수업 과정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성장 동력이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 . 근데 문제는 근데 문제는 이게 제가 초급 학습자에게 한국어로 설명해야 될지 아니면 모국어로 설명해야 될지 좀 가끔 고민이에요.(한국어 사용 비중에 대한 딜레마_AL)
- . 일단 만약에 저는 모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중략) 오늘 배우는 범위 범위가 아니라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왜냐면 어떻게 보면 교사의 전문성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교사의 권위에 대한 딜레마_LW)
- . 제가 한국어 어학당은 3개월 동안 다녔는데 영어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시다 보니까 학생이 느슨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교사의 권위에 대한 딜레마_PH)
- . (제 친구가) 선생님 발음이 너무 ○○ 사람 같아 그런 피드백을 얻었어요. (중략) 그래서 저도 이런 학생도 있구나. 그래서 저도 무서워요. 빨리 빠르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어요. (학생의 인식 및 평가에 대한 딜레마_LW)

또한 비원어민 교사들은 수업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성취도를 높이는 수업 방식을 고안’하는 등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었다. 특히 교사 중심의 지식을 학습자 중심의 지식으로 전환해 나가며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활동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의 전환은 비원어민 교사들의 수업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더욱 체계를 갖추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 . 수업하기 전에 항상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가르칠 수 있는데 (중략) 수업하기 전에 오늘 이 문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 문법에 대해서 더 찾아보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㉗철저한 수업 준비_DJ)
- .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담 1대 1로 상담을 해요. 일단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 아니면 학습 동기 목표, 관심 분야 그거 모두 다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수업 내용과 주제를 정해요.(㉘학습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내용 구성_LW)
- . 어휘는 제가 미리 줍니다. (중략) 그래야 수업은 효율적으로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어휘를 미리 준비해서 학습자에게 줍니다.(㉙학습자의 성취도를 높이는 수업 방식 구안_자료 제공_PH)
- . 저희가 하는 수업은 흥미를 많이 이끌어야 하고 이 수업의 가치를 느껴야 애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 단순한 형태 연습 문제라든지 또 너무 쉬운 연습 문제는 최대한 빼고 하고 있습니다. (중략) 연습 활동도 최대한 쉽지는 않은 연습 활동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㉚학습자의 성취도를 높이는 수업 방식 구안_연습 활동_PH)
- . 무조건 먼저 어휘하고 문법부터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뭐지 문장을 많이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문장은 아니고 실제로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문장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중략) 학생 다 쓰고 나서 저한테 보내주고 그거 체크 다시 체크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하고 네, 과제처럼.(㉛학습자의 성취도를 높이는 수업 방식 구안_과제 활동_TH)
- . 저는 평가 마지막 시험 때 예전에는 말하기 시험 때 말하기 시험 때 그냥 이렇게 왓츠앱으로 진행했거든요. 저는 약간 레코드 보이스 레코드 네 근데 그거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말하기 시험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진행하게 됐어요.(㉜학습자의 성취도를 높이는 수업 방식 구안_평가_AL)

Parsons et al.(2018)에 따르면, 학생의 학습이나 이해, 학생의 동기나 흥미, 학생의 행동 등의 요소가 교사로 하여금 적응적 수업을 수행하게 하는 선행 요인이 될 수 있는데(이상훈, 2020:1316), 본 연구에 참여한 비원어민 교사 역시 수업에 대한 학생의 요구, 이해 정도, 집중도와 흥미 등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이에 맞게 수업을 개선하고 조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러한 중재 조건들을 통해 교사가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때 비원어민 교사들은 ‘㉔교사로서 발전된 점을 발견’하였고, ‘㉕스스로와 주변으로부터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㉖수업이 잘 되었다’고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 . 수업도 생각보다 더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2시간 동안 수업하는데 하다가 이거 다음에 뭐 하지 시간이 부족할 때도 많았고 아니면은 너무 많이 준비해서 부담을 줄 때가 많았지만 (중략)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㉔교사로서 발전된 모습_PH)
- . 경험을 쌓이면서 학생들의 학습 문제점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이제는 학습자의 입장을 보면 학습자의 필요와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의 학습 과정 중에서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요.(㉔교사로서 발전된 모습_LW)
- . 한국어로 한국어를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편해졌고 그리고 이제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학생의 한국어 실력도 늘고 저의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다고요.(㉕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_YB)
- . 저는 학생들이 질문들을 잘 대답할 때 저는 수업 잘했다 오늘 수업 잘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㉖성공적인 수업 경험_AL)
- . 학생들을 오늘 학습 목표를 이해하면 그 수업을 잘 된다는 것이고(㉖성공적인 수업 경험_BY)
- . 저는 수업을 하면서 학습자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제가 미리 계획한 거 대부분 계획한 거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가르친 거랑 알려준 거는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도 있고 (중략) 학습자가 대답할 때는 오늘 수업이 되게 좋은 것 같다고(㉖성공적인 수업 경험_PH)

지금까지 비원어민 교사의 수업 경험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살펴보았다. 비원어민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비원어민 교사들은 여러 어려움과 한계에 봉착하며 교사로서의 자신이 ‘미숙하고 비전문가’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며 자신의 수업이 원어민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게 된다. 그러나 비원어민 교사는 이러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수업에서 맞닥뜨리는 딜레마 상황에서 교사로서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한 선택을 해 나가며 ‘전문성을 가진 수업’에 대한 새로운 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는 ‘수업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행해 나가며’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또한 비원어민 교사들은 자신만이 가진 장점을 인식하고 이를 수업에서 발휘해 나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비원어민 교사는 ‘교사로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며 성장하게 되고, 점차 자신의 전문성과 수업 운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다. 특히 수업의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학습자’ 중심으로 평가하는 교사들의 언급에서, 비원어민 교사들의 초점이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나’, ‘학생들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나’에서 학생으로 향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사로서 성장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5. 결론

(생략)

<참고 문헌>

- 강성가.김여진.김호정(2023), 원어민 교사와 비원어민 교사의 한국어(KSL) 수업의 어려움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52집.
- 강승혜(2011), 한국어 교사, 학습자 관련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687-712.
- 김가람(2015),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교원에 대한 인식 연구: 북경 지역 학습자를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3,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19.
- 김가람(2023),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의 '교사 역량' 탐색 연구: 국내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새국어교육 134, 한국국어교육학회, 171-204.
- 김동창(2020), 전문성 개념, 유형과 도덕 전문성, 윤리교육연구 55, 한국윤리교육학회, 195-221.
- 김수은(2022), 외국인 유학생의 수강 실태 파악을 통한 한국어교육 전공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광주·전남 지역 소재 한국어교육학 전공 학부생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8(4),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49-72.
- 김태라(2020), 한국어 교사의 핵심 역량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전공자의 인식 연구: 원어민과 비원어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민신.윤여탁(2019), 한국어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재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향: 온라인 한국어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6),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329-349.
- 방성원(2016), 한국어 교사 재교육의 쟁점과 과제, 한국어 교육 2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79-103.
- 손승남(2005), 교사의 수업 전문성 관점에서 본 교사교육의 발전 방향, 한국교원교육연구 22(1), 한국교원교육학회, 89-108.
- 신은경(2015), 한국어 원어민 교사와 비원어민 교사의 PCK 실증적 비교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3,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35-160.
-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스토리.
- 육효창(2019), 온라인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의 현황과 과제: 학위과정의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의 질 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6(2), 국제한국어언어문화학회, 199-229.
- 이동은(2023), 국외 한국어교원을 위한 보수교육 과정 연구, 한글 84(2), 한글학회, 601-630.
- 이상훈(2020), 수업전문성 연구의 대안적 관점: 적응적 전문성,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7),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299-1327.
- 이선영(2018), 한국어 경력교사 대상 요구조사를 통한 성찰적 교사교육 방안 모색: 수업 전문성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09-137.
- 이선우.방성원(2014),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정규 학교 한국어 교사의 요구 분석, 국어국문학 167, 국어국문학회, 65-102.
- 이수미(2019), 베트남인 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한국어교육 경험에 대한 연구, 교사교육연구 58(3), 과학교육연구소, 311-324.
- 이인혜(2018), 국외 한국어 교사의 자질에 대한 학습자 인식 연구: 미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72, 이중언어학회, 221-253.
- 이인혜(2022), 비원어민 예비 한국어 교사의 교사 정체성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4,

-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95-125.
- 이혜현.김수은(2022),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의 핵심 역량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 교육* 33(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01-327.
- 이진경(2012), 한국어 교사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 *인문학연구* 89,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31-152.
- 진용성.장은섭(2019), 예비 국어교사의 수업 전문성 '성장과 딜레마'에 관한 사례연구, *리터러시 연구* 10(3), 한국리터러시학회, 521-268.
- 최윤곤(2010),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의 현황과 역할: 중국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5,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87-206.
- 최은규(2002),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사 재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안 연구, *어문연구* 41(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43-475.
- 프라스키니 니콜라(2009), 한국어 비원어민 교사 정체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프라스키니 니콜라(2010), 한국어 비원어민 교사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이중언어학* 43, 이중언어학회, 345-370.
- Medgyes, P.(2001), When the teacher is a non-native speaker,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3, 429-442.
- Parsons, S. A., Vaughn, M., Scales, R. Q., Gallagher, M. A., Parsons, A. W., Davis, S. G., Pierczynski, M., & Allen, M. (2018). Teachers' Instructional Adaptations: A Research Synthesi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88(2), 205-242.
- Shulman, L. S. (1987). Knowledge and teaching: Foundations of the new reform. *Harvard Educational Review*, 57(1), 1-22.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노력 연구 - 개인 교습 형태의 수업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한하림(국립한밭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외국인 유학생 확대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국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내재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교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학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방안을 심도 있게 고찰한 이 연구는 대학 내 한국어 교육이 당면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상학적 기술에 그치지 않고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통하여 비원어민 교사의 자기 경험을 밀도 있게 분석하고 있어, 연구 결과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이 연구가 비원어민 교사라는 연구 주제의 담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 학습자의 성취 정도를 확인한다’는 항목의 응답 값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온 반면, 교수 방법에 대한 인식 부분은 낮게 나온 점이었습니다. 반면, 설문에 응한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들은 교수 방법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으로 나왔는데, 혹시 이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에 대해 짐작하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다음은 심층 면접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패러다임 모형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림 3]을 보면 사각형 박스 안의 색이 각기 다릅니다. 색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듯한데 이에 대해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또한 ‘맥락 조건’과 ‘중재 조건’, ‘인과적 조건’의 경우,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한 배경 혹은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듯한데 이 세 가지 조건을 구분하기 위해 적용하였던 변별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주제의 확장 및 후속 연구 주제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층 면담의 내용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에게 ‘성찰’은 교사로서의 잠재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성장 기제가 아닐까 합니다.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의 ‘성찰 과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 [그림 3]과 별도로 성찰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도식화하거나 추가 조사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또한 설문조사를 예비 원어민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도 시행하여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와 응답 결과를 비교하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후속 연구로 원어민 교사와 비원어민 교사의 인식 차이와 같은 연구 주제를 다룰 의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 교육에 대한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라며 양질의 발표를 해 주신 발표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도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발전 방향 연구

- KF 글로벌 e-스쿨 프로그램의 한국어 글쓰기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

조윤정(동서울대)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3. '중급 한국어 글쓰기 1' 수업 설계
4. '중급 한국어 글쓰기 1' 수업 사례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 한국어 글쓰기 수업 사례를 통해 인도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인도 마니푸르대학의 한국어과 2학년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¹⁾. 전공 과목 중에서 중급 한국어 글쓰기 강좌를 KF 글로벌 e-스쿨(KF Global e-school)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수업 형태는 ZOOM을 통해 학생들이 교실에서 칠판 앞의 빔을 보면서 수업을 듣는 실시간 온라인 원격 화상 수업이다.

인도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은 1970년대부터이다²⁾. 한국어교육이 일찍이 시작되었으나, 한국 및 한국어에 대한 인도의 대중적인 관심이나 한국어교육 연구는 비교적 늦은 편이다. 최근 들어 인도의 제2외국어 정책³⁾과 한국의 신남방정책⁴⁾ 그리고 뒤늦게 일어난 한류의 열풍이 맞물리면서 현재 인도에서는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고(응아이테 랑칸쿵, 2021;

1) 이 연구에서의 강좌는 2022년 9월학기에 중앙대학교와 인도의 마니푸르대학교가 MOU를 체결하여 시작한 KF 글로벌 e-스쿨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것이다. 2022년 9월학기에 수강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3년 3월학기에도 수업을 운영하였으나, 지역 분쟁 문제로 인해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겼고, 중도 학업 포기자들도 생겨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집에서 ZOOM을 통해 수업에 참석한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운영했고, 결석한 학생들에게는 녹화 영상을 따로 공유하여 자습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2023년 9월학기에는 새로운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과목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2023년 3월학기의 여파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 연구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었으므로 연구의 대상을 2022년 9월학기 수업으로 한다.

2) 응아이테 랑칸쿵(2021:1)에 의하면 인도에서의 한국어교육은 1976년 네루대학교(Jawaharlal Nehru University) 아프리카 및 아시아학과에서 교양 과정으로 시작되었고, 이어 1995년에 전공과목으로 승격, 1998년부터 석사 과정이 개설되었다고 한다.

3) 2020년 인도의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교육 정책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편성하고, 제2외국어로 제시한 8개 언어(한국어, 일본어, 태국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중 가장 앞에 제시를 하여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응아이테 랑칸쿵, 2021).

4) 2018년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국가들(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 세계 공동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 핵심 외교정책의 패러다임이다(출처: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http://webarchives.pa.go.kr/19th/www.nsp.go.kr/kor/policy/policy2.do>).

허예인, 조현용, 2021),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윤주(2021:2626)에서는 인도에서의 한국어교육은 매우 큰 변화의 기점에서 있다고 하면서 이 분야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인도에서의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되었는지를 논한 김윤주(2021:2627)는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초를 한국어 학습과 한국학 연구자들의 배출 시작의 시기로 보았다. 또한 2000년대 대학 중심의 교육기관이 증가하고 2010년대부터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다가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 과정을 설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김윤주, 2021:2628).

최근 들어 인도에 개설된 세종학당의 수⁵⁾만 보아도 인도에서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인도에서의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다른 언어권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며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응아이테 랑칸쿱, 2021:7). 따라서 인도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온라인 교육, 실시간 원격 화상 수업과 같은 용어가 낯설지 않으나 COVID-19 시대를 거치는 동안 한국어교육의 현장에서는 혼동과 혼란을 겪었고 대변혁이 일어났다. 그러한 시기에 KF 글로벌 e-스쿨 프로그램⁶⁾은 이미 이전부터 온라인 체계의 콘텐츠와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간 원격 수업을 운영해 왔기에 팬데믹 시기라 해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고, 국가 간 이동이 쉽지 않았던 때에 더욱 주목을 받았다⁷⁾. KF e-스쿨은 ‘한국학 강좌운영’, ‘한국 전문가 육성’, ‘KF 글로벌 e-스쿨 프로그램⁸⁾’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학 강좌 중에서 해외 파견 객원교수 운영은 한국어교육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며, KF 글로벌 e-스쿨

5) 김지혜, 이인혜(2020:69-72)에서는 최근 인도의 한국어교육은 대학 중심에서 세종학당 및 중·고등학교의 시범교육으로 확대되었다고 논하였다.

6)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에서 운영하는 KF 글로벌 e-스쿨은 해외 한국(어)학 교육 수요 증가와 ICT 기반 e러닝 확대에 따라 국내-해외 대학 연계 또는 해외 대학 간 컨소시엄을 통해 실시간 및 VOD형 온라인 한국(어)학 강의와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https://www.kf.or.kr/kf/cm/cntnts/cntntsView.do?mi=1194&cntntsId=1364>)

7) 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강좌 분야별 수신강좌 수 추이를 보면 팬데믹 시기인 2020년부터도 수신 강좌 수가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좌 분야별 수신강좌 수 추이 (출처: <https://www.kf.or.kr/koreanstudies/globalESchoolCS.do>)

8) KF 글로벌 e-스쿨 프로그램에는 크게 국내-해외 연계형 e-스쿨, 해외컨소시엄형 e-스쿨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내-해외 연계형 e-스쿨은 실시간형 e-스쿨과 VOD형 e-스쿨의 두 가지 형태로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수업은 실시간형 e-스쿨 형태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다.

은 해외 한국어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KF 글로벌 e-스쿨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해외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강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국제교류재단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보면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⁹⁾. 2023년 자료에서 인도의 상황을 보면 사회과학 분야 중 한국(어)학 분야에서 자왈할랄 네루대학교와 크라이스트대학교에서 한국학과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본 연구 대상인 마니푸르대학교에서는 한국어 분야로 KF 글로벌 e-스쿨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KF 글로벌 e-스쿨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관련된 연구는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전세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늘었다(박종웅 외, 2022:3). 이는 한국어를 단순히 배우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도 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인도의 대학에서도 한국어과를 개설하여 한국어과 전공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 즉 이들은 향후 한국어 전문가나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해외에서의 한국어학과 전공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된 시점이다. 따라서 인도에서의 한국어교육 상황, 인도의 외국어교육 정책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뉴노멀 시대에 들어서면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해외의 한국어 전공 학습자들이 전공 교과목을 직접 한국에 가지 않고도 KF 글로벌 e-스쿨 프로그램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비용적인 측면이나 현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KF 글로벌 e-스쿨 프로그램 운용과 관련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인 마니푸르대학교는 2022년 9월학기에 중앙대학교와 KF 글로벌 e-스쿨 프로그램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한국어과 2학년을 대상으로 중급 한국어 글쓰기 강좌를 시작하였다. 2023년 9월학기까지 세 학기를 운영하였고, 2024년 3월학기에도 강좌는 계속될 예정이다. 인도 북동부 임팔에 위치해 있는 마니푸르대학교는 ‘인도의 작은 한국’이라 불릴 정도로 동양인에 가까운 외모와 한국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¹⁰⁾. 언어는 공용어인 영어로 소통을 하고, 학생들은 한국 관련 회사 취직이나 유학, 한국어교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KF 글로벌 e-스쿨 프로그램의 수업 사례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수업 사례를 통해 인도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특징을 파악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아울러 수업 사례를 통해 인도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내고 한국어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여 인도에서의 한국어교육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1 인도의 한국어 교육

인도는 다인종, 다민족, 다언어 국가이며, 나라에서 인정한 공용어가 22개에 달한다¹¹⁾. 대

9) KF 동계센터 참조(<https://www.kf.or.kr/koreanstudies/globalESchoolRS.do#none>)

10) 2023년 2월에 열린 중앙대학교 KF Global e-스쿨 현지파트너대학 Webniar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표적인 언어가 힌디어이며 영어도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¹²⁾.

인도에서의 한국어교육은 1970년대로 거슬러갈 수 있다. 네루대학교에서 시작하여 현재 20여개의 대학에서 한국학 관련 수업이 열리고 있다(김도영, 2015:54). 2020년에는 인도 정부의 새 교육정책에 따라 중·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어 열풍이 다소 늦게 시작되었으나,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류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어 인기는 급속도로 높아졌다¹³⁾.

인도에서의 한국어교육 연구는 이러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비해 미비하다¹⁴⁾. 김운주(2021)에서 인도에서의 한국어교육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정리하여 분석하였는데, 전반적인 인도의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와 오류 분석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앞으로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인도 학습자 변인, 교수법, 교재개발, 교육과정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응아이테 랑칸쿱(2021)을 통해 인도에 있는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인도 대학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자격증 과정, 한국에서의 전문학사에 해당되는 디플로마, 고급 디플로마와 전공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22곳 이상의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정연희, 김호정, 2022:388). 지리적으로는 델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내용으로는 네루대와 델리대를 동심원적으로 각 주변 대학교로 파급되어 발전하였다(허예인, 조현용, 2021). 네루대학교와 델리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이 학문적 정책적으로 큰 성과를 내는 데 기여했고, 인도 내 한국(어)학 연구의 기반을 이루었다(김운주, 2021:2628).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교육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세종학당이 개설되어 현재 인도 내에는 8곳의 세종학당이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수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정연희, 김호정, 2022:388). 또한 인도의 제2외국어 정책에 따라 2021년 20여개의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시범 운영됨과 동시에 한국어의 위상은 높아졌다(정연희, 김호정, 2022:388). 이와 관련하여 정연희, 김호정(2022:392)에서는 중·고등학교 제2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매개 언어에 대해 조사한 바, 한국어 사용, 한국어와 영어 혹은 힌디어 사용, 모어 혼용 등 다양한 양상을 보였고, 계급 사회의 영향으로 교수자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한국어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논하였다.

2.2 KF 글로벌 e-스쿨 프로그램

국제교류재단(Korean Foundation)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

11) 2001년 인도 인구조사에 따르면 122개의 주요 언어와 1,599개의 기타 언어를 사용하는 단언어 국가이며, 아리아인, 드라비다인, 니그리토인, 몽골인, 알파인 등의 다양한 인종과 3,000개 이상의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이다(정연희, 김호정, 2022:384).

12)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B%8F%84%EC%9D%98_%EC%96%B8%EC%96%B4

13) 박종웅 외(2022:14)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류 동호회 회원 수의 변화에서 인도는 2017년 217,639명, 2018년 511,998명, 2019년 577,104명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 969,712명, 2021년에는 1,355,483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한 것을 통해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인도의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학술논문은 김재웅(2005), 학위논문은 나르자씽(2007)이 처음 발표되었다. 김재웅(2005)에서는 인도의 한국어 교육 전반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 방안을 제언했고, 나르자씽(2007)에서는 말하기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했다(김운주, 2021:2631).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교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박종웅 외, 2022:85-90). 한국어 교육에 대한 주된 사업으로는 한국(어)학 교수직 설치, 현지 교원 고용 및 객원 교수 파견, KF 글로벌 e-스쿨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한국어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KF 글로벌 e-스쿨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논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으나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영희(2015), 이영희, 데위 실비아 리아디나(2021)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실시간 원격 화상 수업’이라고 하여 수업 사례를 논하였다. 이영희(2015)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기 전인 팬데믹 시기 이전의 수업 사례를 통해 그 당시 온라인 교육의 상황을 분석하였는데, 숙명여대-쿠웨이트대와의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 프로그램을 사례로 하여 수업 운영 등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영희(2015)에서 수업 운영에 대해 살펴보면, 수업은 화상 강의 시스템이 갖춰진 강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정실이 있어 기술 조교가 수업 진행을 도왔다고 한다.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구글 블로그, 네이버 카페, 이메일 등을 보조 프로그램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한편, 이영희, 데위 실비아 리아디나(2021)는 인도네시아 UPI대를 대상으로 한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 만족도를 통해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영희(2015)와 이영희, 데위 실비아 리아디나(2021)의 연구는 사례를 통해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영희(2015)에서는 시스템의 안정화, 학습자들의 요구 조사를 통한 교육 과정 분석, 실시간 화상 원격 한국어 교육에 적합한 교재 마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추구를 제안하였다. 이영희, 데위 실비아 리아디나(2021)에서는 실시간 원격 화상 교육이 강의실 접속형이면서도 개인 데스크톱과 전체 학습자를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있는 형태의 교육 환경 제시, 교수실재감을 높이면서 교수 촉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LMS의 구축, 교재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점인 부분은 교재 개발이며, 팬데믹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시스템의 안정화, 그 이후에는 LMS 구축을 제안했다는 점이 두드러진 차이라 할 수 있다.

3. ‘중급 한국어 글쓰기 1’ 수업 설계

이 연구의 대상인 인도 마니푸르대학교는 2012년에 한국어과(Korean language)가 개설되어 인도의 한국어과 전공이 있는 대표적인 5대 국립대학교 중 하나이다¹⁵⁾. 마니푸르대학교가 있는 지역 언어는 마니푸르어이지만 학생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 여러 언어를 구사하므로, 주로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한다. 마니푸르대학교가 있는 지역의 TV 방송에서는 한국의 ‘아리랑 TV’를 송출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한국어 듣기가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한류의 높은 관심과 한국어 듣기에 익숙하여 학생들은 쓰기 능력에 비해 한국어 듣기와 말하기 수준은 약간 높은 편이다.

‘중급 한국어 글쓰기 1(Intermediate Written Expression- I) 강좌는 6학점으로 16주 동안 주 2회 1시간 30분씩 운영되었다. ZOOM을 통해 교실에서 학습자들은 집합 형태로 수업에 참여했다. 한국어과 2학년이 된 학습자 28명을 대상으로 중급 수준의 글쓰기 수업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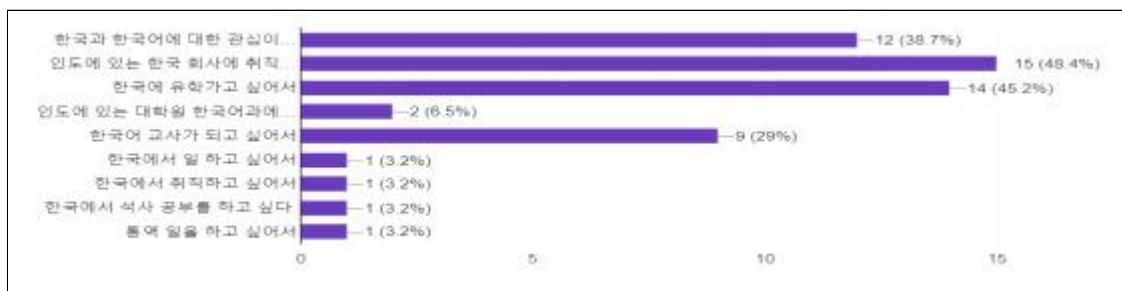
15) 한국어 관련 수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학교는 1976년에 시작된 네루대학교를 비롯하여 델리대학교(Delhi University, 2001년), EFLU대학교(English and Foreign Language University, 2010년), 마니푸르대학교(Manipur University, 2012년), 자르칸드대학교(Central University of Jharkhand, 2012년), JMI(Jamia Millia Islamia, 2018년) 등이다(응아이테 랑칸쿵, 2021:1).

한 것이다. 2학년으로 진급하기 전에 이미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한국어능력시험 급수를 1~4급 까지 골고루 취득하고 있어 적어도 초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수업 중에는 가급적 한국어로 설명을 하였고, 수업 부자료나 학생들에게 배부할 자료에는 영어로 설명을 덧붙였다. 수업의 주된 플랫폼은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이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업 자료 제공과 과제 제출 및 피드백 등의 상호작용을 하였다. 평가는 16주차 기말 시험에 지필 시험을 실시하였고, 과제 및 평소 수업 참여도 및 출결 점수를 반영하였다.

3.1. 학습자 요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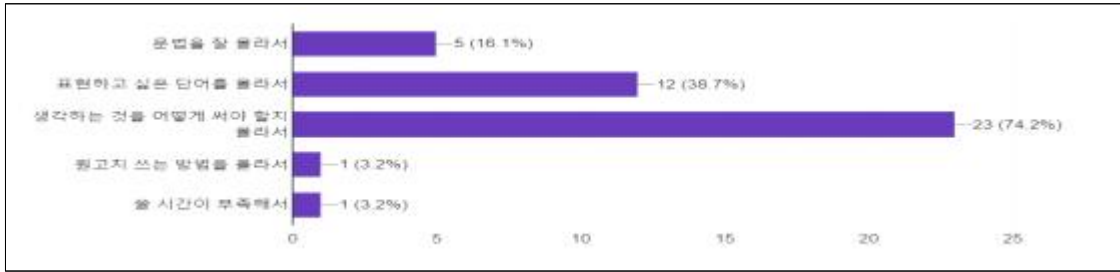
강의에 앞서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수업이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해야 한 학기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거리상의 제약으로 학생들의 수준이나 요구 사항을 가늠할 수 없었으므로 수업 첫 시간에 강의에 대한 안내를 한 후 학습자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출석부의 명단으로 성별 구분이 안 되었고, 한국어의 수준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주관식 문항에서 한국어로 글을 쓰게 하여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였다. 문항은 성별 및 구사할 수 있는 언어, 한국어능력시험 취득 급수, 향후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여부, 한국어과를 전공하는 이유, 한국어 공부의 흥미도, 자신 있는 영역(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가장 어려운 영역, 글쓰기에서 어려운 부분, 수업 시간에 배우고 싶은 내용 등으로 구성하였다.

28명의 학생 중 4명이 남학생이고 24명이 여학생이었다. 구사할 수 있는 언어로는 힌디어가 가장 많았으나 영어와 힌디어, 영어와 마니푸르어 등 복수 언어를 선택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어능력시험 취득 급수를 조사한 결과 4급은 1명, 3급은 2명, 2급은 24명이었으며, 추후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8명 전원이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다. 한국어과를 전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림1]과 같이 인도에 있는 한국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한국 유학,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 한국어 교사 희망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전공 과목에 대한 흥미도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가 59.2%로 과반수가 흥미있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1] 한국어과 전공을 하는 이유

한국어 학습과 관련하여 쓰기가 어렵다고 답을 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쓰기 중에서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다음 [그림2]와 같은 답이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어휘나 문법의 용법을 어려워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2] 한국어과 전공을 하는 이유

마지막 질문인 쓰기 수업 시간에 배우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지 쓰는 법부터 강의계획서에 있는 주제와 내용 전부를 배우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요목을 재설계를 하였고, 강의계획서를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3.2. 강의 주제 및 내용

본 강좌는 원고지 쓰는 법을 익히고 설명하는 글과 서사적 글을 문어체로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교재는 ‘경희한국어 글쓰기3’을 기본으로 하고,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과 첫 수업의 자기소개 쓰기 통해 보완되어야 할 내용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경희한국어글쓰기3’의 교재 구성은 준비학습, 한국어 쓰기의 기초, 설명하는 글 쓰기, 서사적인 글 쓰기로 총 다섯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교재의 선정과 진도는 학교 측에서 운영하는 대로 학교 방침에 따랐다. 수업의 주제와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중급 한국어 글쓰기 수업의 주제 및 내용

주차	단원	수업 주제 및 내용
1	오리엔테이션	• 자기소개 쓰기 및 학습자 요구 분석
2		
3	[Chapter 1 준비학습]	• 쓰기 선호도 조사, 좋은 글의 요건 • 글쓰는 순서와 방법 • 원고지 쓰는 방법
4		
5	[Chapter 2 한국어 쓰기의 기초]	• 문장 확대하기 • 틀린 문장 고치기 • 단락 완성하기 • 바꿔 표현하기
6		
7	[Chapter 3 설명하는 글 쓰기]	• 설명문 개요 쓰기 • 설명문에 필요한 기능별 쓰기 • 단락 쓰기
8		
9	[Chapter 4 서사적인 글 쓰기]	• 서사적인 글 개요 쓰기 • 서사적인 글에 필요한 기능별 쓰기 • 단락 쓰기
10		
11	설명하는 글 고쳐쓰기	• 설명문 피드백 및 고쳐쓰기
12	서사적인 글 고쳐쓰기	• 서사적인 글 피드백 및 고쳐쓰기
13	총 복습	• 기말 고사 대비 복습
14		
15	기말시험	
16		

본 교재는 한 학기에 다루기에는 양이 적었으므로, 교재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이나 문법적인 지식과 관련된 자료는 자체 제작하여 사용했다. 학생들에게는 원고지 쓰는 법, 격식체(-ㅂ/습니다), 서술체(-ㄴ/는다) 등 문어체와 구어체의 구별과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 따라서 3주차까지는 집중적으로 원고지 쓰는 법과 문어체 쓰기를 다뤘고, 4~6주차까지의 주제인 ‘틀린 문장 고치기’와 ‘바뀌 표현하기’ 등은 본 교재로 진행하였고, 부수적으로 적절한 조사 쓰기,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표현 등의 보충 자료도 추가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4. ‘중급 한국어 글쓰기 1’ 수업 사례

4.1. 수업 운영

본 강좌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ZOOM을 통해 접속을 하고 학생들이 강의실에 일렬로 앉아 칠판 쪽의 빔 프로젝트로 교수자의 얼굴을 보거나 강의 자료를 보면서 수업을 들었다. 강의실의 모습은 [그림3]과 같다. 교수자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였고, 현지의 와이파이 상태 변화와 여러 교실 환경 요인으로 인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ZOOM에 접속하여 듣기도 하였다. 시차는 3시간 30분이므로 현지에서는 오전, 한국에서는 오후에 이루어졌다. 과제 제출이나 시험 시간 등 학생들과 시간 약속을 할 때는 시간 확인이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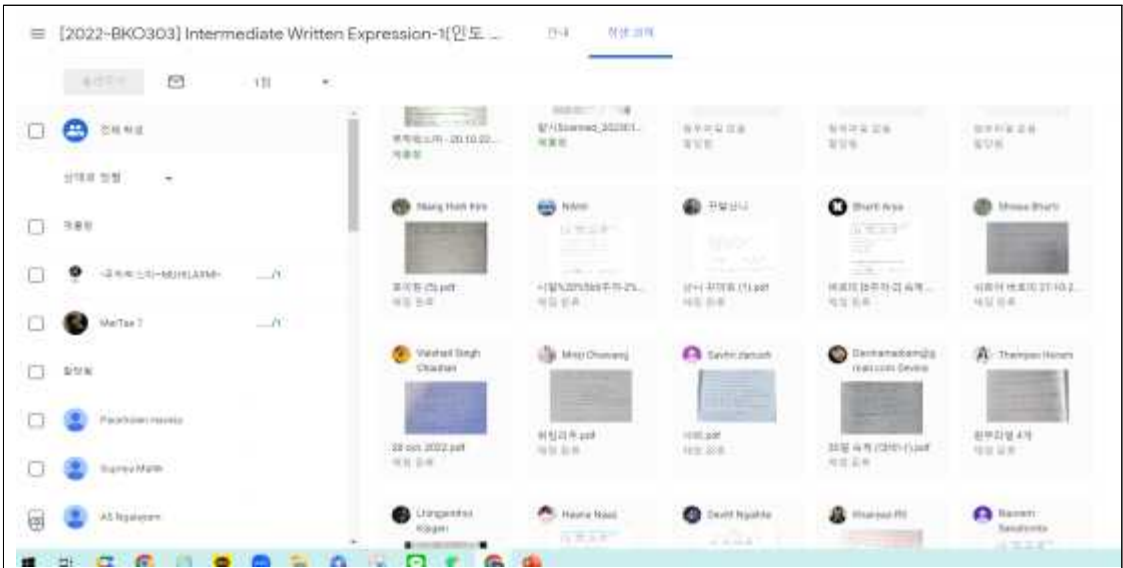
[그림3]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실례

[그림3]과 같은 수업에서는 학생 중심의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는 패들렛(padlet)을 주로 이용하였다. 질문에 대한 개별 답을 듣고 싶었으나, 멀리 앉아 있는 학생의 소리는 잘 안 들렸고, 각자 접속한 ZOOM의 마이크를 켜면 소리 울림 현상이 있어 매끄러운 수업 진행이 안 되었다. 한 명씩 앞에 나와 답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어진 분량의 내용을 소화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주로 패들렛과 구글클래스룸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상호작용하였다. 그 예는 [그림4]와 같다. 패들렛의 링크를 전송하여 각자 업로드하고, 학생들끼리 답글로 서로 소통을 하였고, 교수자도 답글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였다.



[그림4] 상호작용을 위한 교실 활동

수업 시간에는 교수자가 설명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학생들의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루어졌다. 매주 과제를 부여하였고, 학생들은 주어진 기일에 맞춰 업로드하도록 하였다. 1차 피드백에서는 틀린 부분에 표시만 하고 답을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고치게 하였고, 1주일 후 학생들이 피드백 결과에 따라 2차 쓰거나 다시 쓰기를 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림5] 과제 피드백의 실례

학습자들은 적극적으로 교실 활동이나 과제를 수행하였고, 교수자의 지시에 잘 따라주었다. 이러한 반복적인 활동으로 개강보다 종강 때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6]이 그 예이다.

해 기계적인 장치를 확인하거나, 수업 영상을 저장하고 발송하며,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학습자들을 모니터링해야 하므로 기술적인 훈련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실시간 온라인이라는 매개를 통해 드넓은 세계에 한국과 한국어를 알리고, 학습자들과 친숙하게 상호작용을 하여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제는 해외의 한국(어)학과 전공자들이 모국에서 한국을 알리고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자리매김할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물리적·공간적 제약으로 한국에 직접 유학을 오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제공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이에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KF 글로벌 e-스쿨과 같은 프로그램 운영과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의 대학들과 MOU를 체결한 KF 글로벌 e-스쿨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과목도 다양하게 운영되어 왔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선행 연구를 통해 KF 글로벌 e-스쿨 프로그램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온라인 교실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온라인 수업에 최적화된 교실이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겠지만 와이파이나 컴퓨터 구비 등 온라인 수업에 반드시 필요한 장치 점검이 요구된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는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특히 개인별 화상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의 모니터를 보면서 듣는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개별 피드백을 주기 힘들다. 따라서 교수자-학습자와 학습자들끼리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장치 및 LMS의 마련이 필요하다. MOU를 체결한 대학 간에 이미 개발된 LMS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수업에 적합한 활동들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도 대학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해외 대학교의 한국어과 전공에 적합한 교재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통 한국의 대학 부속 기관에서 개발한 200시간용 교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학과 전공자로서 한국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넷째, 평가 중 지필시험에 관한 것이다. KF 글로벌 e-스쿨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한 학기에 1회 정도는 오프라인 수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기말 시험 기간에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글쓰기 시험에서는 많은 분량의 답안을 써야 한다. 이를 현지에서 스캔 작업을 거쳐 PDF 파일로 받고 한국에서 교수자가 채점을 한 뒤 채점 결과물을 보내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렇게 양 학교 관계자들의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는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도 할 겸 시험 감독 및 채점 마무리를 위해서 오프라인 수업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지금까지 인도 마니푸르대학교의 온라인 실시간 수업 사례를 통해 인도의 교육 현황과 KF 글로벌 e-스쿨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습자 요구 분석을 통해 인도 학습자들의 특성을 알 수 있었고, 수업 사례를 통해 인도에서의 한국어 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의 특성이나 교육과정과 교재와 관련된 논의를 구체적이지 못하였으나, 향후 인도에서의 한국어교육 연구, 그리고 KF 글로벌 e-스쿨 프로그램과 같은 온라인 실시간 수업 연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김윤주(2021), 인도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인문사회21 12-4,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pp.2625-2638.
- 니르자쌍(2006), 인도에서 한국어 교육 인도 학습자 중심으로,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pp.325-343.
- 박종웅 외(2022), 국외 한국어교육 교류협력망 구축 및 활용 방안 수립, 국립국어원 사업보고서.
- 응아이테 랑칸쿱(2021), 인도 대학 한국어 전공 교육과정 개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금희(2021), 신남방 국가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28-169.
- 이영희(2015), 실시간 원격 화상 한국어 교육에 대한 사례 연구, 돈암어문학 28, 돈암어문학회, pp.413-437.
- 이영희, 데위실비아 리아디나(2021), 실시간 원격 화상 한국어 어휘론 교육에 대한 사례 연구: KF 글로벌 e-스쿨 인도네시아 UPI대를 중심으로, 횡단인문학 9-1, 숙명인문학연구소, pp.233-263.
- 정연희·김호정(2022), 인도 중·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 현황, 쟁점과 과제 연구, 새국어교육 - 131, 한국국어교육학회, pp.379-412.
- 한재영·조현용·이금희·유해준(2020), 2020 해외 한국어 교육 현황 및 지역별 세종학당 역할 확대 방안 연구(신남방 국가 중심), 세종학당 사업 보고서.

<인도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발전 방향 연구 - KF 글로벌 e-스쿨 프로그램의 한국어 글쓰기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보현(가천대)

이 연구에서는 실제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해 그간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비교적 성과가 부족했던 인도 학습자와 학습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관찰과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써 교육 대상의 측면에서 한국어교육 연구의 저변을 넓히고 다양한 학습자와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에 기여했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한국어교육 현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데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연구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본고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1.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인도 학습자와 학습 환경’만의 특성에 대한 것입니다. 타 국가의 학습자와 학습 환경과 비교하였을 때, ‘인도’의 한국어교육이 가지는 특징이 있는지 선생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결론에서 말씀하셨듯이 인도의 실정에 적합한 교재나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보가 의미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고의 연구 대상인 ‘마니푸르대학교’의 학습자와 학습 환경은 지역적 특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도는 매우 넓은 국가인 만큼 이들이 인도의 교육 환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다음으로는 온라인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4.1절에서 보여주신 [그림 3]의 수업 장면을 보면, 국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수업과는 다른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급하셨듯이 학습자 활동과 교사 피드백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패들렛과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학습자의 참여도나 반응이 어떠한지, 교사가 유의할 점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쓰기 수업’ 사례이므로, 학습자들의 쓰기 학습과 성과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도 궁금하였습니다. 인도 학습자의 한국어 쓰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부분, 혹은 쓰기 학습 및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실 때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교수·학습 방안이 있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 학습자를 위한 쓰기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안을 위해 제언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인도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의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할 때 중점을 두거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혹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연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